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9. 4. 11.(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유창종, 곽노봉, 김태영(덕문),
노혁진, 박은경, 박정혜, 배제호, 오용섭, 이호열, 장경희,
진화수, 한경순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8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공 개
3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	공 개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4	국보 제172호 ‘진양군 영인 정씨묘 출토유물’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 개
5	보물 제778호 ‘청동은입사표류수금문향완’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 개
6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 개
7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 개
8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관련유물’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 개

【검토사항】 9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9	보물 제868호 성세창 제시 미원계획도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0	도기 연유인화문 향아리 일괄	공 개
11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	공 개
12	신편유취대동시립 권9~11, 31~39	공 개
13	고창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공 개
14	혼개통헌의	공 개
15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	공 개
16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명칭변경 예고>	
17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공 개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9-03-001

1.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가. 심의사항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미술사학회장으로부터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이 있어(‘16.12.28) 보존처리 포함 과학조사(‘17.5~‘18.9) 및 관계전문가 조사(‘18.11.2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19.2.14)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9.2.26~‘19.3.26)하고, 국보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237호(1963.1.21.지정)
- 명 칭 :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 소유자(관리자) :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35.6cm, 입지름 20.1cm, 굽지름 16.8cm.
- 재 질 : 도자
- 형 식 : 구경이 넓고 구연이 직립한 立壺 계열 長身 향아리
- 조성연대 : 993년(고려 성종 1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호는 청자 발생기의 제작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편년자료로 기물의 용도 및 용처, 제작자, 제작년도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원산리 가마 발굴을 통해 제작 가마까지도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국보로 승격하여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거기준>

1. 현존 초기청자 가운데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유일한 항아리다. 형태의 크기, 태토의 우수성, 명문 등이 인정된다.
2. 명문은 상기 내용과 특징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제작년도, 사용 장소, 항아리의 용도, 제작자 등의 내용을 알리고 있다. 더욱이 1990년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전축요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됨에 따라 본 항아리의 제작지까지 파악되었다.
3. 따라서 절대적인 학술적 가치와 완전한 형태의 고려 초기의 제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명문에 있는 최길희, 왕공탁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기에 더욱 국보로 승격 보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 있음

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237호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학술적 측면에서 볼 때 현전하는 고려청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국보로 승격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근거기준>

- 초기 청자 중 명문을 통해 제작연대, 사용처, 대상, 용도, 제작자, 제작지, 생산지 등을 알 수 있는 대표적 편년자료임.
- 고려 초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유교를 통해 중앙집권을 이루고자 했던 성종의 통치 철학이 반영된 자료임.
-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제기류와 일치하는 유물로 고려 초 왕실제기의 특징을 잘 알려주는 자료임.
- 고려 초의 제기 항아리로 희소성에서 유일한 자료임.
- 청자의 발생시점, 전축요의 폐요소점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국보로 승격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거기준>

상기 유물은 현전하는 초기청자 가운데에서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 항아리로 태토의 품질이 우수하고 그 기형이 비슷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형태이다. 또한 고려왕실의 제기로서 위엄과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조형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유물의 조형적 가치가 재평가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굽 안바닥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① 제작년도, ② 기명의 용도 및 사용처, ③ 제작자가 알려져 있었으나 1990년 황해남도 배천 월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순화’명 파편들과의 비교연구로 ④ 생산요장을 비롯한 다양한 제작여건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절대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향상되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직립된 짧은 頸部와 긴 胴體를 가지고 있는 長身の 항아리로 口脣은 상면을 수평으로 처리하였다. 동체 외측선은 肩部에서 다소 벌어지다 서서히 줄어들며 거의 직선으로 굽에 이르고 있다. 바깥으로 벌어진 굽은 따로 붙였는데 굽바닥에 고운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全面에는 失透性의 황색을 머금은 담갈색 청자유가 얇게 시유되었는데 미세한 빙렬이 있으며 여러 곳에 흘러내려 釉面은 고르지 못하다. 굽 안바닥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음각 명문이 돌려져있다. 고려의 태묘는 992년 준공되었으므로 명문에 의해 이 항아리는 태묘가 준공된 이듬해인 993년에 태묘의 제 1실에 소용되던 제기이며, 최길희

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항아리는 성형시 이례적으로 물레 위에 평편한 바닥판을 놓고 흙띠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 전통적인 테쌓기 기법으로 성형하였으며 외면은 整面하여 매끄러운데 반해 안쪽에는 물레흔적이 남아있다. 동체 상부에 소성시 다른 그릇과 붙은 것을 띠 흔적이 있으며, 경부 일부에 수리복원 흔적이 있으며, 동체와 굽에도 비교적 긴 균열이 있다.

1990년 황해남도 배천군 圓山里 가마터에서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라는 음각 명문을 바닥에 새긴 豆形祭器를 비롯한 여러 편의 순화3년명편이 발굴되어 이 항아리 역시 동일 가마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현 상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문양이 없는 장신호로서 구연이 넓고 직립되어 있으며 어깨 형태가 거의 없는 유선형이다. 치밀질 유백색의 밝은 태토는 육안으로 관찰할 때 청자와 백자의 경계선에 있다. 성형은 바닥판에서 흙띠를 쌓아올리는 테쌓기 수법으로 물레를 회전시켜 성형했고 표면은 물손질(整面)하여 외면이 매끄럽다. 안쪽에도 물레자국이 남아있다. 굽은 편평한 바닥면 둘레에 가느다란 흙띠를 붙여 굽을 만든 높이 1.5cm 가량의 안굽으로 굽 접지면에는 백색 내화토를 고르게 바르고 번조했다. 바깥으로 살짝 벌어져 굽은 안정감을 준다.

유면은 전체적으로 녹갈색을 띠는 반투명 유약을 고르게 입혔고, 회유계(灰釉系) 유약의 특성에 따라 유층이 얇고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다. 유면에는 광택이 은은하고 미세한 빙열이 있으며 굽힌 흔적이 보인다. 몸체 상단 한쪽에는 제작 시 기물이 붙은 것을 떼어내면서 생긴 자국이 6cm 가량 남아있다. 굽 안 바닥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며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명문을 음각하였다.

○ 내용 및 특징

대형 제기 항아리로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편년자료이다. 중국 절강성 월주요의 기술이 도입되어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소재 가마에서 제작된 항아리로 확인되었다. 당시 신기술인 자기식 물레성형기법과 도기식 성형기법을 두루 사용한 점은 토착의 전통 기술위에서 신기술을 접목시켰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특징 : 굽 안바닥면에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의 18자는 계사년인 순화4년(993)에 태묘 제1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는 내용이므로 제작년대, 기물의 용도,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는 편년 학술자료라는 특

정이 있다.

고려의 태묘는 성종 11년(992) 12월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서 준공되었고, 이 향아리는 태묘 조성 직후 1실의 제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작을 주도한 장인 혹은 감독관으로 추정되는 최길회는 고려사회의 신분제와 공장제(工匠制)를 연구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圓山里) 벽돌가마(塼築窯) 발굴조사에서는 2호 4차 청자가마에서 두형(豆形)제기의 굽바닥에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亨器匠王公托造’라는 명문이 있는 제기가 출토되고 그 외에도 ‘순화3년(992)’명 파편 수점이 출토되었다. 이 곳 발굴은 1989년 6월부터 1990년 7월까지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주관으로 발굴했다. 명문의 내용은 순화3년에 태묘 제4실의 향기로서 장인 왕공탁이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와 그 체제가 동일하다. 따라서 국보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는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벽돌가마에서 제작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

○ 현 상

무문의 이 향아리는 구경이 매우 넓고 구경이 직립하였으며 어깨 상부의 지름이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형태를 하고 있다(사진 1-1, 1-2). 제작방법은 모래가 거의 없는 치밀질의 태토를 테쌓기 방식으로 성형한 까닭에 내면에는 점토대가 서로 잇대어 붙은 흔적이 보인다(사진 2). 태토는 색조가 매우 밝은 편으로 청자토와 백자토의 중간에 해당하는 철분 함량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에 가까운 구연의 상면부는 안쪽으로 살짝 도톰하게 살이 있으며 전체적인 기벽의 두께는 3.7~8.6mm 내외로 성형하였다. 이 향아리는 도기를 제작하는 성형법을 활용한 것으로 볼 때 굽은 성형 이후 따로 붙인 것이 확실하다. 외면에서 관찰되는 굽 부분은 살짝 벌어져 있으나 다리가 노출되지는 않은 반면, 굽 안쪽 내부에는 안쪽에 1.5cm 가량 직립한 굽다리가 확인되고 있어 다리를 붙인 후 내외면의 접합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3).

겉표면은 물질과 정면과정을 통해 매끄럽게 다듬었으며, 굽바닥 안쪽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亨器匠崔吉會造’라는 18자의 명문을 음각하고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여 번조하였다(사진 4, 5). 매우 얇게 시유된 유층은 전체적으로 미황색을 띠며, 표면에서는 미세한 빙렬과 사용과정에서 생긴 긁힘 흔적(스크래치)이 관찰된다(사진 6). 향아리의 외부 일부에는 시유 당시 유약이 아래로 흐른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유약을 썩은 후 유층을 정리하지 않은

채 번조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굽의 접지면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를 고르게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 1-1. 향아리 전면



사진 1-2. 향아리 배면



사진 2. 향아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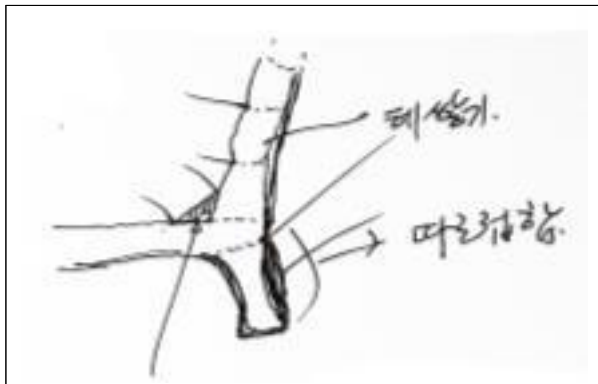


사진 3. 굽다리 접합상태



사진 4. 굽 내부의 명문



사진 5. 굽 내부의 명문 확대



사진 6. 동체부의 다른 기물 흔적

동체 어깨부의 한곳에는 변조과정에서 다른 기물이 붙었던 조각을 떼고 갈아낸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 6). 또 구연부로부터 동체 중앙부까지는 여러 조각으로 크게 깨진 파편을 접합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망실된 부위는 거의 없다. 현재는 보수를 통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 내용 및 특징

이 향아리는 고려 성종대에 시조인太祖를 비롯하여 선대왕들을 제사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宋朝에서 운영한 太廟제도를 본받아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다. 태묘는 성종 2년(983), 博士 任老成이 송으로부터 가져온 大廟堂圖, 大廟堂記, 社稷堂圖, 社稷堂記, 祭器圖, 七十二賢贊記 등을 기초로 989년 4월에 착공하여 992년 12월에 완성하였다. 성종은 993년 3월 중국의 예를 들어 惠宗, 定宗, 光宗, 景宗을 한 사당에 모시라 하였고, 994년 4월에 親父 戴宗을 제5실에 모시도록 하고하였다(『高麗史』 世家 成宗).

현종 말년인 1031년, 태묘의 수축 기사와 신주를 다시 봉안한 내용에 따르면 각 실에는 봉안된 왕과 배향공신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데 태조와 왕후는 1실, 혜종과 왕후는 2실, 정종과 왕후는 3실, 광종과 왕후는 4실, 부친 대종과 왕태후는 5실, 경종과 왕후는 6실, 성종과 왕후는 7실, 목종과 왕후는 8실로 규정하였다(『高麗史』 志15 諸陵 顯宗條).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이 향아리는 태조를 봉안했던 1실의 향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유물은 1989~1990년 사이에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유적 2호 가마출토품인 <순화3년명고배>이다. 이 고배는 발굴조사과정에서 2호 가마의 마지막 요업층인 가마바닥 최상부에서 발견되었다(사진 7). 동반품 중에는 ‘순화 3년’,

‘순화 4년’ 명 파편들이 여러 점 포함되어 있어 정황으로 볼 때 원산리 2호 가마는 순화명 청자와 동반품 제작을 끝으로 폐요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해준다. <순화3년명고배>는 굽 안바닥에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亨器匠王公托造’ 라는 동일한 패턴의 음각글자가 새겨져 있어 바로 원산리 요장이 고려 초 태묘에서 사용할 왕실제기의 제작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사진 8, 9).

이와 함께 가마의 축요재인 벽돌가마[塼築窯]의 존재와 상당한 두께의 퇴적층을 고려할 때 원산리 요장은 ‘순화명 청자류’ 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개시되었으며 우리나라 청자의 개시시점이 언제쯤인지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순화사년명항아리>가 갖는 학술적 의미는 다른 유물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



사진 7. 원산리 2호 요지



사진 8. 청자 순화3년명 고배



사진 9. 고배의 명문

○ 문헌자료

南秀雄, 「圓山里遺蹟と開城周邊の青磁資料」, 『東洋陶磁』 Vol.22, 東洋陶磁學會, 1992-1994.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國書刊行會, 1944.

李鍾玟,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

長谷部樂爾, 『陶器講座』, 雄山閣, 197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 1992.

○ 기 타

이 항아리는 1910년경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으나(長谷部樂爾, 1971), 누가 어떤 경로로 소장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노모리 켄(野守健)의 저서

(『高麗陶磁の研究』, 1944)에서는 伊藤槇雄의 유물로 소개된 바 있으며, 1957년에 와서 당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고 김활란 박사가 이 유물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재 지정에 관해서는 1945년 이전인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1963년 1월에는 보물 제237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 유물은 1981년 기존 처리재료의 노화로 응급처리 하였으나 결손부위의 노화와 채색층의 박락 등으로 인해 2017년 5월~2018년 9월 사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새로 보존처리를 의뢰하고 현재는 완료된 상태이다.

□

○ 현 상

상기 유물은 문양이 없는 장신호로써 구연이 넓고 직립되어 있으며, 몸통은 어깨 부분이 약간 넓은 유전형이다. 몸체는 미세한 기공이 있으나 비교적 치밀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대형기물임을 감안하면 태토의 품질이 좋은 편이다. 성형은 바닥판에 흙띠를 쌓아올리는 도기식 테쌓기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물레를 회전시키며 표면을 물손질(整面)하여 외면이 매끄럽고 항아리의 안쪽에도 물레자국이 남아있다. 편평한 바닥면 둘레에 가느다란 흙띠를 붙여 굽을 만들었는데 높이 1.5cm 가량의 굽은 바깥으로 살짝 벌어져 있어 그릇에 안정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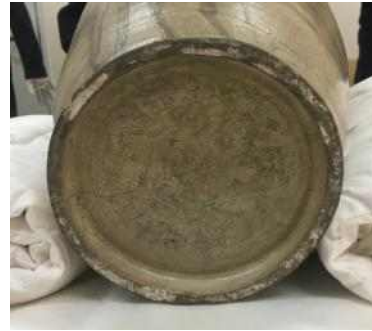
몸체 안팎으로 전면에 녹갈색을 띠는 반투명 유약을 고르게 입혔는데 나뭇재가 많이 섞인 회유계(灰釉系) 유약의 특성에 따라 유층이 얇고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다. 유면에는 은은한 광택과 함께 미세한 빙열과 군데군데 굵직한 듯한 사용흔이 보인다. 또한 몸체 상단 한쪽에는 그릇을 구울 때 옆에 있던 다른 기물이 붙은 것을 떼어내면서 생긴 자국이 길이 6cm 가량 남아 있다. 굽 안 바닥에는 가장자리를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명문을 가늘게 음각하였으며 굽 접지면에는 백색 내화토를 고르게 바르고 구웠다.

몸체 전면에는 구연부에서 크게 ‘人’자 모양으로 갈라진 곳과 굽언저리까지 길게 ‘J’자 모양으로 갈라진 곳, 구연부에 ‘V’자 모양으로 결손된 곳이 있으나 제작 및 사용당시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두 수리복원되어 그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사진 1)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사진



전체모습



굽안바닥 명문 및 접지면 내화토 받침



내면 테쌓기 흔적 및 상단 물레자국



유면 빙열과 사용흔, 다른 기물을 떼낸 흔적

○ 내용 및 특징

이 향아리는 월주요의 기술을 도입하여 만들기 시작한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하나로 알려진 유물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큰 크기이며 기형 또한 전례가 없다. 당시 신기술인 자기식 물레성형기법과 달리 도기식 성형기법을 사용한 것 역시 주목되는 점이며 그러면서도 굽을 따로 붙인 것은 의례용기로서 원형에 충실하여 단정함과 위엄을 살린 격식을 갖추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굽 바닥면에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계사년인 순화4년(993년)에 태묘 제1실의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는 명문이 있어 제작년대는 물론 기물의 용도,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즉, 고려의 태묘는 성종 11년(992) 12월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준공되었으므로 이 향아리는 태묘 조성 직후 1실의 제례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왕실 의례용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작을 주도한 장인 혹은 감독관으로 추정되는 최길회라고 하는 사람의 실명을 통해 고려사회의 신분제와 공장제(工匠制)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1989년 6월부터 1990년 7월까지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주관한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圓山里) 가마터 발굴조사에서는 2호가마 제4층에서 상기 유물과 유사한 ‘순화3년(992)’명 파편이 여러 점 발견된 바 있다. 출토품 가운데 두형제기(豆形祭器)의 굽바닥에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순화3년에 태묘 제4실의 향기로서 장인 왕공탁이 만들었다)’라고 새겨진 명문은 글짜를 새긴 방법이나 배치, 내용의 전개가 동일하여 <청자 순화 4년명 향아리>역시 원산리 가마터에서 제작되어 태묘의 제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

되었다.

(참고사진 2) 원산리 가마터 출토 두형제기



더욱이, 원산리 가마터에서 청자가마인 2호가마는 중국 월주요와 동일하게 벽돌을 쌓아 지은 전축요(塼築窯)이며 여기서 ‘순화’명 파편이 발견된 제4층은 이 가마의 운영 말기에 해당하는 최상층이다. 따라서 이 항아리를 포함한 일군의 ‘순화’명 청자는 중국기술이 도입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고려청자의 형식과 제작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기청자의 발생 및 변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기 타

상기 유물의 출토 등 발견경위는 정확치 않으나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그 존재가 드러나 조선총독부에서 보물로 지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57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구입·수장되었으며 1963년 1월 보물237호로 지정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입수 이전 이미 몸체의 균열과 구연의 결실부가 수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1981년 기존 수리 재료의 노화로 재발생된 균열부 이격 등으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응급보존처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9-03-002

2.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가. 심의사항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12.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5.3)를 실시하고 2018년 제9차 위원회(‘18.11.8)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지정명칭 및 지정수량 재검토 사유로 보류됨.
- 이에, 조사자 간 논의를 거쳐 지정명칭 및 지정수량에 대해 재검토하고 본 위원회에 다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19.2.1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9.2.26~‘19.3.26)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불교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9종 18점
청동북(1점), 금동 사자형 병향로(1점), 청동탑형향합(1점), 청동정병(2점), 청동이단합(1점), 금동가릉빈가상(1점), 청동발(2점), 청동뚜껑(2점), 청자완(7점)
- 규 격

[금속공예] : 총 8종 11점

연번	명 칭	높이 (cm)	입지름 (cm)	바닥지름 (cm)
1	청동북(靑銅金鼓)	15.2	너비 40	
2	금동사자형 병향로 (金銅獅子形 柄香爐)	7.4	길이 37.6	
3	청동탑형 향합(靑銅塔形 香盒)	18.0	8.6	
4	청동정병(靑銅淨瓶) ①	39.7		8.2
5	청동정병(靑銅淨瓶) ②	35.2		7.5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14.3	8.9	
7	금동가릉빈가상(金銅迦陵頻伽像)	4.3		
8	청동발(靑銅鉢) ①	11.1	20.3	
9	청동발(靑銅鉢) ②	9.8	20.7	
10	청동뚜껑 ①	4.3	22.2	
11	청동뚜껑 ②	4.3	19.4	

[도자] : 총 1종 7점

번호	유물명	굽형식	높이 (cm)	口徑 (cm)	底徑 (cm)	굽 접지면 폭(cm)
1	청자완 ①	玉璧底	6.2	16.5	6.8	2.3
2	청자완 ②	玉璧底	5.6	16.1~16.5	6.5	2.0~2.2
3	청자완 ③	玉璧底	5.2	16.2~16.4	6.6~6.8	2.1~2.2
4	청자완 ④	玉璧底	5.6	16.5~16.9	6.8~6.9	1.8~1.9
5	청자완 ⑤	玉璧底	5.9	16.7~17.2	6.8	2.3~2.4
6	청자완 ⑥	玉環底	6.0	16.7	5.8~5.9	1.3
7	청자완 ⑦	玉環底	5.8	17.5~17.7	6.3~6.5	1.3

- 재 질 : 금동, 청동, 도자
- 조성연대 : 8세기 중반~10세기 중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금속공예

○ (일부 지정 가치 있음)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은 8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유물이다. 그동안 이 시기의 금속 공예품들은 대부분 사찰이나 박물관 등지에 전해 내려오는 전세품인데 비해 인각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보기 드문 금속기명과 청자 유물들이 한꺼번에 공반 출토되어 편년자료이자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중요하다. 그중 사자형 병향로, 향합[탑형, 이단합], 정병 2점, 금고 등은 사찰에서 사용하는 청동제 의례용품들로서 조형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한편 금동 가룻빈가상은 그동안 출토예가 거의 없어 도상적으로 희귀한 것이고, 청동발과 청동뚜껑[접시]의 경우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기형으로서 공예기술적인 가치가 높다. 이처럼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들은 전세품이 아닌 제작시기가 분명한 곳에서 출토된 공반유물로서 지금까지 문헌기록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군위 인각사와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나 공예 기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군위 인각사 출토 금속공예품>

연번	명 칭	높이 (cm)	입지름 (cm)	바닥지름 (cm)	지정여부
1	청동금고(靑銅金鼓)	15.2	너비 40		가
2	금동 사자형 병향로(金銅獅子形柄香爐)	7.4	길이37.6		가
3	청동탑형향합(靑銅塔形香盒)	18.0	8.6		가
4	청동정병(靑銅淨瓶) ①	39.7		8.2	가
5	청동정병(靑銅淨瓶) ②	35.2		7.5	가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14.3	8.9		가
7	금동가룻빈가상	4.3			가
8	청동발(靑銅鉢) ①	11.1	20.3		가
9	청동발(靑銅鉢) ②	9.8	20.7		가
10	청동뚜껑 ①	4.3	22.2		가
11	청동뚜껑 ②	4.3	19.4		가
12	청동그릇편 각종	잔편	30.0		부

○(일부 지정 가치 있음)

고려시대에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인각사는 구산문도회가 열릴 만큼 그 이전에도 선종사찰로 유명했을 것이며, 바로 이곳의 승탑지에서 의도적으로 매납한선종승려의 호지물과 의식구, 공양구가 출토된 점은 당연한 점이라 사료된다.

청동금고 안과 주변에서 출토된 금속기 11건 14점, 월주요 청자 7건 7점 모두 18건 21점의 제작시기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사찰의 승탑지에서 출토된 점은 불교 매납의식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며 둘째, 청동정병과 청동사자진병향로 및 청동탑형향로는 선종승려의 호지물 조합 기명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라는 점에서 승려의 공양구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크다.

셋째, 불교의식구인 청동금고와 공양구인 청동기명들이 현존 유물보다 가장 이른 것일 수 있어서 통일신라 불교금속공예 연구의 기준작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청동정병의 세장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조형미, 청동사자진병향로나 청동탑형향합의 각 부분에 반영된 장인의 뛰어난 솜씨는 그 이전이나 이후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넷째, 청동금고를 제외한 청동불구들과 청동발의 유형은 당 8세기 기명들과 같아서 국제양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신라기명이 일본에 수출된 점은 통일신라 공예의 대외교섭사 연구(특히 ‘수용과 전파’)에 좋은 자료가 된다.

다섯째, 안압지 출토 햇무리굽 청자완들 보다 훨씬 유색이 좋은 월주요 청자들이 7점이 출토된 점은 통일신라사회의 청자수요를 알려줄 뿐 아니라 넓은 玉璧低, 좁은 옥벽저, 玉環底로 굽도 다양해 월주요 청자연구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와 같이 인각사에서 출토한 총 18건 21점의 유물들은 보존상태가完형인 것과 파손된 것도 있으나 한 장소에서 출토되었고, 통일신라 불교공예의 유형 및 국제성을 갖추고 있어 ‘군위 인각사 출토유물 일괄’이라는 문화재명으로 묶어 보물로 지정, 보존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 지정 가치 있음)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품은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후반부터 10세기 전반경까지 제작된 보기 드문 불교 공예품으로서, 병향로, 정병, 향합, 금고 등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 청동제 의례용품들이 한꺼번에 일괄품으로 발견된 중요한 예이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사자형 병향로와 정병, 탑형뉴합 등은 현존하는 예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평가되며, 보기드문 양식의 금고와 함께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교 금속공예품들은 대부분 사찰이나 박물관의 전세품으로 전해지던 것이므로, 편년이나 용도 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품은 함께 공반된 중국제 월주요 청자들을 비롯하여 어느 정도 상대편년이 가능한 유물들이 일괄품으로 발견되어, 각 공예품들의 제작 시기는 서로 다르더라도 매납된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10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유물들은 보기드문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던 불교 공예품들로서, 문화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병향로나 탑형뉴합, 정병 등은 유사한 예들이 일본 정창원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와 일본 나라시대, 그리고 중국 당나라때의 국제적 양식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 중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각사는 『삼국유사』를 찬술한 일연이 거주했던 고려시대의 사찰로 알려졌지만, 인각사 공양구 일괄품의 발견을 통해서 창건 시기가 적어도 통일신라시대로 올라감이 확인되었다.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품은 지금까지 문헌기록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군위 인각사와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다만, 일괄품 중에서 파손으로 인하여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제작 시기가 다소 불분명하며 복원이 어려운 청동그릇을 비롯한 일부 유물들을 모두 보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부 지정 가치 있음)

인각사 공양구들은 방형집석유구의 하부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고, 매납한 공양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양구 매납 사례 가운데 가장 이른 예에 해당한다. 특히 인각사의 공양구의 매납방식과 구성 등은 육조 혜능의 제자인 신회선사의 승탑 지하 석실에서 발견된 공양구와 거의 흡사하다. 신회선사탑의 공양구는 1982년 중국 섬서성 낙양에서 발견되었는데, 탑지에 의하면 758년에 입적하여 765년에 탑이 세워졌다고 하므로 발견된 공양구들은 765년이라는 절대 하한연대를 가지고 있다. 인각사지에서 발견된 공양구 대부분도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에 해당하는 것들으로써, 중국 선종 선사들에게 행해졌던 승탑 공양의식이 신라의 유학승들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된 바 없고, 공양구들이 발견된 방형집석유구에 대한 해석도 탑지인지 석탑지인지 구분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중국 신회선사탑의 예처럼 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불교 의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각사 공양구들은 아직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의 불교 의식과 관련하여 많은 단서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확한 조성 연대는 남기고 있지 않지만, 인각사 공양구는 의도적으로 마련된

공간 내에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채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한편 이들 공양구는 조형적으로 우수하고 시대적 특징도 잘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법도 우수하여 당대를 대표하는 최상급 유물들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도 드문 것들이어서 학술적 가치도 크다. 특히 청동 북은 현존 最古의 금고인 <함통 6년명 청동 북>에 비해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조형적으로도 진전된 양상을 보여줘, 함통 6년명 청동북의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청동 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청동 북’ 연구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동사자형병향로는 제작 기술이 뛰어나고 구성과 조형이 국내외 남아 있는 통일신라 柄香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준다. 청동 정병 2점도 통일신라 정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어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청자완은 월주요 계통의 碧玉底 청자로서,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주변에서 함께 출토한 청동유물 중 청동수반 편은 형태를 알 수 없을 만큼 잔편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동금고, 청동탑형향합, 금동가릉빈가상, 청동뚜껑 2점, 금동사자형병향로, 청동정병 2점, 청동발 2점, 해무리굽 청자완 7점만 일괄유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만 묶어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도자

○ (지정 가치 있음)

인각사 출토 청자완은 당대 월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월주요에서는 옥벽저굽 청자완은 8~9세기중엽에 유행하며 그 뒤를 이어 9세기 후반경부터 옥환저굽 청자완이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청자완은 당시 수입청자의 수요 양상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납된 금속유물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청동금고, 금동병향로, 청동정병 등 금속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유물 가운데 청자 옥벽저완 7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모두 중국산 청자이다. 발굴시 포개진 채 출토되어 동반유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함께 출토된 금속유물의 제작시기등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용측면에서 본다면 금속제로 출토된 정병등과 함께 세트를 이루어 차공양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들은 전형적인 중국 남방지역

(월주요계 추정) 청자완으로 높이 5.2~6.2cm, 구경 16.2~17.7cm, 굽지름 5.8~6.9cm의 크기이며 굽 접지면 넓이에 따라 2.0~2.5cm내외인 것과 1.3cm로 좁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옥벽저’계통으로 後者는 ‘옥환저(玉環底)계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현전하는 중국 유물가운데 비교할 만한 것으로는 현재 절강성 박물관소장의 唐의 ‘貞元十年(794)’명이 있는 청자완으로 유색이나 굽형식 등이 인각사지 출토완들과 유사하다. 한편, 五代의 天福4年(939) 馬氏皇后 康陵출토 청자완이 있으나 크기와 높이, 굽지름 등에서 작으며 특히 굽 접지면 너비가 좁은 후기스타일로서 국내의 10세기 초기청자 요장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다. 실제 가마터 출토품들의 시간적 변화과정과 비교하더라도 이들 청자완은 8세기말부터 10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국내출토 중국도자의 편년기준을 제공하며, 국내산 청자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자료들로서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지정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옥벽저형(玉壁底形) 청자완(靑磁碗)은 당(唐) 월주요(越州窯)에서 생산되어 8~9세기 중엽까지 유행했으며, 옥환저형(玉環底形) 청자완(靑磁碗)은 월주요에서 생산되어 9세기에 후반 경에 크게 유행하였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청자완 7점은 옥벽저형 5점과 옥환저형 2점으로 그 제작시기는 9세기 중엽~9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어 당시 중국청자의 수입 예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통일신라 8세기 후반~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비정(比定)된 靑銅淨瓶 등의 금속공예품과 동반 출토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청자완 7점은 당(唐) 9세기라는 제작시기가 분명하며, 옥벽저형과 옥환저형 청자완 연구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금속공예】



○ 현 상

본 유물은 2008년 군위 인각사 정비사업 발굴조사에서 1호 건물지 동쪽의 방형집석유구 한쪽에서 출토된 나말여초 시기에 사찰에서 사용하던 금속 공예품들이다. 출토유물 중 금속공예품은 모두 12점이다.

○ 내용 및 특징

1. 청동금고(靑銅金鼓) : 지정가치 있음

금고는 금구, 반자, 쇠북이라 부르는 범음구(梵音具)로서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이다. 인각사 쇠북은 청동으로 주조하여 비교적 크기가 크고, 앞면에는 34개의 꽃잎을 돌려져 있고, 뒷면은 일부 파손되었으나 지름 19.4cm의 커다란 공명구가 형성되어 있고, 원래 3개의 손잡이가 있는 형식이다. 현존 금고 중 가장 오래된 통일신라시대 함통 6년(865)명 청동금고와 형식적으로 유사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인 나말여초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져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있다.

2. 금동 사자형 병향로(金銅獅子形柄香爐) : 지정가치 있음

병향로는 긴 손잡이가 달린 휴대용 향로다. 인각사 병향로는 향로 몸체와 받침대, 손잡이, 여의두형(如意頭形) 장식판, 사자형(獅子形) 장식 등을 각각 주조해서 조립하였으며, 매우 뛰어난 주조기법을 보여준다. 병향로의 형식은 손잡이 끝 장식에 따라, 연미형, 사자형, 연봉형으로 나뉘는데, 인각사의 것은 그중 사자형 장식이 있는 사자형 병향로이다. 특히 인각사 금동 사자형 병향로는 리움이나 일본 정창원 소장 사자형 병향로와 양식적으로 유사한 8-9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이다. 제작기법이나 조형적 측면에서 현존하는 병향로 중 가장 우수하여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

3. 청동탑형향합(靑銅塔形香盒) : 지정 가치 있음

청동금고 내부에서 발견된 청동탑형뉴합은 나팔형 받침, 둥근 그릇형 몸체, 탑형 꼭지가 달린 뚜껑 등을 각각 별도로 만들고 리벳으로 조립한 것이다. 표면에 음각으로 동심원대를 묘사한 이외에 별다른 문양은 없다. 그동안 알려진 탑형뉴합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종종 제작되었으나 대부분 출토지가 불명확하였다. 이에 반해 인각사 청동탑형뉴합은 출토지가 밝혀졌을 뿐 아니라 내부에 타다남은 향이 발견되어 향합으로 사용도 확인되는 등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

4-5. 청동정병(靑銅淨瓶) 2점 : 지정 가치 있음

정병은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정수(淨水)를 담아 놓는 불교 의례용 공예품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오랜 기간 인도에서 전래된 독특한 기형이 만들어졌다. 그중 인각사 청동정병은 2점인데,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난다. 동체 위에 나팔형 목, 팔각형의 첩대가 형성된 주구(注口), 동체 한쪽 어깨 위에 짧은 목을 가진 별도의 구부(口部), 그 위에 여닫는 뚜껑 등 전체 형태는 유사하다. 인각사 정병 2점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점은 있으나, 출토지가 밝혀진 공반유물일 뿐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정병으로서는 매우 희귀한 작품으로 중요하여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 지정 가치 있음

청동금고 안에서 발견된 청동이단합은 뚜껑이 있는 2단의 원통형 향합이다. 뚜껑, 상단, 하단의 표면에는 모두 측면에 조밀한 음각선이 돌아가면서 장식되어 있으며, 그릇 위쪽의 구연부는 안쪽으로 도톰하고 하단 그릇은 안쪽 바닥에 얇은 굽이 형성되어 있다. 이 굽을 아랫단 위에 꽃아서 상하단의 그릇을 연결하고, 뚜껑 윗면에는 음각 동심원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청동이단합은 997년에 창건된 안성장명사(長命寺) 오층석탑에서 출토품을 비롯한 10세기 유적에서 종종 출토되는데, 인각사 유물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나말여초의 유물로서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

7. 금동가릉빈가상(金銅迦陵頻伽像) : 지정 가치 있음

가릉빈가는 불교에서 종종 표현되는 천상의 새로서,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을 한 상상의 동물이다. 인각사 가릉빈가는 피리를 불고 있으며 날개는 별도로 만들어 뒤쪽 축에 꽃아 붙였는데, 오른쪽 날개는 부러졌다. 본 유물은 그동안 발견된 적이 없는 도상이며 비록 크기는 작지만 해당 시기를 대표하고 기타 공양구와 공반 출토되어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

8-9. 청동발(靑銅鉢) 2점 : 지정가치 있음

비교적 크고 속이 깊은 청동그릇이다. 구연부는 외반했으며, 동체의 중간 부분은 능형으로 처리된 양각 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닥은 약간 외반한 낮은 굽이 있고, 내외부의 표면에는 얇은 동심원이 선각되어 있다. 그중 하나에는 바닥면에 “呑”과 비슷한 글자가 얇은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전체 형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행한 전형적인 금속기 형식의 하나로서 약간의 파손되거나 녹이

끼어 있지만, 공반유물로 출토되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

10-11. 청동뚜껑 2점 : 지정가치 있음

얇은 굽을 가진 접시 형태 2점은 합의 뚜껑일 가능성이 있다. 구연부는 외반한 후 끝 부분이 직각으로 처리되었다. 그릇은 문양이 없거나 있어도 간략한 선이 둘러져 있다. 비록 구연부와 몸체가 파손되거나 구멍이 나 있지만 당시의 접시형 그릇으로서 전형적인 금속 기형이며 공반유물로 출토되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

12. 청동그릇편 각종 : 지정가치 없음

파손상태가 심하여 그 원형을 알기 어려워 지정가치가 없다.

○ 기 타

군위 인각사 공양구 유물 일괄은 2008년 군위 인각사 5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1호 건물지의 남쪽이자 2호 건물지의 서쪽에 자리한 방형집석유구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일괄품으로 출토되었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방형집석유구는 통일신라시대의 탑지와 비슷한 구조물이라고 하며, 유물들이 발견된 공간은 그 유구의 모퉁이 부분에 기와편과 암막새를 이용하여 바닥과 벽체, 그리고 덮개를 설치한 곳이다. 이곳은 발굴 당시에는 승탑지로 추정했으나, 근래에는 현재 극락전 앞에 서 있는 삼층석탑이 옮겨오기 전에 원래 서 있던 곳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유구의 성격에 논란이 있다. 이처럼 인각사 불교 공양구 유물 일괄은 탑지의 사리공양구일 가능성도 있으나, 퇴장유구나 진단구의 성격도 보이는 등 모호한 편이다.

○ 참고문헌

佛敎文化財研究所, 『麟角寺 - 君威 麟角寺 5차 발굴조사 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군위군, 2011.

김진덕, 「군위 인각사지 5차 발굴조사 개보」, 『신라사학보』 15, 신라사학회, 2009

박지혜, 「경북 군위 인각사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2011.

이용진, 「통일신라시대 獅子鎭柄香爐 연구」, 『신라사학보』 19, 신라사학회, 2010

최응천, 「軍威麟角寺출토 佛敎金屬工藝品の 性格과 意義」, 『先史와 古代』 32, 2010.

□

○ 현 황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소재 麟角寺는 一然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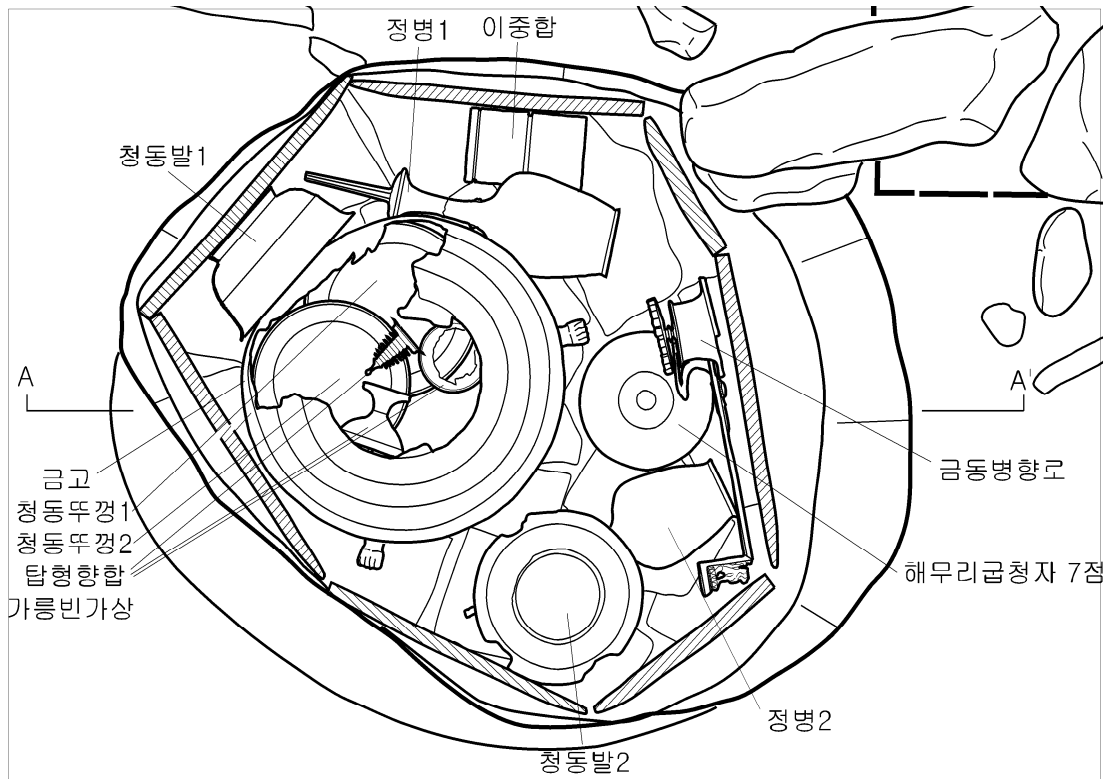
곳으로 경내에는 일연의 부도탑과 탑비(1295년 건립)가 있다. 비문에 의하면 인각사는 고려 충렬왕 10년(1284)에 일연의 하안소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禪宗系 승려들이 모여 법회를 여는 九山門都會를 2번이나 개최한 곳이었다.

2008년에 인각사 경내의 僧塔址로 추정되는 유구(지표 약 5cm 아래)에서 청동 금고 안에 청동탑형향합, 청동접시, 금동가릉빈가상 등이 담긴 채로 발견되었으며, 청동금고 주변에서 청동발, 청동원통형이중합, 정병 2점, 금동병향로, 중국 越州窯産 해무리굽(넓은 玉璧底, 좁은 玉璧底, 玉環底) 청자완 7점이 발견되었다.(도1)

일괄유물의 매납 방법은 땅을 원형으로 판 후 바닥에 기와를 깔고 벽에도 기와를 세워서 쌓았으며, 기물들을 매납한 후에 기와를 덮고 흙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승탑지 바닥을 다진 후 의도적으로 이런 佛具들을 매납한 이유는 승탑의 묘주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도면1. 참조]

출토된 일괄유물들은 총 18건 21점으로 금속기는 11건 14점, 청자는 7건 7점이다. 14점의 금속기들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불교 조합기명과 일상용기들인데, 일상용기는 불교에서도 공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불교 조합기명은 부처가 『摩訶僧祇律』, 『四分律』, 『五分律』, 『毘奈耶』 등 律部經典에서 가르친 ‘大乘比丘 18物’중 기본적인 4物만 추려 조합(세트기명)이 된 정병과 발우, 병향로와 향합이다. 이런 조합은 중국 남북조시기에 이미 정형화 되었는데, 1979년에 湖北省 當陽縣 長坂坡 古墓에서 출토한 조합기명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른 유물들이다.¹⁾

1) 宜昌地區考古隊, 「當陽長坂坡一號墓發掘簡報」, 『江漢考古』1983-1, pp. 57-59.



도면1. 불교 의식구 매납 복원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당양출토 정병은 북조식 정병인 광견형세장경이며, 병향로의 형태는 남북조식인 鵲尾形, 향합은 寶珠形 꼭지여서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도2) 당대에는 이 조합의 양식적 변화가 있는데, 즉 정병은 雙口形인 軍持 I 식(고려시대 정병 형태), 발우는 안으로 오므라든 넓은 구연부에 좁은 원형 기저부 형태의 斂口圓低形, 병향로는 손잡이 끝에 사자가 올려진 獅子鎭形, 향합은 뚜껑이 塔輪 모양인 塔形으로 변했다. 이런 조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神會墓 출토품들이다.(도3) 하남성 낙양시 용문 서산 寶應寺 내의 禪宗7祖 荷澤神會(684-760) 묘장에서 출토한 이 불구들은 탑비를 세울 때인 765년에 매납한 것이지만 신회가 생전에 사용한 것이어서 760년 이전에 제작되었으며, 가장 이른 선종선사 유물로 인정되고 있다.²⁾ 8~9세기 유물로는 호북성 隨州 東城에서 征集한 일괄유물로 병향로 로신의 전에 獅子鈕가 달려있어 손잡이의 사자와 함께 2마리의 사자가 있는 모양이 특징적이며, 일본 白鶴미술관 소장 金銅獅子鎭柄香爐도 이와 같은 모양이다.³⁾(도4) 또한 선종의 주요 傳布地인 강서성 瑞昌 范鎭 출토 병향로와 향합세트는 병향로의 손잡이 끝에 탑이 있는 塔式鎭柄香爐로 똑같은 예가 일본 동경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⁴⁾(도5)

2) 洛陽市文物工作隊, 「洛陽唐神會和尚身塔塔基清理」, 『文物』 1992-3, pp.64-67 및 p.75 ; 李學勤, 「禪宗早期文物的重要發現」, 『文物』 1992-3, pp.71-75.

3) 隨州市博物館 編, 『隨州出土文物精粹』, 文物出版社, 2008, pp.155-156.

4) 江西省 文物考古研究所 編, 『塵封瑰寶』, 江西美術出版社, 1999, p.104 ; 張翊華, 「析江西瑞昌發現的唐代佛具」, 『文物』 1992-3, pp.68-70.

이렇듯 대승비구의 護持物 중 정병, 발우, 병향로, 탑형향로가 조합기명으로 당대 8~9세기에 禪宗僧의 기본적인 공양구로 유행하였으며, 인각사 승탑지 출토 일괄유물들은 이 계열에 속한다. 특히 중국 禪宗승려가 호지하는 조합기명의 국제적 양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병과 청동발의 완숙한 조형미, 탑형향합과 향로의 리베팅 부분에서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수법을 보이고 있어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전해주고 있다.

2. 내용 및 특징

1) 청동금고

두께 15.2cm, 구경 40cm 크기인 이 금고는 儀式具로 안에 매납유물이 담긴 채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 금고로는 함통6년명(865) 청동북(보물 제1907호)이 유일한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다.(도6, 8) 그런데 2개의 금고는 일반적인 고려시대 금고보다 기복이 두툽한 편인데 전면에 문양의 유무와 현수하기 위한 고리모양이 달라서 어느 것이 선행작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인각사 금고는 내구 중심에 마치 당 좌처럼 연판문이 양각되어 있고, 외구는 2줄의 굵은 선을 장식해 공간을 3분한 모양이다. 연판문 장식은 5세기에 축조된 고구려 약수리 고분 벽화에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도7) 금고 뒷면 공명구는 많이 부서진 상태이며, 주조 시 용탕이 새어 떡지로 붙은 흔적도 있고, 측면에는 鑄型이 일부 무너져 이를 때운 듯 커다란 흔적이 남아있다.(도8) 측면에는 원래 황으로 관통하는 고리가 3개 있었는데 현재 2개만 남아있다. 반면, 함통6년명 청동북의 고리는 보주형의 중앙에 구멍이 있어 앞뒤로 끼우는 방식이다.(도9) 인각사 금고는 연판문 중앙에 붙어있는 주조 후의 피막 같은 검은 떡지와 공명구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떡지, 파손된 공명구 모양을 고려하면 사용하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2) 청동정병 2점

정병1 : 높이 39.7cm, 저경 8.2cm / 정병2 : 높이 35.2cm, 저경 7.5cm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정병형태(軍持 I 식)인 이 유물들은 1점은 완형, 1점은 목부분이 파손된 채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검은 빛을 띄고 있으며 가늘고 긴 八角尖臺와 긴 목, 둥근 어깨에 뚜껑 달린 流(물을 넣는 注口)가 붙은 몸체로 구성된 細長形 정병이다.(도10) 군지형 정병은 주구가 2개인 쌍구형으로 원래 인도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병을 입에 대지 않고 가늘고 긴 병목을 손에 쥐고 올려서 긴 침대로 가늘게 흘러나오는 물을 입안에 따라 넣기 위해 고안된 유형이다. 流에 경첩이 달린 이유는 벌레가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하

기 위해서이다.

가장 이른 중국유물로는 낙양시 용문 安菩墓에서 출토된 백자정병(709년 이전)이 있으며, 서안 경산사지에서 출토한 석조사리감(741년)의 左面 八王分舍利 장면에도 조각되어 있다.(도11) 금속제로서 인각사 정병과 같은 예는 하택신회 묘탑에서 조합기명으로 출토한 것인데, 신회의 정병은 침대가 분리되는 형식(4)만 다를 뿐이다.

군지형 정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法藏賢首(643-712)가 勝詮을 통해 義湘(625-702)에게 전달한 ‘西國軍持澡罐(雙口形)’이 가장 이른 예이므로 7세기 말로 추정된다. 이후 석굴암의 범천상이 이런 정병을 들고 있어서 8세기에는 멀리 인식된 새로운 유형이다.⁵⁾ 대표적인 유물로는 부소산 출토 정병(9세기)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 삼척 흥전리사지에서는 인각사 청동정병과 線形이 유사한 2개의 청동정병이 출토된 바 있다.

인각사 정병 2점의 제작기법은 구조한 후 류와 밑판을 밖에서 땀하여 붙인 방식인데, 날렵한 침대와 가늘고 긴 목이 몸체에 느슨한 ‘ㄱ’자형 곡선으로 연결된 몸체에서 原型제작부터 구조과정까지 빼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 유물들은 흥전리 정병 2점과 함께 출토지가 분명한 통일신라 정병으로 선종승려의 호지물이라는 점에서 공양구 및 불교사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있다.

3) 금동병향로

높이 7.4cm, 길이 37.6cm인 이 병향로는 금고 주위에 햇무리굽청자 7점과 청동완, 정병과 함께 매납된 것이다.(도12) 전의 일부가 깨진 로신과 끝에 사자가 장식된 긴 손잡이가 연결된 형태인데 연결부분에는 투각 如意모양 장식판이 리베팅 기법으로 붙어 있다.(도12-1) 병향로는 감숙성 병령사 169굴 벽화(西晉)에서부터 보이기 시작, 남북조시기에는 손잡이 끝이 넓고 갈라진 鵲尾形이 유행하였으며, 당 8세기에 ‘ㄴ’자형 손잡이 끝에 연화대좌를 갖춘 사자가 올려진 사자진병향로가 출현한다. 두 유형은 공존하였고, 전에 작은 사자가 하나 더 올려진 쌍사자 병향로도 출현한다.

병향로는 탐형향합과 한 세트로 사용하였음이 初唐시기에 조성된 廣元 皇澤寺石窟의 가섭상이나 법륜사 옥층주자의 승려상, 석굴암의 10대 제자상에서도 확인된다.(도13, 14) 통일신라 금속제병향로로는 리움소장 금동사자진병향로, 창녕 말흘리사지 출토 연봉진병향로가 대표적인데, 인각사에서 금동사자진병향로가 출토되어 병향로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도15) 특히 인각사 병향로는 연화좌 위에 꼬리를 세운 채 앞발을 딛고 앉아있는 금동사자의 자세나 용맹스러운 얼굴은

5) 一然, 『三國遺事』卷第四, 「勝詮髑髏」條, “釋勝詮 未詳其所自也. 常附舶指中國. 詣賢首國 師講下... 並因勝詮法師抄寫還鄉. 頃新羅僧孝忠遺金九分. 云是上人所寄. 雖不得書. 頂荷無盡. 今付西國軍持澡灌一口...” ; 乙酉文化社, 1976년 版, pp. 340-341.

8세기 작인 안압지 출토 사자상과 같은 위용을 느낄 수 있으며, 사자를 리베팅한 뒷면의 섬세한 방사선식 문양은 제작수법의 우수함과 8세기 통일신라 전성기 미술의 단면을 보여준다.(도12-2)

4) 청동탑형향합

높이 18.0cm, 구경 8.6cm 규모인 청동향합은 금고 안에 담겨 있었으며, 표면은 검푸른 빛을 띄고 있다. 塔形鈕와 뚜껑이 깨진 상태인데, 탑형뉴와 半球形 덮개로 구성된 뚜껑, 器身과 臺部로 구성된 몸체인 4개의 구조가 2개의 리베팅으로 연결된 것이다.(도16) 이 향합은 벌어진 [八]자형 대부가 달린 풍만한 하트형 몸체 위에 密檐式 7층탑이 연결되어 외형선의 조형미가 빼어날 뿐 아니라 각 부분의 제작수법도 매우 精緻한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얇고 날렵한 옥개석 외면에 연주문을 돌린 후 안으로 밀집선을 음각해서 마치 꽃술 같아 보이는 점이나 내부의 리베팅 부분도 이단반구형으로 조각한 점에서 원형제작부터 구조까지 솜씨가 뛰어난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각사 청동향합은 당대 향합과 똑같은 형태로 국제양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향합들보다 밀침식 탑형뉴가 가장 정교한 유물로 평가된다.

5) 청동원통형이중합

높이 14.3cm, 구경 8.9cm 크기의 청동원통형이중합은 사리용기, 經典, 香이나 茶를 넣는 용기 등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없으나 금산사 오층탑(982년 완공) 발견 사리장엄구와 청동원통형이중합, 안성 長命寺 탑 발견 청동원통형이중합(997년)을 기준삼아 10세기에 출현한 사리외합으로 추정되어 왔다.⁶⁾ 원통형합은 안압지 K지구에서 금동원통형기가 출토된 바 있으며, 인각사 원통형이중합은 8세기 후반 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장 이른 예로 생각할 수 있다.

二段으로 구성된 인각사 청동원통형이중합은 표면에 횡으로 매우 촘촘하게 음각된 밀집선이 특징적이다. 제작기법은 굵은 판재를 굵은 봉에 대고 말아서 정원을 만든 다음 땀한 다음 가질대에 고정, 끝이 아주 가는 칼대로 가질한 것으로 판단된다.[삽도1] 때문에 측면에 불규칙한 縱線이 있고 그 위에 밀집 橫線흔적이 있으며, 밀집선들도 자세히 보면 등간격이 차이가 있다.[삽도1-①] 하단 원통합의 구연부와 바닥면과 측면의 직각선은 구조법 제작 시 나오기 힘든 직각상태[ㄴ]이며[삽도1-②] 뚜껑도 판재를 안쪽으로 붙여서 상단 합의 턱에 꼭 맞게 제작했다.[삽도1-③]

칼대의 솜씨가 빼어난 이 청동원통형이중합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리용기라는

6) 최응천, 「軍威麟角寺 출토 佛教金屬工藝品の 性格과 意義」, 『선사와 고대』 32(2010), pp.94-96.


설이 타당해 보이거나 供養器라는 의미로 본다면 향과 차를 각 단마다 넣을 수도 있겠다. 청동의 일종인 유기(주석 22%)는 공기순환이 되므로 안에 음식물을 넣어도 쉽게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삽도1] 청동원통형이중합의 제작기법

6) 청동기명류

인각사 출토 청동기명들은 일견해서 전형적인 8세기 기형을 보이고 있다.(도18) 청동발(완) 2점과 청동뚜껑은 청동합으로 쓰이기도 하고 뒤집어서 접시로도 쓰이는 臺付皿이다.

청동기명의 크기	
청동발1 : 높이 11.1cm, 구경 20.8cm 청동발2 : 높이 9.8cm 구경 20.7cm 청동뚜껑1 : 높이 4.3cm 구경22.2cm 청동뚜껑2 : 높이 4.3cm, 구경19.4cm	

呑

[삽도2] 청동기명 크기 및 명문

발의 크기는 대략 높이 10cm, 구경 21cm 정도이고, 청동발1의 내면에 ‘呑’자(?)인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이 사용자나 기명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어서 추후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청동발의 조형적 특징은 풍만한 몸체는 구연이 살짝 외반되었고 하부에 1개의 돌출선이 있으며 굽은 [八]자형이다. 당-통일신라시대에 널리 쓰인 식기이며, 날개로쓰일 때는 청동발 또는 청동완이라 부르며, 뚜껑이 덮여질 때는 청동합이라 부른다. 뚜껑에 넓은 전이 있어서 완에 덮일 때는 손잡이로 쓰이고 뒤집어서 접시로 쓰일 때는 굽이 되므로 臺付皿이라 부르는 다기능적인 기명이다. 그릇 이런 유형은 당대 ‘安史의 亂(755년)’ 때 묻어두고 피난갔던 何家村유물이나 黃冶窯 당삼채완, 邢窯 백자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물로는 안압지, 인룡사지 등에서 여러 점이 출토된 바 있고,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신라 가반, 사와리완(佐波理碗)은 신라에서 수출한 것이다. 즉 그릇 하부에 한 줄이 있는 식기는 8세기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유행했던 국제적인 기형이며, 신라는 이를 더 잘 만들었다.

인각사 청동용기들은 국제성과 함께 일상식기를 불교에서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금속기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크다.

이 외에도 인각사 승탑지에서 높이 4.3cm 크기의 금동가릉빈가상이 출토되었는데 밑에 짧고 굽은 선이 있어 어떤 기물에 끼워진 장식품으로 생각된다.

【도판】



도1. 군위 인각사 출토 청동불구 일괄, 통일신라



도2. 湖北省 當陽 長坂坡 1호분 출토 세트기명(동계광견형장경병, 동계병향로, 향합, 잔, 탁호), 南朝 6세기 초
※ 남하한 北魏 墓葬으로 추정되고 있음



도3. 荷澤神龕출토 세트기명, 唐 760년 이전



도4. 湖北省 隨州 출토 세트기명(광견형세
장경용:北朝式 淨瓶, 향합, 獅子鎧柄香
爐), 唐 8~9세기, 隨州市博物館



도5. 江西省 瑞昌市 范鎮 출토 세트기명(金銅塔式鎧
柄香爐와 金銅香盒), 唐 8~9세기, 瑞昌市博物館



도6. 인각사지 출토 청동북, 통일신라



도7. 약수리 고분의 석복, 고구려 5세기



도8. 인각사 청동북의 깃면



도9. 함흥8년명 청동북, 통일신라 865년, 직경31.5cm, 폭10.5cm, 국립중앙박물관



도10. 인각사 솔토 청동정병 2점



도11. 慶山寺址 舍利石函 左面 八王分舍利 장면의 軍持 I 式形淨瓶, 唐 741년



도12. 인각사 사자진금동병향토와 안압지 솔토 사자상 비교



도12-1. 爐身과 손잡이의 如意形 연결장식 도12-2. 손잡이 끝의 라베링 부분



도13. 法隆寺 玉蟲野子の 승려상(병향로와 답형향합)



도14. 석굴암 10대 계자상(오른쪽 첫 번째 상)의 병향로와 답형향로, 통일신라 8세기 중엽



도15 . 금동사자진병향로, 통일신라 8세기, 리움미술관



도16. 인각사 답형항합의 답형 세부분양, 펼친 상태, 리베팅 부분



도17. 인각사 청동이중합



도18. 인각사 청동완과 臺付皿(무경 검), 대부명의 상면



안압지 출토 청동완, 통일신라 8세기

안압지 출토 臺付皿, 통일신라 8세기



정창원 소장 新羅加盤, 통일신라 8세기

銀製鍍金盒, 西安 何家村 출토, 唐 8세기, 섬서성박물관

三彩碗, 黃冶窯, 唐 8세기

□

○ 형 식

군위 인각사 출토 불교 공양구 일괄품은 2008년 군위 인각사 정비사업 발굴조사에서 1호 건물지 동쪽의 방형집석유구 한쪽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이다. 나말여초기의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던 공예품들로서, 일괄 출토품 중에서 금속공예품은 모두 12점이다. 여기에서는 발굴보고서의 기술과 지정조사시에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유물별로 명칭과 크기를 정리한 후(표 1),⁷⁾ 각 유물별로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표 1. 인각사 출토 금속공예품 목록

연번	명칭	크기	도면번호
1	청동금고(靑銅金鼓)	높이 15.2cm. 너비 40cm.	#38
2	금동병향로(金銅柄香爐)	높이 7.4cm. 길이 37.6cm.	#33
3	청동탑형뉴합(靑銅塔形鈕盒)	높이 18.0cm. 입지름 8.6cm.	#37
4	청동정병(靑銅淨瓶) 1	높이 39.7cm. 바닥지름 8.2cm.	#34
5	청동정병(靑銅淨瓶) 2	높이 35.2cm. 바닥지름 7.5cm.	#35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높이 14.3cm. 입지름 8.9cm.	#36
7	금동가룻빈가상	높이 4.3cm.	#40-①
8	청동발(靑銅鉢) 1	높이 11.1cm. 입지름 20.8cm.	#39-②
9	청동발(靑銅鉢) 2	높이 9.8cm. 입지름 20.7cm.	#39-④
10	청동뚜껑 1	높이 4.3cm. 입지름 22.2cm.	#39-①
11	청동뚜껑 2	높이 4.3cm. 입지름 19.4cm.	#39-③
12	청동그릇편 각종	복원 입지름 30.0cm.	#39-⑤

1. 청동금고(靑銅金鼓)

비교적 크기가 큰 청동금고로서, 원래 3개의 꼭지가 달리고 뒷면에는 지름 19.4cm의 커다란 공명구가 형성되어 있는 형식이다(도 1, 2).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었으며, 뒷면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금고 앞면 중앙의 당좌는 지름 8.2cm이며 주위에 34개의 꽃잎을 돌려서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주위에는 등간격으로 용기 동심원을 배치하여 3단으로 구획하였다. 뒷면의 구연부는 다소 두꺼우며, 중앙부터 측면까지의 공간에 2줄의 용기 동심원을 배치하여 3단으로 구획하였다. 현재 손잡이는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남아

7) 표 1의 도면 번호는 佛敎文化財硏究所, 2011, 『麟角寺 - 君威 麟角寺 5차 발굴조사 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군위군, pp. 95-102 참조.

있지만, 원래는 위쪽에 한 개의 손잡이가 더 있어서 모두 3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번째 동심원 구간에는 가느다란 양각의 당초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문양이 매우 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다지 잘 보이지는 않는다.

금고는 금구, 반자, 청동북, 쇠북이라고도 하는데,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이자 범음구(梵音具)이다. 현존하는 금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통일신라시대 함통 6년(865)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금고인데, 표면에 동심원 이외에 별다른 문양이 없다. 인각사 출토 금고는 육중한 크기와 간단한 문양, 3개의 손잡이 등의 형식적 특징으로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인 나말여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금동병향로(金銅柄香爐)

병향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종종 사용되었던 긴 손잡이가 달린 휴대용 향로 형식이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병향로는 향로 몸체와 받침대, 손잡이, 여의두형(如意頭形) 장식판, 사자형(獅子形) 장식 등을 별도로 주조하여 조립하여 만든



도 1. 청동금고 앞면.



도 2. 청동금고 2. 뒷면.



도 3. 금동병향로.

것으로, 매우 뛰어난 주조기법과 양식을 보여준다(도 3). 병향로는 손잡이 끝부분의 형태에 따라, 연미형 병향로, 사자형 병향로, 연봉형 병향로 등으로 나뉘는데, 인각사 병향로는 사자형 장식이 달려 있는 사자형 병향로 형식이다.

향로 몸체의 입지름은 12.2cm이며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나팔형으로 외반한 형식이다. 그 아래에는 꽃 모양의 받침대가 있는데,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다.

긴 손잡이의 윗부분에 달려 있는 여의두형 장식관은 가로 8.26cm, 세로 7.5cm의 크기이다. 여의두형 장식관은 두께 1-1.3mm의 얇은 판으로 만들었는데, 윗면에 두 개의 지름 1.36cm 크기의 검은색 원형 장식이 달려 있다. 이 장식들의 재질은 확실하지 않으나, 준보석 계통의 광물류로 추정된다. 이 검은색 원형 장식 아래에는 얇은 금색 판 3장을 겹쳐서 깔아 장식했는데, 각 판의 주위에는 세밀한 점열문을 타출해서 장식했다(도 4). 장식관 반대쪽 면에는 국화동 장식과 같은 형태의 섬세한 장식을 붙여서 고정하였다(도 5).



도 4. 금동병향로의 여의두형 장식관. 앞면.



도 5. 금동병향로의 여의두형 장식관. 뒷면.

손잡이 끝에 달린 사자형 장식은 높이 6.0cm인데, 표면에 도금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사자는 복련과 양련이 시문된 연화좌 위에 정면을 향하여 앞다리를 세우고 앉아 있으며, 뒤쪽에는 세 갈래로 갈라진 꼬리가 표현되어 있다. 사자와 손잡이도 여의두형 장식관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제작되어 조립된 것이다.

인각사 출토 금동병향로의 전체적인 형식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병향로나 일본 정창원 소장 병향로 등과 상당히 유사하여, 통일신라시대 8-9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제작기법과 조형적 측면에서는 국내 현존례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3. 청동탑형뉴합(靑銅塔形鈕盒)

청동탑형뉴합은 청동금고 내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팔형의 받침, 둥근 그릇과 같은 몸체, 탑 모양의 꼭지가 달린 뚜껑 등을 별도로 만들어 리벳으로 조립하여 만들었다(도 6). 표면에는 음각의 동심원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양이 없다. 이와 유사한 탑형뉴합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종종 제작되었는데, 대부분 출토지와 출토 상황이 불명확하다. 인각사 출토 청동탑형뉴합은 유사한 탑형뉴합 형식의 그릇들 중에서는 매우 드물게 출토지와 출토 상황이 밝혀진 중요한 예로서 주목된다.

이 청동탑형뉴합은 아래와 위가 모두 나팔형으로 벌어진 받침대 위에 둥근 몸체를 얹어 놓았는데, 받침대에는 2줄의 음각선이 장식되어 있고 몸체에는 구연부 인근에 동심원대가 음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둥그스름한 뚜껑에도 역시 구연부 인



도 6. 청동탑형뉴합.



도 7. 향과 : 청동정병 1. 향우 : 청동정병 2.

근에 음각의 동심원대가 장식되어 있다. 뚜껑 중앙에는 높이 5mm, 지름 40.8mm의 원형 대좌를 만들고, 중앙에 독특한 원형탑 모양의 장식을 얹어서 장식했다. 이 탑모양은 각각 크기가 다른 원형판을 올려서 만들었는데, 가장 아래쪽의 큰 판은 지름 35.7mm이며, 맨 위의 원형판은 지름 23.1mm이다. 맨 위는 연봉형 꼭지 모양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뚜껑부분과 탑형 장식이 연결되는 부분은 부식이 심하여 다소 파손된 상태이다.

이러한 7단의 원형장식이 올려진 탑형뉴합 형식은 사리장엄구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혹은 향을 보관하는 향함(香盒)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탑형뉴합은 내부에서 타다남은 향의 재가 발견되었다고 하며,⁸⁾ 병향로와 공반하여 출토된 정황으로 볼 때, 향함으로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4. 청동정병(靑銅淨瓶) 1

인각사에서 발견된 2점의 정병 중에서 조금 큰 크기의 정병이다(도 7-향좌). 정병은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정수(淨水)를 담아 놓는 불교 공예품으로, 인도에서 전래된 독특한 기형을 따라 만들어진 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이 정병은 동체 위에는 나팔형으로 벌어진 긴 목 위에 팔각형의 첨대가 형성된 주구(注口)가 있고, 동체 한쪽 어깨 위에는 짧은 목을 가진 별도의 구부(口部)가 형성되어 있다. 구부 위에는 여단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데, 지금은 닫힌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표면의 색이 약간 황갈색을 띠고 있는 이 정병은 동체의 일부와 바닥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다. 특히 낮은 굽을 가진 바닥부분은 안쪽이 완전히 파손되어 내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도 8).



도 8. 청동정병 1의 바닥 부분.



도 9. 청동정병 2의 바닥 부분.

5. 청동정병(靑銅淨瓶) 2

인각사에서 발견된 2점의 정병 중 크기가 조금 작은 정병으로, 형식은 청동정병 1과 큰 차이가 없다. 발견당시에는 목 부분이 갈색으로 산화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보존처리를 통해서 표면의 색이 모두 녹색조로 바뀌었다.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우수한 편이며, 굽이 형성된 바닥 부분도 잘 남아 있다(도 9). 다만, 어깨 부

8) 불교중앙박물관, 2013, 『인각사와 삼국유사』, 불교중앙박물관, p. 58.

분에는 일부분이 부서져서 구멍이 나 있다. 구부의 뚜껑은 원래 열고 닫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보존처리 과정에서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청동금고 안에서 발견된 청동이단합은 뚜껑이 있는 2단의 원통형 그릇이다(도 10, 11). 뚜껑, 상단, 하단의 표면에는 모두 측면에 조밀한 음각선이 돌아가면서 장식되어 있으며, 지름은 8.86cm이다. 이 중에서 하단 그릇은 바깥쪽에서 보면 굽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쪽 바닥에서 보면 얇은 굽이 형성되어 있다. 그릇 위쪽의 구연부는 안쪽으로 도톰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구연부의 두께는 2.8mm이다. 상단 그릇에는 바닥 부분에 두께 1.2mm, 높이 8.4mm의 굽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굽을 아랫단 위에 꽂아서 상하단의 그릇을 연결할 수 있다. 뚜껑 윗면에는 지름



도 10. 청동이단합 결합 상태.



도 11. 청동이단합 분리 상태. 측면.

3.5cm, 4.0cm의 음각 동심원이 새겨져 있다. 뚜껑 안쪽은 파란 녹이 남아 있다.

이러한 형식의 청동이단합은 고려시대 997년에 창건 안성 장명사(長命寺) 오층 석탑에서 사리장엄구로 봉안되었던 예가 알려져 있으며, 북한산 삼천사지, 진도 용장산성 등 고려시대 유적에서 종종 출토되고 있다. 청동이단합은 대체로 10세기 이후의 불교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인각사 출토품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어 나말여초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합은 사리장엄구, 혹은 향합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인각사 출토유물은 향합일 가능성이 크다.

7. 금동가릉빈가상

청동금고 안에서 발견된 소형의 금동상으로, 피리를 붙고 있는 가릉빈가를 표현한 것이다(도 12). 가릉빈가의 몸체는 청동을 주조한 후 도금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푸른색 녹이 심하게 나 있어서 도금 흔적은 얼굴의 일부분에서만 확인된다. 날개는 별도로 만들어, 가릉빈가의 뒤쪽에 마련된 축에 꽂아서 부착했는데, 향우측 날개는 부러져서 사라졌다(도 13). 배에는 작은 돌기가 남아 있으며, 바닥쪽에도 어디엔가 꽂았던 것으로 보이는 축이 남아 있다. 가릉빈가는 불교에서 종종 표현되는 천상의 새로서,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을 한 상상의 동물이다. 비교적 유례가 없는 귀중한 소형 조각의 예로서 주목되지만, 구체적인 제작 연대는 판단하기 어렵다.



도 12. 금동가릉빈가상, 앞면.



도 13. 금동가릉빈가상, 뒷면.



도 14. 청동반 1.



도 15. 청동반 1의 바닥 외면의 동심원과 평문.

8. 청동발(靑銅鉢) 1

복원 지름 20.8cm의 비교적 크고 속이 깊은 청동그릇으로, 현재 몸체의 절반 가까이가 결실된 상태이다. 구연은 외반했으며, 동체의 중간 부분에는 능형으로 처리된 양각 선이 형성되어 있다(도 14). 바닥에는 약간 외반한 낮은 굽이 있으며, 내외부의 표면에는 얇은 동심원이 선각되어 있다.. 약간 도톰하게 처리된 구연부의 두께는 2.4mm, 동체부의 두께는 1.8mm, 굽의 두께는 2.6mm이다. 바닥의 바깥쪽 면에 형성된 2중의 음각 동심원 옆에는 얇은 선각으로 “呑”, 혹은 “天”+“口”와 비슷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도 15). 이 명문은 발굴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지정 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글자의 크기는 7.8 x 8.5mm 이다.

이러한 형식의 청동발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금속기 형식이다. 이러한 금속기의 굽 부분에 명문이 새겨진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으나 대부분 1글자, 혹은 2글자에 불과하여,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표식을 위해서 새겨진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9. 청동발(靑銅鉢) 2



도 16. 청동발 2. 측면.



도 17. 청동발 2. 바닥면.

청동발 2는 청동발 1과 거의 유사한 형식의 그릇으로, 청동발 1에 비해서 훨씬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구연부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으며, 내면과 바닥면은 두꺼운 녹이 수착되어 있다. 동체 외부에는 양각선 1조가 돌려져 있으며, 바닥면에는 역시 2중의 음각 동심원대가 돌려져 있다. 녹이 두껍게 붙어 있어서, 글자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10. 청동뚜껑 1

얇은 굽을 가진 접시 형태의 그릇으로, 합의 뚜껑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연부는 외반한 후 끝 부분이 직각으로 처리되었다. 굽의 두께는 2.1mm, 구연부의 두께는 2.4mm이다. 구연부의 일부분이 상당 부분 파손되었으며, 몸체도 일부 파손되어 구멍이 나 있다. 굽 안쪽에는 별 다른 문양이 없이 평평하게 처리되어 있다(도 18). 그릇 내면에는 별다른 문양이 없으며,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11. 청동뚜껑 2

청동뚜껑 1과 거의 비슷한 형식의 접시, 혹은 그릇 뚜껑이다(도 19). 다만 어깨 부분과 굽 안쪽 부분에 두툼한 용기돌선과 음각선이 장식된 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몸체 두 곳이 파손되어 구멍이 나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청동뚜껑 1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도 18. 청동뚜껑 1.



도 19. 청동뚜껑 2.

12. 청동그릇편 각종

인각사에서서는 청동수반으로 추정된 대형의 청동그릇편과 기타 소형 그릇의 일부편으로 보이는 그릇편들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그중에서 파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구연부만 일부 남은 대형의 청동 수반편은 조사대상들과 함께 출토된 일괄품이지만 현재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정확한 복원 도면을 추정할 수도 없다(도 20). 한편, 지정 조사 당일에 확인했던 청동제의 소형 그릇편들은 조사 대상 일괄품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출토된 것으로(도 21), 일괄 공양품에 속하지 않는다.



도 20. 청동 수반편.



도 21. 청동 소형 그릇 편. 일괄품 아님.

○ 조성연대

이상에서 조사한 12점의 청동제 공예품들은 각각의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8세기 후반경부터 나말여초기인 10세기 전반경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유물들의 제작시기는 유물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이 유물들 중에서 가장 제작시기가 올라가는 것은 사자형 병향로로 추정된다. 이 병향로는 일본 정창원 소장 병향로나 삼성미술관 소장 병향로 등과 유사한 형식이며, 창녕 말흘리 출토 연봉형 병향로보다는 제작시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인 8세기 중후반 경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동체가 가름하고 주구와 첨대가 날렵한 청동정병 2점도 역시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현존하는 청동정병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제작시기는 역시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후반경일 가능성이 크다. 탑형뉴합도 정교한 탑형뉴의 형태 및 사자역시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후반경부터 9세기 전반경까지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단합의 경우에는 이상의 3종보다 다소 늦은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금고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름빈가상과 청동발 2점, 청동뚜껑 2점 및 청동그릇편 등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형식이므로, 정확한 제작연대를 파악하기가 다소 어렵다.

이 유물들 중에서 12번의 청동그릇편 중 일부를 제외한 다른 유물들은 중국제 청자 일괄품과 함께 인각사의 방형집석유구의 북서쪽에 마련된 독특한 공간에서 한꺼번에 출토된 일괄유물들이다. 이 중 탑형뉴합, 그릇, 가름빈가상 등은 금고 내부에 봉안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일괄유물들의 매납 시기, 즉 하한 연대는 개별 제작 연대를 고려하여 9세기에서 10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현 상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유물은 2008년 발굴된 이후 보존처리를 진행하여, 발굴 당시와는 색이나 상태가 다소 변화되었다. 대부분 파손된 상태로 발굴되었으나, 지금은 복원이 가능한 예들은 모두 안전하게 접합되어 있다. 12번 유물과 같은 청동그릇 파편들은 파손 상태가 심하고 원래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냥 파손된 상태로 보존처리하여 보관하고 있다. 현재 이 유물들은 모두 서울의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인각사에서 일괄품으로 발견된 청동제 불교 금속공예품들과 중국제 청자 일괄 유물들은 보기드문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던 공예품들이다. 특히 금고와 정병, 병향로와 같이 청동을 주조해서 제작한 불교 금속공예품들은 고려시대의 불교 사찰 유적에서도 종종 출토되고 있지만, 인각사의 경우와 같이 일괄품으로 발견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인각사 출토 불교 금속공예품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개의 검은색 준보석을 부착하여 장식한 사자형 병향로이다. 병향로는 행향(行香) 의례와 같은 불교의 공양 의례에서 사용하던 이동용 향로로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향은 각종 불교 의례에서 널리 공양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거의 모든 종교 의례는 정화(淨化)를 위한 향을 피우며 시작한다. 인각사의 사자형 병향로는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병향로 중에서 보기 드물게 고고학적 발굴조사에 의해서 출토된 유물로서 중요하다. 인각사에서는 병향로와 함께 탐형뉴합과 이단합 등 두 종류의 향합으로 추정되는 그릇들이 발견되어, 향합과 향로로 구성된 불교 공양품 일괄품이 함께 매납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통일신라시대 불교 의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정병 2점은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두 점이 그다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계란형에 가까운 단아한 동체와 날렵한 주구, 표면에 문양이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창원이나 중국 당대 정병 등과 비교되어, 현존하는 한국의 정병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정병으로 추정된다. 정병은 원래 고대의 인도 불교계에서 비구들이 소지해야 할 주요 물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으며, 한국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을 거쳐 전해졌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의 금속제 정병으로 추정되는 예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현존례의 대부분은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인각사 출토 정병 2점은 현존하는 보기 드문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인각사에서 발견된 청동금고는 명문이 남아 있지 않으나, 3개의 고리가 있고 공

명구가 좁으며 동체 측면 폭이 다소 두꺼운 점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청동금고들보다는 다소 제작 시기가 올라가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 청동금고의 현존례는 함통 6년명 금고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인각사 청동금고는 통일신라시대의 또다른 금고의 현존례로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양식적으로 볼 때에는 당좌부 주위에 꽃잎을 표현한 점이 특징이며, 문양이 거의 없는 함통 6년명 금고와 상당히 다른 양식을 보여준다. 금고는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원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호국불교의례를 거행할 때에 가장 중요시되었던 『금광명경(金光明經)』에서 금고를 참회 의례와 연결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금속제 금고는 금광명경의 유행과 함께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이후 선종 사찰의 각종 의례 규범에서 금고는 공양 시간을 비롯하여 사찰내의 일상 생활에서 대중을 모으는 소리를 내기 위한 의례용품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불교 사찰에서 거행된 각종 불교의례에서 금고는 매우 중요한 범음구(梵音具)로 사용되었다. 아직까지 인각사의 청동금고와 유사한 양식의 금고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제작지와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향후 비교 자료가 증가되어야 좀 더 심도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인각사에서 출토된 각종 그릇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형식이므로,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그릇들은 불단(佛壇)에 공양품을 올릴 때에 사용하는 불기(佛器)이거나, 사찰의 승려들이 일상 생활인 공양의례, 혹은 다례(茶禮) 등에서 사용하는 공양구로 추정된다. 이중 몸체가 상당부분 파손된 청동발 1의 경우에는 바닥면에 “呑”, 혹은 “天口”와 비슷한 글자를 새겨 놓았는데, 향후 명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군위 인각사 출토 각종 금속공예품 및 공반 청자는 모두 불교 사찰에서 불단에 공양의례를 올리거나 승려들의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공양구(供養具)들로서, 함께 사용되었던 공양구들을 독특한 공간에 한꺼번에 매납해 놓은 독특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각종 불교 금속공예품들을 한꺼번에 일괄품으로 매납해 놓은 예들은 현재 경남 창녕군 말흘리 유적과 청주 사뇌사지, 흥천사지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여러 폐사지 유적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인각사 출토 불교 공예품들은 통일신라 후기, 혹은 나말여초기의 독특한 사례이며, 발굴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된 중요한 예로서,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문헌자료

군위 인각사는 고려시대 후기에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께서 주석하던

사찰로 유명하다. 현존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의 건물이지만, 발굴조사를 통해서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인각사의 발굴조사는 2018년 봄과 가을에 행해진 제 6차 및 7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으며, 발굴보고서는 제 5차 조사까지 간행된 상태이다. 인각사에 대해서는 기록은 조선시대의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기록들에 남아 있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인각사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문 편이다. 인각사의 발굴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1>과 불교문화재 연구소의 제 5차 발굴조사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⁹⁾

표 1. 조사연혁

조사대상	기간	조사기관
요사 신축예정지, 강설루 이전예정지, 대웅전지 시굴조사	1991. 11. 25.~12. 24.	경북대학교 박물관
		『泰山 麟角寺』 1993
대웅전지, 극락전과 명부전 수변, 탐구변 마당, 대웅전과 강설루 사이, 현 강설루 서편 궁지 발굴조사	1992. 6. 15.~8. 14.	경북대학교 박물관
		『泰山 麟角寺』 1993
사역확인 시굴조사	1998. 2. 18~4. 12.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泰山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 보고서』 1999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지표조사	2000. 9. 1.~ 2001. 6. 27.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麟角寺-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지표조사보고서-』 2001
사역확인 시굴조사	2002. 4. 4.~ 4. 29.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麟角寺-군위 화산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보고서』 2004
군위 인각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차)	2004.11.4.~ 2005. 4.17.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麟角寺-軍威麟角寺 2·3·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0
군위 인각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3차)	2005.11.21~2006. 6.9.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麟角寺-軍威麟角寺 2·3·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0
군위 인각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4차)	2007.10.1~2008. 4.2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麟角寺-軍威麟角寺 2·3·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0
군위 인각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5차)	2008.10.16~2009.11.1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도 22. 인각사 출토 청자 위의 묵서명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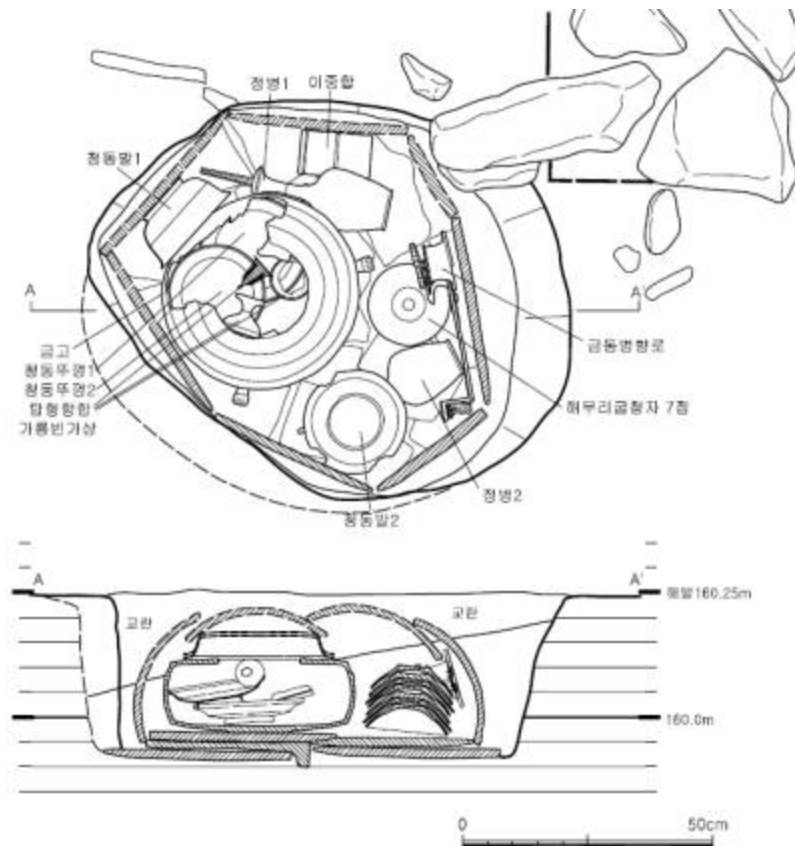
한편,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 불교 금속공예품 중에는 명문을 가진 예가 청동발 1점에서만 발견되었으나, 함께 출토된 청자 중에는 묵서명을 가진 예가 확인되기도 했다. 아쉽게도 금속공예품의 명문은 알게 새겨진 글자 1개 뿐이며(도 15), 청자의 묵서명은 종이에 씌여진 명문이 청자 위에 늘어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22), 글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9) 표 1은 인각사 제 5차 보고서인 佛敎文化財硏究所, 2011, 위의 책, p. 26에서 전재.

○ 기 타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품 일괄 유물은 2008년 군위 인각사 5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1호 건물지의 남쪽이자 2호 건물지의 서쪽에 자리한 방형집석유구(도 23의 초록색 방형)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일괄품으로 출토되었다(도 23의 붉은색 원형).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 방형집석유구는 통일신라시대의 탐지와 비슷한 구조물이라고 하며, 유물들이 발견된 공간은 그 유구의 모퉁이 부분에 기와편과 암막새를 이용하여 바닥과 벽체, 그리고 덮개를 설치한 곳이었다(도 24, 25). 이 방형집석유구는 발굴 당시에는 승탑지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에는 현재 극락전 앞에 서 있는 삼층석탑이 원래 서 있었던 곳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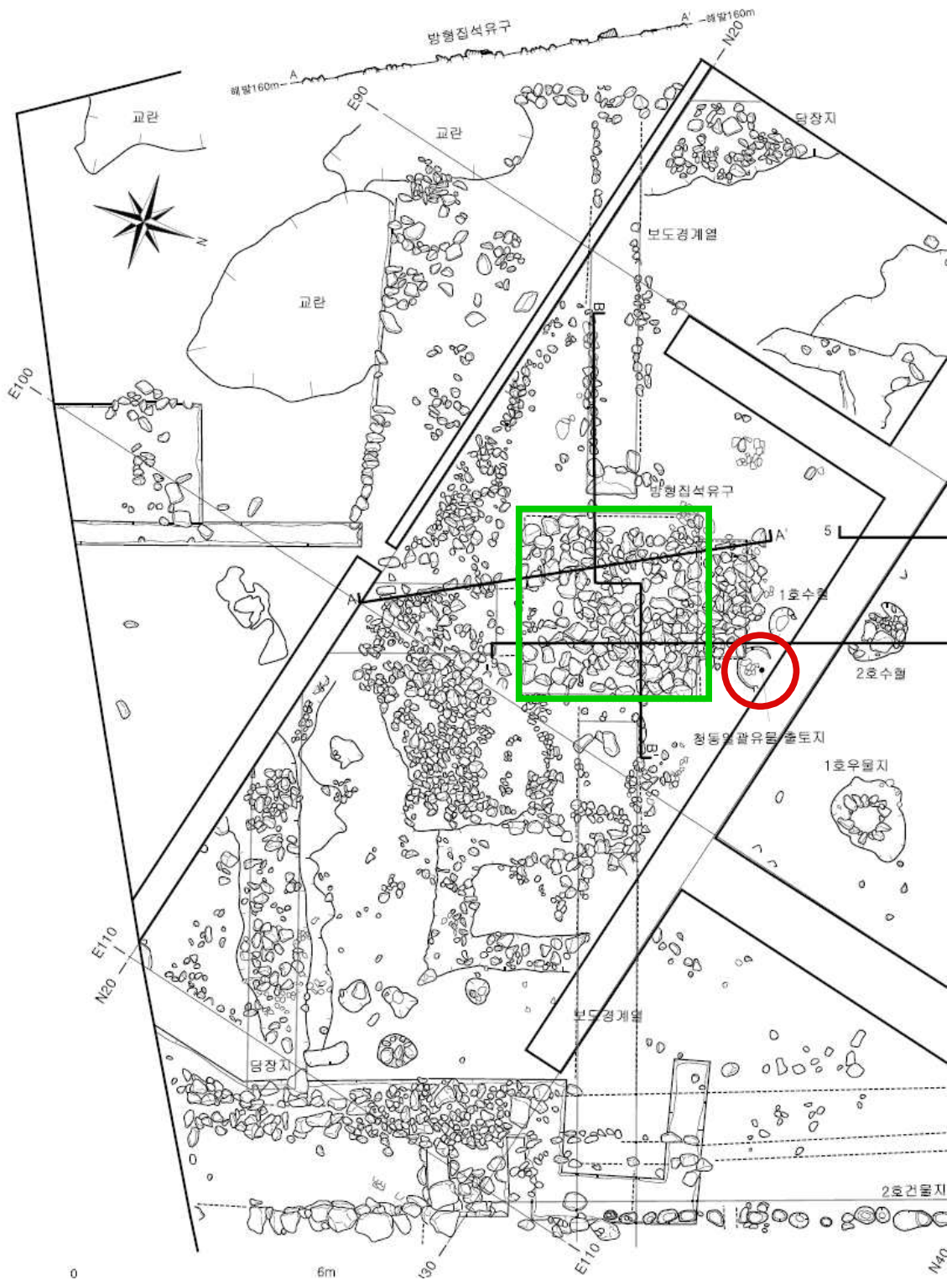
도 24. 인각사 공양구 일괄품 출토 상태. 유물 배치도. 인각사 5차 보고서, p. 244, 도 127을 전재.

발굴보고서 및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일단 탐지로 추정되는 곳의 인근에 기와장으로 마련한 특별한 공간에 불교 의례용 공예품들이 한꺼번에 봉안되어 있었으므로, 승탑지에 봉안된 유물들로 알려져 왔다. 발견 당시 상태를 보면, 기와장으로 마련한 공간 가운데에는 청동금고를 두었고, 그 주위에 청동정병과 청동발,



청동수반, 청자 일괄 등이 놓여 있었다. 청동금고 안에는 청동탑형뉴합과 청동접시 2점, 금동가릉빈가상 등이 들어 있었다.

도 25. 인각사 공양구 일괄품 출토 상태.



도 23.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품의 출토 위치. 인각사 5차 보고서, p. 63, 도면 16 전체.

지금까지 이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 승탑지의 사리장엄구로 알려져 왔는데,¹⁰⁾ 최근에는 방형집석유구가 승탑지가 아니라 석탑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일괄품들이 승탑의 사리장엄구였는지는 다소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발굴 위치로 볼 때, 탑지와 관련된 사리장엄구, 혹은 공양구일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불교 금속공예품들을 한꺼번에 땅 속에 매납한 예들은 창녕 말흘리사지, 청주 사뇌사지, 홍천사지, 서울 영국사지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중 일부 유적은 전란이나 사찰의 화재 등으로 갑자기 기물들을 매납하고 퇴거한 유구인 “퇴장(退藏)” 유구로 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일괄 유물 중에는 밀교 의례의 발전과 함께, 밀교 의례를 거행하기 위한 단(壇)을 세우기 위해서 거행하는 진단의례(鎭壇儀禮)와 관련되었거나, 민간에서 행하던 고사와 비슷하게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위해 거행한 지진의례(地鎭儀禮)와 같은 독특한 불교 의례의 일환으로 거행되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진의례나 진단의례는 건물을 짓기 전에 행하는 의례이며, 퇴장은 건물지의 멸망과 관련된 행위로서, 개념적으로는 그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 유구나 유물에서는 그 차이를 구별할만한 단서가 많지는 않다.

이상과 같이, 인각사 출토 불교 공양품 일괄 유물들의 성격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탑지의 사리공양구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퇴장유구나 지진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10) 최응천, 2010, 「軍威麟角寺출토 佛敎金屬工藝品의 性格과 意義」, 『先史와 古代』 32, 2010 참조.



○ 내용 및 특징

인각사는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에 위치한 사찰로, 현재 대한 불교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인각사를 감고 도는 위천 변에 깎아 지듯 솟아오른 학소대의 비경과 함께 고려시대 普覺國師 一然 스님이 만년을 보내면서 『三國遺事』를 집필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각사의 창건은 신라 원효·의상대사와 결부시키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물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학술조사에서 통일신라대의 귀면와당과 기와 편들이 寺域에서 발견되었고, 미륵당에는 통일신라 후반으로 편년되는 불상이 봉안되어 있어 늦어도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찰이 존재하였음을 추측이 가능하다.

고려의 국사를 지낸 일연스님의 하산소로서 역사적으로 사격이 높았던 인각사는 최근까지 가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극락전과 명부전, 강설루와 요사로 구성된 단출한 규모의 사찰이었다. 인각사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인 조사는 1991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고, 이 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두차례에 걸쳐 대웅전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대한 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와 여러 차례의 시·발굴을 조사를 통하여 인각사의 종합정비에 필요한 寺域과 寺格 찾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신청된 금속유물과 도자유물 일괄은 2008년 10월부터 진행된 5차 조사 중 塔址 또는 승탑지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발견된 것이며, 그동안 진행된 시·발굴 중 물적 자료로서는 최고의 성과품이라고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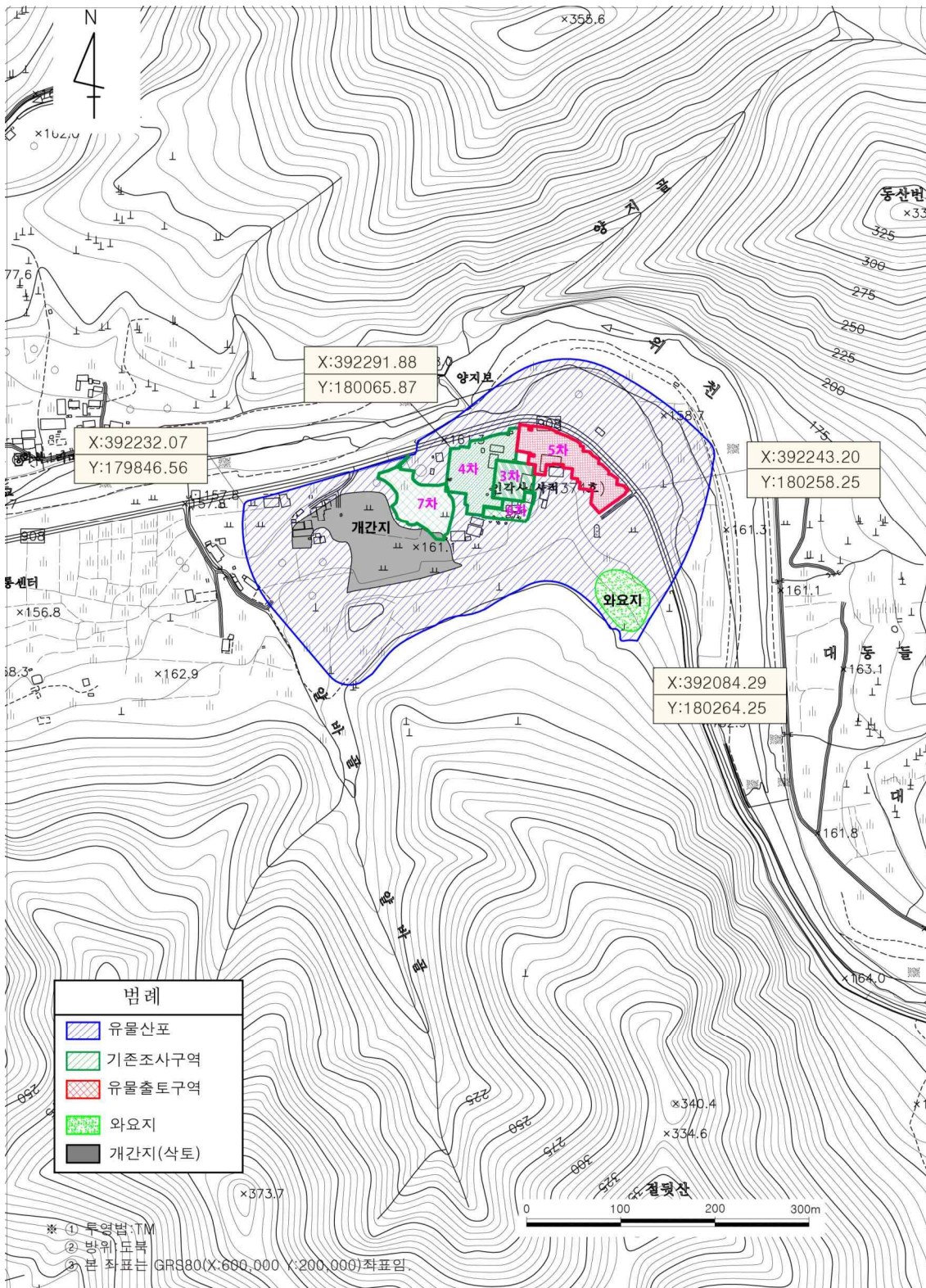
유물이 발견된 유구는 대형할석으로 地釘한 온통기초로, 이와 같은 형태의 기초는 석탑과 같이 비교적 비중이 크고 육중한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로 볼 수 있다. 일괄 유물은 매납시설 상부에 지정시설이 덮인 형태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 유물을 먼저 매납하고 지정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일괄유물의 의도적으로 매납된 것임을 의미한다.

매납 상태를 보면, 청동금고 안에 청동 탐형 향합, 청동 접시, 청동 가룻빈가상 등이 들어 있었고, 청동금고 바로 옆쪽에 청동원통형 합, 청동 발, 청동 정병 2점, 금동사자형병향로, 해무리굽 청자 등이 매납되어 있었다. 매납 방식은 원형으로 땅을 파고 바닥에 기와를 깔 다음 벽체에도 기와를 세워 쌓았으며, 그 속에 유물을 매납하고 다시 기와를 덮고 흙으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매납방식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며, 중국에서는 하남성 낙양시 용문 서산 북록 寶應寺 神會禪師(683-758) 僧塔 지하 石室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괄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신회선사 탑은 탑의 약 1m 지하에 석관으로 방형의 석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공

양구들을 매납한 형식이다. 석실 내에는 정병, 병향로, 향합, 동기 3종, 은기 1건, 도기 3건, 철기편 4건 등이 발견되었는데, 인각사지의 일괄유물의 종류와 매납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신회선사탑의 석실의 석판 안쪽에 758년에 입적하여 765년에 세운 신회선사탑임을 밝히는 명문을 남기고 있어, 이들 공양품들의 하한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공예품 연구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1. 인각사 발굴조사 연혁(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연번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구역
1	경북대학교 박물관	1991.11.25.~1991.12.24	요사채 신축예정지, 강설루 이건 예정지, 대웅전지 시굴조사 『華山 麟角寺』, 1993.
2	경북대학교 박물관	1992.06.15.~1992.08.14	대웅전지, 극락전과 명부전 주변, 탑 주변 마당, 대웅전과 강설루 사이, 현 강설루 서편 공지 발굴조사 『華山 麟角寺』, 1993.
3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1992.06.15.~1992.08.14	사역확인 시굴조사 『華山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 1999.
4	(재)불교문화재연구소 (前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0.09.01.~2001.06.27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지표조사 『麟角寺- 군위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지표조사 보고서』, 2001.
5	(재)불교문화재연구소 (前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04.04.~2002.04.29	사역확인 시굴조사 『麟角寺- 군위 화산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 2004.
6	(재)불교문화재연구소 (前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11.04.~2005.04.17	2차 발굴조사 해체된 극락전지 및 강설루지 발굴조사 『麟角寺-군위 인각사 2·3·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前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5.11.21.~2006.06.08	3차 발굴조사 극락전지를 포함한 중심권역 발굴조사 『麟角寺-군위 인각사 2·3·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8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7.10.01.~2008.4.27	4차 발굴조사 사찰 진입권역 발굴조사 『麟角寺-군위 인각사 2·3·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9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10.17.~2009.11.17	5차 발굴조사 미륵당 주변권역 발굴조사(통일신라시대사역 1차) 『麟角寺-군위 인각사 5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1.
10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8.03.05.~2018.05.09	6차 발굴조사 국사전 및 명부전 권역 발굴조사 군위 인각사지 종합정비예정부지(6차)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5
11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8.10.23.~2018.10.25	7차 시굴조사 명부전 및 종무소 요사채 이견대상 성토지역 시굴조사 군위 인각사지(7차)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2018.10



군위 인각사 발굴조사 결과도(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1. 청동 북 내 발견 유물

① 청동 북

이 청동금고는 인각사지 출토 공양구의 외함으로 사용되었다. 뒷편에 일부 파손이 있고 구조상태도 약간 불량하다. 금고의 앞면은 막혀 있고 뒷면에는 구연이 도드라진 작은 공명구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금구형 금고(金口形 金鼓)’이다. 전체 직경은 40cm, 폭 14.3cm이고, 뒷면에 공명구의 직경은 19.4cm이며, 금고를 거는 고리의 길이는 3.5cm이며, 귀모양으로 두 군데 남아 있다. 고 금고의 앞면은 3줄의 굵은 선을 이용하여 당좌구, 내구, 중구, 외구 4면으로 구획하였다. 특히, 당좌구에는 36개의 끝이 뾰족한 펜촉모양의 연화문을 도드라지게 새겨 놓았다. 중구에는 얇은 선으로 당초문을 시문하여 장식적 요소를 더하였다. 측면에는 원래 금고를 걸 수 있는 3개의 고리를 달려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 중앙의 고리는 결실된 상태로 그 좌우에 2개의 고리만이 남아 있다. 고리의 형식은 뒷면에서 앞면 방향으로 뚫려 있는 일반적인 금고 걸이와 다르게 측면 방향으로 뚫려져 있으며, 그 형태도 사각형을 나타낸다. 특히 고리가 주먹 권 아이의 손모양을 하고 있어 특색이 있다. 금고의 뒷면은 2줄의 굵은 선을 이용하여 구획하였으며, 중앙에는 구연이 도드라진 공명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공명구가 좁아 보인다.

이 작품은 금고의 두께가 매우 두터우며, 당좌 부분에도 자방이나 당초문 등을 장식하지 않고 연화문만을 고부조로 새겨 놓아 이른 시기의 금고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년명 금고로 알려져 있는 ‘함통 6년(865)명 금고’와 같이 늦어도 9세기 후반에는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② 청동 탑형 향합

청동 탑형 향합은 받침과 몸체, 그리고 탑형의 누가 달린 뚜껑이 달린 형태로 모두 별도 구조하여 리벳으로 연결하였다. 전체 높이 18cm이고, 향합과 굽의 직경은 8.5cm과 5.8cm이다. 향합의 가장 아래 부분인 받침은 상단에서 굽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 흡사 나팔꽃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 몸체는 타원형으로 상단에 2줄의 가는 음각선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탑형의 누는 탑 상륜부의 보륜과 같은 7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끝 부분에 보주를 장식하였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세장해진 기형이나 몸체의 음각선 표현, 그리고 상부 끝 부분에 보주 장식 등에서 중국의 신회선사탑(785년 조성) 지하 석실에서 발견된 청동 탑형 향합보다 정형화된 것으로 보여 그 제작 시기는 출토된 다른 공예품들과 같이 9세기 전반으로 여겨진다.

③ 금동 가룻빈가상

높이가 4.45cm가량의 소형 작품이다. 두 손으로 피리를 잡고 부는 형태로 묘사되었다. 얼굴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몸통에는 날개를 달고 있다. 날개는 별도로 주조하여 몸통과 축으로 연결하였다. 현재 왼쪽 날개가 결실되었다. 아래쪽에는 축이 달려 있어 원래는 어디에 부착했던 장엄물로 생각된다. 표면 곳곳에는 도금의 흔적이 관찰되므로, 원래는 금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가룻빈가가 공양구의 일부로 납입된 것은 이 유구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가령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나말여초기에 등장하는 여러 선사들의 승탑의 부조에서 가룻빈가가 장엄요소로 등장하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청동 뚜껑 2점(지름 22cm / 지름 19cm)

청동뚜껑 2점은 청동금고 내에서 수습되었고, 원래는 금고 옆에서 발견된 청동발의 뚜껑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접시 같은 모양이며, 구연부에 일부 파손 흔적이 있지만 양호한 편이다.

2. ‘청동 북’ 옆 발견 유물

① 금동 사자형 병향로

병향로는 손잡이가 달린 향로를 말하는데, 승려들이 각종 의식에서 직접 들고 사용하는 공양구(供養具)의 일종이다. 전체 길이는 40cm, 높이 10cm이고, 손잡이 부분에 장식된 사자의 높이는 7cm이다. 병향로는 가장 앞부분에 향을 담아 피우는 컵 모양의 노신, 그 사이에는 노신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사자가 장식된 손잡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모두 별도로 주조하여 리벳으로 연결하였다. 병향로 노신의 받침대는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총 23개의 세장한 꽃잎으로 장식하였고, 그 위에 노신은 구연이 나팔처럼 벌어진 형태를 보인다. S자형 결구장식을 이용하여 받침대와 노신을 연결하였으며, 이를 다시 여의두 형태의 장식을 이용하여 손잡이 부분과 고정하였다. 노신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대는 양 옆에 각을 주어 도랑처럼 골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자가 장식된 손잡이는 끝부분을 L자형으로 꺾고 그곳에 당당하게 포즈를 취한 사자 한 마리를 장식하였는데, 사자는 꼬리를 곧추 세우며 양·북련의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다.

동아시아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금동사자형병향로의 예는 중국의 신희선사탑(785년 조성) 지하 석실에서 발견된 금동사자병향로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법륜사 헌납유물 가운데 금동사자병향로 2점을 헤이안시기인 9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 삼성리움미술관 소장 금동사자병향로가 1점 남아 있다.

인각사 출토 금동사자병향로는 균형 잡힌 외형과 세부 표현 및 장식이 중국과 일본의 작품보다 훨씬 더 정교하며, 사자의 표현은 8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주 안압지 출토 납석제 사자와 불국사 다보탑 석조사자상 등과 비교해보아도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늦어도 9세기 전반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청동 정병 2점

정병은 물병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승려의 여행 필수품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부처님 앞에 깨끗한 물을 바치는 공양구(供養具)로 주로 사용되었다. 총 2점이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전체높이 35cm, 몸체와 저부의 직경이 10.5cm과 7.5cm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체높이 32cm 몸체와 저부의 직경이 9.5cm과 6.5cm이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정병은 크기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낮은 굽을 갖추고, 몸체는 저부에 비해 어깨가 넓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형이 세장한 형태이다. 어깨의 상단에는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주두를 부착하여 물을 따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긴 목에 둥근 테를 두르고 다시 가늘고 긴 8각의 침대가 날렵하게 솟아 있어 손으로 쉽게 쥘 수 있게 하였다. 인각사 출토 청동정병은 몸체가 둥글지 않고 어깨 부분의 주구도 매우 크고 굽으며 상단 부분에 침대 역시 가늘고 높게 솟아 있어 전체적으로 세장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정병의 형태는 8세기 중반에 제작된 석굴암 범천상이 들고 있는 정병이나 부여 부소산에서 출토된 9세기 정병과 유사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그 제작 시기는 늦어도 9세기 전반으로 여겨진다.

③ 청동 원통형 이중합

청동 원통형 합은 2개로 나누어진 몸체가 연결되어 2단을 이루도록 만들고 그 위에 납작한 뚜껑을 덮는 형식이다. 전체 높이는 14cm이고, 직경은 8.8cm이다. 몸체에는 가는 음각선이 반복적으로 돌려져 있는데, 이는 문양이 아니라 원통의 합을 제작할 때 틀을 반복해서 돌림으로써 외형 틀 안쪽 면에 생긴 주조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청동 원통형 합은 주로 고려시대 사리장엄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10세기로 추정되는 김제 금산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청동 원통형 합과 997년 매납된 장명사탑 청동 원통형 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예를 통해 청동 원통형 합은 사리를 담는 내사리기의 외사리합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각사에서 청동 원통형 합이 부장용으로 새롭게 발견되면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이미 이러한 형식의 합이 제작되었으며, 그 용도도 사리용기보다는 향합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청동발 2점(길이 10.0cm, 구경 20.6cm, 저경 11.3cm, 굽 높이 1.2cm)

청동 금고 옆에서 발견되었다. 1점은 구연 일부에 약간 파손이 있을뿐 완전하고, 다른 한 점은 몸체가 반파되었다. 두 점은 바닥에는 외반한 낮은 굽을 갖추고 있으며, 몸통 중앙부분에는 날렵하게 날을 세운 1줄의 돌기 선을 돌렸고, 몸체의 측면을 돌아가며 녹로 성형에 의한 가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구연은 밖으로 넓게 외반하였다. 반파한鉢의 밑면에는 ‘呑’자를 얇게 선각하였다.

⑤ 청자 해무리굽 완 7점

청자 완은 다른 불교공예품들과 달리 중국에서 직수입되어 사용되다가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청자는 전형적인 중국 월주요 해무리굽 청자완으로 모두 7점이 출토되었다. 전체 높이는 5.4cm이고, 구경 및 굽의 직경은 17cm과 6.6cm이다. 인각사 출토 청자완은 유약의 색깔과 기형이 중국계 비색청자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작품으로 보이며, 경주 황룡사지 및 익산 미륵사지 유적에서 출토된 9세기 월주요 청자완과도 유사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 동반 유물의 연대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인각사-군위 인각사 5차 발굴조사보고서』, 군위군·(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최응천, 「군위 인각사 출토 불교 금속공예품의 성격과 의의」, 『선사와 고대』 32, 한국고대사학회, 2010.

이용진, 「통일신라시대 獅子鎭柄香爐 연구」, 『신라사학보』 19, 신라사학회, 2010.
최명지, 「군위 인각사 탐지출토 중국청자의 성격」, 『인문과학연구』 21,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도자】



○ 현 상 및 특징

청자완은 군위 인각사 5차 발굴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방형집석 유구의 북서쪽 우측에서 청동금고 등 다량의 금속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 청자완은 굽 형식에 의해 옥벽저(玉璧底)굽과 옥환저(玉環底)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옥벽저굽 청자완은 5점 중 4점은 일부 결손이 있으나 완형에 가까우며 1점은 파손이 심하여 접착 복원하였다. 옥환저굽 청자완 1점은 완형이나 다른 1점은 접합하였다.

기형은 두 형식 모두 샷갓형으로 거의 비슷한 외형을 보이고 있다. 외측선은 낮은 굽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거의 사선으로 뻗어 구연에 이르고 있다. 유색은

어두운 녹색으로 불투명하다. 내저는 넓고 평편하며 접지면은 안쪽으로 경사지게 깎았다. 접지면에는 유를 훑어내고 내화토 비짐눈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옥벽저굽 완 1점에는 목서가 일부 남아있는데 내용은 알 수 없다.



○ 현 상

방형 집석유구내에서 함께 출토되었다고 알려진 7점의 중국제 청자완. 대부분 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진 이른바 두립형(頭笠形) 완이다.

○ 내용 및 특징

유색은 대개 올리브 그린색을 띠며 각자 짙은 녹색에서 황녹색등 차이를 보인다. 7점 모두 높이는 5.2~6.2cm이며, 구경은 16.2~17.7cm, 굽지름 5.8~6.9cm 이내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크기는 비슷하다. 다만 굽 접지면 넓이에서 2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일련번호 (1), (2), (5), (6), (7)의 경우 약 2.0~2.5cm내외이며, (3),(4) 경우는 굽접지면 너비가 1.3cm로 좁은 편이다. 굳이 이들을 나누자면 前者는 ‘옥벽저’계통이고, 後者는 ‘옥환저(玉環底)계통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결실이 있고 또 일부에는 포개었을 때 접착된 유기물(?) 흔적들이 있다. 또 목서(?)로 보이는 글자들도 겹치고 침습되어 표면에 남아 있다. 한 두점을 제외하면 굽 안바닥과 접지면까지 시유한 후 고운 내화토를 받쳐 구웠으며, 완의 내저에는 圓刻이 없이 완만한 내면을 이루고 있어 전형적인 당~오대 중국 남방(절강, 강소 등) 지역 스타일의 청자완들이다. 또 내면에 다른 기물을 포개구운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고급으로 변조된 기물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기를 처음으로 제작하는 10세기 전반이래로 이같이 굽이 넓고 접지면도 넓은 완들을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국 초기청자의 제작 시기보다는 앞서는 양식으로 파악된다. 현전하는 중국 유물가운데 비교할 만한 것으로는 현재 절강성 박물관소장의 唐의 ‘貞元十年(794)’명이 있는 청자완으로 유색이나 굽형식 등이 인각사지 출토완들과 유사하다. 한편, 五代의 天福4年(939) 馬氏皇后 康陵출토 청자완이 있으나 크기와 높이, 굽지름 등에서 작으며 특히 굽 접지면 너비가 좁은 후기 스타일로서 국내의 10세기 초기청자요장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다. 실제 가마터 출토품들의 시간적 변화과정과 비교하더라도 이들 청자완은 8세기말부터 10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 연대를 알 수 있는 중국 청자완

			
貞元十年(794)'년 청자완	굽	天福4年(939) 馬氏皇后 康陵송토 청자완	굽

* 청자완 사진

		
(1)-내면	(1)-뒷면	(1)-굽
		
(2)-내면	(2)-뒷면	
		
(3)-내면	(3)-뒷면	(3)-내면부확대

		
(4)-내면	(4)-뒷면	(4)-뒷면
		
(5)-내면	(5)-뒷면	
		
(6)-내면	(6)-뒷면	(6)-굽
		
(7)-내면	(7)-뒷면	(7)-내면글자

□

○ 현 상

청자완(靑磁碗) 7점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方形集石遺構(돌무더기, 路址) 북서쪽 우측에서 靑銅淨瓶(2점), 靑銅金鼓(1점), 靑銅圓形二重盒(1점), 金銅柄香爐(1점), 靑銅塔紐蓋香垵(1점), 迦陵頻伽像(1점)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청자완 7점은 전형적인 당(唐) 월주요(越州窯) 청자완으로 굽 접지면의 폭이 넓은 옥벽저형(玉壁底形) 5점, 굽 접지면의 폭이 옥벽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옥환저형(玉環底形) 2점으로 구분된다. 옥벽저형 청자완 5점 중 1점은 완형(完形)이며 4점은 구연(口緣) 1곳~3곳의 극히 일부분이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옥환저형 청자완 2점 중 1점은 완형이며 1점은 외면의 굽과 그 주변 일부가 많이 파손되어 있으며 일부 결실된 상태이다. 옥벽저형 청자완과 옥환저형 청자완의 내·외면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것은 오랫동안 청자완이 포개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특 징

□ 규격 <표 1 참조>

옥벽저형 청자완 5점은 높이 5.2~6.2cm, 구경(口徑) 16.1~17.2cm, 저경(底徑) 5.2~6.2cm, 굽 접지면의 폭 1.8~2.4cm 이다. 옥환저형 청자완 2점은 높이 5.8~6.0cm, 구경(口徑) 16.7~17.7cm, 저경(底徑) 5.8~6.5cm, 굽 접지면의 폭 1.3cm 이다. 옥벽저형 청자완이 옥환저형 청자완에 비해 굽 접지면의 폭이 넓음을 알 수 있다.

<표 1> 麟角寺 方形集石遺構 出土 靑磁碗 규격

번호	유물명	굽형식	높이 (cm)	口徑 (cm)	底徑 (cm)	굽 접지면 폭(cm)	비고
1	靑磁碗	玉壁底	6.2	16.5	6.8	2.3	
2	靑磁碗	玉壁底	5.6	16.1~16.5	6.5	2.0~2.2	
3	靑磁碗	玉壁底	5.2	16.2~16.4	6.6~6.8	2.1~2.2	
4	靑磁碗	玉壁底	5.6	16.5~16.9	6.8~6.9	1.8~1.9	
5	靑磁碗	玉壁底	5.9	16.7~17.2	6.8	2.3~2.4	내측 묵서명
6	靑磁碗	玉環底	6.0	16.7	5.8~5.9	1.3	
7	靑磁碗	玉環底	5.8	17.5~17.7	6.3~6.5	1.3	

□ 기형(器形)·유색(釉色)·내저원각(內底圓刻)·굽받침 <표 2 참조>

기형은 굽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구연(口緣)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유색은 진한 녹색을 띠고 있다. 그릇의 안쪽 바닥에는 원각이 없으며 굽 접지면에는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쳤다. 이와 같은 특징은 옥벽저형 청자완과 옥환저형 청자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며 국내 유적지에서도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옥벽저형 청자완이 출토된 곳은 慶州 雁鴨池, 慶州 東川洞, 慶州 拜里 등이며 옥환저형 청자완이 출토된 곳은 夫餘 扶蘇山, 保寧 聖住寺址, 將島 淸海鎭 등이 있다.

<표 2> 인각사 방형집석유구 출토 청자완 관련 사진자료

		
측면	내면	외면
인각사 옥벽저형 청자완		
		
측면	내면	외면
인각사 옥환저형 청자완		
		
경주 안압지	경주 동천동	경주 배리
유적지 출토 옥벽저형 청자완		
		
부여 부소산	보령 성주사지	장도 청해진
유적지 출토 옥환저형 청자완		

○ 참고문헌

국립대구박물관, 『우리문화속의 中國 陶磁器』 기획특별전, 2004.

최응천, 「軍威 麟角寺 출토 佛教 金屬工藝品の 性格과 意義」, 『선사와 고대』 32권, 한국고대학회, 2010.

(財)佛教文化財研究所·군위군, 『麟角寺-軍威 麟角寺 5차 발굴조사보고서-』, 2011.

방병선, 『중국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2

최명지, 「軍威 麟角寺 塔址出土 中國靑磁의 性格」, 『인문과학연구』 21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3.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卷五~六)

가. 심의사항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0.1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9.11)를 실시하고 2018년 제10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판본 재조사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계전문가 보완조사를 실시하고(’19.1.11) 본 위원회에 다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19.2.14)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9.2.26~’19.3.26)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卷五~六)
- 소유자(관리자)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 2종 4권 4책(고려본: 2권 2책/ 조선본: 2권 2책)
- 규 격 : 고려본 : 전체 23.9×15.3cm 내외(반곽: 19.6×12.3cm)
조선본 : 전체 23.9×15.3cm 내외(반곽: 19.6×12.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
- 조성연대 : 고려본: 고려 말 추정/ 조선본: 조선 초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본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권5~6 2종에 대한 것은 전 소장자가 구본의 경우 고려 서적원의 금속활자로 간행하였고 신본의 경우 조선시대에 들어와 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보다 앞선 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계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론도 있다. 또한 이 자료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본이 금속활자본이며 현존 계미자본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소위 구본과 신본 두 인출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려시대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의 인출기록이나 비교 분석할 대조군이 확인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고려시대 인쇄에 대한 전 소장자의 주장이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조사대상본이 고려말 서적원의 금속활자와 조선초 계미자 주조에 대한 관련성을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종합하여 보면 본 조사대상본은 활자나 지질의 상태로 보아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시기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에서는 그 내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본의 희귀성과 추정되는 간행시기 등으로 인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본’만 지정 가치 있음)

조왕기 외 3인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2종 4책의 『신간류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출간시기와 판종이 상이한 문헌이므로 이른바 구본 1종 2책과, 신본 1종 2책으로 분리하여 심의함이 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른바 ‘구본’에 대하여 고 조병순 선생은 고려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기록이나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판본을 제시하지 않아 학계의 공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이나 자형(字形)등으로 미루어 현존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고려시대에 관한 문헌에서 『삼장문선』을 출간하였다는 기록과 고려서적원 활자로 인출된 다른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구본의 판종이나 인출연대 등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진 뒤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구본1종2책: 지정보류)

‘신본’의 경우 보자(補字)가 혼입되었으나 조선 초기에 간행된 계미자본으로 밝

혀졌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금속인쇄사의 초기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과시(科試)대비용 교재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조사자는 이 서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5~6의 동일 권차(卷次)를 지닌 2종의 다른 판본으로 舊 소장자의 주장에 따라 2종의 명칭을 각각 舊本, 新本으로 하여, 구분은 고려 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으로 추정하고 있고, 신본은 조선초에 인출한 계미중자본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구분에 대해서 고려 서적원에서 금속활자로 인출한 서적이라는 견해는 고려 금속활자를 조선에 들어와 계속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조사본과 관련하여 인출 기록이나 비교 분석할 직접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이에 대한 학계의 검증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사대상본이 금속활자본이며 현존 계미자본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조사본은 활자나 지질의 상태로 보아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시기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판본의 희귀성을 고려할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연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삼장문선』은 원 지정 1(1341)년 유인초의 서문을 수록해 간행한 원의 초간본이 고려에 전래되면서 보급되었다. 원의 제도를 본뜬 고려는 물론, 고려의 과거제도를 수용한 조선에서도 『삼장문선』이 과거수험서로 활용하기에 적합했으므로 조선에서 많이 열독된 것이다. 조선은 국가가 건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모범으로 삼을만한 과문의 답안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문작성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내용도 주자학적 세계관에 의거하여 작성된 답안지였기에 사상적 측면과도 부합한 것이다.

전래하는 판본을 토대로 추정하면 고려시대에는 『삼장문선』에 대한 기록과 전래본이 없으므로, 그 전래와 간행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른 판본으로 고려 충혜왕 2(1341)년 이후 고려가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로 과거 응시생을 파견하기 시작한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서적원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간본, 고려의 서적원활자에 보자를 넣어 조선 태종 3(1403)년부터 세종 2(1420)년 사이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자본, 세종 3(1421)년부터 세종 16(1434)년 사이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자자본, 단종 2(1454)년 밀양에서 간행한 경자

자복각본 등이 알려져 있다.

신청자의 선친인 성암(誠庵) 조병순(趙炳舜)은 수장의 2종 『삼장문선』을 고려 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은 구분, 선초에 인출한 계미증자본은 신본으로 칭하였다. 구분의 권5는 장1과 장27, 권6은 장36이 결락되었고, 신본 권5는 장1-9가 결락된 상태이다. 원표지가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는데, 개장시 천두와 지각을 가로로 절단해 일부 손상되었고, 고정 등 다른 요소가 섞인 책지에 인출된 데다, 최적의 보관상태가 아니어서 열화된 상태이다.

구분과 신본에 있어 문자 배치를 위시해 몇 가지 차이가 있음은 이미 성암이 고증한 바 있다. 우선 구분의 특징은 판심서명은 ‘策’이고, 권차표기는 ‘六卷 壬集’이며, 이어 격행해서 편자는 ‘安 成 後 學 劉 仁 初 編 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본의 판심서명은 ‘文’이고, 권차표기는 ‘卷之六 任集’이며, 이어 격행해서 편자는 ‘成 安 後 學 劉 仁 初 編 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任集’은 오자, ‘成安’은 도치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에는 원 황제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 天朝·聖君·恩德·廟堂·聖天子·聖代 등을 대두하거나 공격을 두었으나, 신본에는 겨우 한 글자를 비우거나 무시되어 있다.

비어(批語)의 ‘초고(初考)’와 ‘복고(覆考)’란 용어를 통해서, 원대 향시의 채점은 2차를 행해서 공평을 기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어는 채점관이 각 답안에 대해 비평한 것이다. 비어는 원대 과거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인재와 문장의 선발의 표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시대의 문풍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 이런 원대의 과거 대비서가 고려시대에 간행되었다는 것은 고려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말 원대의 과거제도가 수용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성암이 구분 『삼장문선』은 고려 서적원 활자로 인출된 것이라고 발표하자, ① 계미자 주성시 주석용 소자도 주성했다는 점, ② 자본이 된 『춘추좌씨전』 이외의 『시경』과 『서경』도 대조해야 한다는 점, ③ 3종의 자본은 목판본이므로 동일 글자체라 하더라도 크기가 서로 꼭 같지 않다는 점, ④ 동활자를 두고 목활자를 사용한 점, ⑤ 피휘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점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동일 서적을 자본으로 대·중·소자를 주성했다면, 대자나 중소자의 자형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자와 중자의 형태가 완전히 이질적인 활자도 상당수이다.

〈표 1. 계미자 대자본에 나오는 대자와 중자의 자형〉						
대자						
	+17280310	+17120702	+17580705	+17460710	+17590117	宋0702b0519
중자						
	+17280514	+17190201	+17310206	宋0702b0417	+17070110	+0703b0508
출처를 밝히다 보니 글자가 커졌으나, 형태만은 볼 수 있다. ‘十’은 『십일사찬고금통요』, ‘宋’은 『송조표전총류』를 의미한다. 이어 권차, 장차, 행차, 자차의 순이다.						

②③ 자본이 된 『시경』과 『서경』의 등재본의 서사자가 동일인이고, 동일자체로 필사했다면 서로 어울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서로 이질적이지 않았으므로 3종 서책을 자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로 갑인자를 주성할 때 경연에 수장되어 있던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즐(爲善陰鷲)』·『논어』를 자본으로 하고, 부족한 글자는 진양대군(晉陽大君)이 써서 보충하였다. 진양대군이 쓴 글자가 있어도 갑인자 인본에서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미자의 대자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겠다.

④ 동활자를 두고도 목활자를 사용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정리자가 있는데도 근접한 기간에 생생자를 조성한 실례가 있기도 하다.

⑤ 피휘자의 문제는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 수장의 원나라 판본 『어시책(御試策)』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계미자의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하고, 또 인쇄하는 도중 자주 동요해 능률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년간에 새로 경자자(庚子字)와 갑인자(甲寅字)를 주조했다는 것은 통설이었다. 그러나 <표2>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에 있어서는 대자가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중자의 크기가 제일(齊一)하지 않으므로, 계미자의 모양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것이었다. 이런 글자가 비일비재한 상태이다. 계미중자본의 경우 대개는 11행19자이지만, 행당 18자에서 21자까지 배자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자가 섞이면서 자형의 변화도 한 몫을 한 것

이다. 몇 글자 예를 들면 糴과 糶, 眞과 眞, 승과 令·令, 凶·凶과 凶, 塩과 塩·鹽, 惡과 惡, 土와 土 등 상당히 많다.

<표2. 중자 가운데 서체가 동일하지 않는 글자>	
三 (麗)	 508b0408 512a0718 514b1018 514b0304 525a0418 622a0804
三 (鮮)	 512a0319 514b0602 514a0907 524b0702 526b0903 601a0111 622a1117
陶	 105a0907 205b0305 210a0407
洞	 111a1108 206b0903 210a0508
四	 208a0712 316a1105
<p>출처를 밝히다 보니 글자가 커졌으나, 형태만은 볼 수 있다. ‘三(麗)’는 구본 『삼장문선』, ‘三(鮮)’은 신본 『삼장문선』, ‘陶’는 『도은선생시집』, ‘洞’은 『동림조담』, ‘四’는 『사시찬요』를 의미한다. 이어 권차, 장차, 행차, 자차의 순이다.</p>	

또 고려할 요소는 재미자가 사용된 기간이다. 재미자는 태종 3(1403)년 주조하여 세종 2(1420)년 경자자를 주조할 때까지는 오로지 사용되었다. 그 기간은 17년, 경자자본 서문에 사용된 경우도 있어 세종 16(1434)년 갑인자 주조할 때까지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도합 30년 남짓이다. 조선시대에는 합금술과 활자 주조술은 상당히 발전한 상태였다. 금속활자는 17년간 또는 30년간 사용해서는 개주하거나 보주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갑인자는 세종 16(1434)년 주조하였는데, 활자가 미려하여 개주·보주하면서 조선말까지 사용되었다. 초주갑인자를 개주하거나 보주한 최초의 기록은 중종 10(1515)년 11월4일 병술에 보이고 있다. 갑인자 주성 초기인 세종 20(1438)년 간행한 『당유선생집(唐柳先生集)』과 갑인자 주성 후 40여년 경과한 시점인 성종(1470-1494)년간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갑인자본 『당유선생집』의 마모도를 비교하면, 재미중자의 경우 재미자와 동시에 주성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림 91 唐柳先生集. 세종20년 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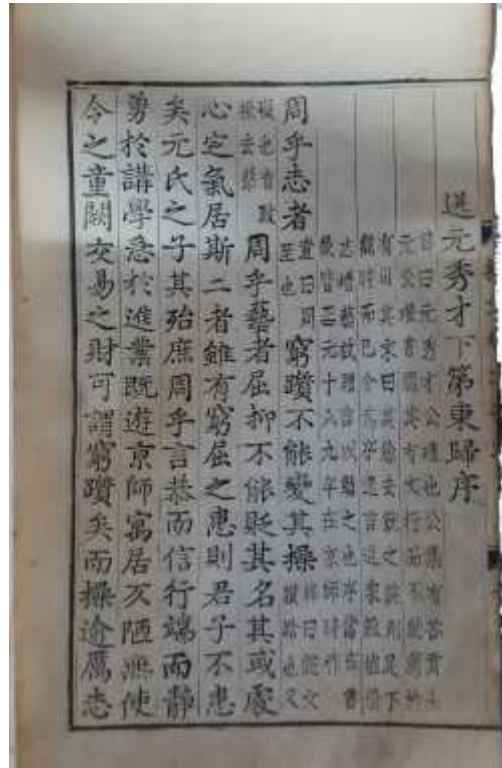


그림 92 唐柳先生集. 성종년간 간본.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려 서적원의 금속활자를 조선의 서적원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분은 고려 서적원에서 금속활자로 인출한 서적이는데, 고려말 이미 마멸된 활자가 많아 보자가 상당수 보이고 있다. 신본은 조선 서적원에서 전승된 고려 서적원의 활자를 근간으로 하여 상당수의 보자를 더해 인출한 조선초의 간본이다. 『삼장문선』 신구본은 고려말과 조선초의 금속활자의 전승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서는 원대에 시행된 과시에서의 답안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문학 또는 사회, 정치방면의 연구자료로서도 가치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들 서적은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 보완조사자 검토의견

○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2종 4책은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으로 그 版種에 있어 (1) ‘癸未字 계열의 同版’과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異版’의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근년에 들어 학자들간에는 점차 異版의 견해에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2종 4책은 異種版으로 판단하든 아니면 癸未字 계열의 同版으로 판단하든, 동일 권차의 2종류의 판본이 유일하게 전하는 늦어도 麗末鮮初의 金屬活字本임에 틀림이 없으며 2종 모두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도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은 活字의 종류나 版本의 新舊와 관계없이 2종 모두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조선 초기의 癸未字·庚子字·甲寅字 등의 금속활자본은 모두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연구·보존·관리되고 있다.

○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은 1341년 원나라에서 과거 수험서로 편집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72권을 고려말기~조선초기 서적원자(書籍院字) 및 주자소(鑄字所) 계미자(癸未字)로 각각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으로 진단되고 있다. 영본(零本)이며, 표지의 개장과 함께 고려본(구본) 권5·6 및 조선본 권5의 일부 장차가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찍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도 남아있지 않고 고려본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비교지표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자들 사이에는 고려본과 조선본을 조선초기의 금속활자본(계미자본)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의 2종 판본은 조성시기에서 연구자들의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초기 이전의 판본으로 진단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현전하는 고려말기~조선초기 우리나라 조성의 금속활자본으로 진단할 수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희소성과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종의 판본은 상호 비교·검토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도 가진다. 아울러 판본 조성 당시의 현실정치철학 및 역사인식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도 담고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근거 기준>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본의 종류가 현재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면서 고려말기~조선초기 우리나라에서 조성한 금속활자본으로 유일한 자료적 희소성을 가지며, 조성 당시의 현실정치철학 및 역사인식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등을 진단

할 수 있는 원천정보도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구나 조선초기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 등으로 찍어 만든 상당수의 기록유산이 이미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연구·보존·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적인 희소성과 가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서지목록기술 * 목록작성 기준 : 한국목록규칙 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2003

* 舊 소장자의 주장에 따라 2종의 명칭을 각각 舊本, 新本으로 하여 정리함.

<구본:고려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壬集 卷5-6 / 劉霖(元) 編 ; 劉仁初(元) 類編. -- 金屬活字本. --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高麗末-朝鮮初].

2卷2冊(零本) : 上下單邊 左右雙邊 19.8 × 12.2 cm. 有界, 11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 23.9 × 15.3 cm.

版心題 : 策

楮紙

線裝

배접후 크기 26.7 × 16.7 cm

권5 2-26장, 권6 1-34장

11행17-21字

원표지 없음

<신본:조선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元) 編 ;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 --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高麗末-朝鮮初].

2卷2冊(零本) : 上下單邊 左右單邊 19.6 × 12.3 cm. 有界, 11行19字.
上下內向黑魚尾 ; 23.9 × 15.3 cm.

版心題 : 文

楮紙

線裝

배접후 크기 27.0 × 15.1 cm

권5 10-26장, 권6 1-35장

11行17-21字

원표지 없음

○ 내용 및 특징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원나라때 사람으로 추정되는 유인초(劉仁初)가 원에서 시행한 鄉試·會試에서 합격한 대책문(對策文)들을 모아 편집한 것을 간행한 것이다. 유인초에 대한것은 ‘安成後學 劉仁初 輯’이라는 기록과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에 수록된 對策文들의 저작 시기 등을 통해 그가 길주(吉州) 안성현(安成縣) 출신으로 元代 후반기에 활동했던 인물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력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이 자료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8권으로 된 규장각 소장본(古 3431-16)의 목차에는 수록된 대책문의 수, 시행된 과거의 종류와 시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우선 권1에는 1314년 鄉試 7편, 1315년 會試 3편, 권2에는 1317년 鄉試 6편, 1318년 會試 1편, 권3에는 1320년 鄉試 3편, 1321년 會試 4편, 권4에는 1323년 鄉試 3편, 1324년 會試 2편, 권5에는 1326년 鄉試 3편, 1327년 會試 3편, 권6에는 1329년 鄉試 6편, 1330년 會試 2편, 권7에는 1332년 鄉試 3편, 1333년 會試 2편, 권8에는 1335년 鄉試 5편 등이다. 또한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에 지정 4(1344)년 원말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본당(務本堂)과 여씨(余氏) 근덕당(勤德堂)의 2종의 패기(牌記)가 있는 원대 간본 12책본 완질이 소장되어 있다. 원간본에는 지정 1(1341)년에 유정이 쓴 서문이 있다. 본문의 기록 방식을 보면, 먼저 策問을 기록한 다음 그에 대한 對策文들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對策文을 기록할 때는 먼저 석차·성명·출신지 등을 기재한 다음 對策의 본문을 기록하였다.

조사대상본은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의 권5와 6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료의 형태는 구본의 권5는 제1장과 제27장, 권6은 제35장이 결락되었고 권6 34장 후

면의 일부는 보사(補寫)되었다. 신본의 권5는 제1-9장이 결락되어 있다. 또 원 표지는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고, 개장할 때 상하를 가로로 절단하였고 사용된 배접지와 배접 방법에 대해서도 보존의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본과 신본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전 소장자가 논문과 단행본을 통하여 밝힌바 있다 (趙炳淳,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로」. 『季刊書誌學報』 18. (1996). 3-20.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韓國書誌學會, 2006)

구본은 판심서명은 ‘策’이고, 권차표기는 ‘六卷 壬集’이며, 편자는 ‘安 成 後 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본의 판심서명은 ‘文’이고, 권차표기는 ‘卷之六 任集’이며 편자는 ‘成安後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구본에는 天朝·聖君·恩德·廟堂·聖天子·聖代 등을 대두하거나 공격을 두어 원나라 황제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본에는 한 글자를 비우거나 혹은 공격을 두지 않았다. 전 소장자는 이것을 구본이 고려본이라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신본-구본 권6 권수제면 대조>



<신본-구본 활자대조>

□

○ 현 상

각기 다른 판본으로 인출된 동일권차 2종 4책의 고문헌이다. 소장자였던 고 조병순(趙炳舜)선생은 이 2종을 ‘구본’, ‘신본’으로 명명하고 구본은 고려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 신본은 조선초기에 인출한 계미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구본의 권5는 장1, 장27, 권6은 장36이 결락되었고, 신본의 권5는 장1~9가 결락된 상태이다. 표지는 개장되었고, 개장시 책의 천두와 지각을 가로로 절단한 흔적이 있다. 책지 또한 습윤의 흔적이 남아 있고, 산화가 심한 편이다.

서지사항(구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壬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2冊(零本): 左右雙邊. 19.8 × 12.2cm. 有界, 11行17-21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6.7 × 16.7cm.)

版心題: 策.

楮紙.
線裝本.

서지사항(신본)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鮮初]

2冊(零本): 左右單邊. 19.6 × 12.3cm. 有界, 11行17-21字. 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7.0 × 15.1cm.)

版心題 : 文.
楮紙.
線裝本.

○ 내용 및 특징

『신간류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중국 원나라 때 유정(劉貞)이 편찬한 『삼장문선』 중에서 대책(對策)을 모아 놓은 책이다. 유정의 『삼장문선』은 강절(江浙), 강서(江西), 호광(湖廣), 연남(燕南)의 향시(鄉試), 중서당회시(中書堂會試), 어시(御試) 등 삼장(三場)의 답안을 모은 것으로 10집 72권이다. 조왕기 외 3인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책은 이 책의 5~6권이며, 판종이 상이한 2종 4책이다. 지정신청 된 책의 권5에는 1326~1327년, 권6에는 1329~1330년 까지의 대책문이 수록되어 있다. 원나라에서 출간한 판본에는 1341년에 편자인 유정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신청자의 선친인 고 조병순 선생은 이 두 판본을 구분과 신본으로 나누고 구분은 고려서적원에선 인출한 금속활자본, 신본은 선초에 인출한 계미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구분의 권5는 장1과 장27, 권6은 장36이 결락되었고, 신본 권5는 장1-9가 결락된 상태이다. 원표지가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는데, 개장시 천두와 지각을 가로로 절단해 일부 손상되었고, 고정 등 다른 요소가 섞인 책지에 인출된 데다, 최적의 보관상태가 아니어서 열화된 상태이다.

구분과 신본에 있어 문자 배치를 위시해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구분의 특징은 관심서명은 ‘策’이고, 권차표기는 ‘六卷 壬集’이며, 이어 격행해서 편자는 ‘安成 後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본의 관심서명은 ‘文’이고, 권차표기는 ‘卷之六 任集’이며, 이어 격행해서 편자는 ‘成安後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任集’은 오자, ‘成安’은 도치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에는 원 황제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 天朝·聖君·恩德·廟堂·聖天子·聖代 등을 대두하거나 공격을

두었으나, 신본에는 겨우 한 글자를 비우거나 무시되어 있다.

이러한 두 판본의 특징을 근거로 고 조병순 선생은 구본의 간행 시기를 1341~1370년 사이로 보고 이 책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학설은 학계에서 공인받지 못하였다. 신본의 경우 목리(木理) 나타나는 글자가 있고, 인출에 쓰인 저지의 표면이 거칠어(고정이나 정제되지 않은 섬유질이 보임) 국가소유 금속활자로 인출한 서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미자본으로 판단할 만 한 제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선초에 인출된 재미자본으로 약간의 보자가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潘吉星, 중국, 한국, 유럽의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비교연구.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趙炳舜, 「癸未字 組版術의 殘影과 印出能力」. 『季刊書誌學報』 創刊號. (1990.6) 23-40.

趙炳舜,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제7호. (1992.9) 3-34.

趙炳舜, 「癸未字 字數와 小字起源에 대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제11호. (1993.12) 37-129.

趙炳淳,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로」. 『季刊書誌學報』 18. (1996). 3-20.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韓國書誌學會, 2006)

千惠鳳, 「癸未字와 그印本」. 『古印刷文化』 제10호. (2003) 91-101.

千惠鳳,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과주: 범우, 2012)

○ 기 타

소유자가 선친인 성암 조병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적이다.



○ 書誌事項(舊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壬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癸未中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麗末]

2冊(零本): 左右雙邊. 19.8 × 12.2cm. 有界, 11行17-21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6.7 × 16.7cm.)

版心題：策.

○ 書誌事項(新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癸未中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鮮初]

2冊(零本): 左右單邊. 19.6 × 12.3cm. 有界, 11行17-21字. 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7.0 × 15.1cm.)

版心題：文.

○ 현 상

『신간류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소유자들이 선친인 성암 조병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적이다. 권5-6만 남은 잔본 2종으로 재미자로 인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종 가운데 구본(舊本)은 권5에서 1장과 27장, 권6에서 36장이 결락된 상태이다. 또한 신본(新本)은 권5에서 1장부터 9장까지가 결락된 상태이다. 원표지가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고, 일부 손상된 부분도 보인다. 최적의 보관상태가 아니어서 열화된 상태이므로 보존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 내용 및 특징

『신간류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원(元)대의 유학자 유림(劉霖) 등이 편찬하였고, 그 뒤 유인초(劉仁初) 등이 주제별로 분류하여 새로 간행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삼장문선』이라 알려져 있다. 수록된 시문은 원대에 실시한 강절(江浙)·강서(江西)·호광(湖廣) 등의 강남 삼성(三省)의 과시(科試) 답안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연도에 따라서 연남(燕南)과 하남(河南)의 향시(鄉試)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과 중서당회시(中書堂會試)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도 수록되

었다. 문체는 대책(對策)·경의(經疑)·고부(古賦)의 3문체로 분류해서 편찬한 것이다. 과거 시행 시기별로 같은 문체의 답안을 삼장(三場)으로 나누어 수록한 것인데, 삼장은 향시(鄕試), 회시(會試), 전시(展試)를 말한다.

유인초는 과거의 답안을 모아 10집(集)으로 분류해서 72권으로 편찬하였다. 10집은 과거의 주제를 말하는데, 순서만 나열한 것으로 명칭에 의미는 없다. 내용의 주제를 보면, 갑집(甲集 : 經疑 8과 8권), 을집(乙集 : 易義 8과 8권), 병집(丙集 : 書義 8과 8권), 정집(丁集 : 詩義 8과 8권), 무집(戊集 : 禮記義 8과 8권), 기집(己集 : 春秋義 8과 8권), 경집(庚集 : 古賦 8과 8권), 신집(辛集 : 詔誥章表 3과 3권), 임집(壬集 : 對策 8과 8권), 계집(癸集 : 御試策 7과 5권)이다.

‘대책(對策)’은 한문 문체의 하나로 주로 과거 시험에 쓰였는데, 고시관이 당면한 문제로 정치·경제·학문 등에 관한 문제를 응시자에게 제시하면, 응시자는 그 해결책을 구상하여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이 직면하고 있는 시정책을 물은 것이며, 응시생은 그 대안과 책략을 진술하는 것이다. 선비 또는 현직 대부가 과거시험과는 관계없이 사사로이 시무책을 논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은 제책(制策), 시책(試策), 진책(進策)이라 한다. 시험문제는 책문(策問) 또는 책제(策題)라고 하는 조령체(詔令體)이고, 답안은 대책(對策)이라 하여 주의체(奏議體)에 속한다.

『삼장문선』의 편자인 유림과 주제별로 분류한 유인초에 대한 사적에 대해서는 상세하지 않다. 다만, 수록된 문장을 통해 볼 때 유림은 순제(順帝, 재위:1333~1367) 년간의 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安成後學 劉仁初 輯’이라는 기록을 통해 유인초는 강서 길주(吉州) 안성현(安成縣) 출신으로 유림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유인초는 인초(仁初)가 자이며, 명은 정(貞)이다.

원대에 간행되었던 간행본으로서 현재 알려진 것은 1344년(지정 4)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본당(務本堂)과 여씨(余氏) 근덕당(勤德堂)의 2종의 패기(牌記)가 있는 간본 12책본이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에 수장되어 있다.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본당(務本堂)은 1335년(원통 3)년 『삼장문선』을 간행하였다가 바로 이듬해인 1336년 과거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간행을 중지하였다. 이후 1340년(지원 6)에 과거가 복설(復設)되면서 다시 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원간본에는 1341년(지정 1)년에 유정이 쓴 서문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유인초의 서문을 넣은 『삼장문선』 초간본이 전래되어 보급되었다. 전래하는 판본을 토대로 추정하면 충혜왕 2(1341)년 이후 고려가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로 과거 응시생을 파견하기 시작한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서적원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 우리나라의 초간본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삼장문선』에 대한 기록과 전래본이 없으므로, 그 전래와 간행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초간본 이후에 고려의 서적원활자에 보자를 넣어 조선 태종 3(1403)년부터 세종 2(1420)년 사이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자본, 세종 3(1421)년부터 세

종 16(1434)년 사이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자자본, 단종 2(1454)년 밀양에서 간행한 경자자복각본 등이 알려져 있다.

조사본 『삼장문선』은 권5~6의 동일 권차(卷次)를 지닌 2종의 다른 판본으로 舊 소장자의 주장에 따라 2종의 명칭을 각각 舊本, 新本으로 하여 이해되고 있다. 구본은 약간의 이견은 있으나 고려 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으로 추정하고 있고, 신본은 조선초에 인출한 계미중자본으로 판단된다. 구본의 권5는 1장과 27장, 권6은 35장이 결락되었고, 34장의 후면 일부는 보사(補寫)되었다. 신본의 권5는 1장~9장이 결락된 상태이다. 원표지가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는데, 개장시 천두와 지각을 가로로 절단해 일부 손상되었고, 열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본은 판심서명은 ‘策’이고, 권차표기는 ‘六卷 壬集’이며, 편자는 ‘安 成 後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본의 판심서명은 ‘文’이고, 권차표기는 ‘卷之六 任集’이며 편자는 ‘成安後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구본에는 天朝·聖君·恩德·廟堂·聖天子·聖代 등을 대두하거나 공격을 두어 원나라 황제에 대한 공격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본에는 한 글자를 비우거나 혹은 공격을 두지 않았다.



舊本과 新本 記述 比較

내용은 시험 종류 다음에 책제(策題)가 수록되고, 이어 대책문이 수록되었다. 대책문에는 등차(等次)·성명·출신지·묵등(墨等) 속에 고관(考官)의 관직명·성명·비어(批語)에 이어 답안인 대책의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때로는 고관의 관직명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비평도 있다. 비어는 묵등에 비(批)라 밝힌 소자쌍행의 비평이나 설명이다. 중서당회시에는 비평이 첨부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 문헌자료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潘吉星, 중국, 한국, 유럽의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비교연구.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裴賢淑, 癸未中字本 四時纂要의 書誌的 研究. 四時纂要. (醴泉, 예천박물관, 2018) 간행예정.

趙炳舜, 「癸未字 組版術의 殘影과 印出能力」. 『季刊書誌學報』 創刊號. (1990.6) 23-40.

趙炳舜,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제7호. (1992.9) 3-34.

趙炳舜, 「癸未字 字數와 小字起源에 대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제11호. (1993.12) 37-129.

趙炳淳,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로」. 『季刊書誌學報』 18. (1996). 3-20.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韓國書誌學會, 2006)

千惠鳳, 「癸未字와 그印本」. 『古印刷文化』 제10호. (2003) 91-101.

千惠鳳,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과주: 범우, 2012)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이하 삼장문선)은 원(元)대의 유학자 유림(劉霖) 등이 편찬하였고, 그 뒤 유인초(劉仁初) 등이 주제별로 분류하여 새로 간행한 서적이다. 수록된 시문은 원대에 실시한 강절(江浙)·강서(江西)·호광(湖廣)의 강남삼성의 과시(科試) 답안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연도에 따라서 연남(燕南)과 하남(河南)의 향시(鄉試)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과 중서당회시(中書堂會試)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도 수록되었다. 문체는 대책(對策)·경의(經疑)·고부(古賦)의 3문체로 분류해서 편찬한 것이다. 과거 시행 시기별로 같은 문체의 답안을 삼장(三場)으로 나누어 수록한 것인데, 삼장은 향시(鄉試), 회시(會試), 전시(展試)를 말한다. 조사대상 자료는 그 가운데 재미중자로 인출한 대책의 권5-6만 남은 잔본 2종이다.

<서지사항(구분)>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壬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癸未中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麗末]

2冊(零本): 左右雙邊. 19.8 × 12.2cm. 有界, 11行17-21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6.7 × 16.7cm.)

版心題 : 策.

楮紙.

線裝本.

<서지사항(신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癸未中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鮮初]

2冊(零本): 左右單邊. 19.6 × 12.3cm. 有界, 11行17-21字. 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7.0 × 15.1cm.)

版心題 : 文.

楮紙.

線裝本.

○ 내용 및 특징

『삼장문선』의 편자인 유림과 유인초에 대한 사적은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인명사전에 원대의 유림으로는 안복인(安福人)에 대한 기사는 있다. 그는 우집(虞集 1272-1348)에게 배워 오경에 통달했으며 원말에 적군이 안성(安城)을 함락시키자 태화(泰和)로 피난갔다. 『사서찬석(四書纂釋)』, 『태극도해(太極圖解)』, 『역본의(易本義)』, 『동자설(童子說)』, 『두시유주(杜詩類注)』를 저작했다고 한다. 아마 동일인일 수도 있을 것이나 단정할 수는 없다. ‘安成後學 劉仁初 輯’이라는 권두의 기록과 수록된 대책문의 저작 시기 등을 통해 유인초는 강서 길주(吉州) 안성현(安成縣) 출신으로 혜종(順帝, 재위: 1333-1368)년간에 활동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인초는 인초(仁初)가 자이며, 명은 정(貞)이다.

원대의 과거제도는 태종 10(1328)년에 비롯되지만, 여러 원인으로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였다. 인종 황경 2(1313)년에 이르러 조칙을 내려 과거를 정식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혜종 원통 3(1335)년말에 다시 폐지되었다가, 지원 6(1340)년 말 복설하여 원이 멸망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중국 역사상 원대의 과거는 가장 낙후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유림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 시기 과거 준비생을 위해 수험서를 간행했다는 것이다.

과거 응시생은 시험에 대비를 위한 준비서가 필요했을 터인데, 그 수험서로 편찬한 것이다. 유인초는 과거를 복설하자 선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과거 답안 가운데 좋은 글을 가려 수험서로 이 책을 편찬했다. 따라서 본서의 편찬 시기는 혜종 지원 6(1340)년 말 과거를 다시 복설한 직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원대 간본의 완질은 지정 4(1344)년 원말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분당(務本堂)과 여씨(余氏) 근덕당(勤德堂)의 2종의 패기(牌記)가 있는 간본 12책본이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분당

(務本堂)은 원통 3(1335)년 본서를 간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원통 4(1336)년말 조정에서 폐과하자 본서의 간행을 중지하였다. 5년이 경과해 지원 6(1340)년 과거를 복설하자 간행을 속개한 것이다. 원간본에는 지정 1(1341)년에 유정이 쓴 서문이 있다. 규장각에는 무본당 간행 고부(古賦)의 조선 번각본이 수장되어 있다. 특징은 반엽 14행24자본이다.

최치원이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면서 비롯되어, 고려시대에도 원의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출세에 있어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원의 과거에서는 『주자집주(朱子集註)』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였으므로, 고려출신 급제자는 고려에 주자학을 도입하고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주자학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고려말에는 『삼장문선』을 간행할 필요가 있었다.

원 지정 1(1341)년 유인초의 서문을 넣은 『삼장문선』 초간본이 고려에 전래되어 보급되었다. 전래하는 판본을 토대로 추정하면 충혜왕 2(1341)년 이후 고려가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로 과거 응시생을 파견하기 시작한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서적원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 우리나라의 초간본이라 할 수 있다.

유인초는 과거의 답안을 모아 10집(集)으로 분류해서 72권으로 편찬하였다. 10집은 과거의 주제를 말하는데, 순서만 나열한 것으로 명칭에 의미는 없다. 내용의 주제를 보면, 갑집(甲集 : 經疑 8과 8권), 을집(乙集 : 易義 8과 8권), 병집(丙集 : 書義 8과 8권), 정집(丁集 : 詩義 8과 8권), 무집(戊集 : 禮記義 8과 8권), 기집(己集 : 春秋義 8과 8권), 경집(庚集 : 古賦 8과 8권), 신집(辛集 : 詔誥章表 3과 3권), 임집(壬集 : 對策 8과 8권), 계집(癸集 : 御試策 7과 5권)이다. 주제별로 과거 시행 시기별로 삼장(三場)으로 나누어 수록되었다.

선비 또는 현직 대부가 과거시험과는 관계없이 사사로이 시무책을 논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은 제책(制策), 시책(試策), 진책(進策)이라 한다. 선비에게 책략을 묻는 제도는 중국 한나라 문제시대부터 시작하여 면면히 계승되었다. 대책은 한문 문체의 하나로 주로 과거 시험에 쓰였다. 고시관이 당면한 문제로 정치·경제·학문 등에 관한 문제를 응시자에게 제시하면, 응시자는 그 해결책을 구상하여 대답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이 직면하고 있는 시정책을 묻은 것이며, 응시생은 그 대안과 책략을 진술하는 것이다. 시험문제는 책문(策問) 또는 책제(策題)라고 하는 조령체(詔令體)이고, 답안은 대책(對策)이라 하여 주의체(奏議體)에 속한다.

8권본의 경자자 복각본 『삼장문선대책』의 권두에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1에는 연우 1(1314)년 갑인-2(1315)년 을묘, 권2는 연우 4(1317)년 정사-5(1318)년 무오, 권3은 연우 7(1320)년 경신-지치 1(1321)년 신유, 권4는 지치 3(1323)년 계해-태정 1(1324)년 갑자까지 수록되었다. 권5에는 태정 3(1326)년 병인-4(1327)년 정묘, 권6에는 천력 2(1329)년 기사-3(1330)년 경오, 권7에는 지순 3(1332)년 임신

-4(1333)년 계유, 권8에는 지원 1(1335)년 을해까지 수록되었다. 지정 신청된 『삼장문선』은 권5-6이므로, 권5에는 태정 3(1326)년 병인-4(1327)년 정묘와 권6에는 천력 2(1329)년 기사-3(1330)년 경오가 수록된 것이다.

원초 연우 1(1314)년 정식으로 과거를 시행한 후 원통 3(1335)년 폐지될 때까지의 모범답안을 편찬한 것인데, 이는 지원 6(1340)년 말 과거를 다시 복구함으로써 그 수험서로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완질본에는 지정 1(1341)년에 쓴 편자 유정(劉貞)의 서문이 있다.

수록된 형식은 시험 종류 다음에 책제(策題)가 수록되고, 이어 대책문이 수록되었다. 대책문에는 등차(等次)·성명·출신지·묵등(墨等) 속에 고관(考官)의 관직명·성명·비어(批語)에 이어 답안인 대책의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때로는 고관의 관직명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비평도 있다. 비어는 묵등에 비(批)라 밝힌 소자 쌍행의 비평이나 설명이다. 중서당회시에는 비평이 첨부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 문헌자료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潘吉星, 중국, 한국, 유럽의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비교연구.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裴賢淑, 癸未中字本 四時纂要의 書誌的 研究. 四時纂要. (醴泉, 예천박물관, 2018) 간행예정.

趙炳舜, 「癸未字 組版術의 殘影과 印出能力」. 『季刊書誌學報』 創刊號. (1990.6) 23-40.

趙炳舜,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제7호. (1992.9) 3-34.

趙炳舜, 「癸未字 字數와 小字起源에 대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제11호. (1993.12) 37-129.

趙炳淳,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로」. 『季刊書誌學報』 18. (1996). 3-20.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韓國書誌學會, 2006)

千惠鳳, 「癸未字와 그印本」. 『古印刷文化』 제10호. (2003) 91-101.

千惠鳳,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과주: 범우, 2012)

○ 기 타

계미중자본 『三場文選』은 소유자가 선친인 성암 조병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적이다.

보완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및 現狀

□ 書誌記述

지정신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1. <高麗(舊)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 元) 編 ; 劉貞(?-?, 元) 類編 -- [高麗 書籍院] 金屬活字本. -- [發行地不明] : [書籍院], [高麗末 推定].

2卷2冊(零本) : 上下單邊·左右雙邊, 19.8×12.2cm, 有界, 11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 23.9×15.3cm. 韓紙(楮+藁精). 線裝(改裝).

版心題: 策

行字數: 11行 17-21字(有字數出入)

規 格: 26.7×16.7cm(襟接後規格)

張 數: 卷5(2-26張), 卷6(1-34張)

類編者: 類編者 劉仁初의 字는 仁初이며 이름은 貞임.

版 本: 舊藏者 故 誠庵 趙炳舜(1922-2013)은 高麗 書籍院活字本이라 주장.

現 狀: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改裝時 天頭와 地脚을 가로로 절단하여 일부의 손상이 있으며, 求得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듯 熱로 인한 酸化가 심한 상태임.

傳來歷: 故 誠庵 趙炳舜이 1972년에 卷5-6을 求得한 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터즈 아파트의 조왕기(조동기·조성은·조영기) 등이 先親인 誠庵翁으로부터 상속한 유물로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관리되고 있음.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2. <朝鮮(新)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 元) 編 ; 劉貞(?-?, 元)

類編 -- [朝鮮 癸未字] 金屬活字本. -- [發行地不明] : [鑄字所], [朝鮮初 推定].

2卷2冊(零本) : 上下單邊·左右雙邊, 19.6×12.3cm, 有界, 11行19字, 上下內向黑魚尾 ; 23.9×15.3cm. 韓紙(楮). 線裝(改裝).

版心題: 文

行字數: 11行 17-21字(有字數出入)

規 格: 27.0×15.1cm(襟接後規格)

張 數: 卷5(10-26張), 卷6(1-35張)

類編者: 類編者 劉仁初의 字는 仁初이며 이름은 貞仁.

版 本: 舊藏者 故 誠庵 趙炳舜(1922-2013)은 朝鮮 癸未中字本이라 주장.

現 狀: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改裝時 天頭와 地脚을 가로로 절단하여 일부의 손상이 있으며, 求得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듯 熱로 인한 酸化가 심한 상태임.

傳來歷: 故 誠庵 趙炳舜이 1975년 봄에 卷5-6을 입수한 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터즈 아파트의 조왕기(조동기·조성은·조영기) 등이 先親인 誠庵翁으로부터 상속한 유물로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관리되고 있음.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 現 狀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改裝時 天頭와 地脚을 가로로 절단하여 일부가 손상되고 求得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듯 熱로 인한 酸化의 상태가 심한 편이다.

○ 內容 및 特徵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중국 원조의 劉霖이 元朝 歷代의 江浙·江西·湖廣 등지의 鄉試·會試(中書堂會試)·御試(殿試) 등 三場의 科試答案인 對策을 모아 編輯한 「歷學三場文選對策」을 元朝의 劉貞(字 仁初)이 主題別로 分類編輯[類編]하고 자신의 序文을 수록하여 至正 1(1341)년에 새로이 간행[新刊]한 科學의 受驗書이다.

對策은 현직의 대부가 과거와 관계없이 時務策으로 올리는 制策·試策·進策 등과는 달리 선비에게 책략을 묻는 文體의 하나로 주로 과거시험에서 사용되었으며, 考試官이 정치·경제·학문 등의 시정을 물으면 응시생은 그 대안과 책략을 진술하는 것으로 試題는 策問·策題라는 詔令體이고 그 답안은 對策이라는 奏議體이다.

원조 至正 1(1341)년의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甲·乙·丙·丁·戊·己·庚·辛·

壬·癸 등의 10集으로 분류하여 72권으로 편집·간행되었다. 그 내용은 甲集(經疑 8科8卷), 乙集(易義 8科8卷), 丙集(書義 8科8卷), 丁集(詩義 8科8卷), 戊集(禮記義 8科8卷), 己集(春秋義 8科8卷), 庚集(古賦 8科8卷), 辛集(詔誥章表 3科3卷), 壬集(對策 8科8卷), 癸集(御試策 7科5卷) 등이다. 이에 수록된 試問의 범위는 원조에 실행된 江浙·江西·湖廣 등 江南 3성의 科試 答案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연도에 따라서는 燕南과 河南의 鄉試에 제출된 우수한 답안과 中書堂會試에 제출된 우수한 답안도 수록되어 있다. 그 文體는 對策·經疑·古賦의 3體로 분류·편집하고 과거의 시기별로 同一 文體의 답안을 鄉試·會試·展試 등 3場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編者인 劉霖(?-?)과 類編者인 劉貞(?-?)의 行歷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劉霖은 江西省 吉州(吉安)의 安福縣人으로 虞集(1272-1348)에게 수학하여 五經에 정통하고 성격이 剛直하였으며, 元朝 말기에 적군에게 安城(安吉縣城)이 함락되어 江西省 吉州 泰和縣으로 移居하자 학자들이 많이 따랐으며, 저술로는 「四書纂釋」·「太極圖解」·「易本義」·「童子說」·「杜詩類注」 등이 있다고 한다. 類編者인 劉貞은 江西省 吉州(吉安) 安福縣人으로 字는 仁初이고 名은 貞이며, 編者인 劉霖과 同姓에 出身地와 居住地가 동일한 점으로 혹은 一族이 아닌가 한다.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高麗(舊)本 卷5의 頭部에 수록된 類編者事項에 “安成後學 劉仁初 編輯”이라는 기록과 수록된 대책문이 저작된 시기 등을 통하여 그는 원조 말기의 順帝(재위: 1333-1368) 연간에 주로 활동한 인물이 아닌가 한다.

원조의 과거제도는 太宗 10(1238)년에 시작되어 여러 원인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仁宗 皇慶 2(1313)년 11월에 조칙을 내려 정식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北元의 惠宗(明朝의 諡號는 順帝) 元統 3(1335)년 이후 5년간 폐지되었다가 順帝 至元 6(1340)년에 復設되어 원조가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科擧制가 실시되는 동안 과거의 준비를 위한 수험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順帝 至元 6(1340)년에 과거가 復設됨에 따라 수험서의 수요가 배가되었을 것이다. 이에 劉貞은 일족인 劉霖이 기왕의 과거 답안 중에서 좋은 답안을 가려 編輯한 「歷學三場文選對策」을 類編하였던 것으로 짐작되어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編纂과 新刊의 시기도 順帝 至元 6(1340)년에 과거가 復設된 직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최치원 이후로 中朝의 科擧에서 及第하는 것은 出世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원조의 지배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원조의 과거에서 「朱子集註」가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자, 고려 출신의 급제자들은 주자학을 고려에 도입·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朱子學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간행·보급도 필요하였던 듯하다. 따라서 高麗(舊)本 「新刊類編歷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고려 충혜왕 2(1341)년 이후로 원조가 아닌 명조로 과거의 응시생을 과견하기 시작 이래로부터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書籍院의 活字로 初刊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조선은 開國하면서 勝國인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科擧制度도 그대로 수용한 결과 개국 초기에는 모범으로 삼을만한 과문의 답안이 축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科文作成의 지침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과거의 수험서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이 초기부터 애독되고 간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朝鮮(新)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태종 3(1403)년에 이르러 癸未字가 鑄成된 후에 重刊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신청본의 舊藏者인 故 誠庵 趙炳舜은 이들 2종의 판본을 高麗(舊)本과 朝鮮(新)本으로 명명한 듯하다.

□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比較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서로 다른 2종의 판본 각 2책씩으로 舊藏者인 故 誠庵 趙炳舜은 이들 2종의 판본을 高麗(舊)本과 朝鮮(新)本으로 명명하고 있다.

舊藏者인 故 誠庵 趙炳舜은 이들 두 판본에 있어 (1) 舊本에는 ‘大’와 ‘聖’ 등 敬意와 관계되는 글자를 改行한 데에 반하여 新本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출판의 歷朝가 다르다는 점, (2) 舊本에는 代·中·小字가 있을 뿐 아니라 大字의 본문에 小字雙行으로 註釋을 다는 등 완벽한 인쇄의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점, (3) 舊本에서 사용된 활자가 新本과 다르다는 점, (4) 舊本과 新本の 紙質이 서로 다르다는 점, (5) 舊本과 新本の 組版樣式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舊本은 고려 충혜왕 2(1341)년에서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書籍院의 금속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舊本에 사용된 활자는 고려 서적원의 금속활자가 아니라 조선의 癸未字라 하며 舊藏者와 견해를 달리하는 학자들도 있어 舊藏者의 서적원 금속활자의 간행설에 대한 書誌學界의 즉각적이고 통일적인 동의는 없었으나, 故 安炳禧(1933-2006) 교수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書籍院 출간의 서적임이 분명하여 큰 의의가 있다면서 고려본임을 인정하였다. 그 후로 서적원의 금속활자로 본서를 간행하였다는 기록이나 이와 대비할 수 있는 활자본을 더 조사할 필요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近年에 들어서 점차 舊藏者의 견해에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지정신청본 高麗(舊)本 및 朝鮮(新)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권5-6)의 권5에는 泰定 3(1326, 병인)-4(1327, 정묘)년이 수록되어 있고 권6에 天曆 2(1329, 기

사)-3(1330, 경오)년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형식은 시험의 종류 다음에 策題가 수록되고 이어서 對策文이 수록되었다. 對策文에는 等次·姓名·出身地 등을 비롯하여 墨等 속에 考官의 官職名·姓名·批語 등에 이어서 답안인 對策文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의 版本에 나타나는 주요사항과 기타의 특징을 비교하면 <表 1>과 같다.

<表 1>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主要事項 比較

事項	高麗(舊)本	朝鮮(新)本	同·異	備考
書名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同	
編輯者	劉霖(元) 編 ; 劉仁初(元) 類編	劉霖(元) 編 ; 劉仁初(元) 類編	同	劉仁初 字仁初 名貞
集次	壬集	壬集	同	新本: 第5卷尾 '任'
卷次	卷5-6	卷5-6	同	
版本	金屬活字本(高麗 書籍院字)	金屬活字本(朝鮮 癸未字)	異	學者間 見解相異
卷冊	2卷2冊(零本)	2卷2冊(零本)	同	
邊欄	上下單邊·左右雙邊	上下單邊·左右雙邊	同	
半郭	卷5: 19.6×12.3cm 卷6: 19.6×12.3cm	卷5: 19.6×12.0cm 卷6: 19.8×12.3cm	異	
界線	有界	有界	同	
行間規格	卷5: 1.2cm 卷6: 1.2cm	卷5: 1.1cm 卷6: 1.1cm	異	
行字數	11行20字(出入17-21字)	11行20字(出入17-21字)	同	
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黑魚尾	同	
規格	23.9×15.3cm	23.9×15.3cm	異	
紙質	韓紙(楮+藁精)	韓紙(楮)	異	
裝訂	線裝(改裝)	線裝(改裝)	異	
卷頭題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同	
版心題	策	文	異	
卷尾題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同	
敬意處理	改行(擡頭) 또는 空格	1字 空格 또는 無視	異	
卷集表記	卷頭: [五卷 壬集], 六卷 壬集 卷尾: 五卷 壬集, [六卷 壬集]	卷頭: [卷之五 壬集], 卷之六 壬集 卷尾: 卷之五 壬集, [卷之六 壬集]	異	新本: '任' 誤謬
編者表記	卷6: 安 成 後 學 劉 仁 初 編輯	卷6: 成安後學 劉 仁 初 編輯	異	新本: '成安' 誤謬
行別內容	不一致	不一致	異	
收錄範圍	卷5: 泰定 3(1326)-4(1327)年 卷6: 天曆 2(1329)-3(1330)年	卷5: 泰定 3(1326)-4(1327)年 卷6: 天曆 2(1329)-3(1330)年	同	
張數	卷5(02-26張, 張7·9 缺落) 卷6(01-34張, 張36 缺落)	卷5(10-26張, 張1-9 缺落) 卷6(01-35張)	-	

조사자는 <表 1>을 바탕으로 2종의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版種이 (1) 半郭의 規格이 相異한 점, (2) 行間의 規格이 相異한 점, (3) 紙質이 相異한 점, (4) 版心題가 ‘策’과 ‘文’으로 相異한 점, (5) 敬意의 처리법이 相異한 점, (6) 集次의 표기가 ‘壬’과 ‘任’으로 相異한 점, (7) 編者의 표기에서 ‘安 成 後 學 劉 仁初 編輯’과 ‘成安後學 劉 仁初’로 相異한 점, (8) 行別 本문의 내용이 相異한 점 등에서 이들을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나아가 朝鮮(新)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에서 (1) 集次의 표기와 (2) 編者의 표기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고 (3) 본문에도 誤字가 없지 않은 점 등에서 볼 때, 朝鮮(新)本은 혹은 校正刷本이 아닌가 한다.

결론적으로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으로 판단하든 아니면 동일의 癸未字本으로 판단하든, 동일 권차의 2종류의 판본이 유일하게 전하는 麗末鮮初의 金屬活字本임에 틀림이 없고 2종 모두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도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2종 4책은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논란이 없지 않으나, 이들은 모두 늦어도 麗末鮮初의 金屬活字本에 해당하는 만큼, 活字의 종류나 版本의 新舊와 관계없이 2종 모두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시장, 2016. 10. 10.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조사보고서> (송일기·오용섭·서정문 등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2016. 04. 29.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http://kyudb.snu.ac.kr/search/Search.do>)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 集部」. 京都 :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 潘吉星, “중국·한국·유럽의 초기 금속활자인쇄술 비교연구”.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 裴賢淑, “癸未中字本 四時纂要의 書誌的 研究”. 「四時纂要」. 醴泉 : 醴泉博物館, 2018.
- 沈俊平, “元代坊刻考試用書의 生産活動”. 「書目季刊」 第44卷 第2期(2010. 09). pp.43-80.

- 趙炳舜, “癸未字 組版術의 殘影과 印出能力”. 「季刊書誌學報」 創刊號 (1990.6). pp.23-40.
- 趙炳舜,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제7호(1992.9). pp.3-34.
- 趙炳舜, “癸未字 字數와 小字起源에 대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제11호 (1993.12). pp.37-129.
- 趙炳舜,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
로”. 「季刊書誌學報」 제18호(1996). pp.3-20.
-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 韓國書誌學會,
2006.
- 千惠鳳, “癸未字와 그 印本”. 「古印刷文化」 제10호(2003). pp.91-101.
- 千惠鳳,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파주 : 범우, 2012.
- 현영아,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書誌的 研究”. 「인문과학연구논총」
제27호. pp.55-74.

○ 其 他 (소장경위 등)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2종은 故 誠庵 趙炳舜이 1975년 봄에 卷5-6을 입수한 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터즈 아파트의 조왕기(조동기·조성은·조영기) 등이 先親인 誠庵翁으로부터 상속한 유물로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관리되고 있음.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2종의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改裝時 天頭와 地脚을 가로로 절단하여 일부가 손상되고 求得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듯 熱로 인한 酸化의 상태가 심한 편이다. 차후에 지류문화재보존처리가 요구된다.

현재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과 동일 또는 유사한 版種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현 상

조사대상의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4권 4책은 중국 원나라의 유정(劉貞)이 1341년 편찬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72권 가운데 고려말기~조선초기 고려·조선사회에서 금속활자로 찍어 선장본으로 만든 권5~6의 고려본(구본)·조선본(신본) 2종으로, 조왕기(조동기·조성은·조영기) 등이 선친 성암(誠庵) 조병순(趙炳舜)부터 상속받아 성암고서박물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조사대상본은 표지가 개장되어 있으며, 개장 때 내지의 천두(天頭)·지각(地脚) 부분이 가로로 절단되어 일부가 손상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본·조선본 권5는 본문의 일부가 마모되어 있으며, 조선본 권6을 제외한 다른 판본은 일부 장차도 누락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온존하게 보존되어 있다.

서지사항

● 고려본(구본)

금속활자본(고려말기 書籍院字 추정)

상하단변(上下單邊)·좌우쌍변(左右雙邊)/ 반곽 19.8×12.3cm/ 유계(有界)/ 반엽 11행 19자(有字數出入 17~21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선장본(線裝本 ; 오침안정/ 개장), 저지(楮紙)+고정지(藁精紙)

권 수 제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六卷 壬集

저술정보 : 安成後學劉仁初編輯

판 심 제 : 策六 一

권 미 제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五卷 壬集

● 조선본(신본)

금속활자본(조선초기 鑄字所 癸未字 추정)

상하단변(上下單邊)·좌우쌍변(左右雙邊)/ 반곽 19.6×12.3cm/ 유계(有界)/ 반엽 11행 19자(有字數出入 17~21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선장본(線裝本 ; 오침안정/ 개장), 닥종이(楮紙)

권 수 제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卷之六 壬集

저술정보 : 成安後學劉仁初編輯

판 심 제 : 文六 一

권 미 제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卷之五 壬集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의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4권 4책은 1341년 원나라의 문인지식인 유정(劉貞) 등이 원나라 때 중국 강절(江浙)·강서(江西)·호광(湖廣) 등지에서 시행된 향시(鄉試)와 함께 중서당회시(中書堂會試)·어시(御試·殿試) 등 삼장(三場)의 과거답안(對策)을 모아 과거 수험서로 편집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72권을 고려말기~조선초기 서적원자(書籍院字) 및 주자소(鑄字所) 계미자(癸未字)로 각각 찍었다고 추정되는 금속활자본으로, 「대책(對策)」 부분(壬集)의 전체 권1~8 가운데 권5~6의 고려본(구본)·조선본(신본) 2종이다. 조사

대상의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에는 1326년(泰定 丙寅年)부터 1330년(天曆 庚午年)까지 출제된 책제(策題)와 대책문(對策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구본·신본)은 판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고려본(구본)과 조선본(신본) 차이

항목	고려본(구본)	조선본(신본)	비고
활자종류	금속활자본(고려 書籍院字)	금속활자본(조선 癸未字)	연구자들간 이견
반곽규격	권5: 19.8×12.3cm 권6: 19.6×12.3cm	권5: 19.6×12.3cm 권6: 19.8×12.3cm	
행간규격	권5: 1.2cm 권6: 1.2cm	권5: 1.1cm 권6: 1.1cm	
종이종류	다종이(楮紙)+고정지(藁精紙)	다종이(楮紙)	
권수제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관심제	策	文	
권미제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경의처리	改行(擡頭) 또는 空格	1자 空格 또는 무시	
권집표기	권수: [五卷 壬集], 六卷 壬集 권미: 五卷 壬集, [六卷 壬集]	권수: [卷之五 壬集], 卷之六 任集 권미: 卷之五 壬集, 卷之六 壬集	‘任’자는 ‘壬’자의 오기
편집정보	卷6: 安成後學 劉 □仁初 編輯	卷6: 成安後學 劉 仁初 編輯	‘成安’은 ‘安成’의 오기
행별내용	불일치	불일치	
장수	권5(01~27장 : 제1장 결락) 권6(01~35장 : 제35장 결락)	권5(01~26장 : 제1~9장 결락) 권6(01~35장)	권5의 전체 장수 차이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구본·신본)은 반곽·행간 규격과 종이종류 및 개행(대두)·공격(空格) 등의 경의처리와 더불어 행별 내용 및 권5의 장수(전체 27·26장)에서 차이를 보이며, 권수제·권미제의 글자 가운데 ‘장(場·場)’자의 형태, 관심제(策·文), 권집의 표기형태(五卷·六卷 및 卷之五·卷之六)와 글자(壬·任), 편집정보의 글자 간격 및 출신정보(安成·成安) 등에서도 다른 내용이 발견된다. 때문에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은 별개의 주체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금속활자로 찍어 만든 기록유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은 이전 소장자인 고 성암(誠庵) 조병순(趙炳舜)이 개행(改行)여부, 활자와 종이 종류 및 조판양식의 차이 등으로 다른 시기에 각각 찍은 별개의 기록유산이며, 더구나 구본을 1341년(충혜왕 복위 2)부터 1370년(공민왕 19) 사이에 고려 서적원에서 금속활자로 찍은 고려 말기의 기록유산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현재까지 조사대상의 구본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비교지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부의 연구자들 가운데는 구본의 활자를 고려 서적원의 금속활자가 아니라 조선초기의 계미자로 추정하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고 안병희(安炳禧)교수의 경우에는 국내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서적원 간행의 고려말기의 기록유산으로 진단하였다.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1374년(공민왕 23) 경 원나라의 판본이 고려사회로 유입되어 국학(國學)의 학생들에게 비장되면서 과거 수험서로 활용되고 있었고, 활자나 종이 종류도 고려말기~조선초기와 관련되며 고려본(구본)에는 원나라 황실이나 황제에 대해 공경을 나타내는 글자(天朝·聖君 등)가 대부하거나 공격을 두고 있으므로, 고려사회에서도 간행되었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은 금속활자의 동일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의 2종은 각각 다른 주체들이 각각 찍어 만든 기록유산이며, 더구나 국내에서 같은 권차의 2종 판본이 유일하게 현전하는 고려말기~조선초기 우리나라 조성의 금속활자본으로 진단할 수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희소성과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종의 판본은 상호 비교·검토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권5 제27장 앞면의 권미제(고려본.구본)



권5 제26장 뒷면의 권미제(조선본.신본)



권6 제1장 앞면의 권수제·편집정보(구본 및 신본)

권6 제35장 뒷면의 권미제(신본)

○ 문헌자료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6월 신미, 「관우군도총제부사치사조용졸기(判右軍都摠制府事致仕趙庸卒記)」.

서울특별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2016.10.10.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조사보고서((송일기·오용섭·서정문 등의 조사보고서)」, 서울시문화재위원회, 2016.04.29.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현영아,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書誌的 研究」 『인문과학연구논총』 27,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研究」, 韓國書誌學會, 2006.

朴宣珪, 「조선 전기 『三場文選』의 수용양상에 관한 일고찰」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학회, 2017.04.

○ 지정사례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본의 종류가 현재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면서 조선초기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찍어 만든 상당수의 기록유산은 국보 제148호·제149호·제150호 및 보물 제1989호 등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연구·보존·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다.

Ⅲ.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9-03-004

4. 국보 제172호 ‘진양군 영인 정씨묘 출토유물 (晉陽郡 令人 鄭氏墓出土遺物)’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172호 ‘진양군 영인 정씨묘 출토유물’의 표면 오염물 제거, 구 복원재 제거 및 재 접합, 결실부 충전 등 보존처리를 위해 현상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국보 제172호 ‘진양군 영인 정씨묘 출토유물’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 리움)
- 수 량 : 3점
- 규 격 : 편병 높이 21.7cm, 밑지름 7.7cm/ 묘지 가로 20.4cm, 세로 36.6cm/
잔 높이 3.8cm, 입지름 6~7cm, 굽지름 3.5cm /
잔받침 높이 2.5cm, 지름 11cm, 굽지름 4.5cm
- 재 질 : 백자
- 제작연대 : 조선시대(세조 시기)
- 지 정 일 : 1974.07.09.
- 문화재내용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에 있는 진양군 영인정씨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로, 진양군 영인 정씨는 조선 세조 때 언양 현감을 지낸 김윤(金潤)의 어머니로 진양군은 출신지역이고 영인은 4품 벼슬 관리의 부인에게 주는 칭호를 말한다.
편병은 높이 2.17cm, 밑지름 7.7cm로 몸통이 둥글고 앞뒤로 납작한 모양이다.

아가리는 밖으로 살짝 벌어졌고 굽이 좁고 높아 특이하다. 몸통에는 흑색 상감으로 모란과 덩굴무늬를 그려 넣었다. 묘지는 죽은 사람의 이름·신분·행적들을 새겨서 무덤 옆에 묻는 돌로, 이 묘지의 크기는 가로 20.4cm, 세로 36.6cm이다. 위쪽은 연잎이 덮은 모양을 선으로 나타내었고 아래쪽은 양쪽에 두 줄의 사선을 긋고 그 안에 연꽃을 새겼다. 묘지에는 정씨의 가계·가족상황·사망일시 등 내용을 적었다. 이를 통해 정씨가 1466년에 죽었고, 유물을 만든 시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바탕흙으로 보아 고려 백자의 계통을 이어받은 특이한 모양으로, 경상도 지방의 백자가마에서 제작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잔은 순백자로 손잡이가 있으며, 잔 받침도 갖추어져 있다. 조선 전기 백자 중 톱니바퀴 모양의 손잡이는 희귀한 편으로, 무덤에 함께 묻기 위해 만들어진 듯하다.

라. 보존처리 전 현 상태

- **진양군영인정씨묘 출토 도자기** : 이 유물은 연질백자로 태토가 자화되지 않아 흡수율이 높고, 태토와 유약의 용착 정도가 낮아 일반적인 백자보다 견고하지 않다.
- **편병** : 구연과 동체부가 파손되었으며 결실부분은 수지로 충전되어 있다.
파손된 도편은 접합되어 있으나 접착제가 열화되어 필름처럼 벗겨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접합선 주변으로 변색되어 본래의 도자기 색상보다 어두운 색상을 띠고 있다.
어깨부분은 유약이 박락되어 태토가 노출되어 있으며 추후 이러한 박락 현상은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 **묘지** : 상단과 하단이 깨져 접합되어 있고 중간부 모서리는 태토가 결실되어 있다. 깨진 도편은 접합되어 있으나 불안정한 상태이고 뒷면에는 파란색 물질 묻어있으며 4-184라 쓰여 있다.
- **잔과 받침** : 편병과 묘지처럼 파손된 부분은 없으나 잔의 구연부와 받침의 굽에 수지가 칠해진 것이 확인된다.

○ 전체 및 세부사진



그림 1. 편병 사진



그림 1-1. 편병 세부

동체부 결실부분으로 복원되어 있으나 어둡게 처리 되어 이질감을 주며 도자기 표면까지 수지와 물감이 번진 상태



그림 1-2. 편병 세부
접합된 부분 주변으로 수지가 번져 있음



그림 1-3. 편병 세부
접합이 불안정하게 되어 있으며 일부 유약이 박락되어 태토가 노출되어 있음



그림 1-4. 편병 세부
과거에 사용된 접착제가 필름처럼 벗겨지고 있으며 결실부 보강이 미흡함



그림 2. 묘지 전체



그림 2-1. 묘지 세부 : 상단부 파손 상태



그림 2-2. 묘지 하단부 모서리의 불안정한 접합 상태



그림 2-3. 2-2 하단부의 뒷면으로 접착제가 열화되어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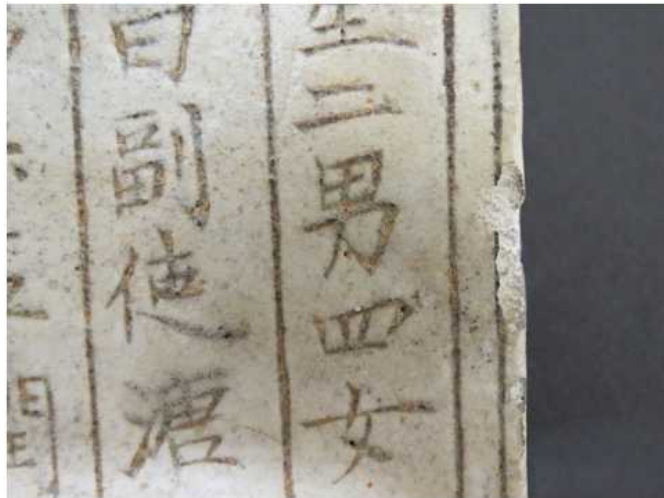


그림 2-4. 모서리 태토 결실 모습



그림 2-5. 묘지 뒷면의 청색 이물질과 숫자



그림 3. 잔과 받침의 전체 사진

마. 보존처리 방침

- 정확한 처리 전 상태를 조사하여 올바른 처리방침을 수립한다.
- 기존 접합부와 복원재를 분리 및 제거한다.
- 재처리 시 사용할 합성수지는 진양군영인정씨묘 출토 도자기의 태도와 유사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는 도편을 대상으로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적용한다.
- 최대한 원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재 접합 및 결실부 복원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강화처리를 실시한다.
- 보존처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상 안정성을 확보한다.

바. 보존처리 방법

현재 파손된 부분들이 불안정하게 접합되어 있고 과거에 사용된 수지가 변색되어 있으므로 해체 후 재처리하고자 한다.

- **처리 전 조사** : X선, 자외선, CT촬영을 하여 유물의 기공, 균열, 결실 범위 등을 확인한다.
- **해체 및 세척** : 용제를 사용하여 접합된 도편을 모두 분리하고 과거 충전 재료를 제거한다. 부분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접합 및 유약층 강화처리** : 파손된 도편을 붙이고 접합 선의 빈 공간을 메워 접합 강도를 높인다. 연질백자는 유약이 태토에 잘 융착되지 않으므로 유약이

쉽게 박락된다. 일부 유약이 떨어진 부분은 강화처리하여 더 이상의 박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결실부 충전** : 결실부를 내구성이 좋은 수지로 충전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다.
- **색맞춤** : 수지로 충전된 부분을 도자기 본래의 색과 유사하게 색맞춤하고 광택 효과를 내어 마무리한다.

사. 보존처리 기간 : 2019. 5. ~ 2020. 5. (약 12개월)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삼성미술관 리움 보존연구실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5. 보물 제778호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향완(靑銅銀入絲蒲柳水禽文香瓘)’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778호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향완’의 표면 클리닝, 안정화, 재질보강, 메움, 노신 고정 등 보존처리를 위해 현상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보물 제778호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향완’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삼성문화재단(삼성미술관 리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30.4cm, 입지름 27.5cm, 바닥지름 22.3cm
- 재 질 : 청동
- 제작연대 : 고려시대 후기
- 지 정 일 : 1984.08.06.
- 문화재내용 :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향완(靑銅銀入絲蒲柳水禽文香瓘)은 전면 금속의 표면에 흠을 파서 가는 은선을 넣어 무늬를 나타내는 은입사 기법으로 문양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법으로 장식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향완 및 금속기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향로 몸체에는 버드나무 아래에 물오리가 헤엄치는 물가의 풍경을 묘사한 포류수금문이 새겨 있다. 또한 연꽃무늬를 갖춘 위패형의 장식이 있고, 그 안에 5행 34자의 글이 입사 기법으로 새겼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향완의 제작 시기를 알 수는 없다. 향로 받침대 위쪽에는 연꽃무늬가 있고, 나팔 모양의 받침대에는 덩굴무늬가 있으며, 바닥 부분에는 구름무늬가 새겨 있다.
포류수금문은 고려시대 상감청자나 금속으로 된 정병류에서 주로 사용된 문양

이지만, 향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무늬라는 점에서 이 향완의 가치가 높다.

라. 보존처리 전 현 상태

- 전체적으로 동 부식물이 표면을 덮고 있으며, 부식으로 인해 재질이 약화된 상태이다.
- 구연부 가장자리 표면층이 박락되어 있으며, 윗면에 굽힌 자국이 있다.
- 노신(爐身) 상부에 크게 결실된 곳이 있으며, 하단부 표면층이 많이 박락되어 있다.
- 노신 하단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며, 작은 구멍이 두 개 나 있다.
- 노신과 받침의 연결부분이 맞지 않아 노신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
- 노신 하단부와 맞닿는 받침의 상단면에 구멍이 세 개 나 있다.
- 받침 안쪽 상단면이 매우 불규칙하며 미세한 흠이 묻어 있다.
- 받침 안쪽 하단면에 푸른색을 띄는 2차 부식물이 생성되어 있다.
- 입사된 은 표면이 부식으로 인해 검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 입사된 은사(銀絲)가 홈에서 빠져 돌출된 곳이 있으며 결실된 부분도 있다.

○ 전체 및 세부사진



전체 사진 1



전체 사진 2



상부 구연면



받침 바닥면



구연부 표면 박락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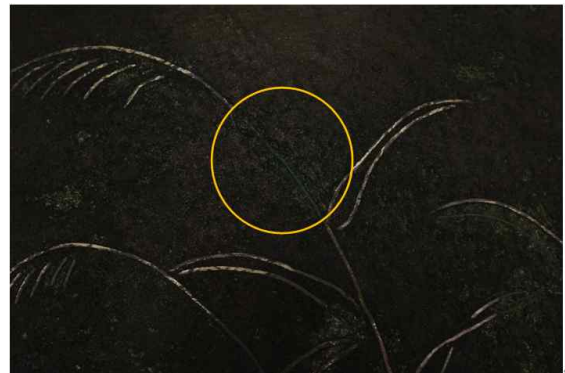
노신 명문 입사부분



받침 입사 돌출 부분



노신 입사 변색상태



노신 입사 변색 및 결실부분



노신과 받침 연결 리벳상태



노신 하단부 표면 박락상태



노신 상부 결실부분



구연부 금침부분



반침 입사 변색 및 결실부분



노신 하단부 미세균열 및 소공



받침 상단부 상태 및 소공

마. 보존처리 방침

- 정확한 처리 전 상태를 조사하여 올바른 처리방침을 수립한다.
- 최대한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클리닝, 안정화, 재질보강, 메움, 노신 고정을 실시한다.
- 무리한 처리보다는 유물의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처리를 진행한다.
- 보존처리에 전 과정에 가역적인 재료를 사용하며, 처리과정을 기록한다.
-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간에 보관한다.

바. 보존처리 방법

-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
X-선 및 CT촬영, 현미경 관찰과 성분분석 등의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상태와 제작기법을 정밀하게 조사한다.
- 표면 클리닝 실시 :
소도구를 사용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클리닝한다. 입사부분에 생성된 부식물은 메스나 유리섬유솔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클리닝이 완료되면 E-Alc로 세척한 후 건조한다.
- 안정화 처리 :
동합금유물의 안정화에 사용되는 B.T.A 3% 용액에 침적한 후 꺼내어 자연 건조 한다.
- 재질강화 :
가역성이 보장되는 아크릴수지를 용도에 맞게 희석하여 자연함침하여 강화한다.
- 메움 :
노신과 받침에 발생한 구멍은 가역적인 재료를 선정하여 메움한다.
- 노신 고정 :
재질에 적합한 가역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사. 보존처리 기간 : 2019. 5. - 2020. 5. (약 12개월)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삼성미술관 리움 보존연구실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金駟孫 琴)’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金駟孫 琴)’의 손상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대구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金駟孫 琴)’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국립대구박물관 기탁)
- 수 량 : 1건 1점
- 규 격 : 길이 160cm, 너비 19cm, 높이 10cm
- 재 질 : 목재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지 정 일 : 1988. 6. 16.
- 문화재내용 : 조선 시대 성종, 연산군 대의 문신이었던 탁영(濯纓) 김일손이 사용하던 거문고이다. 거문고 중앙부분에 탁영금(濯纓琴)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학 그림이 거문고 아래쪽에 그려져 있다. 거문고의 머리 부분인 용두(龍頭)와, 줄을 엮어 고정시키는 운족(雲足)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반면, 끝 부분인 봉미(鳳尾), 운족과 같이 줄을 고정시키는 패 등 일부부품은 새로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옛 선비들의 애완품으로 사용된 악기로서는 유일하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현재 김일손의 후손인 김상인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국립대구박물관에 기탁하고 있다.

라. 현 상태

- 전체적인 외형과 칠 등은 양호한 상태이다. 거문고의 구성품 중 이미 보수된 바 있는 16개의 패(樑) 중 2개가 손상되었다. 16패는 접착면이 손상되면서 분

체와 분리되었고 15괘는 분리되지 않았으나 약하게 흔들리고 있다. 표면은 건식세척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괘는 접착면의 상태를 조사한 후 재접착하는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132.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 전체 사진



그림 133. 좌단(坐團)과 현침(絃枕) 부분



그림 134. 16괘(樑)와 15괘의 손상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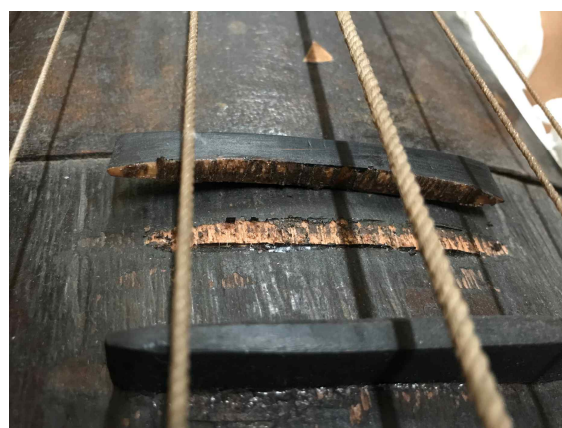


그림 135. 16괘(樑)와 본체의 손상 부분



그림 136. 손상부분 확대

마. 현상변경 내용

- 보물 제975호 ‘김일손 거문고(金駟孫 琴)’의 손상 부분 보존처리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형 보존함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적합한 보존처리 방안을 수립한다.
-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김일손 거문고(金駟孫 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처리방안을 모색한다.
- 보존처리는 가역적 재료 및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며,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실시한다.

사. 보존처리 방법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처리 전 상태 조사 및 기: 사진촬영, 실측 등
 - 과학적 조사: 실체현미경 관찰 등
- 세척
 - 표면 건식 세척: 붓, 소도구 이용
- 손상부 수리
 - 가역성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재접착
- 보존처리 과정 기록
 - 보존처리 기록카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아. 보존처리 기간 : 2019. 5. ~ 2019. 9. (약 5개월)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대구박물관 보존과학연구실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자. 의결사항

- 보 류 : 정밀기초조사 후 보존처리계획 재수립

7.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刺繡袈裟)’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의 이물질 제거 및 결손부 복원 등 보존처리를 위해 현상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공예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서울특별시(서울공예박물관)
- 수 량 : 1착
- 규 격 : 238.5 × 58.5cm
- 재 질 : 섬유류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지 정 일 : 1979.02.08.
- 문화재내용 : 이 자수가사(刺繡袈裟)는 25조(條)의 대가사로 4장(長) 1단(短)으로 구성되었다. 첫 단에는 불(佛), 둘째와 셋째 단에는 보살(菩薩), 넷째 단에는 경전(經典), 다섯째 단에는 존자(尊者)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흰색의 무늬가 없는 비단 바탕 위에 불, 보살, 경전명, 존자를 자련수·평수·선수 등을 써서 노랑·주홍·녹색·검정 등의 색사로 정교하게 수놓고 있다. 수놓은 각 조도 정교하게 손박음질하였다.
현존하는 10여점의 고가사(古袈裟) 중 전체를 수를 놓아 제작한 유일한 가사 유물이다.

라. 보존처리 전 현재 상태

- 현재 액자 형태로 보관 중이며, 유물 표면은 비닐로 덮여 있음.

- 착장 상태를 기준으로 가사의 우측 5조~7조 상단의 직물 표면에 곰팡이가 확인되며, 이로 인해 주변의 직물 등 검은 색으로 변색되거나 직물 열화가 진행 중임.
- 지정 전 2~3차례 수리 되어 현재와 같은 액자형태로 만들었으며, 잦은 이동으로 인해 액자의 뒷면이 터져 있음.
- 겹가사로 추정되나 과거 수리 당시 가사의 뒷면과 선단 부분을 제거하여 배접한 상태로 현재까지 보관 중이며, 해체한 선단 및 뒷부분, 끈 등은 현전하지 않음.
- ※ 197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의 자수’ 전시 도록에는 자주색 선단(緣)이 확인됨.
- 대체로 자수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부분적으로 자수 실이 끊어지거나 결실된 부분이 확인됨.
- 찢어지거나 터져 있는 등 직물 파열이 확인되며, 일부 봉제 부분이 터져 있음.
- 곰팡이로 인한 검은색 얼룩 외에도 적갈색 및 흰색 얼룩도 확인됨.



사진 137. 유물 보관 상태 및 전체 모습(2018년 8월 촬영)



사진 138. 액자의 뒷면 상태



사진 139. 5조~7조 상단부의 고평이 등 이물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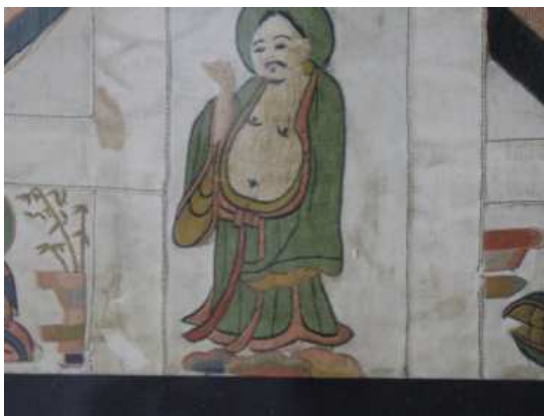


사진 140. 표면 얼룩 및 부분 결실부 확인



사진 141. 자수의 부분 유실



사진 142. 보수 전 자주색 선단(緣)이 달린 자수가사(1979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도록)



사진 143. 자주색 선단부분(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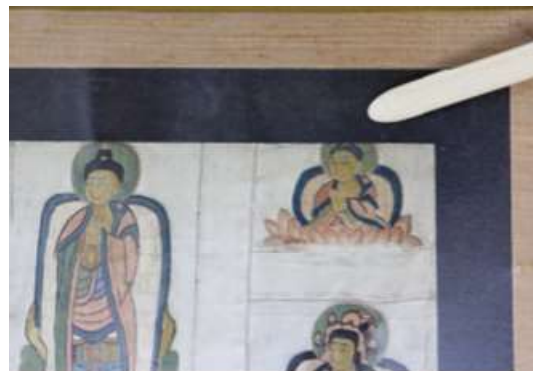


사진 144. 가사의 자주색 선단을 대체한 배접지 띠

마. 보존처리 방침

- 정확한 처리 전 상태를 조사하여 올바른 처리방침을 수립한다.
- 유물 반입 후 훈증 소독을 실시한다.
- 제거가 필요한 과거 보수 부분을 해체하고, 각 단계마다 보존상태 및 유물 상세 내역을 기록한다.
- 건식 및 부분 세척으로 표면 오염물을 제거한다.
- 최대한 원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결실부 복원, 직물의 보강 작업을 실시한다.
- 보존처리 전 과정에 가역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보관상 안정성을 확보한다.

바. 보존처리 방법

- 훈증소독
 - 곰팡이 등이 확인되어, 유물 반입과 동시에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 보존처리 전 조사
 - 보존처리 전 상태 기록, 사진 촬영

- 유물의 기본 특성(크기, 밀도, 무게, 재질 등) 조사
-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FT-IR을 이용한 섬유식별 및 실체현미경을 통한 조직 분석
- 색도측정 및 자외/가시광 분광광도계(UV/Visible) 측정
- 유물의 바느질법 및 구성 방법 조사

○ 보존처리 범위 선정

- 생물 피해가 확인된 액자를 분리·해체 작업을 실시한다.
- 액자에서 유물을 분리한 뒤 가사의 뒷면 및 가장자리 등의 보존상태 조사를 실시한다.
- 과거 보수 내역을 확인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보존처리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한다.

○ 해체 및 배접지 제거

- 유물의 이염 상태를 확인하여, 과거 보수된 배접지 등을 제거한다.

○ 세척 및 형태 보정

- 직물 표면의 건식 세척으로 표면에 축적된 먼지층,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 부분세척을 통해 얼룩에 대한 제거 및 완화한다.
- 배접지 제거 후 주름진 부분의 형태 보정을 실시한다.

○ 보강 및 형태 복원

- 뜯어진 부분 등을 바느질로 재연결하고, 과열된 부분에 대한 직물 보강, 자수부분의 보강 작업 실시한다.
- 직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역성이 있는 복원 재료를 선정한다.
- 유물의 남아 있는 부분과 유사유물 조사를 통해 선단 및 뒷면을 복원한다.

○ 포장

- 보존처리 완료하고, 대형의 유물 크기를 고려하여 예방보존을 위한 받침틀과 증성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한다.

사. 보존처리 기간 : 2019. 4. - 2022.3. (3년)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자체 보존처리할 예정임
- ※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와 유사한 국가민속문화재 제29호 사명대사의 금란가사 보존처리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수행한 이력이 있음

아.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기초조사 및 자문회의 선행 후 보존처리 진행

8.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관련유물(明安公主關聯遺物)’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관련유물’의 이물질 제거 및 결손부 복원 등 보존처리를 위해 현상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관련유물’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 지정수량 : 전체수량 총 45점(일괄)

지정 번호	가지 번호	목록 번호	문화재 명칭	수량	비고
보물 1220	-	1	명안공주관련유물-전적류	19	-
		2	명안공주관련유물-고문서류	4	-
		3	명안공주관련유물-회화류	1	-
		4	명안공주관련유물-유물류	21	-

※ 보존처리 대상 및 수량 : 5점

- 궁낭하용 완초 화문석 1점, 운보문 비단겹보자기 2점, 삼금대 1점, 흑각서대 1점
- 규 격 : 30.0 × 221.5cm 등
- 재 질 : 저지(楮紙) 등
- 제작연대 : 조선시대
- 지 정 일 : 1995.06.23.
- 문화재내용 : 조선 현종의 셋째 딸인 명안공주(1664~1687)와 그가 거처하던 명안궁과 관련된 전적류, 고문서류, 유물 등이다. 명안공주의 본명은 온희(溫

姬)로, 숙종 5년(1679)에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와 결혼하였다.

전적류는 현종과 명성왕후, 숙종의 한글편지 등이 수록된 어필첩과 어필 판본, 오태주 일가의 글씨를 모은 유묵첩, 영조의 80세 생신을 맞아 왕세손 및 신하들이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 모음집 등이 있으며 **고문서**로는 각종 물품단자, 진정서이고 **유물**들은 명안공주에게 궁중에서 보낸 생활용품들이다. 특히, 현종의 명안공주 작명단자는 왕실의 것으로는 현존하는 유일한 것이고 곁봉을 갖춘 왕실의 한글편지들은 당시 편지양식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소설표제들 또한 궁중에서 읽혀졌던 것으로 보여 국문학사연구의 새로운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들은 한곳에 일괄로 보존되어 있는 서지학, 국문학, 공예분야 등 여러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의 궁중생활과 사회경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라. 보존처리 전 현재 상태

- 현재 궁낭하용 완초 화문석은 초레청으로 걸어 나가는 낭하에 깔던 돛자리로, 비교적 상태가 좋은 1점과 가장자리의 자주색 선단이 열화되어 결실된 2점 등 총 3점으로 길이가 길어 접거나 말아 보관 중임. 자주색 선단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배접지와 분리되면서 선단의 직물 열화 및 결실이 커지는 상황임.
- 운보문 비단겉보자기 2점은 접어 보관 시 발생한 굵은 사각형의 주름과 해충 흔적이 있으며, 운보문단의 겉감이 부분적으로 직물이 파열되고, 안감의 탈색 및 변색이 확인됨.
- 삼금대는 떠돈만 남아 있으며, 일부 녹이 확인되고 금박지가 들떠 있음.
- 흑각서대는 일부 충해흔이 확인되며, 배접지가 들뜨는 등 일부 보존처리가 필요함.
- 전체 및 세부사진



사진 145. 궁낭하용 완초 화문석의 전체 모습



사진 146. 궁낭하용 완초 화문석 선단부분의 직물 열화 및 결실



사진 147. 운보문 비단겹보자기 2점



사진 148. 운보문 비단겹보자기 뒷면 상태



사진 149. 탈색 및 변색 세부 모습



사진 150. 보자기 겹감의 파열된 부분 세부 사진 151. 겹감과 안감 연결의 봉제선 뜯어짐



사진 152. 삼금대의 전체 모습 및 보관 상태



사진 153. 금박지 탈락 등 세부 모습



사진 154. 흑각서대 전체 모습



사진 155. 흑각서대 배접지 들뜸

마. 보존처리 방침

- 정확한 처리 전 상태를 조사하여 올바른 처리방침을 수립한다.
- 유물 반입 후 훈증 소독을 실시한다.
- 보존처리의 각 단계마다 유물의 상세 내역을 기록한다.
- 건식 및 부분 세척으로 표면 오염물을 제거한다.
- 최대한 원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결실부 복원, 섬유 강화 및 안정화 처리를 실시한다.
- 보존처리 전 과정에 가역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보관상 안정성을 확보한다.

바. 보존처리 방법

- 훈증소독
 - 충해흔이 확인되어, 유물 반입과 동시에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 보존처리 전 조사
 - 보존처리 전 상태 기록, 사진 촬영
 - 유물의 기본 특성(크기, 밀도, 무게, 재질 등) 조사
 -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FT-IR을 이용한 섬유식별 및 실체현미경을 통한 조직 분석
 - X선 형광 분석기를 이용한 금속, 니금의 재질 분석
 - 색도측정 및 자외/가시광 분광광도계(UV/Visible) 측정
 - 유물의 바느질법 및 구성 방법 조사
- 세척 및 형태 보정
 - 직물 표면의 건식 세척으로 표면에 축적된 먼지층, 이물질 제거한다.
 - 부분세척을 실시하여 얼룩 등을 제거 및 완화한다.
 - 직물의 주름진 부분의 형태 보정을 실시한다.

○ 강화 및 안정화처리

- 삽금대 및 흑각서대의 금속 테두리의 표면 강화를 목적으로 강화제 (Paraloid B-72)를 도포하고, 삽금대 니금(泥金) 부분의 추가 박락을 예방을 위해 안정화 처리를 실시한다.

○ 보강 및 형태 복원

- 궁낭하용완초화문석의 가장자리 선단은 보존처리용 삭힌 풀로 원래의 위치에 재부착하며, 결실부는 남아있는 직물의 보존 상태에 따라 복원여부를 결정하되, 가역성이 있는 복원 재료를 선정한다.
- 궁낭하용완초화문석은 보존처리 대상유물과 동일하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궁낭하용완초화문석(3점 중 1점)의 유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 운보문비단겹보자기의 뜯어진 부분 등을 바느질로 재연결하고, 파열된 부분에 대한 작업 실시한다.
- 삽금대의 금박지, 흑각서대의 배접지 등 들떠 있는 부분을 재부착한다.

○ 포장

- 보존처리 완료하고, 2m 이상의 길이 및 무게 등을 고려하여 예방보존을 위한 받침틀과 중성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한다.
- 삽금대 및 흑각서대는 유물의 원형을 고려하여, 받침틀과 보관상자를 제작한다.

사. 보존처리 기간 : 2019. 4. - 2020.12. (1년 9개월)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자체 보존처리할 예정임

아.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기초조사 및 자문회의 선행 후 보존처리 진행

검 토 사 항

IV.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9-03-009

9. 보물 제868호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 (成世昌 題詩 薇垣契會圖)

가. 검토사항

‘보물 제868호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7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국보 승격 소위원회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검토 대상으로 추천된('17.5.2.) 보물 제868호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18.11.2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868호(1986.10.15. 지정)
- 명 칭 :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成世昌 題詩 薇垣契會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43.0×89.3cm, 화면: 92×58.0cm,
- 재 질 : 비단에 수묵
- 형 식 : 액자
- 조성연대 : 1540년(중종 34)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는 1540년(중종 35)에 사간원 관원들의 계회를 기념하여 제작된 것으로 현전하는 계회도 중에서 이른 시기에 속하는 작품이다. 또한 조선초기 안견과 산수화풍을 계승한 이른바 관념산수를 배경으로 삼은 계회도 계열을 대표한다. 1540년이라는 제작연도가 밝혀져 있고, 제목·그림·좌목을 갖춘 전형적인 3단 구성의 계회도 형식이며, 성세창의 제시까지 쓰여 있어서 학술적·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조선초기 계회도 제작 전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나아가 제작연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년작이 드문 조선초기 산수화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그러나 개장된 현 상태의 작품은 바탕 비단의 박락이 심하고 그에 따른 가필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제작연대를 말해주는 “嘉靖庚子仲春”이라는 글씨가 현재는 거의 판독이 불가능한 정도이다. 즉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는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상태이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유물의 원형 유지와 완전성 면에서 국보 승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成世昌 題詩 薇垣契會圖는 조선전기 계회도의 좋은 예로서 우의정을 역임한 문신 成世昌(1481-1548)의 제시가 있고, 참석자로는 당시 40대의 퇴계 이황이 있어 주목된다. 또 계회 장면을 그린 그림은 조선전기 안견과 화풍의 산수양식을 잘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미원계회도는 현재 보물 제868호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아래 몇 가지 점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는 원래의 계축 형식에서 액자로 개장되어 원형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개장할 때 좌우에 종이를 덧대는 부분 등이 상당히 정밀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는는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아주 불량하다. 전서로 적은 표제 글자도 상당부분 보수, 가필한 것이며, 산수화 부분, 성세창의 제시, 하단의 좌목 등 많은 곳이 박락되어 판독할 수 없고, 선명해 보이는 부분도 후대에 보수, 가필된 곳이 많다.

셋째,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는 제시 중 ‘嘉靖庚子仲春’이라는 구절이 있어 1540년(中宗 35)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을 조사한 결과 심하게 박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국보가 갖추어야 할 명확한 시대성의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셈이다.

○ (지정 가치 미흡)

1.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계획도는 <성세창 제시 미원계획도>를 포함하여 모두 11점이며,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세창 제시 미원계획도>는 여타 계획도와 달리 제작연도가 분명하게 밝혀졌고, 참석자의 인적 사항 및 성세창의 제시까지 적혀 있어 사료적인 가치 면에서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2. 그러나 그림의 박락이 많고, 가필이 많으며, 개장 과정에서 바탕의 손상이 심하여 원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좌목 부분의 박락으로 참석자의 인적 사항이 정확하지 않고, 특정 인물만 부각하여 가필한 흔적이 농후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보 승격 대상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현 상

현재는 유물은 유리 액자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화면은 상변과 하변이 약간 잘려나갔으며 화면 좌변과 우변의 경우 개장하는 과정에서 폭 0.8cm 가량이 드러났다. 화면 바탕은 다시 세로 93.1cm, 가로 71.4cm 크기의 종이 위에 붙여져 있는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바탕 비단의 훼손과 탈락이 심하다. 탈락된 부분은 종이를 대고 색맞춤을 하거나 가필을 하였다. 글씨 부분도 탈락된 부분이 많아 전체가 완벽하게 판독되지 않는다. 특히 제목 부분에 가필이 심하며 그림 및 좌목 부분에도 보수된 종이 위로 먹이 지나가는 등 가필이 많이 이루어졌다. 화면에는 제시를 쓴 성세창 것으로 보이는 주문방인 1과와 백문방인 1과가 찍혀있으나 박락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렵다.

○ 내용 및 특징

<성세창 제시 미원계획도>는 미원(薇垣), 즉 사간원 관료들이 1540년에 개최한 회를 기념하여 제작한 일종의 기록화이다. 화면 상단에는 ‘薇垣契會圖’라는 제목이

전서체로 적혀 있고, 중단에는 계획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는 사간원 관원 7명의 인적사항을 적은 좌목이 배치되어 있다. 16세기에 유행한 전형적인 3단 구성의 계축 형식으로서 각 부분은 붉은 선을 그어 구별하였다. 화면 왼편 여백에는 당시 대사헌이었던 조선 중기의 문신 성세창(成世昌, 1481-1548)의 제시가 적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연구에서 성세창 제시 다음에 쓰인 글씨 “가정경자중춘(嘉靖庚子仲春)”을 통해 이 계획이 1540년(중종 35)에 제작되었음이 밝혀졌으나 현재 그 부분은 판독이 불가하다.

화면 좌측 상단에 적힌 성세창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薇院清切往群賢 / 納諫如流未若前 / 傾竭一心思□主 / 還□□□□擊天
直言亦必施當日 / 公議終知在後年 / 結契金蘭同書□ / 死生留與畫圖傳
(嘉靖庚子仲春) / 昌寧 蕃仲書

좌목에는 대사간 유인숙(柳仁淑, 1485-1545), 사간 홍춘경(洪春卿, 1497-1548), 전(前) 사간 이명규(李名珪, 1497-1560), 헌납 나세찬(羅世纘, 1498-1551), 전(前) 정언 이황(李滉, 1501-1570), 정언 김□(金□), 정언 이영현(李英賢, 1507-1572) 등 사간원 관원 7명의 관직, 성명, 자, 본관 등과 그들 부친의 관직, 성명 등이 적혀 있다. 좌목을 통해 사간원의 전·현직 관원들의 계획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는 5명의 관원만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모임에는 현직 관원 5명만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 사간원 관원 이황은 좌목에 쓰여 있듯이 당시 사헌부 지평이었는데 이황이 사간원 지평으로 있던 시기는 1540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므로 계획도 그 즈음에 열렸으며 그림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좌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行大司諫嘉善大夫兼同知春秋館事 柳仁淑 原明 本晉州
父贈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事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兼春秋館編修官 文□
行司諫通訓大夫知製教 洪春卿 明仲 本南陽
父通仕郎藝文館待教兼春秋館記事官 係貞
前司諫奉正大夫守世子侍講院輔德兼春秋館編修官 李名珪 光潤 本固城
父通訓大夫行義盈庫令 岫
行獻納朝散大夫知製教 羅世纘 丕承 本羅州
父成均生員 彬
前正言奉直郎守司憲府持平知製教兼承文院校理 李滉 景浩 本眞寶
父成均進士 埴

守正言宣敎郎春秋館記事官 金□

父從仕郎 公亮

守正言宣務郎 李英賢 希聖 本廣州

父通仕郎 擊

그림을 보면, 경물이 오른쪽에 치우쳐 배치된 구도, 산의 형태, 바위와 나무의 묘법 등 16세기 전반의 안견과 화풍을 충실히 따랐다. 특히 근경의 돌출된 바위와 두 그루 소나무는 16세기 산수화는 물론 여타의 계획도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소재이다. 인물은 대사간을 중심으로 그 왼쪽에는 사간이, 오른쪽에는 헌납과 정언이 관계(官階)에 따라 좌차(座次)를 달리하여 앉아 있다. 산수는 실경이라기 보다 당시 유행하였던 산수화풍을 따라 관념적으로 그렸지만 모임의 모습 만큼은 사실을 잘 반영한 듯하다. 박락은 심하지만 산수와 인물 묘사는 우수하다.

○ 참고문헌

안휘준, 「16世紀 中葉의 契會圖를 통해 본 朝鮮王朝時代 繪畫樣式의 變遷」, 『美術資料』 1, 국립중앙박물관, 1975.

안휘준,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그림 156. 보물 제868호 성세창 제시 미원계회도



그림 157. 성세창 제시와 계획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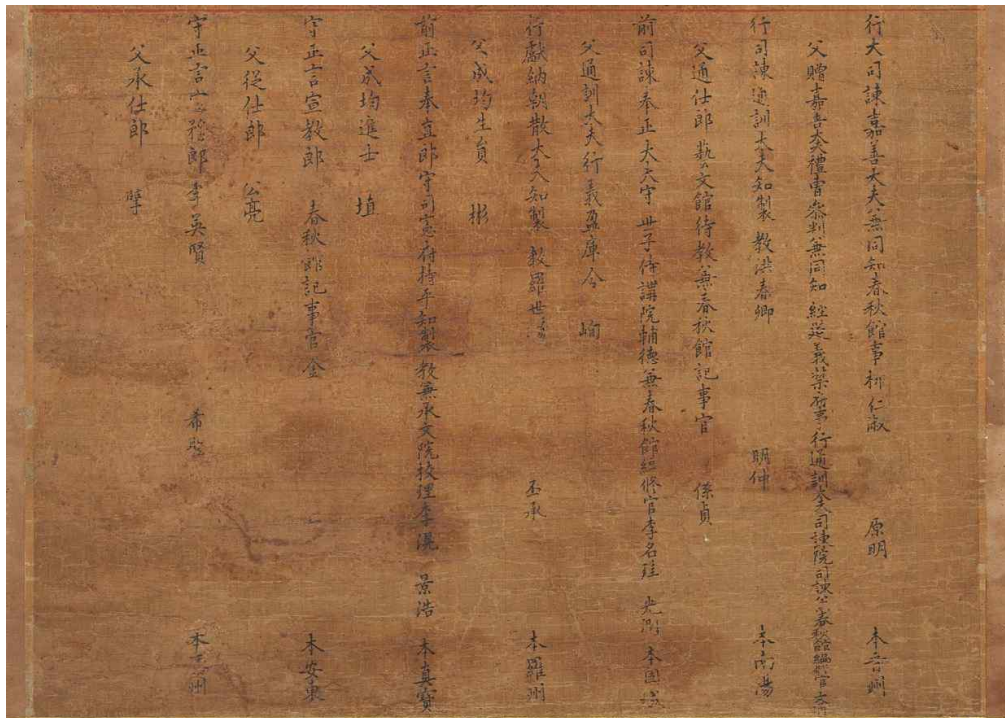


그림 158. 座目

□

○ 현 상

원래는 契軸이었으나 현재는 액자로 개장되어 있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으나 상단의 전서 제목, 그 아래의 계획도 그림, 하단의 좌목이 모두 잘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세부를 관찰해 보면 화면 전반에 걸쳐 상당히 심한 박락과 보수, 개칠 등이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상단 전서 제목 부분도 비단이 떨어져 나간 곳은 아예 새로 획을 그린 부분도 확인 된다.

중단 그림 부분도 상당히 훼손이 심하나 다행히 그림의 중요 부분은 잘 남아 있다. 조선초기 안건과 화풍으로 강변의 작은 언덕 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장면을 그리고, 그 옆에는 안건과의 특징인 소나무가 있는 언덕을 배치하였다. 강 건너에는 향우측 방향에 폭포가 떨어지는 높은 산봉우리를 배치하였다. 강 위에는 작은 배가 떠 있고 향좌측 부분에는 비교적 나지막한 산수화를 실루엣처럼 표현하였는데, 이는 남송원체화의 특징이다. 높은 산이 없는 좌측 화면 위쪽에 거의 여백 전체를 활용하여 成世昌(1481~1548)의 畫題가 적혀 있으나 상당부분 화면이 박락되어 읽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마지막 부분의 서명 ‘蕃仲書’ 부분은 다행히 남아있다(蕃仲은 성세창의 字임). 하단 그림 부분의 계획장면에는 다섯 사람의 참석자만 그려져 있어 좌목에 보이는 일곱 사람에 비해 두 사람이 모자라는데 어떤 연유가 있을 것이나 현재의 작품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 내용 및 특징

薇垣契會圖는 薇垣(薇院, 司諫院의 別號)에 근무하는 司諫과 正言들의 계획을 그린 기록화이다. 畫面의 왼쪽 여백에는 成世昌(1481~1548)의 題詩가 쓰여 있는데,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이 제시 중 ‘嘉靖庚子仲春’이라는 구절이 있어 1540년(中宗 35)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 부분이 워낙 박락이 심해 확인할 수 없다. 하단 좌목에는 계획참석자 7명, 즉 柳仁淑(1485-1545), 洪春卿(1497-1548), 李名珪(1497-1560), 羅世纘(1498-1551), 李滉(1501-1570), 李英賢(1507-1572) 등의 관직 · 성명 · 자 · 본관 등과 그들 부친의 관직 · 성명 등이 쓰여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훼손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는 글자가 많다. 참석자 중 주목되는 이는 역시 퇴계 이황 선생(당시 40세)이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황’이라고 적힌 부분도 상당히 박락되었는데 후대에 가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기 타

전 소장가인 李元基씨가 1976년 4월 日本에서 구입하였고, 1986년 10월 15일 寶物第868號로 지정되었다. 199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하였다.



○ 현 상

1. 상황 상태 : 수묵으로 그림을 그린 비단 바탕을 개장하면서 종이로 배접하여, 다시 비단 상황을 한 다음, 유리액자에 넣어 보존하고 있음. 개장할 당시 덧댄 종이의 질이 양호하지 않으며 바탕 그림과 어긋나게 배접하여 원래 비단의 폭과 끝선이 맞지 않음. 액자 뒤의 상태도 군데군데 찢긴 부분이 발견되는 등 매우 박락이 심한 상태임.

2. 화면 상태 : 전반적으로 박락이 매우 심함. 개장할 때 종이를 배접하면서 비단 올이 서로 어긋나서 그림 일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상단의 제목(세로 6.3cm)과 하단의 좌목(세로 42.8cm)이 일부 잘려나감. 전서체의 제목과 해서, 행서체의 좌목에는 가필이 많음. 제목 아래와 좌목 위에 붉은 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위의 붉은 색 선도 가필로 추정. 계획 장면(세로 42.7cm)을 보면 참석자는 7명인데, 그림에는 5명만 등장. 소나무, 바위 표현 등은 매우 훌륭하여 전문화사의 솜씨로 추정되나, 박락이 너무 심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내용 및 특징

1. 이 작품은 미원(薇垣), 즉 사간원 관료들이 1540년에 개최한 계획 장면을 그린 기록화이다. 화면 상단에는 ‘薇垣契會圖’라고 제목이 전서체로 적혀있고, 중단에는 강이 인접한 언덕에서 열린 계획 장면과 함께, 당시 대사헌이었던 성세창(成世昌, 1481-1548)의 제시가 적혀 있다. 하단에는 모임 참석자의 인적 사항과 그들의 부친과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좌목에 적힌 미원 계획의 참석자는 유인숙(柳仁淑, 1485-1545), 홍춘경(洪春卿, 1497-1548), 이명규(李明珪, 1497-1560), 나세찬(羅世纘, 1498-1551), 이황(李滉, 1501-1570), 김□(金□), 이영현(李英賢, 1507-1572) 등 7명이다.

계획 장면은 산, 바위, 언덕, 물가가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모든 경물이 오른쪽으로 쏠린 편파구도를 취하고 있다. 바위 위의 쌍송, 배, 다리, 사람 등의 표현이 뛰어나서, 대관식 산수화의 형식과 양식을 완성한 북송대 곽희(郭熙)의 부분 묘사를 연상시킨다. 계획 참석자의 배치를 보면, 중앙의 1명을 중심으로 왼쪽에 1명, 오른쪽에 3명이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이들과 동행한 인물들이 무언가를 쓰거나 차를 준비하고 있다.

2. 화면 좌측 상단에 적힌 성세창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薇院清切往群賢

納諫如流未若前
傾竭一心思○主
還○○○○擊天
直言亦必施當日
公議終知在後年
結契金蘭同書○
死生留與畫圖傳
昌寧 蕃仲書

3. 비단 바탕이 박락되어 알아보기 어렵지만 성세창의 제시 다음에 “가정경자중춘(嘉靖庚子仲春)”이라는 표기가 있어 1540년(중종 35)에 제작되었음이 확인된다.

4. 성세창의 제시 옆에 도장 2과가 찍혀있는데 박락이 심하여 판독이 쉽지 않다.

5. 성세창의 제시가 적힌 1541년 작 <하관계회도>가 남아 있어, 두 작품의 연관성과 유사점이 발견되어 흥미롭다. 다만 두 작품 모두 박락이 심하여 계획 참석자의 정확한 명단이 판독되지 않아 안타깝다.

6. 16세기 중반 계획도 중에서 비교적 보전 상태가 좋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동년계획도>가 전해진다. 이 작품의 상단에는 조선 중기 문사 관료였던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의 제시가 적혀 있어 1551년 개최된 과거 급제 동년배의 모임 현장을 표현한 계획도임을 알 수 있다. 계획의 현장과 더불어 배경 산수가 수려하게 표현된 이 작품은 성세창 제시 계획도를 비롯하여 16세기 중반 계획도와 좋은 비교작이라 할 수 있다.

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9-03-010

10. 도기 연유인화문 향아리 일괄 (陶器 鉛釉印花文 壺 一括)

가. 검토사항

‘도기 연유인화문 향아리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13.8.9)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도기 연유인화문 향아리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4.6.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4.12.22) 및 보완조사(’18.11.22)를 실시하고 2018년도 본 위원회 제10차 회의(’18.12.13)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제작시기 및 일괄제작 여부 등 재조사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계전문가 보완조사(’19.2.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다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도기 연유인화문 향아리 일괄(陶器 鉛釉印花文 壺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 2점(大壺 1, 小壺 1)
- 규 격 : 대호 : 높이 39cm, 최대둘레 118.5cm, 구경19cm, 저경 20.7cm, 뚜껑: 높이 10cm, 저경 20.3cm, 꼭지 높이 5.0cm

소호 : 높이13cm, 최대둘레 53.1cm, 구경 9cm, 저경 8.8cm, 뚜껑:
높이 6cm, 저경10.8cm, 꼭지 높이 2.8cm

- 재 질 : 토도류(연유도기)
- 형 식 : 대호, 소호 2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경이 넓고 구연이 직립한 立壺 계열 長身 항아리에 뚜껑을 얹은 형식
- 조성연대 : 통일신라 8세기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신라의 대부장경호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내호·외호가 한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보존 상태도 좋아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있음.

○ (지정 가치 있음)

구입품으로 출토지와 출토맥락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수리, 복원이 이루어졌지만, 통일신라시대의 녹유 인화문 유개호로서 내, 외호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유존례가 드문 사례임. 역사적 희소성과 예술성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만함.

○ (지정 가치 있음)

그간 경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수의 발굴조사가 수행되었지만 이 토기 연유인화문 골호의 경우와 같은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경주에서 왕릉급의 고총고분이 여러 기 발굴조사 되어 희귀한 유물들이 많이 검출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다. 이것은 이 골호가 그만큼 희귀하고 특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골호 두 점 중에서 대호의 뚜껑과 목 부분이 파손되어 접합/수리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의 모습을 아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고 아주 정교하게 제작되어 걸작품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소호의 경우는 완전하게 남아있어 한 세트로써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골호 제작에 사용된 태토(胎土)인 백토의 산지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점, 문양도 일부 인화문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한 것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호의 표면에 장식된 문양 등으로 볼 때 중국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의 연유기와가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용기를 제작한 예는 아직 없다. 이 용기는 골호(骨壺, 뼈단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러한 용기의 제작 기술과 표면 장식에 있어서의 모티프(motif), 기형 등은 물론이고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영향으로 성행하였던 화장과 관련된 장례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기원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물이라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이 토기 연유인화문 골호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녹유인화문유개사이호(외호)는 뚜껑과 호 모두 보수되었으나 전체 형태가 온전히 유지되었고 특히 인공제조유약을 입힌 시유도기로서 크기가 대형인 점, 균형이 잡힌 당당한 형태, 세부 장식의 독창성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과 ②녹유인화문유개호(내호) 두 점을 함께 지정할 경우 두 점이 한 세트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과 ②의 명칭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많은 연유도기 색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녹유(綠釉)보다는 연유(鉛釉)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작시기 또한 8세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마. 보완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기연유인화문항아리 일괄>품은 파손으로 인해 비록 후대의 보수과정을 거쳤으나 조형적 측면, 기술적 측면, 예술적 가치, 희소성 측면 등에서 살펴볼 때 8세기 전·중반경의 통일신라 도기호를 대표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근거기준>

- 골호계열 통일신라 연유도기항아리 중 가장 크고 문양소재가 화려함.
- 대호, 소호는 제작 당시 외호, 내호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는지 모르나 동일한 도장과 제작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일 공방, 동일 장인에 의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음.
- 통일신라시대 연유도기의 제작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문양 소재 등의 연구를 통해 통일신라 문화에 수용된 외래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음.
- 통일신라 연유도기 항아리로는 가장 독특한 조형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하며 희소성이 높음.

○ (지정 가치 있음)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 2건 2점은 대형 유개호와 소형 유개호의 뚜껑이 같은 특징으로서 동일 형식일 뿐만 아니라 대형호와 소형호에 시문된 인화문중 수적형문

[물방울모양무늬]의 형태와 크기가 동일하여 동일한 꽃무늬 도장으로 찍어 동일 공방에서 동 시기에 제작한 제품임. 내호와 외호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8세기의 신라도기(토기)로서는 다양한 인화문이 장식되어 화려할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도기(토기)를 대표하며, 대형 호는 중국 당나라의 자기 또는 금속용기를 모방하여 통일신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통일신라의 도기(토기) 제작기술의 최고를 나타내는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본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녹유인화문사이호는 외호와 내호로 구성된 연유골호로서 외호는 연유도기로서 대형이다. 외호는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어 후대에 보수하였다. 보수한 부분은 제작 당시에 가깝게 복원한다고 하였으나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에는 내호가 외호 안으로 매납되지 않는다. 외호의 뚜껑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보수하였다.

외호와 내호의 뚜껑 꼭지는 보주형으로 경주 석가탑 출토 금속 사리기의 뚜껑 꼭지와 같은 것으로 보아 금속기를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부는 동부최대경이 상부에 있고 2조의 침선(沈線)으로 8등분하고 있다. 이 중 대부가 부착되는 저부의 구획은 빈 공간으로 비워두고 나머지 7개소는 연판문을 배치하였다. 4개의 귀면 손잡이 중 대칭되는 2개는 3구간에 부착되고, 나머지 대칭되는 2개는 2구간 하부에서 3구간 2/3부분에 걸쳐 부착되어 있다. 귀면 손잡이 귀부분에는 구멍이 관통되어 있으나 이 중 한 개는 한쪽이 거의 막혀있다. 연판문은 크게 연화문, 능형문, 서화문을 시문하고 있다. 이 중 주문인 연화문은 주변에 점을 찍어 교차로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샤산페르시아에서 유행한 문양으로 주목된다.

3구간에 시문된 서화문과 5구간에 배치된 능형문은 통일신라시대 토기와 도기에 거의 보이지 않는 문양으로 외국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대부는 신라토기의 대부장경호의 제작기법의 전통을 이어 받아 제작된 것이지만 대부 하단에 2조의 침선은 드문 예에 속한다. 내호는 외호보다 소략하지만 개의 형태와 동부 문양 구성에 있어 거의 같다.

○ 문헌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명품도감』, 1985, 삼화출판사
한병삼 외, 『世界陶磁全集』 17, 1979, 小學館



○ 현 상

- 뚜껑과 호가 한 조를 이룸.
- 외호의 구경과 내호 胴體 最大徑이 비슷한데 반해 외호의 깊이가 깊어서 내호를 넣기가 쉽지 않음. 외호 구연부 일부를 수리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결과인지는 확인이 필요함
- 내, 외호 모두 동체와 뚜껑에 황선문대로 구획을 하여 인화문 시문 인화문 구성이 2중원문과 변형 수직형문이며, 내, 외호와 뚜껑의 전반적인 형태가 서로 유사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내, 외호를 한조로 보아도 큰 무리 없어 보임.
- 외호: 저부쪽 유약 박락, 동체 상부 균열흔 수리, 구연부 수리
유태 양호하나 저부쪽으로 박락이 비교적 심하며, 유색은 녹갈색을 띤 인화문 시문된 곳 일부 태도가 노출됨.
뚜껑 내면까지 시유, 뚜껑 내면 깨진 흔적을 보수한 균열흔 있음.
X-Ray 상으로 볼 때 원래 뚜껑 손잡이는 멸실되었고, 현재의 탐모양 손잡이는 내호에 의거하여 복제한 것으로 보임.
- 내호: 유태 비교적 양호, 유색은 짙은 녹갈색, 외호에 비해 두껍게 시유.
뚜껑 내면까지 시유. 뚜껑 내부 작은 태토비짐 받침 두 곳이 잔존.

○ 내용 및 특징

○ 녹유 인화문 유개 사이호 (외호)

- 고운 니질의 백색 태토, 굵과 목, 동체 별도 제작 후 접합 성형
- 얇게 시유되고, 유색은 녹색,
저부로 내려가면서 유약 일부 박리, 부분적으로 태토 드러남
- 목은 직립, 부분 수리, 상부 2조 음각선, 그 아래 다변화문 한 줄 시문
- 어깨 4곳에 등간격으로 귀가 부착되었으며, 귀는 귀면모양 부조된 것
3곳의 귀는 중간에 황으로 관통한 구멍이 있으나, 한 곳은 부분관통.
대개 토제 유개골호의 경우 귀는 종으로 구멍을 뚫는데 반해 황으로 구멍을 뚫은 것은 특이함.
귀는 용문(귀면문) 부조, 대칭되는 두 쌍이 서로 같은 모양

- 황선문대로 구획하고 인화문 시문한 후 귀를 부착하였고, 부분적으로 그 위에 다시 인화문 시문함.
- 동체는 최대경이 어깨가 되며, 어깨에서부터 저부로 완만하게 내려옴.
 - 문양은 목과 저부 하단 제외한 동체부 전체에 인화문 시문.
 - 인화문 : 동체부는 2조 한쌍의 황침선문이 6줄 돌아감.
 동체의 문양대는 황으로 7분 구획
 각 구획 내에 인화문 시문, 동상부로부터 아래로 오면서
 - 1) 타원형 변형 수적형문 2줄 종으로 엇갈리게 배열,
 - 2) 타원형 변형 수적형문 2줄 일렬배치 + 2중 원권문 종으로 배열
 - 3) 변형4변화문 사이에 다변화문과 다변화문 네 주위에 2중원권문이 황으로 배열
 - 4) 타원형의 수적문 3줄 종으로 배열
 - 5) 4변 2중능형문과 네 주위의 2중원권문+ 다변화문 황으로 한 줄 배열, 그 아래로 2줄의 타원형수적문이 종으로 2줄 배열
 - 6) 타원형의 변형 수적형문 2줄 종으로 배열
 - 7) 타원형 수적문 1줄 + 다변화문 1줄이 종으로 배열
 - 굽은 높이 4cm의 비교적 높음. 밖으로 살짝 외경, 굽 하단에 2조 음각선 굽 바닥의 외면은 호의 저부가 되며, 유약을 바르지 않음.
 굽 바닥에 소성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동체 저부와 굽을 부착한 후 백토를 한번 돌린 것으로 보임.
 - 뚜껑: 안쪽에 턱이 있는 入자형의 자모구, 내면까지 시유됨.
 뚜껑 하단과 내측 턱 사이 간격이 비교적 넓음
 뚜껑 꼭지는 복제품으로, 보탑형, 편구형 위에 원통형이 얹혀짐.
 뚜껑 외면 전체에 인화문, 꼭지 주위와 뚜껑 상면,
 경사면에 2조의 황침선이 돌아가며 문양대 3분 구획
 - 1) 꼭지주위 2줄의 원권, 그 아래로 변형 수적형문 1열
 - 2) 타원형의 변형 수적형문이 종으로 2열 엇갈리게 배치,
 - 3) 타원형의 변형 수적형문이 1열 배치

○ 녹유 인화문 유개호(내호)

- 고운 니질의 백색 태토, 굽과 목, 동체 별도 제작 후 접합 성형
- 비교적 두껍게 시유되어서 유색은 녹갈색, 시유 양호하며
 박리된 부분 없음, 다만 저부쪽으로 가면서 산화가 많이 됨.

- 목은 짧고, 약간 내경한 직립구연, 2중원문이 횡으로 한 줄 돌아감.
- 동체는 어깨가 동최대경이 되며,
어깨에서부터 저부까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이룸.
- 굽은 낮고 밖으로 살짝 외경하였으며, 굽의 하단은 둥글게 처리.
- 문양: 2조의 횡침선문이 3줄 돌아가서 동체의 문양대는 4분 구획,
동체 하부와 굽은 시문하지 않음.
- 각 구획 내에 인화문 시문, 동상부로부터 아래로 오면서
 - 1) 타원형의 변형 변형 수적형문 종으로 2열 엇갈리게 배치
 - 2) 타원형의 변형 수적형문 1열
 - 3) 타원형 변형 수적형문 1열 배치, 위의 수적형문과 열을 맞춤.
 - 4) 타원형 변형 수적형문 1열 아래 2중 원권문 종렬로 열 맞춤
- 굽은 높이 1.5cm로 낮으며, 밖으로 살짝 외경. 굽 단은 둥글게 처리.
굽 바닥의 외면까지 시유.
- 굽과 저부의 부착부분에 균열흔이 돌아감.
- 소성시 생긴 것인지 혹은 굽을 별도 제작하여 저부와 부착함에 따라
생긴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뚜껑: 안쪽에 턱이 있는 인자형의 자모구, 내면까지 시유됨.
내부에 3곳 작은 태토비집이 있었으며 한 곳을 떨어져 나감.
뚜껑 하단과 내측 턱 사이 간격이 비교적 넓음
뚜껑 꼭지는 보탑형, 편구형 위에 원통형이 얹혀 짐.
뚜껑 외면 전체에 인화문,
꼭지 주위와 뚜껑 상면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문양대 3분 구획
 - 1) 꼭지를 중심으로 2줄의 원권 돌아가고,
그 아래 2중 원문 횡으로 일렬 돌아감
 - 2) 타원형 변형 수적형문이 상부의 2중 원문과
엇갈리게 1열 횡으로 돌아감
 - 3) 타원형 변형 수적형문이 1열 배치 윗 열의 변형 수적형문과
엇갈리게 배치

○ 문헌자료

국립경주박물관, 명품백선

(http://gyeongju.museum.go.kr/html/kr/data/data_0403)

○ 기 타

- 1919년 4월15일 총독부에서 구입
- 구입 당시 남산 출토품으로 전해짐
- 내호, 외호 일괄로 구입

□

○ 현 상

소호(小壺)의 경우 완전하다. 대호의 경우 뚜껑이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었고 구연부도 1/5 정도 파손되었는데 모두 접합하였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 원래는 소호가 대호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들어가지 않는다. 대호의 구연부를 수리 하는 과정에서 구연부의 지름이 약간 변형되고 작아져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유충문(幼蟲文)과 인화문(印花文)으로 표면을 장식하였다. 대호의 경우 종(種)을 알 수 없는 괴수(怪獸) 머리 두 개와 귀면(鬼面) 두 개로 총 네 귀를 동체부에 붙여놓았고 구멍을 뚫어 놓았다. 1919년 4월 15일 파손되어 수리한 것을 구입한 것이고 또 유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복제품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 기 타

1919년 4월 15일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물 카드에는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오면서 작성한 내용만 있을 뿐이어서 좀 더 상세한 내력은 알지 못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실측을 정확하게 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아울러 3D 스캔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골호에 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상세한 고고·미술·도자사적인 정보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① 녹유 인화문 유개 사이호(綠釉 印花文 有蓋 四耳壺)

호(壺)와 뚜껑(蓋)이 한 조를 이루고 있다.

호는 구연부와 목 일부 결실(缺失)부위가 수리되었고 구연부에서 어깨를 지나 동체 하부로 이어지는 비스듬한 균열이 있다. 동체 하부의 유약 박락(剝落)부위가 넓고 백색 태토가 드러났다. 동체와 굽다리 접합부위 안팎에 칼슘(Ca) 성분의 백색 니질(泥質) 보완제를 유면(釉面)위에 덧발랐으며 그 시점이 제작당시의 보완인지

후대의 보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뚜껑은 열 조각 이상으로 파손되었으나 접합되었다. 꼭지는 원형이 멸실(滅失)되어 보수되었으나 원형대로 복원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朝鮮總督府版, 『朝鮮古蹟圖譜 五』(1917)에 꼭지가 결실된 뚜껑과 호가 한 조를 이룬 사진이 실려 있다.

이상 호와 뚜껑의 현상은 엑스선(X-Ray) 투과촬영을 통한 확인 내용이다.

② 녹유 인화문 유개호(綠釉 印花文 有蓋壺)

호와 뚜껑이 한 조를 이루었다. 동체와 굽다리 접합부위 안쪽부분에 번조 당시에 생성된 균열이 있다. 뚜껑 가장자리 일부분이 결실되었고 유층(油層) 일부가 박락되었으나 전체 현상이 완형(完形)에 해당한다.

○ 내용 및 특징

① 녹유 인화문 유개 사이호

목(頸部)은 직립하였고, 동체(胴體)는 상부(上部) 1/3지점에 최대경(最大徑)이 있으며 하부(下部)로 갈수록 좁아졌다. 동체와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한 높이 약 4cm의 굽다리는 아래쪽이 벌어졌고 접지면(接地面) 가장자리는 단면이 둥근 테두리형태이다. 동체 어깨 네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동물얼굴모양(獸形) 귀(耳)가 부착되었으며 세 개는 횡(橫)으로 관통되었고 하나는 완전히 관통되지 않았다. 목 위쪽, 굽다리 아래쪽에 겹 횡침선(橫針線)을 음각하여 상하(上下) 대칭구도를 이루었고 몸통에는 일곱 줄의 겹 횡침선을 음각하여 전체가 8단으로 구획되었다. 인화문(印花文)은 목둘레에 한 줄, 몸통은 가장 아랫단을 제외한 각각의 구획에 2-5줄씩 빼곡하게 시문되었다. 인화문은 총 4종류이다. 제작은 성형(成形), 귀(耳) 부착, 인화문 시문 순서로 이루어졌다.

뚜껑 상면(上面)은 겹 횡침선을 음각하여 3단으로 구획되었고 상단과 중단에 2줄, 하단에 1줄의 인화문이 시문되었다. 뚜껑에 시문된 인화문은 호(壺)의 인화문과 동일한 형태이다. 하면(下面)에 번조반침 흔적으로 추정되는 유약 박락부분이 한 곳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뚜껑 파손부위와 호의 유약 박락부위에 드러난 태토는 입자가 고운 정선된 백토로 백색도가 높다. 유약은 호와 뚜껑 모두 전면(全面)에 시유되었으며 유층의 두께는 호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얇다. 호의 외면 저부에 유약이 흘러내린 현상이 뚜렷하고 굽다리로 이어져 흘러내린 유약이 접지면에서 맺혔다. 굽다리 안쪽의 동체 외면에 얇은 유층(釉層) 흔적이 있다. 유색은 뚜껑과 호 전체가 녹색조(綠色調)이고 상부보다 하부의 색상이 더 선명하다.

녹유인화문유개사이호(綠釉印花文有盖四耳壺)의 유약은 엑스선형광분석 결과 주 검출 원소가 납(Pb)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제품(7세기 후반)의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를 참고할 때 녹유인화문유개사이호에 시유된 유약은 화학조성이 납산화물(PbO)을 주성분으로 하여 정색제(呈色劑)로 산화동(CuO)과 산화철(Fe₂O₃)이 함유된 연유(鉛釉)로 판단된다.

② 녹유 인화문 유개호

호(壺)의 목은 약간 내경(內傾)하였고 동체는 상하로 살짝 눌린 구형(球形)으로 어깨에 최대경이 있다.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한 굽은 팔자형(八字形)으로 벌어졌다. 뚜껑은 상면(上面) 중앙에 보탑형(寶塔形) 꼭지가 부착되었고 하면(下面)에는 바깥 테두리와 나란히 호의 구연 안쪽에 맞물리는 속 테두리가 있다. 호와 뚜껑 모두 1-2줄의 횡침선(橫針線)을 음각하여 동체는 어깨를 기준으로 상부 2단, 하부 3단으로 구획되었고 뚜껑은 2단으로 구획되었다. 각각의 구획대별로 형태가 비슷하고 크기가 다른 네 종류의 인화문(印花文)이 1줄 또는 2줄씩 시문되었다.

동체 저부의 유약이 박락된 부분에 드러난 태토는 입자가 곱고 정선된 백토이다. 유약은 호와 뚜껑 모두 전면(全面)에 시유되었으며 유층의 두께는 호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얇다. 동체 하부와 굽 안쪽의 유약이 온전하게 용융되지 않았다. 유색은 뚜껑 상면과 동체 상부는 녹갈색조, 동체 하부는 녹황색조이고 구연부와 뚜껑 하면은 선명한 녹색이다.

호 접지면의 유층이 일부분 박락되었으나 번조할 때 사용한 받침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고, 뚜껑은 하면(下面) 두 곳에 받침 도구의 흔적이 뚜렷하고 한 곳은 유약이 박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호 구연부 전체에 유약이 고르게 입혀져 있어서 호와 뚜껑을 별개로 번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朝鮮總督府版, 『朝鮮古蹟圖譜 五』, 大正六年:1917.

韓炳三, 「82, 83 綠釉四耳壺·綠釉壺」,

『世界陶磁全集 17 韓國古代』, 小學館(東京), 1979, pp. 110-111.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201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2012.

○ 기 타

① 녹유인화문유개사이호와 ② 녹유인화문유개호는 호의 높이를 기준으로 ①이 ②의 세 배에 해당하여 차이가 크고 호의 동체 형태가 다르다. 두 점의 호가 외호(外壺)와 내호(內壺)로 한 세트임을 알려주는 확실한 전거는 없으나 태토, 유약,

시문기법, 문양종류, 동체와 굽을 접합하는 제작방식, 번조방식 등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두 점의 호에 관한 가장 이른 자료는 朝鮮總督府版, 『朝鮮古蹟圖譜 五』(1917)로 출토지(出土地)나 출토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일련번호 ‘一八二三 黃釉蓋卮’, ‘一八二四 黃釉蓋卮’으로 소개하였다. 이후 韓炳三, 「82, 83 綠釉四耳壺·綠釉壺」, 『世界陶磁全集 17 韓國古代』(1979)에서는 ‘綠釉四耳壺·綠釉壺’의 출토지를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南山洞)으로 명시하였고 ‘綠釉壺’를 ‘內包壺’로 서술하였다.

보완조사보고서



○ 현 상

- ① **태토** : 입자가 미세한 점토를 활용하여 번조하였으며 원래의 점토성분은 정확히 알 수 없음. 다만, 유약이 박락되어 노출된 단면을 보면 미백(혹은 회백)에 가까운 색조를 띠고 있어 철분함량이 많지 않은 태토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② **유약** : 유약 색조는 암록색 혹은 황록색에 가까우며 소호가 더 짙음. 표면에는 광택이 약간 돌며 부분적으로 광택이 죽은 부분도 존재함. 유약의 종류는 회유에 매용제로 산화납(PbO)을 혼합하여 용융점을 떨어뜨리고, 정색제로 산화동(CuO)를 사용하여 녹색을 띠도록 만든 녹유계 연유임. 실제 비파괴 유약분석결과 산화납 성분이 많이 검출되었음.
- ③ **시유상태** : 대호, 소호는 모두 전면시유 후 번조하였는데 대호의 경우 하단부의 유약 박락상태가 심해 태토가 노출된 부분이 많이 보이며 소호는 이를 감추기 위해 후대의 보수과정에서 색을 덧입힌 것으로 보임. 유층이 두터운 부분은 가는 빙렬이 관찰됨. 특히 대호의 경우는 중력 작용에 의한 유동성으로 항아리 표면에 세로줄 흔적이 확인됨.
- ④ **성형과 형태** : 대호는 테쌓기 기법으로 기벽을 올리고 물레 위에서 물질을 하거나 변곡부를 칼로 깎아 마무리 한 후 굽을 따로 붙여 완성하였음. 대호는 구연이 직립하였으나 미세하게 벌어져 있으며 동체의 최대 동경은 상부 1/3지점에 있어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보임. 굽은 접지면 쪽으로 벌어진 고리 형태의 굽다리를 따로 접합하여 붙임. 소호는 직접 물레로 점토를 뽑아 올려 성형하되 형태는 구연이 직립하고 몸체 전체가 납작하나 무게중심을 상부에 두었으며 정형단계를 거쳐 굽을 따로 부착하였음. 뚜껑은 각각 뒤집어 성형하고 반

건조의 정형단계에서 드림부를 정교하게 깎고 꼭지를 따로 만들어 상부 중앙에 붙였음. 대호의 구연단 형태, 목과 동체 사이의 돌기, 벌어진 굽다리와 굽다리 접지부의 도톰한 마무리, 어깨부에 부착한 짐승머리[초도(椒圖) 용의 아홉 아들 중 하나], 소호의 벌어진 굽다리, 각 뚜껑의 꼭지형태와 상면 기울기 등은 금속기를 정확하게 모방하려 했던 흔적임.



사진 1. 대호와 소호



사진 2. 대호 하단부 유약박락과 태토

⑤ 문양 : 대호의 문양표현 과정은 성형→정형(반건조)→굽다리 붙이기→표면에 횡선대긋기→칩화기법을 활용한 짐승머리 부착→각 횡선대마다 인화도구로 시문 순임. 소호도 짐승머리 부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작업방식으로 문양표현

<대호 문양>

목부분 : 花文(미술사에서는 연주문으로 표현함)

몸체부분 : 횡선대를 이용한 8개의 문양대로 구획되어 있으며 1단은 수적형문(水滴形文), 2단은 수적형문+이중원문, 3단은 사변화문(四邊花文)+이중원문, 칩화기법의 초도문(椒圖文), 4단은 수적형문, 5단은 능화문+화문+이중원문+수적형문의 조합, 6단은 수적형문, 7단은 화문+수적형문, 8단은 무문으로 구성. 몸체부분은 모두 5개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문양을 시문함.

<대호 뚜껑 문양>

대호 뚜껑의 상면부는 각 두 줄씩의 횡선대를 2개 넣어 3분할하였음. 꼭지부분부터 시문된 문양은 1단에 이중원문+수적형문, 2단에 수적형문, 3단에 수적형문 등을 시문함. 뚜껑에는 도장 2개를 활용하여 인화문을 시문함.

<소호 문양>

소호는 목부분에 이중원문을, 횡선대로 4분할한 몸체는 1단에 작은 수적형문, 2단에 수적형문, 3단에 수적형문+이중원문, 4단에 수적형문 등을 시문함. 이 중에서 수적형문은 소재는 같으나 크고, 작은 도장을 각각 이용한 상황이 확인됨.

<소호 뚜껑 문양>

소호 뚜껑은 2줄의 황선대에 의해 3분할되어 있으며 위에서부터 각각 이중원문, 2, 3단에 수직형문을 묘사함.



사진 3. 대호 문양소재와 배열



사진 4. 김승얼굴(초도)의 부착상태



사진 5. 대호의 굽다리 안쪽 상태



사진 6. 소호 뚜껑의 삼차형 받침흔적

⑥ **재임방식** : 이들 항아리의 번조방식은 뚜껑의 경우 안쪽에 3차형 받침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음. 대호는 굽다리 접지면까지 유약이 맺혀있는 것으로 보아 굽바닥 안쪽에 도침을 이용하여 받쳐 구웠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소호는 후대의 보수과정에서 접지면을 모두 정리하여 번조방식을 알기 어려움. 그러나 기물의 무게 등을 생각했을 때 접지면보다는 굽바닥 안쪽에 도침을 활용한 받침방식으로 번조했을 가능성이 높음.

⑦ **번조** :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우 당삼채는 2차 번조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즉 1차에서는 1,000~1,100℃로 태토[배체]를 굽고, 2차에서는 시유한 후

700~800℃로 굽는 것이 일반적임. 통일신라시대의 경우 이러한 번조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성형과 정형을 거친 후 잘 건조시켜 곧바로 유약을 씌운 후에 단벌번조 방식에 의해 구웠을 가능성이 높음. 단, 1,000℃가 넘게 되면 유약이 휘발하므로 이 유물들은 그 이하의 온도에서 구워졌을 것으로 추정됨.



사진 7. 대호 자외선 촬영



사진 8. 대호뚜껑 상태



사진 9. 대호뚜껑 내면

⑧ **현재상태** : 이 유물들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며 보수과정을 거침. 육안관찰과 자외선 촬영결과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호는 몸체를 크게 비껴가는 실금이 확인되었으며 후대에 보수한 흔적이 보임. 보수흔적이 있는 자리는 색 맞춤을 한 듯 광택이 죽고 유색과 유사한 색조의 안료가 발려져 있음. 대호의 굽다리는 외면의 경우 몸체 하단부분과의 결합부에, 내면의 경우 굽다리 안쪽에 회백색의 점토를 활용한 보수흔적이 보임. 현재 보수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보수방식과 재료는 알 수 없으나 굽다리 부분은 일제강점기에 많이 활용된 백시멘트일 가능성도 보임. 대호 뚜껑은 꼭지가 멸실되었으나 보주형으로 만들어 붙인 것으로 추정됨. 대호의 뚜껑은 10조각 이상으로 파손되었으나 보수과정을 거쳐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외면의 파손부 수리흔적 색조가 다름.

소호는 크게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나 구연 끝부분이 모두 보수되었으며 외면 하단에는 유약박락이 심해 과거 보수과정에서 안료로 색 맞춤을 하였음.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황색 안료가 손에 묻어 나기도 함. 보수부분은 광택이 없고 육안으로도 보수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소호의 굽다리는 접지면 부분의 경도가 취약해 상당부분이 깨졌으나 후대의 보수로 재현하였음. 소호의 굽바닥 안쪽에는 굽다리를 몸체에 접합했던 부분이 번조과정 시 터지면서 생긴 균열이 확인됨. 소호의 뚜껑은 큰 보수 없음.

○ 내용 및 특징

① 국적문제

이 대, 소의 연유도기항아리는 통일신라에서 생산한 제품이 분명함. 일부에서는 태토, 문양, 형태 등에서 국외제품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신라 말에 확보한 연유제작기술을 응용하여 인화문도기에 연유를 시유하고 완성한 것임.

② 용도문제

이 항아리들은 정확한 용도를 알기가 쉽지 않으며 발견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고 전수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분묘 출토품일 가능성이 높음. 8세기의 통일신라는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화장(火葬)을 선호하고, 현전하는 유물 중에 동일시기의 골호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골호(骨壺)로 추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다만, 조형양식을 통해 본 이 항아리의 특징은 철저히 금속기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에 제작되었던 금속기의 조형감을 잘 적용시킨 예로 볼 수 있음.

③ 용어문제

본 유물을 수록하고 있는 여러 도록이나 논문 등에서는 이들을 외호(外壺), 내호(內壺)로 설명하고 한 세트로 소개하고 있음. 즉, 이 항아리는 내호를 외호에 넣어 사용하는 2중의 골호세트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호와 소호는 양자에서 동일한 형태의 문양일 경우 동일한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 즉, 제작 당시 이들 항아리는 동일한 공방에서 동일한 도공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사진 10. 대호, 소호의 안치 불가능한 상태 시연

조사과정에서 내호를 외호에 넣어보려 한 결과 소호의 동경 지름이 대호의 구경 지름보다 미세한 차이로 커서 2중 형태로 안치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당시에는 외호, 내호를 옆두에 두고 제작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2중 항아리로 사용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외호’, ‘내호’ 라는 용어보다 ‘대호’, ‘소호’ 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함. 단, 이들이 한 세트였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함.

④ 시기문제

인화문의 조합과 제작상태 등으로 파악해 볼 때 8세기 전·중반으로 보는 것이 현재의 인화문토기에 대한 견해들과 일치함.

⑤ 가치와 희소성

이 유물은 통일신라 인화문 토기의 전성시기에 금속기 형태의 항아리를 세트로 제작하여 연유를 입힌 후 구운 골호로 추정됨. 또한 현존하는 연유도기 중 크기가 가장 크고 화려하여 당시 최상의 소비계층이 사용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기도 함. 기형, 시문기법, 유약, 기법적 측면에서 이 항아리는 통일신라 8세기의 골호를 대표할만한 특징을 갖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더욱이 용도 측면에서는 동종 유물 중 유일한 형태를 보여주는 예에 해당하므로 희소성 측면에서도 타 유물과 비교가 되지 않음.

○ 문헌자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2012.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2012.

朝鮮總督府版, 『朝鮮古蹟圖譜』 五, 大正六年:1917.

韓炳三, 「82, 83 綠釉四耳壺·綠釉壺」, 『世界陶磁全集-17 韓國古代』, 小學館(東京), 1979, pp. 110-111. 등

○ 기 타

두 점의 항아리에 관한 가장 이른 자료는 朝鮮總督府版, 『朝鮮古蹟圖譜 五』(1917)로 여기에는 출토지나 출토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일련번호 ‘一八二三 黃釉蓋卍’, ‘一八二四 黃釉蓋卍’으로 소개함. 이후 韓炳三, 「82, 83 綠釉四耳壺·綠釉壺」, 『世界陶磁全集-17 韓國古代』(1979)에서는 ‘綠釉四耳壺·綠釉壺’의 출토지를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南山洞)으로 명시하였고 ‘綠釉壺’를 ‘內包壺’로 서술함. 이 항아리들을 내호, 외호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이 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식은 유효하나 재고의 여지가 있음.

□

○ 현 상

대형 유개호의 뚜껑은 여러 편을 접합하여 복원하였고, 보주형 꼭지손잡이는 후대에 복원하여 부착하였음. 바깥 면에 여러 형태의 인화문을 장식하였고, 바깥 면

과 안쪽 면에 옅은 녹색의 연유를 시유하였고, 깨어진 안쪽 면 가장자리는 유가 결락되어, 표면색이 회백색임. 안쪽 면에 도침 끝이 떨어진 흔적이 남아 있음.

대형 호는 바깥 면과 안쪽 면 모두에 옅은 녹색의 연유가 시유되었는데, 표면의 목과 몸통 하부, 바닥 외면은 부분적으로 유가 박리되었고, 표면색이 회백색임. 목과 몸통 표면 전면에 여러 형태의 인화문이 장식되었고, 몸통 윗쪽 부위에 일정 간격으로 4곳에 용두 무늬가 표현된 귀가 부착되었음. 아가리에서 몸통 아래까지 기벽이 균열되어 갈라진 곳을 후대에 보수하였음. 몸통과 굽의 접합면도 균열되었거나 떨어진 것을 붙이는 과정에서 보수하였음.

소형 유개호의 뚜껑은 보주형 꼭지손잡이가 부착되었고, 여러 형태의 인화문을 장식한 후, 바깥 면과 안쪽 면에 녹색의 유가 두텁게 부착되었음. 안쪽 면 일부분에 유가 결락되었고, 유가 벗겨진 표면색은 회백색임. 안쪽 면에 도침 끝이 떨어진 흔적이 있음.

호는 목과 몸통 바깥 면에 인화문이 장식되었고, 녹색의 연유가 시유되었음. 몸통 및 바닥 바깥 면의 아래 부위 표면은 빛이 반사되지 않고, 표면색이 묻어남. 이는 몸통 바깥 면 하부의 유가 결락된 면에 채색하였음을 나타냄. 바닥 바깥 면과 굽의 접합 부위에 균열이 있음.

『世界陶磁全集 17 韓國古代』(小學館) 등 각종 책자와 도록에서 대표적인 통일신라도기로 소개되기도 하였음.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음.

○ 특 징

대·소형의 유개호는 발색제로 녹청을 첨가한 연유도기임.

대형 유개호의 뚜껑과 항아리 바깥 면에는 여러 형태의 문양이 시문되었음. 대형 유개호의 뚜껑 꼭지손잡이는 후대에 만들어 붙였음. 아가리[구연]는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아가리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음. 바깥 면에는 횡침선을 2곳에 돌려 3단으로 구획한 후, 윗 쪽에서부터 아래 쪽으로 1단, 이중원문 1열과 변형 수적형문 1열→변형수적형문 2열→변형 수적형문 1열을 배치한 후 시유하였음. 뚜껑 안쪽 면 3곳에 소성 시 받친 도침 끝이 부착되어 있음. 이는 끝이 뾰족한 삼차형(三叉形) 도침을 사용하여 소성 과정에서 도기 표면과 도침의 접촉면을 최소화 하였음. 바깥 면에는 도침 사용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가마에서 정치 소성하였음을 나타냄.

항아리는 몸통과 굽을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음. 몸통 안쪽 면은 물레 흔적이 있고, 두께가 균일하지 않음. 이는 점토 띠쌓기 한 후 회전력을 이용하여 만들었음을 나타냄. 몸통 바깥 면은 일정 간격으로 2줄의 횡침선을 1조로 하여 7곳에 돌려 8구획 하였음. 위쪽부터 2단과 3단 사이에 횡방향의 일정 간격으로 4곳에 찍어 만

든 용두문의 귀를 붙이고, 황으로 둥근 구멍을 뚫었는데, 1곳의 귀는 구멍이 완전히 관통되지 않았음. 목과 몸통 바깥 면 전체에 다양한 형태의 인화문을 장식하였음. 목에는 다변화문 1열 배치. 몸통 위쪽부터 장식된 인화문의 구성은 1단, 변형 수적형문 2열→2단, 변형 수적형문 1열과 이중원문 1열→3단, 다변화문·상하 이중원문·사변화문·상하 이중원문을 1조로 하여 황으로 1열→4단, 변형 수적형문 3열→5단, 다변화문·상하 이중원문·4개의 능형문 조합·상하 이중원문을 1조로 하여 황으로 1열, 그 아래에 변형 수적형문 2열→6단, 변형 수적형문 2열→7단, 변형 수적형문 1열과 다변화문 1열 순으로 배치하였음. 바닥 바깥 면의 표면 결락이 심해 소성 시 사용한 도침 흔적이 확인되지 않음.

소형 유개호의 뚜껑은 보주형 뚜껑손잡이와 몸통을 접합한 후, 몸통 바깥 면에 2줄 1조의 황침선을 일정 간격으로 돌려 3구획한 후, 인화문을 장식하고 시유하였음. 아가리는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아가리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음. 위쪽부터 장식된 인화문의 구성은 1단, 이중원문 1열→2단, 변형 수적형문 1열→3단, 변형 수적형문 1열 순으로 배치. 뚜껑 안쪽 면에 2곳에 소성 시 반친 도침 끝이 부착되어 있고, 1곳은 소성 후 도침을 제거할 때, 표면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음. 도침 흔적으로 볼 때, 소성 시 끝이 뿔족한 삼차형(三叉形) 도침을 사용하여 소성 과정에서 도기 표면과 도침의 접촉면을 최소화 하였음. 바깥 면에는 도침 사용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가마에서 정치 소성하였음을 나타냄.

항아리는 몸통과 굽을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음. 목 바깥 면에 이중원문 1열 배치. 몸통 바깥 면에는 몸통 너비가 가장 넓은 부위에 2줄의 황침선을 돌렸고, 그 위쪽은 1줄의 황침선을 돌려 2구획 하였고, 아래 쪽에는 1줄씩 2곳에 돌려 3구획 하였음. 위쪽 1단부터 변형 수적형문 2열→2단, 변형 수적형문 1열→3단, 변형 수적형문 1열→4단, 변형 수적형문 1열과 이중원문 1열→5단, 변형 수적형문 1열 순으로 배치. 바닥 바깥 면은 후대의 보수와 착색으로 소성 시 사용한 도침의 종류와 형태 파악 불가.

○ 내 용

연유도기는 중국의 자기 또는 도기(단체 또는 다체)의 시유기술을 수용하여 고구려와 백제, 신라-통일신라에서 생산 소비하였다. 고구려의 경우, 4세기 후반 또는 5세기 전반의 시기에 연유도기를 생산하였고, 백제는 6세기 후반에 연유도기를 생산하였다.

신라에서는 7세기 초부터 연유도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통일 이후에는 중국 도자기와 함께 고급 용기로 소비되었다. 연유도기의 바탕흙은 석립이 함유되지 않은 니질토를 사용하였고, 표면색이 회백색 또는 회색이고, 대부분은 경도가 낮다. 연유도기의 유색은 크게 녹색과 갈색으로 구분되는데, 초현기의 신라 연유도기는

발색제로서 녹청과 산화동(CuO) 또는 산화제이철(Fe₂O₃)을 사용하였다. 유약을 시유한 후 등요에서 850℃ 이하의 저온에서 소성하였고, 소성 시 아래에 도침을 놓아 유약이 유리질화하면서 다른 기물과 용착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연유도기에 사용된 도침은 제품 표면의 접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경주 손곡동·물천리 토기가마에서 출토된 도넛츠형·왕관형·이차형·삼차형·사차형 등과 같은 도침이 사용되었다. 물천리·손곡동 토기 공방지에서 출토한 도침에 부착된 유약의 성분분석에서 연유가 검출되어 7세기부터 신라에서 연유도기가 생산되었음이 입증되었다.

7세기에 생산된 연유도기의 기종은 뚜껑·굽다리접시·완·직구편구호 등인데, 이 기종들은 연유도기가 생산되기 이전부터 생산 소비된 신라 토기의 기종으로서 신라의 전통적인 토기의 기종에 연유의 시유기술을 수용하여 생산하였음을 나타낸다.

7세기에 해당하는 연유도기의 유색은 갈색과 녹색의 2자가 존재한다. 갈색인 예로는 중앙박물관 소장 유개고배 2점, 김해 예안리 17호묘 출토 고배 대각, 합천 저포리 E지구 2호분 출토 완 등이 있다. 유색이 갈색이더라도 농도에 차이가 있어 옅은 갈색, 갈색, 다갈색, 흑갈색 등 다양하다. 예를 들면, 중앙박물관 소장 유개대부직구호는 옅은 갈색, 유개고배 2점은 다갈색, 김해 예안리 17호묘 출토 고배 대각은 짙은 갈색, 합천 저포리 E지구 2호분 출토품은 흑갈색이다. 그리고 갈색이라 하더라도 녹색이 전혀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부산박물관 소장 직구편구호의 경우, 위쪽 면은 갈색이고, 아래 쪽 면은 갈색과 녹색으로 일정하지 않다.

녹색인 예로는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유개대부직구호, 이키[壹岐]의 쓰시마 쓰카[對馬塚]고분 출토 유개고배, 경주 왕경 출토 뚜껑 등이 있다. 이중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유개대부직구호는 녹색이고, 쓰시마쓰카 출토 유개고배와 경주 왕경 출토 뚜껑은 옅은 녹색으로 차이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개광구장경병의 경우, 뚜껑은 옅은 녹색이고, 광구장경병의 유색은 옅은 녹갈색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사진 1. 7세기대의 신라 연유도기 사례

연유도기 생산 초현기에 연유의 유색은 갈색과 녹색이 동시에 병존하였음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로 볼 때, 녹색과 갈색의 출토량은 비슷한데, 출현 당초부터 녹유와 갈유의 연유도기가 모두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색이 갈색 또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각 개체마다 채도와 명도에 차이가 있고, 하나의 개체에도 균등한 유색을 보이지 않고, 부위마다 다르다.

초현기의 연유도기는 규모가 대부분 소형품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중, 부산박물관 소장 대부직구호가 가장 크다. 이 시기의 토기 중에서 규모가 큰 대형품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대형의 연유도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도 하나의 큰 특징이다. 연유도기가 모두 소형품인 점은 대형의 연유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8세기의 연유도기 사례로는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대형과 소형의 유개호는 이 시기 신라 연유도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대형 유개호는 현재까지 확인된 신라의 도기연유호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색이 균일한 녹색으로서 정제품이다.

9세기의 대표적 연유도기 사례로는 합·유개합·삼족호 등이 있는데, 유색이 모두 녹색이다. 유개합은 화장묘의 장골기 내용기로 사용되었고, 삼족호는 생활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도자전집 17. 84번 사진



세계도자전집 17. 86번 사진



세계도자전집 17. 227번 사진

사진 2. 9세기대의 연유도기 사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기연유유개호는 지금까지 화장묘의 외호와 내호의 장골기로 알려져 왔는데, 내호로 추정된 소형 호가 대형 호 속에 들어가지 않아 내호와 외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개호와 소형 유개호의 뚜껑이 같은 특징으로서 동일 형식일 뿐만 아니라 대형 호와 소형 호에 시문된 인화문중 수적형문의 형태와 크기가 동일하여 동일한 꽃무늬 도장으로 찍었음을 나타낸다. 내호와 외호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 공방에서 동 시기에 제작한 제품이다. 8세기의 통일신라 고분에는 대형 토기가 거

의 부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도기연유항아리는 화장묘의 장골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화장묘의 장골기로 사용되었다면, 대형 호가 유골을 담은 장골기이고, 소형 호는 꺼묻거리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형 유개호와 소형 유개호는 공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8세기의 신라 도기(토기)로서는 다양한 인화문이 장식되어 통일신라 도기(토기)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정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호는 중국 당나라의 자기 또는 금속용기를 모방하여 통일신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통일신라의 도기(토기) 제작기술의 최고를 나타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연유도기는 각 시기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특징적인 기종, 그리고 가장 화려한 장식이 된 점은 각 시기의 연유도기가 상당한 고급품이었음을 나타내며, 왕경 지배층들에게는 중국의 자기 대용으로 주구·식기 등의 일상기와 화장묘의 장골용으로 연유도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도기연유유개호는 통일신라시대 왕경 최고지배층의 화장묘의 장골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시작으로 9세기에 화장묘의 장골기 내용기로 도기연유합의 사용 사례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유도기인화문항아리 일괄(2건 4점)은 대형 유개호와 소형 유개호의 뚜껑이 같은 특징으로서 동일 형식일 뿐만 아니라 대형 유개호와 소형 유개호에 시문된 인화문중 이중원문과 수적형문의 형태와 크기가 동일하여 동일한 꽃무늬 도장으로 찍은 동일 공방에서 동 시기에 제작한 제품이다. 내호와 외호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8세기의 신라 도기(토기)로서는 다양한 인화문이 장식되어 통일신라 도기(토기)중에서 가장 화려할 뿐만 아니라 대형 호는 중국 당나라의 자기 또는 금속용기를 모방하여 통일신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통일신라의 도기(토기) 제작기술의 최고를 나타내는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문헌자료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圖譜』 第五冊

韓炳三, 1979, 『世界陶磁全集 17 韓國古代』 (小學館)

국립중앙박물관 2003, 『統一新羅』 특별전 도록

○ 기 타

일제강점기의 신고품으로 출토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경주 남산 출토품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음. 1917년도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에 황유개감(黃釉蓋坩)으로 소개되었음. 1919년 4월 15일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일괄 구입하였고, 해방 이후 국립박물관 소장품으로 소장되어 왔음.

○ 참고문헌

- 韓炳三, 1979, 『世界陶磁全集 17 韓國古代』 (小學館)
- 국립중앙박물관 2003, 『統一新羅』 특별전 도록
- 홍보식 2006. 12, 「신라 녹유도기의 초현 시기와 생산기술」 『박물관연구논집』 12, 부산박물관.
- 李知禧 2012, 「統一新羅時代 鉛釉陶器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 (李寅文 筆 江山無盡圖)

가. 검토사항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13.8.9)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6.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1.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李寅文 筆 江山無盡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축
- 규 격 : 전체 43.9×856.0cm
- 재 질 : 비단에 담채
- 형 식 : 두루마리(횡권)
- 조성연대 : 19세기 초
- 제작자 : 이인문(李寅文, 1745~1821)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지정문화재 지정 여건과 조건 내지 자격은 회화의 경우도 조각과 공예 등 造形美

術 전반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해당 유물의 格調와 技倆을 전제로 작품의 완성도인 藝術性이 우선된다. 이를 그린 화가의 유작 가운데 대표성 내지 유일성과 희귀성 여부, 나아가 미술사적 의의가 요구된다. 이는 대상화가에 대한 회화사적 위상과도 직결된다. 一定時代를 대표하는 巨匠으로, 조선후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화단에서 이인문이 점하는 위상은 그의 생존시 寸評은 물론 시대를 달리하면서해 지속해 줄기차게 이어진다. 문헌상에 나타난 긍정적 好評, 오늘날 학계에서의 연구 성과 등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사료된다.

1987년 국보 제237호로 지정된 여러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高山九曲詩畫屏> 12폭 중 5번째 <三曲翠屏圖>를 이인문이 그렸다. 이 주제는 문헌 기록에 의할 때 정조의 命으로 1781(정조 5)년에도 제작되었으나 이 병풍은 1803년(순조 3) 그려진 것이다. <강산무진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를 비롯해 국내외 특별전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되어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그림 중에 하나이다.

그의 유작 중 <마치 조선 초 安堅(15세기)의 <夢遊桃源圖>나 ‘조선의 畫聖’으로 지칭되는 鄭敎(1676-1759)의 <仁王霽色圖>(국보 제2161호)와 <金剛全圖>(국보 제2171호) 같은 한 화가의 대표성을 지닌다. 비록 잘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72세 그린 <夏景山水圖>처럼 간기는 없으나 山靜日長을 주제로 한 일련의 그림, <樓閣雅集圖>나 <四賢淸遊圖>라 지칭되는 秀作들과 더불어 화풍과 위상을 대변하는 명품이다. 조선왕조 전 시대를 통해 두루마리[橫卷] 그림 중 通信使行列 등 기록화를 제외하곤 鑑賞畫로서는 현존 최대 규모로 사료된다.

현존하는 드문 대작으로 그림의 볼륨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 우리 산천에 조선인을 등장시킨 익살스런 풍속화나 고유색이 돋보이는 진경산수에 비해 이상화된 자연경관을 담아 定型山水畫에 있어 조선그림 화풍의 특징을 잘 드러내 위상을 대변하는 傑作이자 名品이 아닐 수 없다. 정형산수는 동아시아의 국제적이며 보편적인 양상이어서 一見 中國風으로 간주되기 쉬우나 書體와 書風의 차이처럼 근본적인 美感의 차이로 이 분야에 있어서도 독자성과 고유성이 드러남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崔淳雨(1916-1984)는 그가 근대의 수채화 같은 서구적인 느낌마저 주는 진경산수도 남겼으나 그를 김홍도에 비해 風土的 體臭가 덜한 것으로 보았다. 명대 浙派의 감명에서 南北宗 절충양식으로 대륙 화법에 익숙하고 충실한 화가로 다양하고 원숙한 묘사기법을 장처로 보아 ‘서울 화단의 총아’로 그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그림에 비해 화면전개 측면에서 구도와 구성이 論理的이지 못하고 느슨하며 묘사에 있어서도 精緻하지 않아 完璧의 缺如를 마치 우리 옛 그림의 특징인 양본 기존관념에 재고를 요하는 점도 주목된다. 수묵담채에 다소 여유를 보인 文人畫와는 구별되는 궁중장식화나 의궤도, 초상화 등이 포함된 纖細함과 眞彩의 또

다른 한 軸의 존재를 고려할 때 이 점은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회원 중 差備待令畫員으로 궁중 회화에 두루 참여한 傑出한 이인문의 畫名은 국경을 넘어 淸에도 알려진 國際級 화가로 명성에 걸맞게 그의 역량을 십분 드러내 보여준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 조선화단의 일반적 수준과 됴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점에서도 의의를 갖게 된다. 이 같은 작품의 탄생에는 개인의 역량과 더불어 시대가 지닌 문화역량 그 자체로 봐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전술했듯 <강산무진도>는 그 동안 소장처인 국립박물관 상설전시에 오랜 기간 빈번하게, 그리고 국내외 특별전시에 반드시 선정되었다. 학계의 연구 성과 및 우리 회화사에서 접하는 위치는 這間의 저술에서 확인된다. 국립기관 소장이어서 그 동안 문화재지정에 論外인 양 擧論에서 제외되었으나 국보란 명칭의 도록에 게재되는 등 이 작품의 문화재 자격은 充分條件으로 再論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 (지정 가치 있음)

-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李寅文 筆 江山無盡圖)>는 한국회화사에서 보기 드문 장권의 산수화로서 화가 이인문의 높은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 조선시대 후기의 문화적 역량이 영조, 정조대를 거치면서 정점에 이르고 예술 각 방면에 두루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회화에서도 궁중화원으로 활약했던 이인문의 손을 거쳐 이러한 대작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작품이다.
- 특히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장대한 산수 표현과 정교하고 뛰어난 세부 묘사가 전혀 흐트러짐 없이 잘 어우러지고 있어 회화사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강산무진도>에는 [李寅文文郁道人也]라는 白文方印의 이인문 인장이 찍혀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이인문의 다른 산수화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화법과 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이인문의 진작으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 두루마리 뒤쪽에는 추사 金正喜의 인장 5과가 찍혀 있다. [金正喜印], [子孫永寶], [秋史珍藏], [金正喜氏考定之印], [秋史] 등이다. 한때 김정희가 소장했음을 알려준다.

<강산무진도>는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상향을 그린 산수화로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상상 속의 공간과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그린 그림이다. 이를 두고 儒家들이 꿈꾸어온 이상국가의 형상이라든가 유교적 세계관의 반영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으나 이를 포함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는 그만큼 <강산무진도>가 관념의 세계나 단순한 이상향의

재현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인문학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강산무진도>가 조선후기 관념산수화의 세계와 다른 차별성이 여기에 있다.

<강산무진도>는 먼저 화면의 구성이 압도적이다. 사방으로 확산되는 개방적 구도는 경관의 나열식 전개를 넘어서 공간의 고저는 물론 심연한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경물의 구성은 단연 감상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다. 회화양식의 측면에서도 <강산무진도>는 그 시대의 어느 작품보다 완숙한 조형성을 갖추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점준과 부벽준 등을 구사한 준법에는 다양한 화법상의 변화는 물론 그림 전체를 이어주는 통일성과 이인문의 개성적인 필치도 잘 나타나 있다. 이인문의 모든 화법적 역량이 이 그림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산무진도>는 19세기 초 새로운 차원의 이상향을 추구한 산수화로 평가되며 그림이 담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의미는 물론 예술적 완성도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의의를 지닌 그림으로 평가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강산무진도>는 한자문화권 회화 장르에 있어 가장 빛나는 영역인 산수화에 있어 두 軸으로 처음 단계인 실제 풍광을 읊기는 實景山水畫에 이어 이른바 理想化된 自然景을 화폭에 담은 定型山水畫범주의 그림이다. 조선후기 文興이 크게 振作된 학계 일각에서 우리 문화의 황금기 ‘眞景時代’라 칭하는 시기에 제작된 可謂 국제적인 拔群의 걸작이자 현존예가 매우 드문 대작이다. 李寅文(1745-1824이후)은 김홍도와 同甲으로 김홍도의 몰년이 그러하듯 이인문의 경우도 77세에 타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간송미술관 소장 <山靜日長> 8疊屏에 남긴 干支로 몰년은 1821년 아닌, 1824년까지는 활동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후 타계한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이들은 가까운 사이로 화풍상 교류도 보이며 함께 활동했다. 그러나 작품에선

상호 꽤나 다르니 이는 두 사람의 특징과 개성을 의미함이다. 보다 土俗的이며 固有的인 美感의 발로로 多才多能해 회화의 모든 장르에 능해 '조선의 그림신선[畫仙]'으로 지칭되는 김홍도에 비해 中國的 내지 國際的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하지만 구상과 추상, 실경산수와 정형산수, 수묵담채와 채색화 등은 표현 差異일 뿐 優劣과는 별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山川에 한국인이 등장한 實景山水와 風俗畵만을 우리그림 즉 한국화로 보는 것과 같은 誤謬가 아닐 수 없다.

대자연의 雄渾함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삶의 정경이 모습에 황으로 파노라마식으로 전개된다. 우리 산천과는 거리가 있는 한자문화권에서 보편적인 이상향을 4季節 아닌 秋景만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중국 제가의 峻法과 화면의 공간감을 三遠法을 두루 잘 驅使하며 이른바 일찍이 여러 화가들에 의해 창출된 각동 기법을 援用해 화면 내 깊이와 거리감,景物사이 유기적인 관계가 조화롭게 펼쳐진다.

○ 문헌자료

馬聖麟, 『安和堂私集』

朴齊家, 『貞蕤閣全集』

南公轍, 『金陵集』

申緯, 『警修堂全藁』

金性潑, 『東國文獻錄』

吳世昌, 『權域書畫懲』 (啓明俱樂部, 1928)

吳鳳彬 編, 『朝鮮名寶展覽會圖錄』 (朝鮮美術館, 1938)

『國立中央博物館韓國書畫遺物圖錄』 1(1991)

최순우, 「古松流水觀道人 李寅文」, 李朝의 畫家12, 『박물관뉴우스』 12(1971)

이원복, 「古松流水觀道人 李寅文」, 서화가 열전 63, 『매일경제신문』 (1982)

오주석,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신구문화사, 2006)

고연희, 「江山無盡, 조선이 그린 유토피아」, 『한국문화연구』 24 (2013), pp. 7-33

유홍준·김채식 옮김, 『金光國의 石農畵苑』 (놀와, 2015),

김소영, 「古松流水館道人 李寅文 研究」, 명지대학교대학원 사학위논문, 2015

김정임, 「李寅文의 <江山無盡圖>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기 타(소장 경위)

<강산무진도>는 1934년 간행된 『朝鮮古蹟圖譜』 14 繪畫之部(조선총독부, 1934)에 '강산무진도권'이란 명칭으로 부분이 도판으로 게재(p.2046, pl.54969) 됨으로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한 해 전에 간행된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 繪畫之

部』(李王職,1933)에는 실리지 않았다. 그 이듬해 현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조선미술관 주최, 매일신보서 후원으로 서울 가회동에 위치한 京城府民館에서 개최한 ‘조선명화전람회’(1938.11.8-12)에 출품되어 일반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 전시는 서화 130점이 출품되었으나 전시기간은 단 5일로 박영철·오봉빈·박창훈·손재형·이병직·김은호·민규식·장택상·藤塚鄰 등 개인 소장들뿐 아니라 조선총독부박물관·이왕가미술관·조선미술관 등 국가기관 소장품도 출품되었다.

이 그림은 국립박물관이 1969년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이었던 舊德壽宮美術館 유물을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여러 기획전에 출품되곤 했다. 이왕가박물관 소장은 국립박물관 서화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德壽品으로 분류된다. 박물관 유물카드(덕수궁 927)에 의하면 1908년 10월 31일 青木文七에게서 300圓에 구입한 것으로 명기되어있다. 같은 해 구입한 田琦(1925-1954)의 8폭 『山水花卉帖』이 20원, 趙涑(1595-1668)의 <金櫃圖>가 80원, 김홍도의 <神仙圖> 일괄 8폭이 54원, 鄭澈(1676-1769)의 紀年作 중 가장 빠른 시기인 1711년 36세 때 그린 13폭으로 구성된 『辛卯年楓嶽圖帖』을 30원에 구입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이 그림은 인수된 그해 바로 상설전시에 들어갔고, 2년 뒤 국립박물관이 1972년 경복궁 내 신축 건물(현 민속박물관)로 이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명되었다. 이곳 1층 회화실 길고 너른 편화장에 전체가 펼쳐졌다.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한국명화근5백년전’에 이어 이듬해 1973년 ‘한국미술2천년전’ 등 1970년대 국내 특별전시 외에, 1976년 전반에 도쿄국립박물관 등 일본 세 박물관에 열린 ‘한국미술5천년전’에 이어 1979년 미국 8개 도시 순회전인 ‘한국미술5천년전’을 비롯해 유럽 전,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 주최 때 일본 오사카에 이어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명보전’ 등 국 외 전시에 반드시 선정되곤 했다.

이 그림은 1980년대 간행된 미술전집류인 『山水畫(下)』(중앙일보사,1982), 『國寶 10 회화』(藝耕,1984), 『東洋의 名畫 2 韓國2』(三省出版社,1985) 등 전체가 원색도판으로 실렸다. 그러나 편집상 문제로 이들 3종 모두가 예외 없이 연결 부분들이 잘렸다. 이런 와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국립중앙박물관한국서화유물도록』 1집(1991)에 비록 흑백이나 전체세부가 실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인문의 달’ 기념특별전(1993.2.16-3.14)을 맞아 비매품으로 여러 폭으로 나뉜 실물 크기의 良質 <강산무진도> 複製품을 제작해 보급해, 비로소 이 그림 전체를 제대로 살필 수 있다.

□

○ 현 상

-별도로 전해 내려오는 보관상자 없이 한 권의 횡권(橫卷), 즉 두루마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상축은 가늘고 납작한 금속으로 되어 있고, 표지는 뇌문이 있는 황색 비단이다. 표지에 27.6x3.4cm 크기의 기다란 흰색 종지로 된 제첩(題簽)이 붙어 있다. 여기에는 묵서로 “一四六三 九二七”로 되어 있어 숫자를 지우고 새로 썼으며 이어서 “李寅文筆 江山無盡之圖”라고 적었다. 상축 중간에 짙은 보라색 끈을 묶어 길게 두 가닥으로 늘어뜨렸는데 양쪽 끝에 꽃이는 없다. 그림이 시작하기 이전의 상면은 폭이 24cm로 금지(金紙)를 사용했다. 그림은 비단 다섯 폭을 연결하였는데 처음 네 폭은 180~220cm 사이로 일정하지 않고 마지막 폭은 45cm이다. 비단이 이어진 부분은 서로 겹쳐지지 않는데, 그림이 조금 잘린 부분도 있다. 그림의 위, 아래는 화면 보호를 위해 종지로 2mm 정도씩 테두리를 했다. 그림이 끝난 다음의 하면은 폭 25cm로 엮은 황색 종이를 사용했고 하축은 지름 3.8cm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검게 옷칠이 된 끝 마구리는 약간 튀어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식 장황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근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장처의 기록에 따르면 1908년 이왕가박물관에서 일본인 靑木文七로부터 구입했다고 한다.

-작품의 상태는 시작 부분이 다소 낡았고, 여기저기 굵히거나 꺾임이 있는 곳이 있으며 먹색과 채색이 약간 퇴색되었지만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표지의 제첩을 제외하면 작품 자체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즉 제발(題跋)이나 관지(款識)가 없어 작품의 정확한 작자와 제작 시기를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제첩에 등장하는 화가 이인문(李寅文, 1745-1824이후) 자신과 김정희(金正喜, 1786-1856) 등의 인장 일곱 개가 그림에 찍혀 있다. 우선 그림이 시작되는 부분에 인문(印文) 미상(未詳)의 백문 사구인(詞句印) 1개가 찍혀 있는데, 이와 동일한 인장이 김홍도의 <추성부도>에도 찍혀 있다. 그러나 누구의 인장인지는 현재로써 알 수 없다. 이어서 산수화가 그려진 첫 부분에 주문의 “金正喜氏考定之印”과 주문의 “秋史” 인장이 위아래로 나란히 찍혀 있다. 또한 그림의 마지막 부분에는 백문 “金正喜印” 주문 “子孫永寶” 주문 “秋史珍藏”이 찍혀 있어 김정희의 감정인, 수장인이 모두 다섯 개가 확인된다. 즉 후대에 김정희가 <강산무진도>를 소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경우와 달리 김정희가 도장만 찍고 제발을 적지 않은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강산무진도>가 왕실의 하사품이어서 김정희가 일부러 제발을 남기지 않았다는 추측과, 김정희의 인장은 후날(後捺)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백문 “李寅文文郁道人也”의 도장이 찍혀 있어 이인문의 작품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인문의 인장도 화면 비단을 예리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다시 별도의 비단을 붙인 것이기에 원래부터 지금의 위치에 찍혀

있던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인장 부분의 비단과 그림의 비단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잘려나간 그림의 다른 부분에서 옮겨 붙여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정확한 상황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이인문의 진작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화풍과 양식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거의 틀림없이 이인문의 작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인문은 1783년에 초대 자비대령화원이 된 이후 1821년에 자비대령화원을 그만두기까지 38년간 자비대령화원을 지냈다. 또한 이인문은 1795년과 1796년 그리고 1799년에 모두 세 차례 연행에 참여했다. 이렇게 궁중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약한 이인문은 다양한 소재를 다루면서 복합적이고 절충적인 화풍을 구사하였다. 특히 능숙한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개성적인 표현으로 이상적인 산수를 표현한 사의산수화(寫意山水畫)를 주로 그렸다. 효과적인 구도로 복잡한 화면구성을 보여주면서도 부드러운 필묵법과 산뜻한 선염법으로 완성도가 높은 산수화를 그려냈는데,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은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의 <축잔도(蜀棧圖)>(1768)와 유사성을 보인다. 최근 소개된 김광국(金光國, 1727~1797)의 『석농화원』의 “玄齋有高足曰李寅文”라는 기록에 따라 심사정과 이인문이 사승 관계였던 것을 감안하면 두 작품의 연관성은 더욱 높아진다. 즉 <강산무진도>의 주제가 <축잔도>와 마찬가지로 축도행(蜀道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축도는 사천의 축(蜀) 지역으로 가는 매우 험한 길인데 당나라 현종(玄宗)이 안록산(安祿山)은 난으로 피난 길에 올랐던 길이기도 하다. 문인들이 이를 작품의 소재로 많이 삼았고, 축도행을 주제로 한 그림들도 다양하게 그려졌는데 대개 사천 지역의 험준한 산세가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심사정과 이인문의 두 작품 모두 험준한 산세를 나타내기 위해 가파르고 각진 모양의 산봉우리들이 앞뒤로 겹쳐지면서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도르래, 물레방아, 성문 등의 세부 역시 많은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강산무진도>가 <축잔도>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인문은 <강산무진도>에서 심사정의 <축잔도>와 달리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축도행을 묘사했다. <강산무진도>에서는 험한 절벽에 매달 듯이 위태롭게 낸 길인 잔도(棧道)가 많이 보이고 협선(挾船)도 자주 등장하여 그림의 주제가 축도행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지만, 오히려 심사정의 <축잔도>는 제목과 달리 잔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는 이백(李白) 등이 <축도난(蜀道難)>이라 일컬을 정도로 힘들고 험한 장면을 실감나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강산무진도>에는 넓고 평탄한 길과 그 위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왁자지껄한 마을들이 펼쳐진다. 즉 이인문은 축도(蜀道)라는 정형화된 험준한 산수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사람과 마을이라는 풍속적 요소를 현

실감 있게 결합시킨 셈이다. 표현에 있어서도 심사정 작품보다 붉은색과 연두색을 많이 사용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산의 생김새도 더욱 또렷하여 박진감을 더해준다. <강산무진도>에 표현된 공간은 많은 문인들과 화가들이 묘사하듯 전란을 피해 도망가는 험준한 피난길은 아니다. 오히려 길게 이어진 길과 북적거리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화사한 풍경은 <강산무진도>가 축도난과는 달리 당시의 이상적 공간으로 간주되었던 태평성시(太平城市)의 유토피아를 구현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강산무진도>는 스승 심사정의 대작을 따르면서도 이를 뛰어넘어서 당대 진취적이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반영시킨 이인문의 회심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정임, 「李寅文의 <江山無盡圖>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유홍준, 김채식 옮김, 『김광국의 석농화원』 (놀와, 2015).
 김소영, 「古松流水館道人 李寅文 研究」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고연희, 「강산무진(江山無盡), 조선이 그린 유토피아」, 『한국문화연구』 24 (2013), pp. 7-33.
 오주석,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신구문화사, 2006).



○ 현 상

비단에 부분적으로 박락과 굵힌 자욱이 있고, 세로 혹은 가로로 미세하게 격인 부분이 두루마리 전반에 걸쳐 있음. 또한 비단 연결 부위에도 격임과 마모된 부분이 있음. 매우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수리의 필요성이 있으나 전문가의 진단을 토대로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내용 및 특징

<강산무진도>는 두루마리의 가로 길이가 856cm에 달하는 대작으로 조선후기의 화가 이인문(1745~1824이후)이 그린 그림이다. 두루마리 겉면에 ‘江山無盡圖’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이인문이 만년에 그린 眞作이며, 추사 金正禧의 인장이 5개 찍혀 있다. 끝없이 펼쳐진 웅장한 산수를 배경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조선후기 이상향의 대명사로 언급되는 그림이다. 이인문의 뛰어난 화면 구성력과 다양한 화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문헌자료

- 오주석,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신구문화사, 2006).

고연희, 「강산무진(江山無盡), 조선이 그린 유토피아」, 『한국문화연구』 24(이화
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3. 6)



그림 165.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부분)



그림 166.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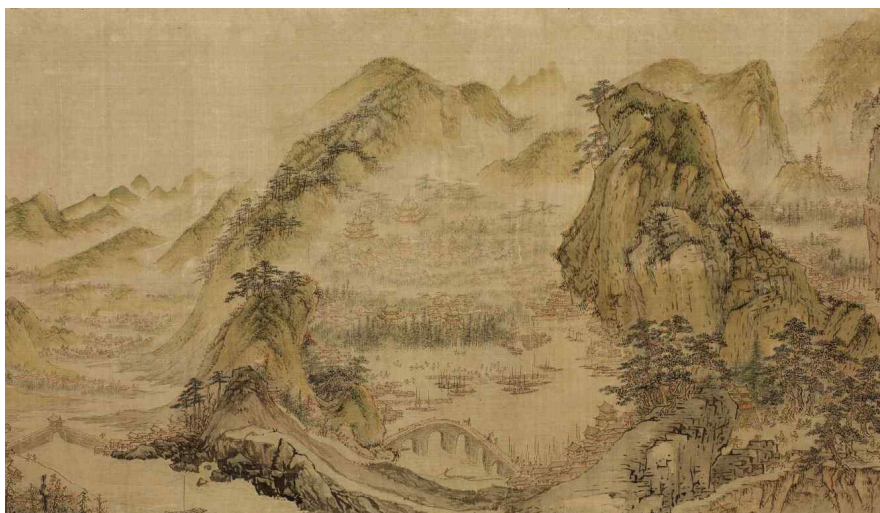


그림 167.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세부)

12.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 (新編類聚大東詩林 卷九~十一, 三十一~三十九)

가. 검토사항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6.12.7) 관계전문가 조사(’18.9.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
(新編類聚大東詩林 卷九~十一, 三十一~三十九)
- 소유자(관리자) :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수 량 : 12권 3책
- 규 격 : 30.6×19.5cm(반곽 24.0×15.6cm)
- 재 질 : 닥종이(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丙子字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542년(중종 37)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新編類聚大東詩林」은 朝鮮 中宗朝의 문신인 柳希齡(1480-1552)이 고대로부터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文人들의 詩를 모은 70권의 詩選集으로, 기존의 시문집들에서 나타나는 결점과 단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기적으로는 고대로부터 當代까지 王室, 女性, 僧侶, 歸化人 등의 작품을 망라하여 수록 작가의 대상도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의 체제도 문체를 기본으로 시대·신분·작자생몰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특하게 편찬한 것이다.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은 卷9-11과 권31-39의 零本 12卷3冊으로 中宗 37(1542)년경에 丙子字의 金屬活字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며, 「東文選」(130권)에 수록된 19권(권4-22)의 詩選에 底本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록된 詩篇의 原文도 「東文選」이나 각 作家의 文集에 수록된 原文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字句의 異同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간행의 시기와 간행에 사용된 활자가 분명한 丙子字本의 稀觀本이며 우리나라 漢詩研究에는 물론 조선시대 초기의 金屬活字印刷文化를 窺見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만큼 書誌學研究에도 그 價値가 높은 것으로 評價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정신청본 이외에도 충남대학교(권13-14, 63-65 5권2책), 아단문고(권47-48 2권1책), 장서각(29장1책, 필사본) 등에 소장되고 있는 유일본도 있어, 이들 여타 소장처의 소장본도 함께 조사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根據 基準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과 동일 또는 유사한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지정 가치 있음)

- 지정 가치

조사대상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신편류취대동시림』 12권 3책은 조선 중종 때 문인지식인으로 활동한 몽와(夢窩) 류희령(柳希齡·柳希軫)이 신라~조선 시대의 역대 한시(漢詩)를 수집·편찬하여 1542년(중종 37) 경 금속활자 병자자(丙子字)로 찍어 보급한 70여권의 완질본 가운데 권9~11 및 권31~39로 영본(零本)이며,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인출정보도 남아있지 않다. 아울러 일부 권의 내지가 마모·결장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조사대상본은 종종 때 한시(漢詩)의 성격과 함께 당대 우리나라와 종실에 대한 역사인식, 출판인쇄문화의 실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류형식과 편찬체제가 독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까지 다양한 기록유산에 전하던 대다수의 한시 작품을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집·편찬한 백과사전적 시선집으로 풍부한 원천정보를 담고 있기도 하다. 『동문선』이나 『속동문선』과 함께 문집류 등에 수록된 동일 한시 작품을 상호 검토하는 비교지표로서의 가치와 함께 소멸된 특정의 한시작품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정보로서의 자료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본 가운데는 『신편류취대동시림』이 처음 간행된 시기에 유교·역사 및 그림·음악·의학·점복술·서예 등 다양한 지적정보를 가진 관료지식인으로 활동한 거경(居敬) 채무일(蔡無逸)이 소장본도 포함되어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의미가 담고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동일 판본이나 필사본으로는 충남대학교 도서관의 권13~14 및 권63~65(5권 2책), 아단문고의 권47~48(2권1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29장(1책, 필사본) 정도만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본은 유일본으로서의 자료적 희소성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신편류취대동시림』 12권 3책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는 충남대학교 및 아단문고의 소장본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국가기록유산으로서의 지정 여부를 병행할 필요도 있을 듯하다.

- 근거 기준

현재까지 조사대상의 『신편류취대동시림』 12권 3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본이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면서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원천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 및 유일본으로서의 자료적 희소성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록유산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을 보물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에는 권차가 동일한 판본이나 유사 판본은 자료적·학술적 가치와 훼손·마모도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검토하여 국가기록유산으로의 지정에서 객관성과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신편류취대동시림』은 방대한 시선집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12권 3책으로 그 수록내용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책은 복본도 확인되지 않은 유일본이며, 더욱 1516년(중종 11)년에 주자도감(鑄字都監)에서 명판(明版)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자본(字本)으로 하여 새로이 주조한 ‘병자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 책은 『동문선(東文選)』(130권)에 수록된 시(詩)의 저본(底本)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 문학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학술적 가치도 갖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및 現狀

□ 書誌記述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의 서지기술은 다음과 같다.

新編類聚大東詩林. 卷9-11, 31-39 / 柳希齡(1480-1552, 朝鮮) 著. -- 金屬活字(丙子字)本. -- [漢陽]: [校書館], [中宗 37(1542) 推定].

12卷3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24.0×15.6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大黑口, 內向3葉花紋魚尾; 30.6×19.5cm. 楮紙. 線裝.

卷頭題: 新編類聚大東詩林

版心題: 詩林

卷尾題: 新編類聚大東詩林

卷 冊: -제1책; 권9(張6-9, 12-17, 以下缺), 권10(張1-30, 完全), 권11(張1-18, 以下缺) 24.1×15.9cm/31.2×19.5cm. -제2책; 권31(張1-15, 完全), 권32(張1-15, 完全), 권33(張1-17, 完全), 권34(張1-16, 完全), 권35(張1-5A, 以下缺) 23.9×15.7cm/29.9×18.9cm. -제3책; 권36(張1-14, 完全), 권37(張1-3, 完全), 권38(張1-17, 完全), 권39(張1-27, 完全) 24.2×15.9cm/30.6×19.4cm.

內 容: 우리나라 古代로부터 조선 中宗朝 무렵까지의 文人들의 詩를 類聚한 70권본 詩選集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권차별 수록내용은 권9-10 五言古詩類, 권11 七言古詩類, [권13-14 七言古詩類(충남대)], 권31 曲禮類, 권

32 篇·詠·怨體類, 권33 吟體類, 권34 嘆·引·謠體類, 권35-36 詞體類, 권37 操體類, 권38-39 雜體類, [권47-48 수록내용미상], [권63 五言排律類, 권64-65 七言排律類(충남대)], [권차미상 小樂府類(장서각)] 등이다.

印 文: ‘吳商在’(권9권말·권10권두·권10권말·권11권두), ‘居敬’(권11권두), ‘仁川世家’(권31권두·권36권두), ‘蔡無逸章’(권31권두·권36권두).

根 據: 工曹參議柳希軫[齡] 以其所撰大東詩林·大東聯珠詩格進上 仍啓曰 臣自少時所撰集也 傳曰 其賜酒 撰集非一朝一夕之事 用力不偶然也 其賜熟馬一匹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4樞 10(庚申)日條>

現 狀: 부분적으로 保存處理를 하였으나 여전히 濕氣와 菌類의 痕迹이 심하게 남아 있어 차후에 전문적인 紙類保存處理가 요망됨.

所藏歷: 전체 3책 중 1책은 1975년 5월에 安東의 金靈台로부터 購入한 것이며, 2책은 201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대구시 중구 명륜로 132(대봉동) 소재의 고서점인 유림원(대표 오이춘)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 함. <소장경위서 및 납품서 참간>

既指定: 無

所藏處: 계명대학교의 지정신청본 이외에도 충남대학교(권13-14, 63-65 5권2책), 아단문고(권47-48 2권1책), 장서각(29장1책, 필사본) 등의 소장본이 있다.

□ 現 狀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은 부분적으로 保存處理를 하였으나 여전히 濕氣와 菌類의 痕迹이 심하게 남아 있어 차후에 전문적인 紙類保存處理가 요망된다.

○ 內 容 및 特 徵

「新編類聚大東詩林」은 朝鮮 中宗朝의 문신인 柳希齡(1480-1552)이 고대로부터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文人들의 詩를 모은 70권의 詩選集이다.

編者 柳希齡의 本貫은 晉州이고 字는 元老·子罕 등이며 號는 夢菴·夢窩·夢老·夢草 등이다. 曾祖는 工曹參判을 역임한 柳宗植이고 조부는 문과에 급제하여 藝文館奉敎를 역임한 柳文通이며, 부친은 禮曹參議를 역임한 柳仁貴이고 모친은 현감을 역임한 星州 李長生의 딸이다. 문인으로는 宋麟壽 등이 있다. 연산군 7(1501)년에 進士에 급제하고 중종 11(1516)년에 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同年(1516)에 權知校書館副正字·藝文館檢閱·待敎·奉敎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1517)에는 兵曹佐郎 등을 역임하였다. 중종 14(1519)년에 南袞 등이 일으킨 己卯土禍 때에 季父 柳仁淑이 禍를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지금의 忠淸北道 文義面인 文山으로 下鄉하여

은거하였으나, 중종 15(1520)년에 다시 正言에 제수되고 중종 19(1524)년에 榮川郡守에 제수되어 5년간 재임하였다. 이후 伊川府使와 大丘府使 등을 역임하였으며, 중종 37(1542)년에 聖節使로 北京에 다녀온 뒤 이듬해(1543) 戶曹參議에 제수되었다. 명종 즉위(1545)년의 乙巳土禍에 연루되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錦山으로 移配된 뒤 유배지에서 卒去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내직에 있을 때는 서슴지 않고 直諫을 올려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였으며, 地方官으로 있을 때는 仁政을 펴는 데에 주력하였다. 또한, 문필에도 재능이 있었으나 특히 詩를 잘 지어 聖節使로 北京에 갔던 때에는 그곳에서 詩로 名聲을 떨치고 돌아왔다고 한다. 숙종 20(1694)년에 오늘날의 충청북도 淸原郡 加德面의 德川祠宇에 祭享되었다. 저술로는 문집인 「夢菴集」(2권)이 있으며, 편서로는 「新編類聚大東詩林」(70권) 이외에도 「標題音注東國史略」(12권)과 「大東聯珠詩格」·「宋詩正韻」·「祖宗詩律」 등이 있다.

「新編類聚大東詩林」은 柳希齡이 기존의 시문집인 崔瀼의 「東人之文」은 거칠고 잡다한 결점이 있고 趙云佐의 「三韓詩龜鑑」은 너무 많이 삭제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대안으로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작가의 작품과 양식을 두루 포괄한 풍부한 시선집을 편찬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고대로부터 當代까지 王室, 女性, 僧侶, 歸化人 등의 작품을 망라하여 수록 작가의 대상도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의 체제도 문체를 기본으로 시대·신분·작자생몰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특하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柳希齡은 중종 37(1542)년 무렵에 「新編類聚大東詩林」의 편찬을 완료하여 이를 나라에 進上하였는데, 이는 「朝鮮王朝實錄」 중종 37년 4월 10(庚申)일조의 “工曹參議 柳希軫(軫은 ‘齡’의 誤字)이 그가 撰集한 「大東詩林」과 「大東聯珠詩格」을 進上하며 ‘신이 젊었을 때부터 撰集한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국왕은 ‘술을 내리라. 撰集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니, 힘을 쓴 것이 우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熟馬 1필을 내리라!’고 전교하였다(工曹參議柳希軫 以其所撰大東詩林·大東聯珠詩格進上 仍啓曰 臣自少時所撰集也 傳曰 其賜酒 撰集 非一朝一夕之事 用力不偶然也 其賜熟馬一匹)”는 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은 卷9-11과 권31-39의 零本 12卷3冊으로 中宗 37(1542)년경에 丙子字의 金屬活字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다.

丙子字는 이보다 앞서 鑄造된 乙亥字와 甲辰字 등이 이지러져 印出이 어려워지자 중종 11(1516)년에 鑄字都監에서 明版 「資治通鑑」을 字本으로 하여 1.2×1.2cm의 새로이 주조한 銅活字이다. 丙子字의 字體는 庚子字와 비슷하면서 庚子字보다 박력이 떨어지고 예리하지 못한 편이었으나 임진왜란 이전까지 甲寅字 등과 함께

사용되면서 「歷代兵要」·「朱子語類大全」 등 많은 서적의 인출에 사용된 활자이다.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의 卷頭題와 卷尾題는 ‘新編類聚大東詩林’이며, 版心題는 ‘詩林’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가 雙邊이고 半郭은 24.0×15.6cm 내외이며 界線이 있다. 반엽의 행자수는 본문은 11行21字이고 註文은 雙行이다. 版口에는 大黑口가 있고 版心의 魚尾는 內向3葉花紋魚尾이며 규격은 30.6×19.5cm 내외이다.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의 권책별 完缺狀態와 규격은 제1책의 권9(張6-9, 12-17, 以下缺), 권10(張1-30, 完全), 권11(張1-18, 以下缺) 24.1×15.9cm /31.2×19.5cm이고 제2책의 권31(張1-15, 完全), 권32(張1-15, 完全), 권33(張1-17, 完全), 권34(張1-16, 完全), 권35(張1-5A, 以下缺) 23.9×15.7cm/29.9×18.9cm이며, 제3책의 권36(張1-14, 完全), 권37(張1-3, 完全), 권38(張1-17, 完全), 권39(張1-27, 完全) 24.2×15.9cm/30.6×19.4cm이다.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의 內容은 우리나라 古代로부터 조선 中宗朝 무렵까지의 有名한 文人들의 詩를 類聚한 詩選集이며, 권차별 詩體는 권9-10은 五言古詩類, 권11은 七言古詩類, 권31은 曲禮類, 권32는 篇·詠·怨體類, 권33은 吟體類, 권34는 嘆·引·謠體類, 권35-36은 詞體類, 권37은 操體類, 권38-39는 雜體類 등이다.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에는 ‘吳商在’(권9권말·권10권두·권10권말·권11권두), ‘□□’(권11권두), ‘仁川世家’(권31권두·권36권두), ‘蔡無逸章’(권31권두·권36권두), ‘居敬’(권39권말) 등의 인문이 있으며, 그 중 ‘仁川世家’와 ‘蔡無逸章’ 및 ‘居敬’은 본관이 仁川이고 호가 居敬인 蔡無逸(1496-1546)의 藏書印이다. 蔡無逸은 경상도 咸昌 출신의 學者·畫家로 관직이 漢城庶尹에 이르고 經史와 易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書畫·音律·醫學·卜筮 등에도 뛰어나 명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居敬’과 ‘仁川世家’ 및 ‘蔡無逸章’ 등의 印文으로 미루어 볼 때,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은 撰集者인 柳希齡(1480-1552)과 同時代의 인물인 蔡無逸(1496-1546)에 의하여 한때 舊藏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은 방대한 70권본 시선집인 「新編類聚大東詩林」의 일부에 해당하는 12권 3책으로 그 수록내용도 五言古詩類, 七言古詩類, 曲禮類, 篇·詠·怨體類, 吟體類, 嘆·引·謠體類, 詞體類, 操體類, 雜體類 등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나, 「新編類聚大東詩林」이 「東文選」(130권)에 수록된 19권(권4-22)의 詩選에 底本으로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東文選」에 수록되지 않은 시편이 절대다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新編類聚大東詩林」 수록된 詩篇의 原文도 「東文選」이나 各作家의 文集에 수록된 原文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字句의 異同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가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은 간행의 시기와 간행에 사용된 활자가

분명하며 현재로서는 完帙이 전래되지 않고 복본도 없는 유일본일 뿐만 아니라 丙子字本の 稀觀本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은 우리나라 漢詩研究에는 물론 조선시대 초기의 金屬活字印刷文化를 窺見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만큼 書誌學研究에도 그 價値가 높은 것으로 評價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정신청본 이외에도 충남대학교(권13-14, 63-65 5권2책), 아단문고(권47-48 2권1책), 장서각(29장1책, 필사본) 등에 소장되고 있는 유일본도 있어, 이들 여타 소장처의 소장본도 함께 조사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 文獻資料

-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4樞 10(庚申)日條. “工曹參議柳希軫 以其所撰大東詩林·大東聯珠詩格進上 仍啓曰 臣自少時所撰集也 傳曰 其賜酒 撰集 非一朝一夕之事 用力不偶然也 其賜熟馬一匹.”
- 대구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대구 : 대구광역시, 2016. 12.
- 대구광역시문화재위원회 편, <계명대학 소장전적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및 시문화재위원회 심의관계자료> (김상호·이수환·배현숙 등의 조사보고서). 대구 : 대구광역시문화재위원회, 2016. 06. 30.
- 대구광역시문화재위원회 편, <계명대학교 소장전적류 문화재지정 조사보고서(김상호·이수환·배현숙 등의 조사보고서)>. 대구 : 대구광역시문화재위원회, 2016. 06. 30.
-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院 編, 「啓明大學校童山圖書館所藏 善本古書 解題集 2」. 大邱 : 啓明大學校童山圖書館, 2009. pp.241-246.
- 黃渭周, “夢菴 柳希齡의 漢詩選集 編纂” 「韓國漢文學研究」. 第19卷. (1996). pp.223-264.
- 문화유산통합검색(<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http://www.진주류씨.net/htmls/jinjuru02-3.htm>

○ 其 他 (소장 경위 등)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12卷3冊)은 계명대학교가 전체 3책 중 1책은 1975년 5월에 安東의 金靈臺로부터 購入한 것이며, 2책은 201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대구시 중구 명륜로 132(대봉동) 소재의 고서점인 유림원(대표 오이춘)으로

부터 구입한 것이라 한다.

지정신청본 「新編類聚大東詩林」과 동일 또는 유사한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현 상

조사대상의 조사대상의 『신편류취대동시림(新編類聚大東詩林)』 12권 3책은 중종 때 문인지식인 몽와(夢窩) 류희령(柳希齡·柳希軫)이 신라~조선시대의 역대 한시(漢詩)를 종합적으로 수집·편찬하여 1542년(중종 37) 경 금속활자 병자자(丙子字)로 찍은 만든 70여권의 시선집(詩選集) 가운데 권9~11 및 권31~39로,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전기의 기록유산이다.

조사대상본은 일부 책의 표지 등이 개장되어 있고, 영본(零本)이며, 내지의 일부가 훼손·결장(권9의 제1~5·10~11장, 권11의 제19장 이하, 권35의 제5장 뒷면 이하 등)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온존하게 보존되어 있다.

서지사항

금속활자본(丙子字本 : 1542년 추정)

사주쌍변/ 반곽 24.0×15.6cm/ 유계(有界)/ 반엽 11행 21자/ 주소자쌍행(註小字雙行)/ 대흑구(大黑口)/ 상하내향삼엽화문흑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 선장본(線裝本 ; 오침안정)

표 제 : 新編類聚大東詩林 九~十一卷/ 大東詩林 三十六~九

권 수 제 : 新編類聚大東詩林

편찬정보 : 菁川 夢窩 編

관 심 제 : 詩林

권 미 제 : 新編類聚大東詩林

내 용 : 권9~10(五言古詩類/ 조선), 권11(七言古詩類/ 고려), 권31(曲體類/ 고려·조선), 권32(篇體類·詠體類·怨體類/ 고려·조선), 권33(吟體類/ 신라·고려·조선), 권34(嘆體類·引體類·謠體類/ 고려·조선), 권35(詞體類/ 신라·고려), 권36(詞體類/ 조선), 권37(操體類/ 고려·조선), 권38(雜體類/ 신라·고려), 권39(雜體類/ 조선)

印 文 : 오상재(吳商在 : 권9의 권미제, 권10 권수제·권미제 및 권11의 권수제 부근), 인천세가(仁川世家)·채무일장(蔡無逸章 : 이상 권31·36 권수제 근처), 거경(居敬 : 권39 권미제 근처) 등

전 거 : 경신일에 공조참의 류희진(柳希軫·柳希齡)이 편찬한 『대동시림』·『

대동연주시격』을 주상에게 바쳤다. (류희진이) 이내 주상에게 “신이 젊은 시절 때 찬집한 책입니다.”라 아뢰었다(庚申, 工曹叅議柳希軫, 以其所撰大東詩林·大東聯珠詩格, 進上. 仍啓曰, “臣自少時所撰集也” : 『중종실록』 권98, 중종 37년 4월 경신).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의 『신편류취대동시림』 12권 3책은 중종 11(1516) 과거에 급제한 이후 같은 왕 때 공조참의(工曹叅議)를 지낸 문인지식인 몽와(夢窩·夢菴·夢老·夢草) 류희령(柳希齡·柳希軫)이 젊은 시절부터 신라~조선시대 국왕·종실·문인지식인·승려지식인 등 역대의 한시(漢詩)를 수집·편찬하여 1542년 4월 국왕에게 바친 70여권의 시선집 가운데 권9~11 및 권31~39로, 1542년 경 금속활자 병자자(丙子字)로 찍은 만든 기록유산이다. 『대동시림(大東詩林)』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대동은 우리나라를 큰 동국(東國)으로 표현한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 시선집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조사대상본은 오침안정법의 선장본으로 황색 계통의 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표제가 ‘신편류취대동시림 구~십일권(新編類聚大東詩林 九~十一卷)’ 및 ‘대동시림 삼십육~구(大東詩林 三十六~九)’로 묵서되어 있다. 광곽은 사주쌍변이며, 판심이다. 본문의 반엽 행자수가 11행 21자이고 계선이 있으며, 주(註)가 소자쌍행(小字雙行) 형식이다. 판구는 대흑구(大黑口)이며, 어미는 상하내향삼엽화문흑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이다. 전체적으로는 앞뒤의 표지·격지(隔紙)·공격지(空隔紙)를 이어 권수제-편찬정보-본문-권미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정보를 알려주는 오상재(吳商在), 그리고 인천세가(仁川世家)·채무일장(蔡無逸章)·거경(居敬) 등의 붉은 색 인문(印文)이 찍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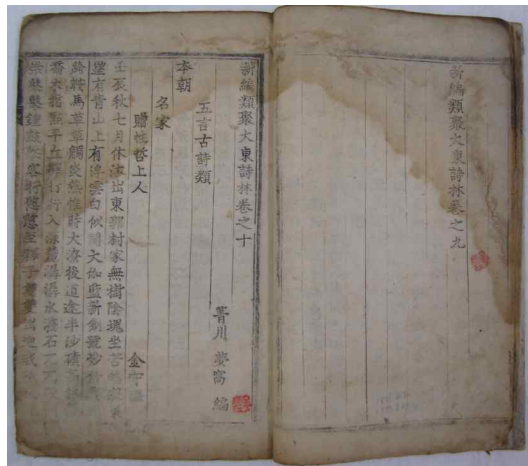
권수제와 권미제는 ‘신편류취대동시림권지십(新編類聚大東詩林卷之十)’ 및 ‘신편류취대동시림권지구(新編類聚大東詩林卷之九)’와 같이 책이름+권+지(之)+권차의 형태로 표기되어 있으며, 판심제는 작은 글자로 ‘시림권지십 일(詩林卷之十一)’과 같이 줄인 책이름+권+지+권차+장차의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제1장 2행의 편찬정보 ‘청천 몽와 편(菁川 夢窩 編)’에는 류희령의 다양한 호 가운데 몽와가 표현되어 있다. 제1장의 제3행부터 시작되는 본문에는 ‘오언고시류(五言古詩類)’ 및 ‘칠언고시류(七言古詩類)’ 등의 분류형식 항목을 이어 ‘신라(新羅)·고려(高麗)·본조(本朝 : 조선)’ 등의 해당왕조, 어제(御製)·종실(宗室)·명가(名家·名賢)·은일(隱逸)·치류(縉流)·투화(投化)·선귀(仙鬼) 등과 같은 해당 작가의 출신성분, 그리고 한시 제목과 작가 성명·법명 및 한시 내용 등이 연이어 표기되어 있다. 한시 작품은 작가의 왕조·출신성분과 함께 생몰연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순서를 배열

하였다. 조선시대 종실 출신은 왕실의 국성(國姓)인 이(李)자가 생략되고 이름 정(婷)·식(湜)자만 표기되어 있다.

조사대상본의 권9~10에는 조선시대(本朝) 이승소(李承召)의 「이월십이일입경십사일조알봉천문(二月十二日入京十四日朝謁奉天門)」 및 김수온(金守溫)의 「증성철상인(贈性哲上人)」 등 오언고시류(五言古詩類), 권11에는 고려시대 이인로(李仁老)의 「반월성(半月城)」 등 칠언고시류(七言古詩類), 권31에는 고려시대 홍간(洪侃)의 「새상곡(塞上曲)」 및 조선시대 종실(宗室) 이정(李婷)의 「추야곡(秋夜曲)」 등 곡체류(曲體類), 권32에는 고려~조선시대의 편체류(篇體類)·영체류(詠體類)·원체류(怨體類), 권33에는 신라시대 최치원(崔致遠)의 「귀연음헌태위(歸鵝吟獻太尉)」와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의 「출산음(出山吟)」 및 조선시대 종실 이정의 「동문음(東門吟)」 등 음체류(吟體類), 권34에는 고려~조선시대의 탄체류(嘆體類)·인체류(引體類)·요체류(謠體類), 권35에는 고운 최치원의 「희양산지증선비명사(曦陽山智證禪碑銘詞)」 및 이규보의 「서침병사시사(書寢屏四時詞)」 등 고려~조선시대 사체류(詞體類), 권36에는 종실 이정의 「규사고체(閨辭古體)」 등 조선시대 사체류(詞體類), 권37에는 고려시대 목은 이색(李穡)의 「소보조(巢父操)」 및 서거정(徐居正)의 「침류조(枕流操)」 등 고려~조선시대 조체류(操體類), 권38에는 신라시대 작가 미상의 「과해연구(過海聯句)」 및 이인로(李仁老)의 「용동파어기정지상인(用東坡語寄貞之上人)」 등 신라~고려시대 잡체류(雜體類), 권39에는 종실 이정의 「화낭옹향림체십절(和浪翁香奩體十絶)」 등 조선시대 잡체류가 각각 편제·수록되어 있다. 이들 한시 가운데는 『동문선』이나 『속동문선』에 수록된 작품과 중복된 경우도 있으나, 개인 시문집에만 수록된 작품도 확인된다. 그리고 제목과 내용의 일부에서는 다른 문집이나 시문집에 실린 동일 작품과 비교하여 글자의 차이와 함께 탈락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조선시대 종실 이정이 지은 「화낭옹향림체십절(和浪翁香奩體十絶)」 등은 18세기 초기 이정의 시문집인 『풍월정집(風月亭集)』의 보유(補遺)를 간행할 때 『신편류취대동시림』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앞표지



권10 제1장 앞면 및 권9 권미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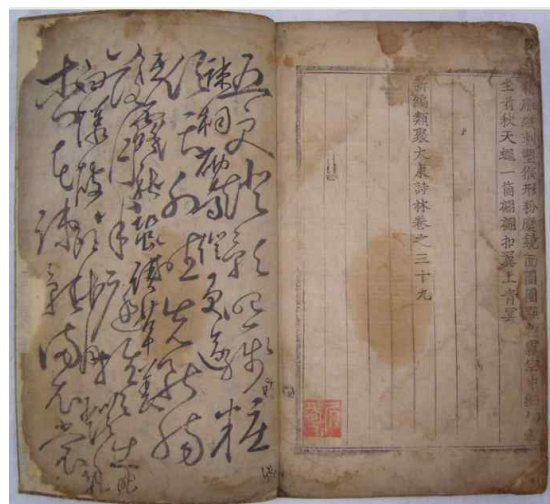
권31 제1장 앞면



권35 제5장 앞면 및 제4장 뒷면



권36 제1장 앞면



권39 권미제 부분

조사대상의 『신편류취대동시림』 12권 3책은 인출정보가 없어 인출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1542년(중종 37) 경 금속활자 병자자(丙子字)로 찍어 만든 기록유산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 『중종실록』 권 98, 중종 37년 4월 경신에는 “경신일에 공조참의 류희진(柳希軫·柳希齡)이 편찬한 『대동시림』·『대동연주시격』을 주상에게 바쳤다. (류희진이) 이내 주상에게 ‘신이 젊은 시절 때 찬집한 책입니다.’라 아뢰었다(庚申, 工曹叅議柳希軫, 以其所撰大東詩林·大東聯珠詩格, 進上. 仍啓曰, 臣自少時所撰集也).”라는 내용에서, 1542년 4월 류희령이 중종에게 『신편류취대동시림』을 받쳤으며,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권13~14 및 권63~65 등과 서지학적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조사대상본은 1516년(중종 11) 주자도감(鑄字都監)에서 만들어진 금속활자 병자자(丙子字)로 찍어 만든 기록유산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본의 권31~39 2책에는 1496년(연산군 2) 인천 채씨(仁川蔡氏) 채윤권(蔡胤權)의 아들로 태어나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한 이후 헌납(獻納)을 역임하고 1546년(명종 1) 10월 죽은 문인 지식인 채무일(蔡無逸)과 관련된 인천세가(仁川世家)·채무일장(蔡無逸章)·거경(居敬 : 채무일의 자호)이 붉은 색의 소장정보로 찍혀 있으므로, 조사대상의 『신편류취대동시림』은 1546년 이전부터 이미 금속활자 병자자로 찍어 보급되었던 기록유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본은 중종 때 한시(漢詩)의 성격과 함께 당대 우리나라와 종실에 대한 역사인식, 출판인쇄문화의 실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고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중종실록』 권98, 중종 37년 4월 경신.

『國朝人物考』 권26, 채무일묘갈명(蔡無逸墓碣銘).

黃渭周, 「夢菴 柳希齡의 漢詩選集 編纂」 『韓國漢文學研究』 19, 한국한문학회, 199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통합검색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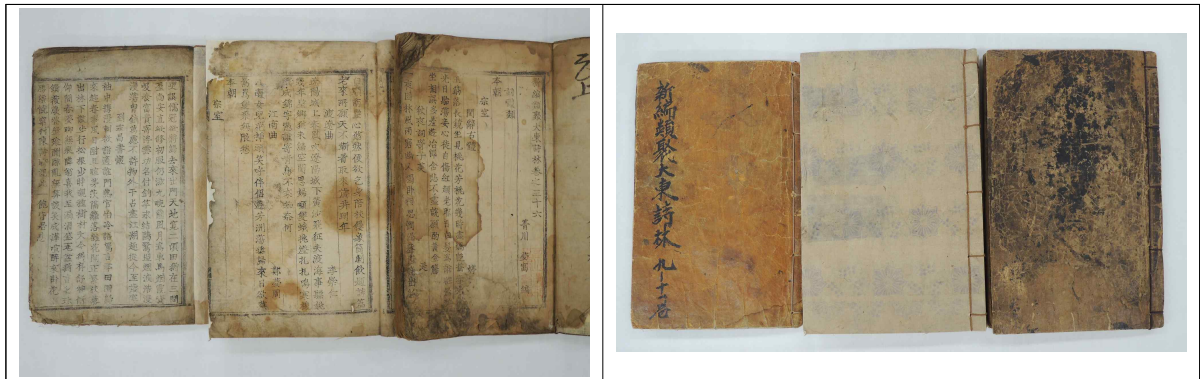
○ 지정사례

현재까지 조사대상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본이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태이다.

□

○ 現 狀

조사 대상 『신편류취대동시림(新編類聚大東詩林)』 3책 가운데 1책은 1975년 5월에 安東의 김영태(金靈台)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2책은 201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대구시 중구 명륜로 132(대봉동) 소재의 고서점인 유림원(대표 오이춘)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 한다. 현재 각 책마다 부분적인 보존처리가 된 상태로 각각 원형의 표지가 아닌 후에 개장된 표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얼룩과 충해에 의한 오염이 상당히 심한 상태여서 시급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 內 容 및 特 徵

『신편류취대동시림(新編類聚大東詩林)』은 조선 중종대의 문신인 유희령(柳希齡, 1480~1552)이 고대로부터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문인들의 시를 모은 70권의 시선집이다. 이 책은 기존의 시문집인 최해(崔滢, 1287~1340)의 『동인지문(東人之文)』이 거칠고 잡다한 결점이 있고, 조운흥(趙云佐, 1332~1404)의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은 너무 많이 삭제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작가의 작품과 양식을 두루 포괄한 풍부한 시선집을 편찬하고자 간행된 것이다.

유희령의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는 원로(元老)·자한(子罕)이며, 호는 몽암(夢菴)·몽와(夢窩)·몽로(夢老)·몽초(夢草) 등이다. 증조는 공조참판을 역임한 유종직(柳宗植)이고, 조부는 예문관 봉교를 역임한 유문통(柳文通)이며, 부친은 예조참의를 역임한 유인귀(柳仁貴)이고 모친은 성주이씨(星州李氏)로 현감 이장생(李長生)의 따님이다. 1501년(연산군 7)년에 진사에 급제하고, 1516년(중종 11)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교서관 부정자·예문관 검열·대교·봉교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1517)에는 병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중종 14)년에 남곤(南袞) 등이 일으킨 기묘사화(己卯士禍) 때에 숙부인 유인숙(柳仁淑)이 화를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지금의 충북 문의(文義)인 문산(文山)으로 내려와 은거하였으나, 1520년(중종

15)년에 다시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고, 1524년(중종 19)년에 영천군수(榮川郡守)에 제수되어 5년간 재임하였다. 이후 이천부사(伊川府使)와 대구부사(大丘府使) 등을 역임하였으며, 1542년(중종 37)년에 성절사(聖節使)로 북경에 다녀온 뒤 이듬해(1543) 호조참의에 제수되었다. 이후 명종 즉위(1545)년의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연루되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되었다가 금산(錦山)으로 옮겨진 뒤에 유배지에서 졸거(卒去)하였다. 1694년(숙종 20)년에 현재 충북 청주시 가덕면(加德面)의 덕천사우(德川祠宇)에 제향되었고, 저술로는 문집인 『몽암집(夢菴集)』(2권)과 함께 편서인 『신편류취대동시림』(70권), 『표제음주동국사략(標題音注東國史略)』(12권)과 『대동연주시격(大東聯珠詩格)』·『송시정운(宋詩正韻)』·『조종시율(祖宗詩律)』 등이 있다.

조사본 『신편류취대동시림』은 권9~11과 권31~35 그리고 권36~39의 영본(零本) 3책(12권)으로 1542년경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병자자(丙子字)’의 금속활자 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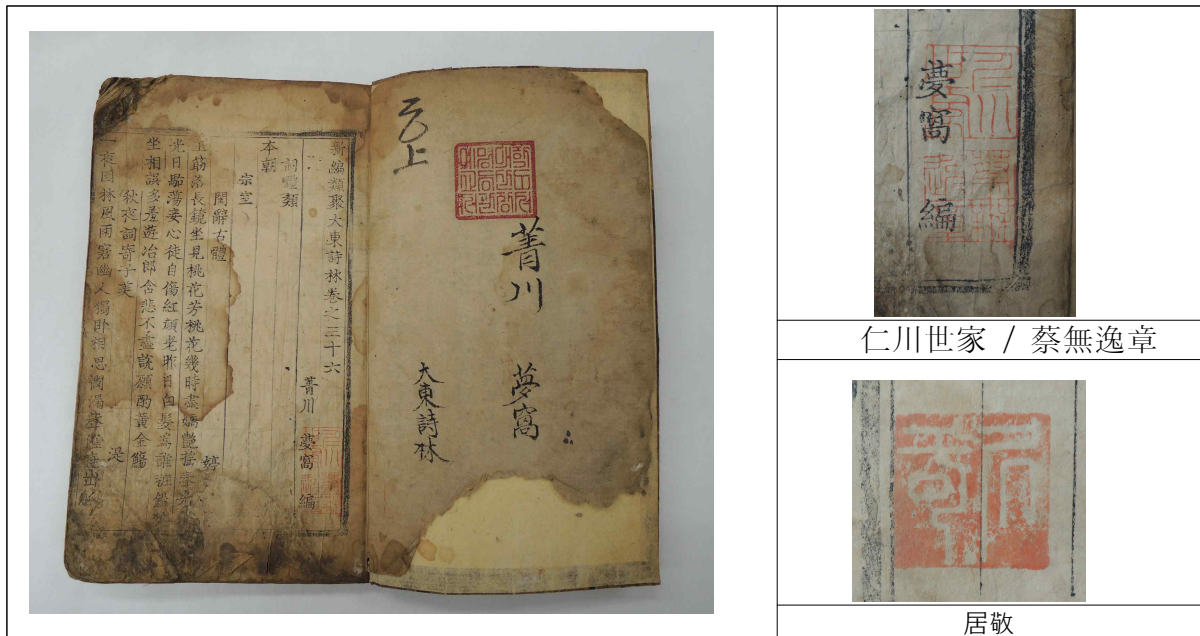
‘병자자’는 이보다 앞서 주도된 ‘을해자(乙亥字)’와 ‘갑진자(甲辰字)’ 등이 남아 없어지면서 1516년(중종 11)년에 주자도감(鑄字都監)에서 명판(明版)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자본(字本)으로 하여 새로이 주도한 활자이다. 글자체는 ‘경자자(庚子字)’와 비슷하나 ‘경자자’에 비해 예리하지 못한 활자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크기는 가로, 세로 1.2×1.2(cm) 내외이다.



조사본의 판식을 보면 권두제(卷頭題)와 권미제(卷尾題)는 ‘新編類聚大東詩林’이며, 판심제(版心題)는 ‘詩林’이다. 판식의 변란(邊欄)은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반곽(半郭)은 24.0×15.6cm 내외이며 계선(界線)이 있다. 반엽의 행자수는 본문은 11행 21字이고 주문(注文)은 쌍행이다. 판구(版口)에는 대흑구(大黑口)가 있고 판심의 어미(魚尾)는 內向3葉花紋魚尾이다. 책의 전체 크기는 30.6×19.5cm 내외이다.

조사본 모두 3책만이 전하는데 권9~권11의 1책과 권31~권35의 2책은 본문 가운데 일부가 결락된 상태이며 권36~권39의 1책은 내용을 완전히 전하고 있다. 권9~권11의 1책에는 오언고시류(五言古詩類) 및 칠언고시류(七言古詩類) 등을 담고 있는데 권9(張6~9, 12~17, 以下缺), 권10(張1~30, 完), 권11(張1~18, 以下缺)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권31~권35의 1책에는 곡례류(曲禮類) 및 편(篇)·영(詠) 그리고 음체류(吟體類) 및 요체류(謠體類)·사체류(詞體類) 등을 담고 있는데, 권31(張1~15, 完), 권32(張1~15, 完), 권33(張1~17, 完), 권34(張1~16, 完), 권35(張1~5A, 以下缺)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본문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권36~권39의 1책에는 사체류(詞體類)를 포함하여 조체류(操體類) 및 잡체류(雜體類) 등을 담고 있는데, 권36(張1~14, 完), 권37(張1~3, 完), 권38(張1~17, 完), 권39(張1~27, 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본에 보이는 인문(印文)은 네 가지가 있다. 권31~권35 그리고 권36~권39의 2책에서만 확인되는 ‘仁川世家’(권31권두·권36권두), ‘蔡無逸章’(권31권두·권36권두) 그리고 권미에서 확인되는 ‘居敬’(권39권말)이 있고, 권9~권11의 1책에서만 확인되는 ‘吳商在’(권9권말·권10권두·권10권말·권11권두)라는 방형 주인의 인문이 있다. 이같은 사실은 현재 전하는 3책은 각각 그 소장과 유전 경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중 권31~권35 및 권36~권39의 2책에서 보이는 ‘仁川世家’와 ‘蔡無逸章’ 및 ‘居敬’은 본관이 仁川이고 호가 居敬인 채무일(蔡無逸, 1496~1546)의 장서인(藏書印)이다. 채무일은 경상도 함창 출신의 문신으로 관직은 한성부 서윤에 이르고 경사

와 역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서화를 비롯하여 음률, 의학, 복서 등에도 뛰어났던 인물로 평가된다. 이같은 사실은 본 조사본의 역사적 가치를 더하여 준다.

조사본 『신편류취대동시림』은 방대한 70권본 시선집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12권 3책으로 그 수록내용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책은 후에 『동문선(東文選)』(130권)에 수록된 시선(詩選)에 저본(底本)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만큼 『동문선』과 함께 우리 문학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다.

○ 文獻資料

-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4槩 10(庚申)日條. “工曹參議柳希軫 以其所撰大東詩林·大東聯珠詩格進上 仍啓曰 臣自少時所撰集也 傳曰 其賜酒 撰集 非一朝一夕之事 用力不偶然也 其賜熟馬一匹.”
- 대구광역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요청 자료보고서 및 검토의견서>. 대구 : 대구광역시장, 2016. 12.
- 대구광역시문화재위원회 편, <계명대학 소장전적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및 시문화재위원회 심의관계자료> (김상호·이수환·배현숙 등의 조사보고서). 대구 : 대구광역시문화재위원회, 2016. 06. 30.

○ 지정 사례

조사본 『신편류취대동시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13.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가. 검토사항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청의 「2005년도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한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에 대해 2006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대상으로 추천되어(’06.2.7), 관계전문가 조사(’06.12.4/1차)를 실시하고 2007년 본 위원회 2차 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고려 말~조선 초 관련 불상 사례 보완조사 사유로 보류됨.
- 이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동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7.1.8) 관계전문가 조사(’18.7.18/2차) 및 과학조사(’19.2.14~4.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다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1973.6.23.지정)
- 명 칭 :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참당암
-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수 량 : 불상 1구, 대좌 1기
- 규 격 : 불상 높이 80cm, 무릎 폭 54, 대좌높이 100cm

- 재 질 : 석조
- 형 식 : 두건을 쓰고 보주를 든 지장보살
- 조성연대 : 고려 말~조선 초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얼굴의 표정이 온화하고, 세 가닥으로 늘어진 목걸이형식이나, 어깨 양쪽에서 드리워져서 클로버 형태로 마무리 된 띠 장식, 둥근 보주를 들은 모습, 그리고 가슴위에 들려진 띠매듭이 보이는 점 등은 고려말 보살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네모난 대좌의 옆모서리에 붙여진 장식의 형태나 대좌 밑에 붙어있는 커다란 식물문양은 이 대좌가 목조 가구에 금속장식을 달았던 예를 본 따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당시의 법당에 불상 안치했던 방법을 잘 알려준다.
- 고려시대의 지장보살에는 두건을 쓴 도상과 민머리의 두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두건을 쓴 석조보살상으로 남아있는 예는 이 상이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 지장보살상은 고려말 조선초기의 양식을 보여주며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 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역사자료나 관련 문헌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이 상이 선운사에 소장된 내력을 좀더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 현재 석조의 지장보살상은 보물 제1327호로 지정된 1515년 지장보살상(국립중앙박물관)이 유일 할 만큼 석조상은 아주 희귀한 편이다. 특히, 이 참담암 지장보살상은 보물 제1327호의 상과 비교하여 볼 때 크기나 완성도에서 월등히 앞서 있으며, 더욱이 고려시대 들어 사례가 많아진 사각형 갑석의 대좌를 갖춘 조선조 최초의 조각이라는 점에서 아주 귀중한 조각이다. 따라서 이 지장보살상은 비록 관련 기록이 없기는 하지만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 2차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선운사 참담암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 사이에 성행하였던 소위 두건형 지장보살상으로서, 고려 후기 양식과 더불어 조선 초기 양식이 반영되어 있는 15세기 작품으로 추정되었다. 얼굴의 일부를 제

외하고는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조선 초기의 (지장)신앙과 도상학,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좌를 일습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상은 선운사를 상징하는 세 지장보살 중 다른 두 구의 보살상이 보물로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각사적으로도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고려불화 속의 지장보살상의 형식을 충실하게 조각으로 재현한 점, 나아가 옥석제 불상의 이른 시기 사례라는 점에서 역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지장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와 띠로 묶어 주름잡은 섬세한 두건의 표현 등 조형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보주를 든 두건 지장의 정확한 도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말 선초의 지장 신앙 및 지장도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시기 금동과 목조로 제작된 온전한 지장보살상은 몇 점 전하고 있으나, 석조로 제작된 지장보살 중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한 것은 이 지장보살상이 독보적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지장보살상좌상은 1346년(고려 충목왕 2년)부터 1398년(조선 태조 7년)까지 占察法會의 일종인 栴會를 43차례 실시하였다는 사적기의 기록과 어찌면 관련지을 수 있는 중요한 像으로 평가된다.

단아한 불신에 비해 넉넉하게 구성되어 안정감을 갖추고 있는 석조대좌는 석질에서 지장보살과 약간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어 원래부터 일습으로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오래동안 지장보살의 대좌로 사용되어 왔고, 상대 갑석과 하대하석 팔각면석의 안상에 표현된 여의두문 등 일부 표현에서는 지장보살에서 드러나는 표현과도 유사점이 엇보이므로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함께 제작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여말선초에는 이와 같은 석조대좌의 제작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대좌 역시 석조지장보살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좌의 연꽃과 안상표현, 세장한 형태미에서 고려 중기적인 요소도 뚜렷하므로, 다른 상의 대좌로 사용된다 그 像이 소실되자 지장보살상의 대좌로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장보살상과 대좌는 함께 놓고 보아도 조형적으로 어색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작품 모두 여말선초 이상의 시기성도 확보하고 있고 상태도 완전하므로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보호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1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이 석조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네모난 석조대와 역시 원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좌 모서리에 있는 금속 결구 장식을 석조로 표현한 것 역시 이상의 보존 가치를 높여 준다. 단지 이상과 연관되는 문헌자료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선운사 지역은 지장신앙이 특별히 유행하였던 듯 이 절에는 이 석조지장보살상 외에 고려 말과 조선조 초의 금동 지장상 두 구가 모셔져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고창 선운사 창담암 석조지장보살상은 상 높이가 77cm 대좌높이 104cm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머리위에 쓴 두건은 잘 접혀져서 머리 뒤로 드리워졌으며 그 위로 둘러진 머리띠는 정교한 매듭으로 매어져서 뒤에 늘어졌다. 상의 정면 뿐 아니라 뒷면 처리도 정성 드려 만들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얼굴의 표정이 온화하고, 세 가닥으로 늘어진 목걸이형식이나, 어깨 양쪽에서 드리워져서 클로버 형태로 마무리 된 띠 장식, 둥근 보주를 들은 모습, 그리고 가슴위에 둘러진 띠 매듭이 보이는 점 등은 고려말 보살상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네모난 대좌의 옆 모서리에 붙여진 장식의 형태나 대좌 밑에 붙어있는 커다란 식물문양은 이 대좌가 목조 가구에 금속장식을 달았던 예를 본 따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당시의 법당에 불상 안치했던 한 방법을 잘 알려준다.

고려시대의 지장보살에는 두건을 쓴 도상과 민머리의 두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두건을 쓴 석조보살상으로 남아있는 예는 이 상이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 지장보살상은 고려 말 조선초기의 양식을 보여주며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 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역사자료나 관련 문헌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이 상이 선운사에 소장된 내력을 좀더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장보살상은 비교적 높은 대좌 위에 가부좌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보주를 잡고 왼손은 길게 뻗어 왼쪽 무릎에 올려놓았으며, 머리에 두건을 쓴 소위 “被巾像”의 형상을 하고 있다. 착의법은 通綱이며 배 부분에 바지를 묶은 띠 매듭이 보이고, 두건의 끝자락이 양어깨를 덮고 있듯이 표현하였다. 두건을 묶은 띠는 양어깨 앞으로 흘러내리며, 머리 뒤편에도 역시 두건을 묶은 또 하나의 띠 매듭이 보인다. 옷주름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조각 또한 깊이 없어서 線的인 느낌을 준다. 얼굴은 턱의 좌우를 약간만 동글게 깎아 내었기 때문인지 장방형에 살이 많이 올라있는 인상이다.

대좌는 방형의 지대석, 眼象과 복련이 새겨진 하대석, 팔각의 간주와 복련형의 상대석 그리고 방형의 갑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대석에서 갑석까지의 체감율이 좋아 안정되어 보인다. 특히, 대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장보살상이 놓은 제일 윗부분인 갑석 장식으로 네 귀퉁이 전면과 밑면에 마치 목조공예품의 금속 결구장식을 연상시키는 듯한 형상물이 조각되어 있다.

참당암 지장보살상은 머리가 약간 큰 듯 하지만 무릎과 어깨 폭의 비율, 그리고 상체의 길이가 적당하며, 옷주름도 필요 이상의 표현을 억제하였고 형상에 이 지러짐이 없을 뿐 아니라 정확하여 顯現性이 뛰어나며, 대좌 역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지장보살상은 두건을 묶은 띠가 양 어깨 앞으로 내려오고 두건의 끝자락이 어깨를 덮은 듯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14세기 지장보살도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단순한 목걸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원도의 유양군 출토의 고려말 금동관음보살상과 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머리와 손이 비교적 크며 옷주름 역시 간략하고 조각이 얇으며 입술이 마치 마름모 두 개를 연결해 놓은 듯이 표현된 점, 그리고 평판화 및 형식화 경향이 현저한 선운사 소장 조선초 금동지장보살상(보물 제279호)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등 조선시대 초기의 조각요소가 엿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작시기는 15세기로 짐작된다.

현재 석조의 지장보살상은 보물 제1327호로 지정된 1515년 지장보살상(국립중앙박물관)이 유일 할 만큼 석조상은 아주 희귀한 편이다. 특히, 이 참당암 지장보살상은 보물 제1327호의 상과 비교하여 볼 때 크기나 완성도에서 월등히 앞서 있으며, 더욱이 고려시대 들어 사례가 많아진 사각형 갑석의 대좌를 갖춘 조선조 최초의 조각이라는 점에서 아주 귀중한 조각이다. 따라서 이 지장보살상은 비록 관련 기록이 없기는 하지만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차 조사보고서



○ 현 상

- 고창 선운사 참담암의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온몸에 가사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 두건을 썼으며 왼손에 寶珠를 들고 있는 소위 두건형 지장보살상이다.
- 화장암 재질로 조각된 상으로,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까지 전면에 칠해져 있던 백색 회칠은 모두 제거된 상태이며, 두건과 두건을 묶은 띠 등에 부분적으로 녹색과 적색 계통의 채색 흔적이 남아 있다.

○ 내용 및 특징

- 얼굴은 세로로 긴 장방형이며 이마의 폭보다 뺨의 폭이 넓은 정도로 턱과 뺨에 양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머리 전체의 앞뒤 두께는 그다지 깊지 않아서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양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눈은 크게 뜬 모습인데, 최근에 원래의 눈 속에 얇게 뜬 눈이 그려져 있어 상호의 균형이 어그러져 있다. 위 눈두덩에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고, 코끝은 마멸되었다. 눈동자의 가칠과 눈, 코의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인상이 변형된 상태이다. 인중은 봉우리가 높고 골은 깊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입술도 두툼하고 뚜렷한 테두리를 갖고 있다. 귀는 耳甲이 거의 없는 듯이 좁고 이수에는 귀걸이용 구멍이 표현되어 있다.
- 가사가 착용된 부분은 밋밋하게 처리되었지만, 얼굴, 손, 발 등 피부 부위는 입체감이 드러나도록 조각되었다. 머리에 착용된 두건은 어깨 아래 上膊 상부까지 덮여 있으며, 세로로 난 계단식 주름이 잡혀 있다. 두건은 귀 상단 즈음 높이의 뒤통수에서 묶인 끈이 표현되어 있고, 끈의 매듭은 등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다. 목에는 구슬이 촘촘히 장식된 목걸이를 차고 있으며, 가슴 정면에는 3줄의 胸飾이 수하되어 있다.
- 옷은 (군의)-승기지-부견의-대의가 착용된 것으로 보이며, 승기지 상단을 묶은 끈과 나비모양 매듭 장식이 복부에 나타나 있다.
- 『지장십륜경』, 『지장보살본원경』 등 지장과 관련된 경전들에는 머리를 깎은 비구형으로 지장보살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상은 일반적인 보살상의 모습과 달리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지 않았고, 몸에

는 천의 대신에 출가 승려들이 입는 가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승려 복장의 보살상 중에서도 이 보살상처럼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상들이 고려 후기 이래로 많이 조성되었는데, 이는 중국 唐代에 찬술된 『道明和尚還魂記』 기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록은 道明이라는 승려가 冥府使者의 착각으로 명부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일의 전말을 적은 글로, 지장보살이 삭발한 채 머리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조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명부에서 만난 지장보살이 세간의 이러한 오류를 직접 교정해 주었다고 하며,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은 도명이 만난 지장보살의 진짜 모습이라는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 이 보살상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수인 표현이다. 왼손은 손가락을 모두 편채로 무릎에 대어 축지인처럼 표현되었고,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중지를 사용하여 보주를 쥐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말선초 지장상의 경우 보주나 석장을 쥐고 있는 상이 많지만, 왼손으로 축지인을 지은 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두 손은 모두 손등은 넓고 양감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반면 손가락은 길고 가느다랗게 표현되어 있다. 오른발은 옷 안에 숨겨져 있으며, 노출된 왼발도 왼손에 인해 발가락이 가려져 있다.

- 보살상이 앉아 있는 대좌는 보살상 크기에 비해 높고 크며, 석질도 보살상과 다른 것으로 보아 원래의 보살상 대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좌는 사각형 지대석 위에 팔각복련형 하대-팔각기둥형 중대-팔각양련형 상대가 올라 있고 마지막에 사각형 상판이 덧붙여 있는 구조이다.

- 선운사 참담암 지장전에 봉안되어 있는 이 지장보살상은 턱과 뺨에 다소나마 양감이 표현된 얼굴, 3줄의 술 장식이 달린 경식 등에 고려 후기 불상 양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으며, 승기지 상단을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지어 늘어뜨렸거나, 양감 표현이 없어진 가슴과 배 등에는 새롭게 변한 조선 초기 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 현 상

참담암에는 대웅전 옆의 응진전·명부전이 하나로 이어진 법당 안에 시왕의 주존으로서 지장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으나, 그 뒤에 별도의 지장전이 있어 이 석조지장보살좌상을 모시고 있다. 두건을 착용한 피모지장형식으로 결가부좌하여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보주를 들고, 축지인처럼 왼손 손바닥을 왼발 무릎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착의형식은 안에 장삼을 입고, 겉에 가사를 변형편단우건으로 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옷의 흐름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슴에는 영

락장엄을 걸친 것을 조각하였고, 복부에는 띠매듭이 보인다. 미간에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백호가 박혀있다.

○ 내용 및 특징

원래 이 석조지장보살좌상은 손에 들고 있는 등근 지물이 약함으로 인식되어 의왕불(약사불)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전각도 약사전이었으나, 2016년도에 지장보살살로 새롭게 명명되어 전각 편액이 지장전으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참당암에는 두 구의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것인데, 주지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2구의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도 원래는 참당암에 모셔져 있던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운사가 지장도량으로 발전한 것은 참당암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당암은 대참사·참당사 등으로 불렸는데, ‘참(懺)’은 지장보살 및 명부신앙을 통한 예참의식과 연관하여 원래부터 지장신앙이 중요했음을 사찰의 명칭으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

두건을 착용한 지장보살상은 고려말 조선초에 유행한 도상이며,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은 그러한 사례중 석조라는 점에서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석조지장보살상은 보물 제1327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515년 제작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있으나, 높이 33cm 가량으로 법당의 주존으로 봉안되었던 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반해 참당암 보살상은 높이 80cm의 상으로 현재과 같이 지장전 혹은 명부전의 주존으로 봉안될 목적으로 조성된 상으로 생각되며, 1515년 보살상을 기준작으로 보았을 때 이보다 앞선 작품으로서 여말선초 시기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상의 형식상의 특징은 보물 제280호 도솔암 지장보살과 보물 제279호 선운사 지장보살의 중간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상의 전체적인 비례 양상은 도솔암 지장보살상과 유사하여 결가부좌한 하체가 다소 좁고, 상체가 길며, 얼굴이 동그란 윤곽을 지니고 있어 도솔암 지장보살과 같은 고려시대 후기 양식의 반영이라 하겠다. 반면 두건이 마치 새 깃털처럼 펼쳐진 모습이나 조각의 양감이 다소 평면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선운사 지장보살상과 유사한 측면이 보인다. 다만 참당암 지장보살은 석조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청동으로 주조된 선운사 및 도솔암 지장보살상과는 조형감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반드시 시대적 특징으로만 단언할 수는 없다.

참당암 지장보살상은 석조이지만 세부 묘사는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착용한 두건의 모습은 선운사 지장보살상처럼 마치 깃털을 펼쳐놓은 듯한 정교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고려시대 나한상이나 지장보살상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성남 판교에서 출토된 금동삼존상

중 지장보살, 혹은 나한상으로 추정되는 2구의 두건 쓴 좌상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동빈도로존자상에 보이는 표현과 흡사하다. 나아가 두건을 묶은 띠의 윗 부분은 언뜻 평평해 보이지만, 뒤와 양옆, 그리고 위에서 보면 띠를 묶음으로 인해 두건이 접히면서 생기는 주름의 모습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띠를 뒤에서 묶은 리본 모양의 매듭과 여기서 늘어진 띠자락의 표현도 매우 정교하다. 돌로 이러한 두건의 착용을 정교하게 묘사한 예로서 서울 북한산 승가사의 승가대사상의 두건 정도가 참조가 되지만, 참당암 지장상이 더 정교하다. 또한 승가대사상이나 선운사 지장보살상은 두건으로 귀를 덮고 있는 반면에 참당암 지장상은 귀를 드러나게 하고 두건은 귀 뒤로 넘어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불화나 혹은 도솔암 지장상과 더 닮았다. 두건의 주름 틈새에는 약간의 녹색 안료가 남아있는데, 아마도 이 상은 채색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처리는 다소 평면적이지만, 코와 입술의 선을 강조하여 이러한 평면성을 극복하고 있다. 특히 입술의 굴곡진 선은 선운사 지장보살상의 가늘면서도 도톰한 입술과 유사한 편이다. 귀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S'자 곡선을 이루는 귓볼과 그 안의 살이 접힌 모습이 깊은 양감으로 사실적으로 조각되었다. 또한 앞에서 볼 때도 귓볼이 잘 보이도록 의도한 것 같다.

두건의 끝단에서 길게 들어지는 띠는 양쪽 어깨를 따라 흘러내려 양쪽 가슴 높이까지 늘어져 있는데, 그 끝에 여의두문의 장식이 달려있는 것을 상세히 묘사했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불화에 등장하는 피건지장보살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고려불화에서는 짧게 늘어지는데 반해 참당암상은 두건이 흘러내린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가슴 높이까지 길게 늘어진 점이 다르다. 특히 고려불화 속 피건지장보살의 두건에서 양 어깨로 내려오는 띠자락은 머리에 묶은 띠자락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두건의 끝단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묘사된 경우도 있는데, 그럼이기 때문에 뒷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것이 머리에 묶은 띠의 자락인지, 두건의 끝단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가운데 참당암 지장보살은 두건 착용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이마를 지나는 굵은 띠는 귓볼 뒤로 흘러내려 그대로 양어깨로 내려오고, 두건을 고정시키는 띠는 귓볼 뒤쪽에서 별도로 나온 띠가 뒤통수에서 리본으로 묶여 등으로 매듭이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승가사 승가대사상, 판교출토 금동보살좌상 2구도 두건 착용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양상은 보다 단순하게 띠를 묶은 모습이어서 고려불화 속의 두건과는 착용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참당암 지장상은 고려불화 속 지장보살의 두건 착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수인은 오른손으로 보주를 들고, 왼손은 축지인처럼 왼발 무릎에 올려놓은 자세인데, 고려불화에서 지장보살은 참당암상처럼 오른손으로 보주를 든 경우가 압도

적으로 많다. 왼손의 경우는 입상인 경우 석장을 들고, 좌상은 왼손을 무릎에 얹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좌세는 대부분 반가좌 유형인 것이 많다. 그러나 참당암상은 결가부좌이면서 왼손을 왼발 무릎에 얹고 있는 사례이다. 회화와 달리 조각에서는, 특히 참당암상처럼 석조각에서는 반가좌의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결가부좌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에 무위사 아미타삼존벽화 및 목조삼존상의 지장보살은 우협시로서 조성되었기 때문인지 왼손에 보주를 들거나 들고 있는 듯한 자세를 하고, 오른손에 석장을 들고 있어 반대로 된 점이 주목된다. 고려불화 중의 아미타팔대보살도에 협시로 등장하는 지장보살도 왼손에 보주를 들고 오른손에 석장을 든 사례가 있어 지장보살이 주존으로 묘사될 때와 아미타불의 협시로 묘사될 때 수인의 좌우 표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당암 지장보살상은 아미타불의 협시가 아니라 지장전의 본존, 혹은 명부전의 본존으로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물론 고려불화 중에서도 일본 계조인(華藏院) 소장 지장시왕도처럼 본존이면서 왼손에 보주를 든 사례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계조인 지장시왕도의 경우는 왼손에 보주를 든 대신 오른손을 들어 설법인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축지인을 하거나 석장을 든 사례와는 별도의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된다. 참고로 선운사 및 도솔암 지장보살상은 오른손은 시무외인으로 들고, 왼손에 지물을 들거나 혹은 들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참당암상과 반대이지만, 고려불화의 일반적인 지장보살 수인을 보면 오히려 참당암상이 고려불화의 수인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보주를 든 손이나 축지인을 한 손은 모두 손등과 손가락 사이의 마디를 구분하여 인체표현에 비교적 충실한 편이다. 이러한 손의 표현은 승가사 승가대사상의 손과도 비교되는데, 근육묘사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된 승가대사상과는 다르지만, 초월적 존재인 지장보살의 손을 사람의 손의 움직임처럼 묘사하고자 하는 조형적 의도는 서로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참당암상의 착의법은 매우 정교하다. 안에 장삼을 입고, 그 위에 가사를 변형편 단우견으로 두른 모습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측면과 뒷면에서 이러한 가사의 착용법을 세밀하게 묘사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매우 정성스럽게 조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오른쪽은 오른팔 가사를 덮지 않고 뒤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게 표현했고, 왼쪽은 가사가 어깨를 덮고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복부에는 균의의 띠매듭으로 볼 수 있는 리본 모양의 매듭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도 가사에 가려 안 보이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아랫배로 지나가는 가사와 장삼 자락을 정교하게 표현하면서도 그 틈으로

매듭까지 새긴 것은 조각가의 꼼꼼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참당암 석조지장상은 상·중·하대석으로 이루어진 팔각연화대좌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데, 이 대좌가 원래부터 지장상과 함께 조성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장상의 크기와 균형이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원래의 석조대좌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상대석 위에 별도의 석판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데, 이 석판의 아래쪽에는 상대석의 양련과 일치하는 물딩이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어 현재의 대좌와 원래부터 한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석판의 모퉁이마다에는 금속제 장식을 연상시키는 장식이 돌아가며 마감되어 있는데, 다른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공양물 등 무엇인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배려된 것으로도 생각되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주로 제작된 이러한 3단 팔각대좌 위에 불상이 아닌 보살상이 정좌한 사례가 실제 조각에서는 드문 가운데, 보살의 봉안법식과 의례상의 필요성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보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선운사가 지장도량으로서 천·지·인 삼장지장의 개념을 창안하고, 천장을 도솔암, 지장을 선운사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인장(人藏) 지장으로서 의미를 부여한 참당암 지장상은 도솔암과 선운사 지장보살과 비교해 돌이라는 특성상 다소 투박해 보이는 요소가 있으나 실제 표현된 것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금동상 못지 않은 섬세한 정교함을 보인다.

한편 이처럼 돌이라는 재료에서 오는 독특한 투박함은 ‘인장’이라는 개념에 부합하여 가장 인간적이고 친근한 느낌이 드는 지장보살상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 불어 선운사의 오랜 역사에서 참당암은 단지 부속암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선운사가 시작된 곳이며, 삼장지장의 시원도 참당암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하고, 나아가 ‘참당암’이라는 사찰의 이름 자체가 지장참법 등 지장보살신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참당암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석조지장보살이므로, 다른 두 구의 지장보살과 마찬가지로 선운사에서 불교사상, 문화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하겠다.

또한 법당 주존으로 봉안된 옥석제 불상이 주로 조선 후기의 사례로서 전하는 가운데, 이 상은 고려시대까지 연대가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옥석·불석·납석제 불상조성의 이른 사례로서도 의미가 크며, 최소 여말선초의 옥석 조성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내용 및 특징

참당암(懺堂庵)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도솔산 기슭에 위치한 사찰로 1960년대 말까지 대참사(大懺寺), 참당사(懺堂寺) 등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禪雲寺)의 산내 암자이다.

참당암에 대한 창건과 중수에 대해서는 19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운사사적기(禪雲寺事蹟記)』에 수록된 기문 가운데 1713년(조선 숙종 39년)에 소요태능(逍遙太能)의 문인인 현익대사(玄益大師)가 기술한 「대참사사적기(大懺寺事蹟記)」, 1794년(조선 정조 18년)에 임우상(林雨相)이 작성한 「도솔산대참사고사(兜率山大懺寺故事)」 및 「대참사법당기(大懺寺法堂記)」, 그리고 1850년(조선 철종 1년)에 기록된 「도솔참당선운사경내주변기록(兜率懺堂禪雲寺境內周邊記錄)」 등에서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¹¹⁾ 이외에 현재 사찰에 남아 있는 현판과 유물을 통해서도 사찰의 연혁을 살필 수 있다.

사찰은 627년(신라 진평왕 49년)에 의운대사(義雲大師)가 우전국(于闐國)의 왕을 꿈속에서 만나고 죽도(竹島)¹²⁾ 포구에 석가불 및 16나한 등이 실려 있는 돌배를 발견하여 현재의 위치에 대참사(大懺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1331년(고려 충혜왕 1년)에 상량(上良)이 대웅전을 중수하였고, 1346년(고려 충목왕 2년)부터 1398년(조선 태조 7년)까지 점찰법회(占察法會)의 일종인 생회(生會)를 43차례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 말까지 참당암이 선운산의 중심 사찰로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대참사와 함께 새롭게 참당사(懺堂寺)라는 명칭이 사용된 시기는 조선시대로 여겨진다. 1430년(조선 세조 12년)에는 참당사의 젊은 승려 계심(戒心)이 처운(處云)이라는 승려를 칼로 죽여 참형에 처했다는 기사가 남아 있으며,¹³⁾ 1530년(조선 중종 25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선운산에 위치했던 사찰 중에 선운사와 함께 참당사를 기록하고 있다.¹⁴⁾ 이후로도 僧俗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창불사를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 석불은 표면이 매끄럽고 호분을 바른 듯 흰색을 띠고 있는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오른손을 가슴 위로 들어 보배구슬(寶珠)을 감싸 권 전형적인 頭巾지장보살상이다. 머리의 두건은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두른 뒤 이마 부분에 긴 끈을 묶어 귀 뒤로 내리고, 다시 뒷면에서는 또 다른 띠를 머리 뒤로 돌려 나비매듭으로 매

11) 禪雲寺, 『兜率山禪雲寺誌』, 聖寶文化財研究院, 2002.

12) 현재 고창군 흥덕면 서쪽에 있는 섬이다. 고려시대 남송의 명주를 떠난 배가 큰 바다를 지나 흑산도로 들어온 뒤 우리나라의 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개경으로 들어갈 때 지나가는 경유지의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따르면, 서공이 남송으로 돌아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추석이라 보름달 빛으로 섬과 골짜기, 그리고 선박과 기물이 온통 금빛이 되었고 사람들이 일어나 춤추어 그림자를 희롱하며 술을 들고 저를 불고하여 마음과 눈이 즐거워서 앞에 큰 바다가 있음을 잇을 정도였다고 한다.

13) “茂長縣 懺堂寺僧戒心, 素愛年少僧處云, 及處云徙居他寺, 戒心夜到處云所, 處云方與僧信峯臥, 戒心妬刺信峯, 信峯走匿, 戒心欲滅口刺殺處云, 律該處斬.” 『世宗實錄』 권49, 世宗12년(1430) 庚子 9월 2일.

14) “懺堂寺 俱在禪雲山”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5, 明文堂, 1954. p. 644.

듭지어 묶은 뒤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웠다. 두건을 나비리본 형태로 매듭을 묶은 것은 1022년의 사자빈신자지 석탑 불상과 1024년의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에서도 확인되며, 머리 위는 길고 짧은 두 가닥의 물결주름으로 주름을 잡았고, 어깨 아래로는 부채살처럼 주름 잡아 드리웠다. 양어깨 밑으로 길게 드리운 두건 띠 자락의 끝 부분은 여의두문 형태로 마감하였다 이와 같은 두건 띠의 마감처리는 日本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지장보살도, 일본 요주지(養壽寺) 소장 지장보살도 등 고려 불화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참당암의 바로 위쪽에 자리 잡은 도솔암의 금동지장보살좌상은 고려후기의 작품으로 편년되고 있는데, 이 상은 양쪽 측면에서 매듭지어 묶은 형식이고, 조선 초로 편년되는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참당암 지장보살처럼 뒤에서 묶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도솔암과 같이 그 끝을 뾰족한 圭形으로 처리하고 구슬을 단 점에서 참당암 상과 차이가 두드러진다. 현재 두건의 표면에는 옅은 청녹색의 채색 흔적이, 뒷면 머리띠 부분에는 붉은 채색 흔적이 남아 있으며, 불상의 표면에는 호분을 칠한 흔적도 엿보인다.

얼굴은 둥글고 풍만하며 초생달 모양의 가느다란 양 눈썹 사이에 백호를 표현하였다. 두 눈은 두툼한 눈두덩 사이로 반개하였지만 눈꼬리가 치켜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하였으며, 콧등은 낮고 반반하게 표현하였다. 둥근 얼굴은 살이 올라 복스럽고, 입은 약간 돌출 시켰으며 입술은 마름모꼴 두 개(◇◇)를 붙여 놓은 모습이다. 이러한 입술은 네즈미술관 지장보살도에서처럼 입술을 윤곽을 분명히 그린 회화작품을 조각 작품으로 변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이미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입은 고려 전기의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을 비롯하여 고려중기의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고려 후기의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여말 선초의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입술과 같은 계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얼굴은 전반적인 통통하게 양감이 오른 상태이고 표정은 엄숙한데, 고려 불화에서 보이는 지장보살상과 서로 상통하는 모습이다. 귓바퀴는 둥글게 돌렸고, 두툼한 귓불에는 물방울 모양의 구멍의 여운을 새겨 놓았는데, 이러한 귀의 표현은 여말선초의 불상들과 비교할 수 있다. 목에는 三道를 뚜렷이 새겼으며, 목 아래의 목걸이는 가운데에 큼직한 꽃모양의 장식을 중심으로 세 가닥의 구슬 장식을 늘어뜨린 단순한 형식인데,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고려 후기, 14세기)의 목걸이 보다는 표현이 단순해졌고, 무량사 오층석탑에서 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조선 전기)과 보다는 조형성을 갖추었다.

袈裟는 여래상의 대의를 연상케 하는 通肩衣 형식으로 오른쪽 소매자락을 허리 아래에서 가사 자락 밑으로 여며 넣었다. 옷 주름은 간략하고 요점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선의 흐름은 대체로 부드럽고 온화한 편이다. 복부에는 內衣를 매듭지어 묶은 띠자락이 표현되었다.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어 엄지와 검지와 약지를 자연

스럽게 구부려 보주를 쥐었으며 왼손은 손가락을 곧게 펴서 가부좌한 무릎 밑으로 내렸다. 가부좌한 하체에는 오른쪽 발목이 노출되어 있다. 무릎에 표현된 주름은 섬약한 선으로 짧게 마무리하여 특색이 있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된 삼단 대좌로 길고 가는 팔각형의 중대석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석등의 대좌를 연상케 한다. 대좌의 구성은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팔각형의 하대석을 올려놓고, 다시 팔각형의 중대석과 팔각형의 상대석을 두고, 마무리는 사각형의 갑석으로 마무리하여 시작과 끝이 같게 하였다. 하대 覆蓮은 단판 複瓣 연꽃이 길쭉하게 펼쳐진 팔각 연화대이지만 仰蓮의 상대석 윗면은 사각형의 갑석 형태를 취하였다. 연꽃이 길쭉하게 펼쳐진 모습은 부여 무량사 석등(고려 전기, 보물 제233호), 불국사 사리탑(고려, 보물 61호), 금산사 露柱(고려 중기, 보물 제22호)과 비교할 수 있다. 2매석으로 구성된 방형의 지대석에는 3단의 괴임석이 마련되었다. 下臺下石의 각면에 여의두문의 안상을 새겼는데, 眼象 내에 여의두문을 새기는 것은 고려 10세기말부터 12세기 대까지 고려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요소인데, 이곳에 표현된 것은 앞선 시기에 등장하는 장식적인 여의두문 형태에 비해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어 시대 변화에 따른 양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대석과 중대석의 연꽃은 불륨이 약화된 覆蓮이지만, 양면의 우측면 1곳에 표현된 연꽃은 양과 꺾질을 벗겨내듯 중앙부의 瓣心을 강조한 점은 작자의 창의성이 돋보이는데, 뭔가 변화를 의도한 표현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갑석의 각 면의 좌우측에는 목조 가구처럼 경첩을 표현하였는데, 경첩의 가운데 부분은 하대하석에 표현된 안상무늬의 여의두문과 같은 여의두문을 음양으로 번갈아가며 처리하였고, 갑석의 밑면에도 활달하게 펼쳐진 꽃잎을 얇게 도들새김하여 세부 의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 지장보살좌상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둥근 얼굴, 행인형으로 도톰하게 자리잡은 눈두덩 사이로 살짝 치켜뜬 눈과 시선의 처리, 여의두문 형태로 마무리한 두건 끈의 장식, 꽃모양의 메달을 중심으로 세 줄로 늘어진 목걸이 장식, 단아한 신체비례 등은 고려 후기의 조각전통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목걸이와 보주를 든 모습 등 일부 표현에서는 아직 조선 초기까지 내려다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시대의 폭을 넓혀 여말선초로 편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판]



그림 280 석조지장보살좌상(현재)



그림 281 지장보살상 두건표현



그림 282 세부표현



그림 283 세부표현



그림 284 석조지장보살좌상 대좌



그림 285 상대석 연꽃



그림 286 상대 갑석 하부의 꽃잎



그림 287 상대갑석의 세부표현



그림 288 하대하석 면석의 안상

[붙임1]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조사보고서

□ 수행처: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5년

I. 일반사항

문화재명 (한자)	선운사 참당암 지장보살좌상 (仙雲寺 懺堂庵 地藏菩薩坐像)	수량	1
지정가치	보물 (現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조사일시	11월30일/ 8월31일		

II. 소장현황

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05
소유자	선운사
관리자	선운사
소장경위	

III. 문화재 개관

규격	높이 77.5, 무릎 폭 54cm
유형	조각
재질	돌
제작자	미상
국적/시대	한국/고려 말~조선 초
명문	미상
용도/기능	종교신앙
보존상태	양호

IV. 조사내용

이 석불은 표면이 매끄럽고 호분을 바른 듯 흰색을 띠고 있는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오른손을 가슴 위로 들어 보배구슬[寶珠], 곧 如意珠를 감싸 권 전형적

인 頭巾 지장보살상이다. 머리의 두건은 이마에서 관자놀이까지 두른 뒤 이마 부분에 긴 끈을 묶어 귀 뒤로 내리고, 다시 귀 뒷면에서는 또 다른 띠를 머리 뒤로 돌려 나비매듭으로 매듭을 지어 묶은 뒤 좌우로 길게 드리웠는데, 양어깨 밑으로 길게 드리워진 머리띠 자락의 끝 부분은 3葉의 꽃무늬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두건의 표면은 옅은 청녹색의 채색 흔적이 남아 있으며, 뒷면의 머리띠 부분은 붉게 칠하였다.

얼굴은 둥글고 풍만하며 초생달 모양의 가느다란 양 눈썹 사이에 백호를 표현하였다. 두 눈은 반개하였지만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 다소 경직된 표정을 자아낸다. 목에 三道를 새겼으며, 목 아래의 목걸이는 가운데에 花形의 고리 장식을 달고 가슴 가운데로 세 가닥의 장식을 늘어뜨린 화려한 형식이다.

袈裟는 여래상의 대의를 연상케 하는 通肩衣 형식으로 오른쪽 소매자락을 허리 아래에서 가사 자락 밑으로 여며 넣었다. 옷 주름은 폭이 넓고 단순화되었지만 비교적 율동적으로 처리되었다. 오른손은 가슴 위로 들어 엄지와 인지 사이에 보주를 쥐었으며 왼손은 손가락을 곧게 펴서 가부좌한 무릎 밑으로 내렸다. 가부좌한 하체에는 오른쪽 발목이 노출되어 있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된 삼단 대좌로 가느다란 팔각형의 중대석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석등의 대좌를 연상케 한다. 하대석은 볼륨이 약화된 複瓣 연꽃이 조각된 팔각 연화대이지만 仰蓮의 상대석 윗면은 사각형의 갑석 형태를 취하였다. 2매석으로 구성된 방형의 지대석에는 3단의 괴임이 조출되었다. 하대석에는 팔각의 하부 각면에 안상을 새겼는데 안상의 중앙에는 如意頭文이 새겨져 있다. 하대석과 중대석의 연꽃은 볼륨이 약화된 複蓮이지만 상대석의 정면 연꽃은 테두리선과 瓣心만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특징적인 모습이다. 상대 갑석의 모서리 부분 측면과 바닥 면에는 菱花形의 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중대석은 팔각의 기둥모양이다. 상대석은 하대석의 연화문과 마찬가지로 복관 8엽의 양련이 있고, 방형의 갑석이 올려져 있다. 갑석의 각 면의 좌우측에는 꽃무늬가 양각되어 있다.

V. 조사자 의견

○

이 지장보살상은 머리띠로 묶어 내린 두건의 착용 방식과 세 줄의 영락이 달린 목걸이,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다가 팔꿈치 부근에서 삼각형 꼴로 접혀진 옷 주름 표현 등에서 같은 ‘禪雲寺 金銅地藏菩薩坐像(寶物 第280號)’과 같은 계열의 지장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금동지장보살상은 왼손에 보주가

아닌 法輪을 쥐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특히 수평으로 처리된 僧祇支와 리본처럼 묶은 띠매듭 표현,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다가 팔꿈치 부근에서 삼각형꼴로 접혀진 주름 표현 등은 ‘長谷寺 金銅藥師佛’이나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상과 같은 고려 후기 14세기의 佛·菩薩像에 많이 나타나는 양식적 특징을 계승한 것이다. 조성시기는 굴곡이 적은 직선적인 신체와 크고 넓적한 얼굴, 직선적으로 가늘게 그려진 눈매와 딱딱한 표정, 평판적인 옷주름 표현 등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로 추정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두건 지장은 서역의 투루판과 중국의 변경 지역(敦煌 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특이한 지장보살의 圖像으로, 회화가 아닌 조각으로는 특히 전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 특유의 신앙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상은 부안 靑林寺址 석조지장보살좌상(現來蘇寺)과 함께 석불로 조성된 두건 지장보살상의 드문 예로, 조각사적인 측면에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280호)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만큼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 석조지장보살상으로 불신과 대좌가 모두 전하는 드문 예이다. 불신은 전체 외형이 단순하나 얼굴과 팔, 손 등의 입체감이 부드럽게 살아 있다. 머리에 쓴 두건은 어깨와 등 뒤로 늘어져 있고 얼굴은 길죽하나 양 뺨에 살이 올라 복스러운 동자형의 인상이다. 귀는 크고 길죽하며 띠가 길게 앞으로 늘어지고 머리 뒤에도 두건을 묶은 띠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가슴에는 3줄의 장식이 늘어진 목걸이가 있으며, 배 부분에는 띠매듭이 작게 묶여 있다. 오른손을 가슴에 들어 작은 보주를 받들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놓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지장보살상의 특징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좌의 조각도 매우 정교한 편인데, 상대석과 하대석의 연판 윤곽이 뚜렷하고 불상 받침돌의 양 가장자리의 장식이나 하대받침의 안상 조각 등이 아름답다. 따라서 이 불상은 그 예의 희귀성이나 세부조각의 정교함으로 보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

현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33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보살상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는 고려 14세기 이후 등장하는 전형적인 지장보살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알맞은 비례와 머리에 쓴 두건의 묶은 모습, 흘러내린 관대 까지 매우 정확하게 묘사된 점 역시 고려의 전

통을 계승한 요소이다. 그러나 유난히 큰 손이라든가 이에 비해 작게 처리된 발, 무릎 위의 간략화된 옷주름, 오른손을 높이 들어 보주를 든 모습, 동일하게 처리된 세 줄의 목걸이, 평면적인 얼굴 모습, 세모꼴로 표현된 입술 등에서는 조선초 15세기의 특징이 보인다. 따라서 조성시기는 고려후기의 전통과 조선초의 양식이 혼합된 조선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3단 대좌는 매우 특이한 형식으로 방형의 상단부분에 마치 목조대좌에서 볼 수 있는 결구방식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점은 이 시기 대좌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懺堂庵 地藏殿에 봉안되어 있는 이 보살상은 설명문에는 약사여래로 쓰여져 있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당암에 모셔져 있는 이 석조지장보살좌상은 본사인 선운사에 봉안되어 있는 금동지장보살상(보물 279, 280호)와 함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지장신앙이 반영된 조선 초기 15세기의 작품이다. 또한 우수한 조각기법과 정교한 묘사가 특징인 우수한 작품으로 석조대좌와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높다고 본다.

14.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가. 검토사항

‘혼개통헌의’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혼개통헌의’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 ('16.8.30) 관계전문가 조사('18.9.7) 및 과학조사('19.1.15~1.16/ 3.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실학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지 16길 실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모체판: 20.5×17×0.3cm, 성좌판: 10.2×11.0×0.3cm
- 재 질 : 금속 및 동합금
- 형 식 : 모체판과 성좌판으로 이루어진 원형의 천문시계
- 조성연대 : 1787년(정조 11)
- 제작자 : 유금(柳琴, 1741~1788)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이 혼개통헌의는 시현력의 바탕인 서양 천문학, 서양 기하학을 이해하고 소화한 당대 조선 지식인들의 지적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18세기 조선의

천문학 발전양상을 살피는데 귀중한 과학기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당시 서양 천문을 동양 천문학 정보들과 습합한 흔적인 천문과 관련 정보들은 각인하기 쉽지 않은 동판에 깔끔하고 정밀하게 새겨져 있다. 이는 18세기 민간의 금속 세공술의 수준도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 혼개통헌의는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정 가치 있음)

실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혼개통헌 유물은 평의(planispheric astrolabe)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선에서 제작한 천문시계이다.

모체판의 앞면에는 천구상의 적도, 남회귀선, 북회귀선을 투영하여 원으로 새겼다. 지평고도 38도를 기준으로, 금속판에 천정(天頂)을 중심으로 지평선까지 동심원 형태(점승도)로 정밀한 원으로 작도했다. 밤시간을 나타내는 시각선은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5경선(更線)으로 작도하여 이슬람 및 유럽의 아스트로라베와 구분할 수 있다. 모체판의 뒷면에는 천체들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고현과 낮시간을 6등분한 선이 그려져 있으며, 365.25도의 세주규를 확인할 수 있다. 세주규는 외권의 360도와 비교되는 도법으로, 365.25도와 이를 24등분한 24기를 배치했다. 따라서 모체판 양면에는 천정, 지평, 몽영선, 5경선, 365일, 24기 등의 천문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성좌판(황도레떼)은 모체판 위에 장착되며 회전한다. 황도레떼 측면에 튀어나와 있는 별 형태로 11개의 항성 위치(적경과 적위 표시)를 표시하고 있다. 이 항성들의 실제 항성의 위치와 레떼의 표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천문학적인 활용가치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금의 혼개통헌은 기존의 복잡한 아스트로라베의 기능과 역할 중에서 시간과 날짜, 항성의 위치(적경과 적위, 고도측정) 등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관측기능을 갖추고 있다. 18세기,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제작하고 활용된 점이 매우 독특하며, 현재까지 동아시아에서 직접 제작한 유일한 평의(平儀) 형태의 아스트로라베로서 역사적 가치와 과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지정 가치 있음)

이 유물은 2002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조사의뢰 이후, 2007년 미야지마 카즈히코(宮島一彦) 교수에 의해 제작원리 등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 1차로 제출되었다. (Miyajima Kazuhiko, "A New Discovery of Korean Astrolabe," *Historia Scientiarum*, vol.17, no.3, 2008; 미야지마 카즈히코, "조선에서 제작된 아스트로라베에 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2009 등을 참조). 이는 일본인

에 의한 것으로, 제작자를 특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후 실학박물관이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유금(柳琴, 1741-1788)이 제작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나아가 한영호 등에 의뢰하여 유물의 유래와 제작 원리에 대한 개설적 검토가 다시 이루어졌다.(한영호,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조사보고서” 실학박물관(2016.4.7.) 참조)

혼개통헌의의 제작원리를 담은 책은 명말의 지식인 이지조(李之藻, 1565-1630)가 번역한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인데, 이 책은 『천학초함(天學初函)』(1629)의 기편(器編)에 실림으로써 널리 유통되었기에, 조선에서도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혼개통헌도설』에 실린 것과 같은 서양의 투영법에 관한 지식이 조선에서 깊이 있게 이해된 것은 1760년대 이후로 알려져 있다. (한영호, “조선의 신법일구와 시학의 자취”, 『대동문화연구』 47, 2004 참조.) 따라서 서양천문학과 수학에 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18세기 말은 유금(柳琴)에 의해 혼개통헌의가 제작될(1787)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혼개통헌도설』의 라틴어본 원전은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클라비우스(Christophorus Clavius, 1537?~1612)의 『아스트로라부름(Astrolabium)』으로, 아스트로라브의 제작원리와 사용법을 망라하였다. 이 책이 중국에서 이지조에 의해 『혼개통헌도설』로 번역되고 나아가 『천학초함』에 실렸으며, 조선에도 전래함으로써 조선의 유학자가 해당 기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安大玉, 『明末西洋科學東傳史: <天學初函>器編の研究』, 知泉書館, 2007, 210-256쪽 참조)

한편, 2017년 정기준(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은 아스트로라브의 제작 원리를 담고 있는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유금의 혼개통헌의에 관한 검토를 병행하여, 제작원리는 물론, 제작의 정밀도, 항성 위치 등에 대한 미야지마의 분석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정기준, 『서울관의 천문의기: 좌표변환·투영이론적 접근』, 경인문화사, 2017, 353-407쪽 참조). 정기준의 연구 덕분에 본 유물의 제작원리에 관한 수학적·천문학적 분석과 이해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기준의 연구에 따르면, 이 유물은 『혼개통헌도설』에 설명된 제작원리에 따라 위도 36.5도(유물에는 38도라고 각인(刻印)되어 있음)를 기준으로 제작된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혹은 평의(平儀)이다. 정기준은 또, 미야지마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항성의 동정(同定) 문제를 지적하였다. 미야지마는 이 유물의 성좌반에 표시된 11개의 항성 가운데 10개를 동정하고, 1개는 『혼개통헌도설』의 항성표에서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기준은 『혼개통헌도설』의 항성위치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새롭게 수행하여, 유금의 혼개통헌의에 표시된 11개 항성이 모두 『혼개통헌도설』의 항성표에서 취한 것임을 입증하였다. 정기준의 연구를 통해, 유금의 혼개통헌의가 『혼개통헌도설』에 서술된 제작 원리를 매우 잘 이해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여 제작한 것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한편, 이 유물은 현재까지 보고된 것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 현지에서 제작된 혼개통헌의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청나라 시기 황실에서 보유한 천문기구들을 수록한 『淸宮西洋儀器』(臺北: 商務印書館, 1998)에도 혼개통헌의는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에서도 혼개통헌의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宮島一彦, “アストロラーベについて”, 『科學史研究』 II, no.4, 1975; 宮島一彦, “昔の天文儀器”, 『天文學史』, 恒星社厚生閣, 1982; 宮島一彦, “アストロラーベの世界: 星をとらえる道具”, 『月刊朝日百科』, no.70, 1990; 미야지마 카즈히코, “조선에서 제작된 아스트로라브에 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2009 등 참조).

한국에서는 본 유물 이외에 아스트로라브가 일찌기 1936년에 한 차례 보고된 적이 있다. 천문학자이자 재한 선교사였던 루퍼스(W. Carl Rufus, 1876-1946)는 1936년에 성좌반의 별이 약 30여개에 이르는 매우 고급스런 혼개통헌의를 보고한 적이 있다. (W. Carl Rufus, “Astronomy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4(1936): 1-48(with 4 tables and 17 plates of independent pages), Fig.32 사진 참조.) 하지만, 이 아스트로라브의 소재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며, 미야지마는 이 유물이 서양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야지마 카즈히코, “조선에서 제작된 아스트로라브에 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2009, 55쪽.) 그러므로 실학박물관이 소장한 유금의 혼개통헌의는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유일한 혼개통헌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러한 기구가 자국 내에서 제작된 예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금의 혼개통헌의는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혼개통헌의로는 유일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유금이 제작한 혼개통헌의는 18세기 말 조선 학계가 지녔던 서양천문학과 수학에 관한 높은 이해 수준을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과학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혼개통헌의는 아스트로라브라는 형식의 관측기구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는 현재까지 보고된 유일한 실물이며, 그것도 18세기 말 조선에서 제작된 것이 확인된 실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1. 혼개통헌도설과 혼개통헌의

혼개통헌의는 혼천설과 개천설을 하나의 원관형의 의기로 통합했다는 의미의 천문시계이다. 혼천설이나 개천설은 모두 동양 전통의 우주론이지만, 동양 전통에서는 이들 논의에 의한 모델을 구성하기보다는 관찰값과 역서에서의 계산값을 통일시키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명말인 16세기 말 17세기 초 유럽 예수교 선교회가 중국의 선교권을 확보하면서부터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마테오 리치 이래 천문학과 기하학을 선교의 방편으로 삼았다. 그렇다고 그들의 천문학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태양중심설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창조주가 설계한 지구중심설을 지지했다. 이런 우주설이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인 계산에서의 오류를 매우기 위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간단한 계산 방식을 도입한 티코 브라헤의 우주 모형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교가 중국에서 수행했던 천문학은 중국 전통의 천문학보다 정확하게 태양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이는 중국의 역법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오차가 누적되었고, 태양과 달, 오행성의 움직임을 보정되지 않았기 탓으로 보인다.

예수교 선교사들은 중국의 전통 수시력보다 정확하게 태양과 오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서양 천문학 관련 서적들을 번역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클라비우스(Christoph Clavius 1537~1612)가 중국의 유학자 李之藻(1569~1630)와 함께 번역한 “Astrolabium”이었다. 그들은 이 책의 제목을 “혼개통헌도설”(1607)이라 붙였다. 이는 예수교의 서학 전래 이래 형성된 ‘서학의 중국기원설’, 즉 서양 학문, 특히 과학기술이 대개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천문학 역시 그러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책제목이 의미하는 바, “혼천설과 개천설을 통합해 그림으로 설명한 논의”라는 의미를 서양의 천문학 책의 제목으로 둔 것은 바로 이런 지적 분위기에 의한 일이었다.

혼천설과 개천설은 동양의 전통적인 천체 구조와 관련해 진나라 시대 전후에 전개되고 당나라 대에 정리되었던 대표적인 논의들이다. 개천설은 천원지방,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를 생각을 바탕으로 변형되며 발전한 천체모형으로

구고법, 흔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알려진 계산법을 기본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한다. 혼천설은 둥근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둥근 하늘들이 돈다고 가정하는 논의이다. 이 하늘들은 태양이 도는 황도, 달이 도는 백도와 더불어 오행성의 궤도로 구성된다. 이 역시 동양 고대에 구성되어 전해진 대표적 천체구조논의이다.

혼개통헌의는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동양 전통의 천체구조논의가 서양의 천문학이 소개되면서 통합되어 번역된 『혼개통헌도설』를 토대로 한 의기이다. 이 서적이 조선에 전래된 것은 그로부터 150년도 훨씬 지난 후였다. 예수교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청나라 흠천감에서 조선으로 보내지는 시헌역서는 당시 조선 관상감에서 계산되는 역서보다 더 정확하게 하늘의 움직임을 반영했다. 조선정부는 비록 존명반청의 주장이 강했지만 이 시헌력의 계산법을 청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은 개국 이래 정확한 천문역법을 구축해 농사의 적당한 때를 알리는 일을 군왕의 중요한 덕목이자 책무로 여겼고, 특히 하늘에서의 이상 움직임을 민심의 반영이라 여기는 재이론을 국정의 바탕으로 삼았던 만큼 이 정확하게 때를 알리는 천문역산방식을 보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천문역산법이 정비된 세종 이후로 20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의 관측치가 계산치의 어그러지고 이로 인한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오랑캐로 치부했던 청나라에서 발행하는 시헌역서가 정확했던 것은 조선 정부에게 충격이었다. 이 시헌력의 계산 방법을 익히는 작업은 조선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들은 시헌역법을 통해 북극출지 38도 지점인 한양 중심으로 스스로 계산하고자 했다. 이는 세종 이래 조선 전통이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청나라의 문물을 도입하려는 북학론과 이를 아우르는 실학을 형성하는 지적 배경이 되었다.

혼개통헌의 제작 배경

혼개통헌의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 기기는 서양의 아스트로라브를 조선 한양의 위치인 북극출지 38도에 맞추어 조선인에 의해 제작한 천문의기이다. 기준별을 정하고 동아시아의 천문학 전통으로 재정비해 만들어진 이 혼개통헌의는 실학자 유금이 1787년 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의기이다. 이 혼개통헌의는 성좌조건반(현재 한 기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과도 다르다. 성좌조건반은 대개 지상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의 별들의 배치가, 아스트로라브는 천구의 밖에서 본 별들의 배치가 펼쳐져 있다. 즉 성좌조건반은 아스트로라브와 별들이 서로 뒤집힌 채 자리잡고 있다.

혼개통헌의는 삼차원인 천구를 이차원인 평면에 옮겨 별들의 위치를 그려넣었다. 이를 위해서는 구면삼각법(투영삼각법 등으로 불리기도 함)을 활용해야 했다. 계산법이 까다로웠기에 명칭 교체기 이 방법을 익히기 위해 중국에서 많

은 수학서들이 번역·편찬되었고, 조선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 결과 조선 역시 시현역법을 이용한 역서 편찬이 가능했고, 정부 기구인 관상감에서도 아스트로라브를 닮은 평면해시계인 혼개일구를 제작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조선 정부의 노력은 민간에서의 지적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민간에서도 시현역법 관련 수학 및 천체 우주론 등의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여러 실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전해지며 또 혼개통헌의 제작과 관련한 기록들도 여럿 전해진다. 이런 기록들은 유금만이 혼개통헌의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 분위기가 유금으로 하여금 이런 정밀한 천체 관측의기 제작에 도전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또 당대 조선 사회의 지적 분위기는 청나라뿐만 아니라 서학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혼개통헌의 구성

현재 실학박물관에서 소장한 유금의 혼개통헌의는 모체판과 성좌판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적인 아스트로라브는 이들 두 개판 이외에 고도측정용 조준기와 일시를 맞추기 위한 정규 네 부분으로 구성되지만, 실학박물관 소장품은 이 두 부분이 없다.

혼개통헌의의 성좌판은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원과 하늘의 북극, 황도원의 춘분점 및 동지점을 연결하는 T자형이 한판에 제작되어 있다. 또 마치 황도의 태양의 불길처럼 보이는 갈퀴 모양의 형상들은 그 끝이 특정한 별을 가리키는 지성침이다. 모두 11개가 있으며 날카롭게 다듬어진 끝은 목적으로 한 별을 하늘에서 짚어내는 데에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 황도원에는 24절기가 새겨져 있다.

혼개통헌의의 모체판은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되며 각각 하늘에 관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체판의 앞면은 이것으로 관측하는 하늘이 북극출지 38도의 위도 상에 있음을 알려주는 한편 하루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했다. 중심은 하늘의 북극을 나타내며 외곽선인 시각선은 12각법에 의한 하루의 시각을 기본으로 초와 정을 두어 24시각으로 구분했다. 또 이를 더 작게 8분 단위로 나누어 작은 시각까지 알 수 있다. 이 시각선들과 더불어 그려진 원들은 당시 밤과 낮으로 구분했던 사회상을 보여준다. 태양을 하나의 중심으로 하는 원들은 낮의 시간을, 술시부터 인시까지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원 주위를 나누어 밤의 시각을 가리킨다. 이 모체판 앞면은 정시법과 부정시법(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12시각의 정시법,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는 부정시법 5경법)해 시각을 배분했다. 그리고 모체판의 뒷면에 그려진 원들은 기본적으로 앞면의 원들과 같지만 이 원들로 한 해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바깥의

원은 황도 12궁, 그리고 24절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더불어 태양의 고도에 의해 계절을 알 수 있게 직선과 곡선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선들은 기본적으로 『혼개통혼도설』에 의한 것이다. 『혼개통혼도설』이 그대로 이 의기에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이 책의 별들이 그대로 옮겨지지 않고 독자적인 별이 그려져 있기도 했다. 또 책의 실수를 바로 잡아 그려 넣기도 했고, 의기에 의한 측정값이 다른 것도 있다. 이는 유금이 『혼개통혼도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관련한 기하학에도 능통했음을 의미한다.

제작자 유금

정밀한 혼개통혼의를 만든 유금은 실학자로 유명한 유득공의 조카로 연암 박지원 등 당시 북학과로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했다. 이런 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서학과 관련한 서적을 탐독하며 서양 기하학을 익혔다. 그가 기하실이라고 호를 붙인 것은 그만큼 그가 수학에 밝았고, 시현력과 관련한 역산에도 밝았음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

유금은 1776년(영조 52) 사은부사 서호수를 비장의 신분으로 보좌해 중국을 방문했다. 이때 그가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있던 『혼개통혼도설』을 토대로 만든 아스트로라브를 볼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런 경험과 기하학 지식을 바탕으로 1787년 약암 윤선생을 위해 이 혼개통혼의를 설계했다.

보존된 혼개통혼의의 이모저모

구리로 제작된 혼개통혼의는 날렵하고 깔끔하게 각인된 섬세하고 정밀한 원들이 태양 혹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20개가 그려져 있다. 이 선들이 의미하는 바는 모체판의 글자들에서 알 수 있다. 가지런히 새겨진 모체판의 글자들은 세련되고 정교하다. 이 아스트로라브가 서양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제작된 것들에서 흔히 보이는 장식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의 소박한 단순미, 질서정연함이 돋보인다.

모체판이 앞뒷면이 모두 아름다운 글자로 새겨진 점과 다르게 성좌판에 새겨진 글자들은 모체판에 비해 투박하다. 성좌판의 글씨들은 모체판의 고리 부분의 글자들과 오히려 유사하며, 그런 의미에서 고리에 쓰인 글자들은 모체판을 제작하면서 함께 새긴 것이 아니라 성좌판을 제작하면서 새겨 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모체판과 성좌판을 연결하는 핀은 후대에 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체판의 마무리는 당시 금속을 다루는 단면을 보인다. 원을 이루는 선들은 깔끔한 반면 여러 지침들이 불거져 나와 있는 성좌판의 마무리 상태는 모체판과 비하면 깔끔한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민간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다양

하고 날카로운 모양의 지침들을 잘라낸 솜씨는 당시 민간 금속 공예 수준이 탁월했거나, 적어도 이 작품을 다룬 제작자가 탁월했음을 보여준다.

보존 상태도 좋은 편이다. 모체판 부분부분 표면이 녹슬어 있지만 모체판에는 뒤틀림이나 휨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금속세공술을 차치하고라도 이 혼개통헌의는 시현력의 바탕인 서양 천문학, 서양 기하학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지적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18세기 조선의 천문학 발전양상을 살피는데 귀중하고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한 기밖에 남지 않은 과학기기 유물이며 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문헌자료

- 이용범, 『중세서양과학의 조선전래』 (동국대학교 1988)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 지성사, 2000)
이원순, 『조선서학사 연구』 (일지사, 1986)
박성순, 『조선 유학과 서양과학의 만남』 (고즈윈, 2005)
미야지마 카즈히코, 전용훈 역, “조선에서 제작된 아스트로라브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27(2008)

○ 기 타

- 1930년경 일본인 야스오가 대구에서 혼개통헌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
- 2002년 일본 시가현(滋賀縣) 오오미하치만시 토기야가 일본 동아천문학회 이사장인 야부 야스오에게 감정의뢰
- 2007년 일본 교토대학교 미야지마 교수에 의해 학계에 소개
- 2007년 전 성신여대 총장이자 원로 과학사학자인 故정상운 교수가 일본 교토대학교 미야지마 교수(동양천문학 전공)의 소개로 일본 소장자로부터 구입, 한국에 가져 옴
- 실학박물관 정성희 수석학예사(과학사 전공), 2009년 5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중양 교수(한국과학사 전공)로부터 혼개통헌의(아스트로라브) 소개 받음
- 2009년 6월 실학박물관 정성희 학예사가 정상운 교수께 실학박물관으로 혼개통헌의(아스트로라브)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정상운 교수가 좋다는 답변을 하였음
- 2009년 8월 유물 구입 추진
- 2009년 10월 15 실학박물관에서 유물구입 결정



○ 내용 및 특징

본 유물은 서양식 천문관측기기인 아스트로라베(astrolabe)이다. 아스트로라베는 크게 6종류로 구분하는데(安大玉, 2002), 조선시대 유금(柳琴, 1741~1788)의 아스트로라베는 평의(planispheric astrolabe)에 해당한다. 17C 명대(明代) 이지조(李之藻, 1565~1630)는 이것을 혼개통헌(渾蓋通憲)으로 불렀다.

17세기 중반 이후 이지조가 저술한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은 조선의 학자에게도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전용훈, 2003; 구만옥, 2008). 하지만, 보다 확실히는 18세기 중반이 되면서이다. 황윤석(黃胤錫, 1729~1791)에 따르면, 1768년에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이 혼개통헌을 만들었고, 1770년에 중국에서 은 6전(錢)을 주고 혼개통헌을 구입하였다(한영호, 2004; 구만옥, 2008). 또한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혼개통헌의변증설(渾蓋通憲儀辨證說)」에서 혼개통헌이 영조년간(1724~1776)에 이미 조선에 들어왔으며,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혼개통헌도설집전(渾蓋通憲圖說集箋)』을 저술하고, 서유구의 형인 서유본(徐有本, 1762~1822)이 『혼개통헌도설』을 소장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1850년대에 남병철은 『의기집설(儀器輯說)』 상·하권을 집필하면서 하권에는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를 수록했다.

한편, Miyajima(2008)는 이 유금의 아스트로라베를 동아시아에서 제작한 유일한 현존 유물로 평가했다. 유금의 유물로 조선의 혼개통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구조와 형식이 남병철(南秉哲, 1817~1863)의 「혼개통헌의」 <제법(製法)>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금은 서호수와도 깊은 교우 관계를 가졌으며, 서호수의 아들 서유구와 서유본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황윤석과 이규경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유금이 서유구와 서호수가 소장하고 있던 혼개통헌과 『혼개통헌도설』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금이 현존하는 혼개통헌을 제작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유금의 유물에는 남병철의 혼개통헌의 뒷면 설명에 나오는 365.25도의 세주규를 확인할 수 있다. 외권의 360도와 비교되는 도법으로, 365.25도와 이를 24등분한 24기를 배치했다. 다만 「혼개통헌의」에서 제시한 28수는 생략되어 있다. 세주규 중심과 외권의 중심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제작한 이유는 황도 12궁과 날짜를 대응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정기준, 2017).

유금은 방위규에 대하여 묘유선만 표시하였을 뿐이며, 다른 방위는 생략하였다. 또한 적도 12궁선과 황도규의 12궁선에 대한 것도 그려 넣지 않았다. 남병철의 12궁선이 적도 시간권에 대한 의미와 달랐으므로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황도

12궁선은 별의 배치에만 활용되었으므로 이 역시 넣지 않았다. 유금의 혼개통헌은 남병철의 「혼개통헌의」 <제법>에 잘 따르면서도 실용성이 반영되어 제작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유금의 혼개통헌과 남병철의 「혼개통헌의」에서 제시한 앞면에 그려진 5등분된 야간 시각체계는 서양 및 이슬람식 아스트로라베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계절에 따라서 밤의 길이는 달라지므로 하루를 균등하게 12등분(또는 24등분)한 시간과는 다르다. 이러한 시간체계는 중국과 한국 등의 동아시아에서만 사용했다.

유금의 혼개통헌은 낮 시간은 물론 밤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조선 초기에 사용된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낮과 밤의 시간을 측정하는 기기)의 기능과 매우 닮아있다. 또한 일성정시의가 조선의 표준시계인 자격루 교정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때(남문현, 2002), 혼개통헌 역시 동일한 업무와 역할수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금의 혼개통헌은 국가차원이 제작은 아니었지만, 그의 천문학적 지식체계가 반영되어 제작된 아주 뛰어난 천문시계라고 할 수 있다.

유금의 아스트로라베는 명문에도 나와 있듯이 한양 위도인 38도를 기준으로 그려졌다. 천정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지평선까지 그려진 것을 직접 계산한 값을 통해 비교해 보면 매우 정교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0.2~0.4mm 오차). 그리고 11개의 항성 위치는 적경과 적위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항성들의 적경과 적위값은 각각 $2^{\circ}.9\pm 3^{\circ}.2$ 와 $2^{\circ}.3\pm 2^{\circ}.8$ 사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천구상의 위치 값이므로 이를 작은 원반(모체판)에 투사했을 때에는 매우 정교하게 별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스트로라베에서 천체의 위치는 규형(또는 규관)과 정시척을 활용하는데, 유금의 유물에서는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로라베는 구면의 좌표계를 평면에 투사하는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stereographic projection)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투사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투영에 대한 사고와 천문학적 사고를 반드시 지녀야 하며, 이를 통해 제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금은 충분한 과학지식을 활용해 아스트로라베를 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헌자료

Miyajima Kazuhiko, 2008. A New Discovery of Korean Astrolabe, *Historia Scientiarum*, vol. 17-3, 211-224.

구만옥, 2008, 朝鮮後期 ‘儀象’ 改修論의 推移, 동방학지, 144, 255~304.

남문현, 2002, 장영실과 자격루-조선시대 시간측정 역사 복원(서울대출판부, 서울), pp.26-35.

安大玉, 2002, 明末平儀在中國的傳播-以《渾蓋通憲圖說》中的平儀爲例, 自然科學史研究,

21-4, 299-319.

전용훈, 2003, *조선후기 서양천문학과 전통천문학의 갈등과 융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기준, 2017, *서울관의 천문의기*(경인문화사: 서울), 389-391.

한영호, 2004, *조선의 신법일구와 시학의 자취*, *대동문화연구*, 47, 361-396.

○ 기 타

- 2009년 10월 15 실학박물관에서 유물구입



○ 내용 및 특징

서양 천문학에서 오랫동안 제작·사용되어 온 천문관측기구인 아스트로라브와 동일한 형식의 기구로 조선후기 유학자 유금(柳琴, 1741-1788)이 1787년에 제작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아스트로라브(영어로 astrolabe)로 불리어 왔고, 동아시아에서 전해지면서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혹은 평의(平儀)로 불린다. 항성의 출몰위치 및 출몰시각, 항성의 남중고도, 태양의 황도상 위치, 태양의 출몰위치, 남중시의 고도, 일출입시각 및 주야각, 박명시각 등 각종의 천문학적 수치의 측정과 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 문헌자료

李之藻, 『渾蓋通憲圖說』(中華書局, 1985).

Miyajima Kazuhiko, "A New Discovery of Korean Astrolabe," *Historia Scientiarum*, vol.17, no.3(2008).

미야지마 카즈히코, "조선에서 제작된 아스트로라브에 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31-1(2009).(이 논문은 위의 논문을 전용훈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安大玉, 『明末西洋科學東傳史: <天學初函>器編の研究』(知泉書館, 2007).

한영호,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 조사보고서" 실학박물관(2016.4.7.)

정기준, 『서울관의 천문의기: 좌표변환·투영이론적 접근』(경인문화사, 2017).

○ 기 타

- 1930년경 일본인 도기야(磨谷)가 대구(大邱)에서 1787년 조선에서 제작된 원래의 기구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2년, 일본 시가현(滋賀縣) 오미하치만(近江八幡) 시(市)에 거주하는 도기야

(磨谷)의 손자가 일본 동아시아천문학회(東亞天文學會) 이사장인 야부 야스오(藪保男)에게 기구의 감정을 의뢰함.

- 2007년, 일본 도시샤대학의 미야지마 카즈히코(宮島一彦) 교수에 의해 유물의 제작원리 등에 대한 학술적 분석이 제출됨. Miyajima Kazuhiko, "A New Discovery of Korean Astrolabe," *Hisotoria Scientiarum*, vol.17, no.3(2008).
- 2007년, 전 성신여대 총장이자 원로 과학사학자인 고(故) 전상운(全相運) 교수가 미야지마 교수의 소개를 거쳐, 소장자 도기야(磨谷) 씨로부터 구입하여, 한국으로 가져 옴.
- 2009년 5월, 서울대학교 사학과 *** 교수(과학사전공)를 통해, 실학박물관(***) 수석학예사)이 이 유물의 존재와 한국 반입을 인지함.
- 2009년 6월, 실학박물관 정성희 학예사가 전상운 교수에게, 유물의 실학박물관으로 기증 혹은 구입 가능성을 타진하여 응낙을 받음.
- 2009년 8월, 유물 구입 추진.
- 2009년 10월, 실학박물관에서 유물 구입 결정.



그림 183. 훈개통헌의, 앞면



그림 184. 훈개통헌의, 뒷면

15.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 (完州 葛洞 出土 銅劍銅戈 鎔范 一括)

가. 검토사항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13.8.9)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7.10.31) 관계전문가 조사(’18.9.5/ ’19.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完州 葛洞 出土 銅劍銅戈 鎔范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쌍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수 량 : 2점(동검 거푸집 1점, 동검동과 거푸집 1점)
- 규 격 : 동검 거푸집: 길이 33.1cm. 너비 7.4cm. 두께 3.2cm. 무게 1,825g
동검동과 거푸집: 길이 32.0cm. 너비 8.1cm. 두께 3.2cm. 무게 1,721g
- 재 질 : 석재
- 형 식 : 장방형 석판
- 조성연대 :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약 2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용범은 초기철기시대인 기원전 2세기경에 세형동검과 동과를 주조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청동기~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용범들이 발견된 사례는 10여 건인데, 그 중 전 영암 용범 일괄은 국보 제231호로 지정되어 있다. 완주 갈동 동검·동과 용범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이어서 출토지점과 출토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여서 그 중요성은 다른 용범들과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당시 사회의 청동기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데도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용범은 출토정황이 명확할 뿐 아니라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우리나라 청동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용범은 보물로 지정해서 보존 및 관리할 필요가 크다.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갈동 1호 토광묘 출토 동검동과용범은 초기철기시대 호남 지역의 청동기 제작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출토 고분의 편년 및 거푸집에 새겨진 세형동검의 형식 등으로 볼 때, 이 유물은 기원전 2세기 경에 실제로 사용된 후 무덤에 매납된 청동기 제작용 거푸집에 해당한다. 이 석제 거푸집은 실제로 사용흔이 남아 있으며, 출토 맥락과 공반 유물이 확실한 매우 드문 고대 청동기 생산 관련 유물로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이다. 거푸집의 상태 및 새겨진 세형동검과 동과의 형태 등이 매우 자세하고 조각 솜씨가 탁월하다는 점에서도 매우 주목되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고대 청동기 생산과 관련된 석제 및 토제 거푸집이 종종 발견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현존 유물들은 모두 수집품이어서 완주 갈동 출토품과 같이 출토 맥락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는 거의 없다. 이러한 문화사적 중요성과 우수한 현존 상태 및 조각 솜씨로 볼 때, 이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제작용 석제 거푸집은 보물로 지정해서 보존 및 관리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완주 갈동유적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산 98-4번지 일원의 해발 40~50m의 얇은 구릉에 토광묘군이 군집되어 있어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한다. 1호묘는 분묘군이 있는 구릉 하단부에 위치한다. 묘광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267cm, 너비 86cm이고, 묘광 내부에 채워진 흙이 함몰되어 있어 내부에 목관이 설치되었음을 나타낸다.

유물은 봉토 내부에서 흑도장경호 2개체분이 출토되었고, 남쪽 단벽에 붙어서 중앙

부 바닥면으로부터 20cm 정도 높이에 동검동과 용범이 출토되었다. 동과동검 용범은 2점인데, 세형동검이 새겨진 범은 봉부쪽이 아래로 향해 세워져 있고, 동검동과 범은 바닥에 비스듬하게 눕혀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한쪽 면의 동과 범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세형동검을 마지막으로 제작한 후, 동검범으로 매장시 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제작 및 소유를 장악한 집단 성원의 매장 시, 최종적으로 청동기 제작에 사용된 상태의 용범을 무덤 부장품으로 부장하는 매장습속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용범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초기철기시대 높은 수준의청동기 주조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출토지 및 유구와 공반유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서 초기철기시대의 청동기 생산관계와 문화상을 구명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형 식

이 용범은 2점이 1쌍을 이루고 있는 쌍합범으로 세형동검과 동과의 주형이 새겨져 있다. 세형동검 주형은 쌍합범의 양 면이 모두 남아있으며, 동과 주형은 한 면만 남아있다.

세형동검 주형은 전체길이 31cm, 검신길이 29cm이며, 하부 : 상부 비율이 30.3 : 69.7여서 다른 용범에서 확인된 세형동검 주형보다는 검신 하부가 짧다. 주형의 양면을 비교해보면 서로 비슷하게 설계되었지만 검신 너비가 1mm 정도 차이를 보인다. 주형은 곡선보다 직선을 많이 사용해서 설계하였다(그림 1-1). 양쪽 면을 비교해보면, 정면 대 정면(그림 1-2)보다는 정면 대 반사면(그림 1-3)을 합치시킬 때 더 완전하게 일치한다¹⁵⁾.

동과 주형은 쌍합범의 한 면만 남아있는데, 전체길이 30cm, 과신길이 25.3cm여서 일반적인 동과보다 3~4cm 정도 더 길다. 경부와 과신의 혈구, 등대, 외곽선의 상당부분이 직선으로 제도되었고 봉부와 난은 곡선으로 그려졌다. 직선과 곡선의 비율은 세형동검 주

15) 趙鎭先, 2006, 「細形銅劍 鎔範의 製作技術 -주형의 설계 및 새김기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0, 韓國考古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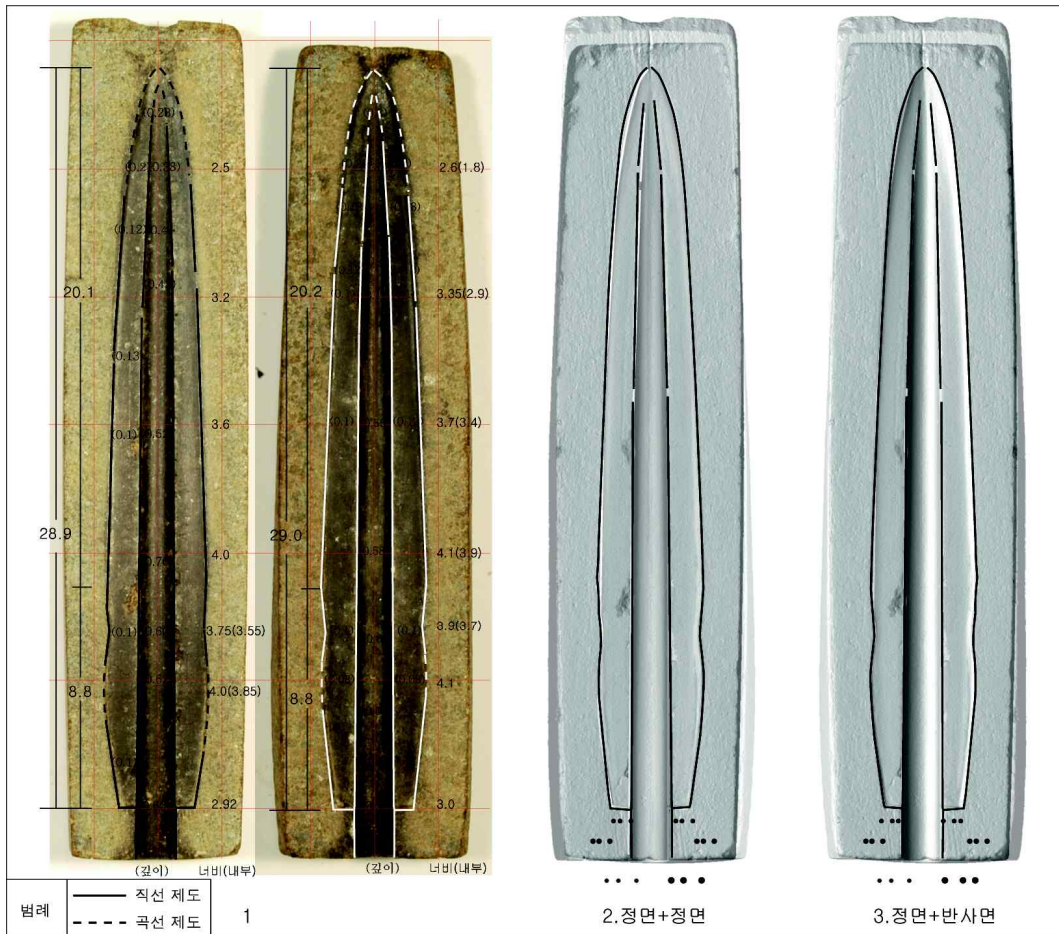


그림 1. 완주 갈동 1호 토광묘 출토 용범의 세형동검 주형의 설계와 제도

형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형동검 주형들은 제도할 때 직선과 곡선을 사용하는 빈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 영암 용범 일괄유물에는 세형동검 주형이 3점 있는데, 그중 한 점은 등대와 검신 상단부 외곽선만 직선이고 검신 하부와 봉부 외곽선은 곡선이다. 등대도 경부부터 봉부 끝까지 직선을 이루고 있다(이하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①). 다른 한 점은 앞의 것과 약간 달라 검신 기부도 직선으로 제도되었다(이하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②). 나머지 한 점은 소형인데,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②와 비슷하다(이하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③). 용인 초부리 용범의 세형동검 주형도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②와 유사하다. 그래서 완주 갈동 용범의 세형동검 주형은 전 영암 용범이나 용인 초부리 용범의 세형동검 주형들보다 직선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에 평양 장천리 용범의 세형동검 주형은 봉부를 제외하면 모두 직선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견된 세형동검 주형은 설계·제도 기술상 4개 형식으로 구분된다. 1식은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①, 2식은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②와 용인 초부리 세형동검 주형, 3식은 완주 갈동 세형동검 주형, 4식은 평양 장천리 세형동검 주형이다.

주형의 새김 방법을 살펴보면,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①은 45° 정도의 급경사로 파졌기 때문에 검신 가장자리가 모두 뚜렷하다. 그러나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②는 검신 하부는 45° 정도로 파졌지만 검신 상부로 가면서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완주 갈동 세형동검 주형은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해졌고, 평양 장천리 세형동검 주형은 가장자리 윤곽선을 획정하기 어려울 만큼 심해졌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세형동검 주형들 가운데 전 영암 세형동검 주형①식이 가장 빠르고, 전 영암 세형동검 ②식이 다음이며, 완주 갈동 세형동검 주형을 거쳐 평양 장천리 세형동검 주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성연대

이 용범에 새겨진 세형동검 주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 영암 용범 일괄유물보다는 늦고, 평양 장천리 용범보다는 이른다. 또한 완주 갈동 유적은 세형동검문화의 발전 II기부터 쇠퇴기에 걸쳐 조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용범이 시기는 세형동검문화의 발전 II기, 즉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현 상

이 용범은 완주 갈동 1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는데, 한 점은 토광의 남단 벽에 세워진 상태였고, 다른 한 점은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¹⁶⁾.

세워진 상태로 출토된 용범에는 앞면에 동검 주형이 새겨져 있다. 쌍함범이기 때문에 양자를 맞추기 위한 기준선이 주입구를 사이에 두고 4.75cm 간격을 두고 확인된다. 반대 면에도 음각선이 파져 있다. 용범의 크기는 길이 33.1cm, 너비 7.4cm, 두께 3.2cm이다. 무게 1,825g, 부피 645.574cm³이어서 비중은 2.8269이다. 용범에서 생산된 세형동검은 전체 길이 31cm, 검신길이 29cm 내외이며, 봉부가 짧게 형성되었고, 하단부는 역제형을 띠고 있다. 세형동검 주형에는 전면에 걸쳐 탄착흔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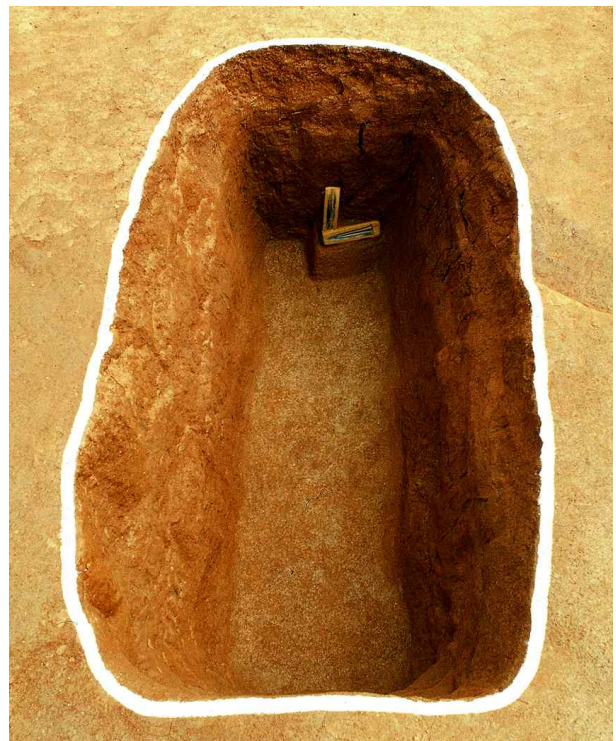


그림 2. 완주 갈동 1호 토광묘

16) 金建洙·韓修英·陳萬江·申元才, 2005, 『完州 葛洞遺蹟』, (財)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되며, 등대에서 검신으로 이어지는 모서리 부분에서 박리된 흔적들이 확인된다. 미세하기는 하지만 횡방향 실금들도 확인된다¹⁷⁾.

기울어진 상태로 출토된 용범에는 앞면에는 세형동검, 뒷면에는 동과 주형이 새겨져 있다. 주입구가 있는 면에는 쌍합범을 맞추기 위한 기준선이 있다. 용범의 크기는 길이 32.0cm, 너비 8.1cm, 두께 3.2cm이다. 무게 1,721g, 부피 609.687cm³이어서 비중은 2.8227이다. 용범에서 생산된 동과는 전체 길이 30.1cm이다. 세형동검 주형에는 전면에 걸쳐서 탄착흔이 확인된다. 주형 내부에는 박리된 부분이 있지만 눈에 띄게 큰 것은 없다. 또한 주형 표면에서 횡방향 실금들이 확인된다.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용범에 대해서는 석질과 산지 추정 시도가 되어 각섬석암으로 동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변암면 교동리,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일대에서 공급된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¹⁸⁾. 이러한 결과는 남동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완주 덕동유적에서 수습된 동착 용범이 조립질의 화성기원 각섬석암(hornblendite)으로 동



그림 3. 완주 갈동 동검동과 용범 출토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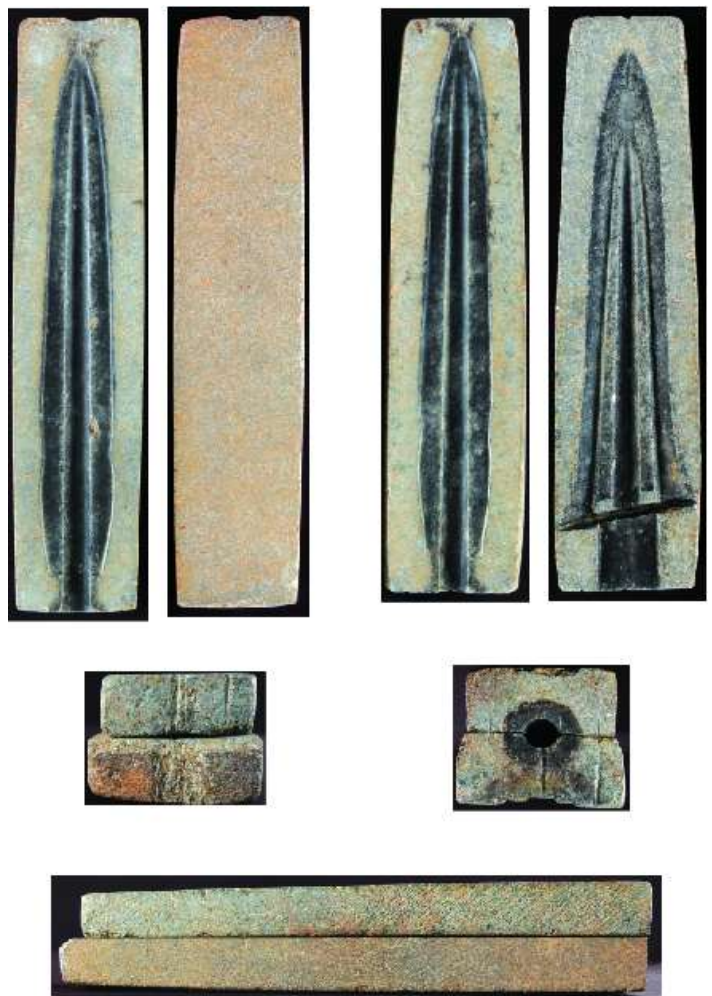


그림 4.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용범

17) 조진선, 2015, 「완주 갈동 1호 토광묘 출토 동검·동과 용범의 석질 재고」, 『호남고고학보』 50, 호남고고학회.

18) 이찬희·김지영, 2005, 「완주 갈동유적 출토 청동기 용범의 재질특성 분석 및 산지추정」, 『完州葛洞遺蹟』, (財)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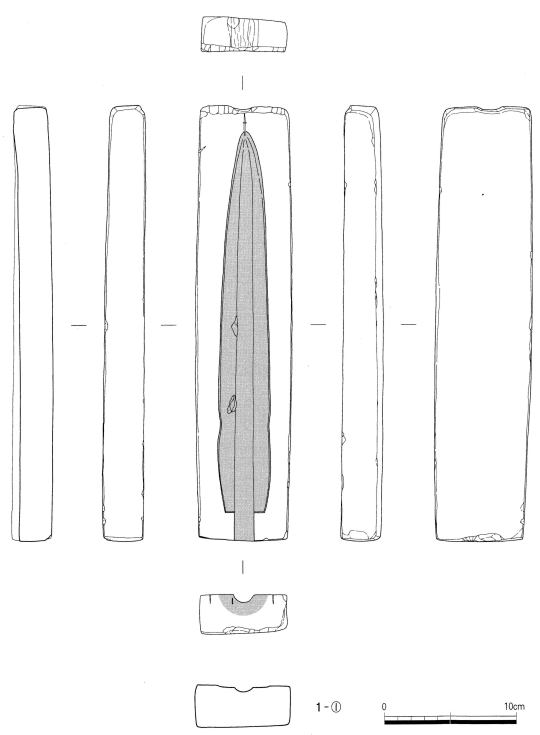


그림 5. 완주 갈동 동검·동과 용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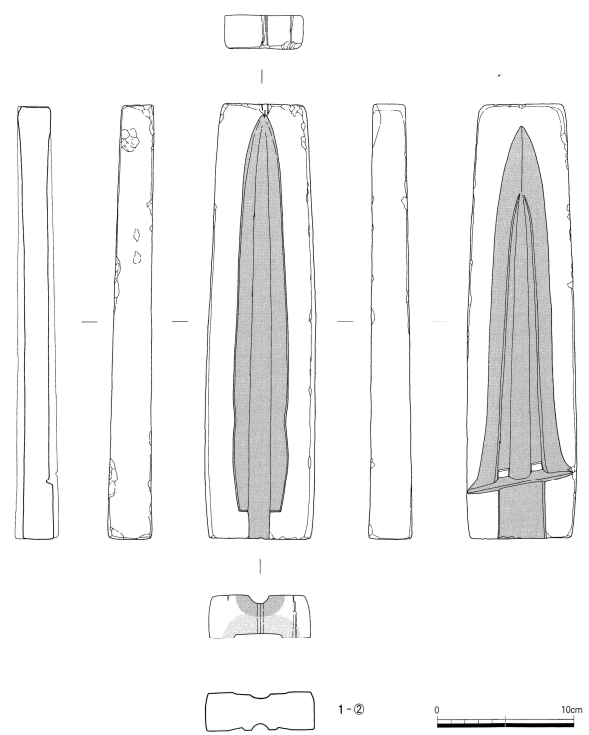


그림 6. 완주 갈동 동검·동과 용범 2

정된 결과를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용범에 확대 적용한 것인데, 세형동검문화에 속하는 용범은 대부분 활석제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상치된다. 각섬석암과 활석은 색상, 굳기, 비중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활석은 모스경도가 1로 자연산 광물 가운데 가장 낮지만 각섬석암은 모스경도가 5~6인 각섬석이나 6~6.5인 사장석을 주요 조암광물로 하고 있다. 활석의 비중은 2.58~2.83, 또는 2.7~2.8이지만 감섬석암은 주요 조암광물인 각섬석이 3.0~3.45이고 사장석이 2.605~2.77이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용범에 대한 실험고고학 결과, 활석제 용범은 주조 후에 주형 내부에서 1~3cm 간격으로 형성된 미세한 횡방향 실금들이 확인되었으며¹⁹⁾, 활석제로 알려진 전 영암 용범 일괄유물의 주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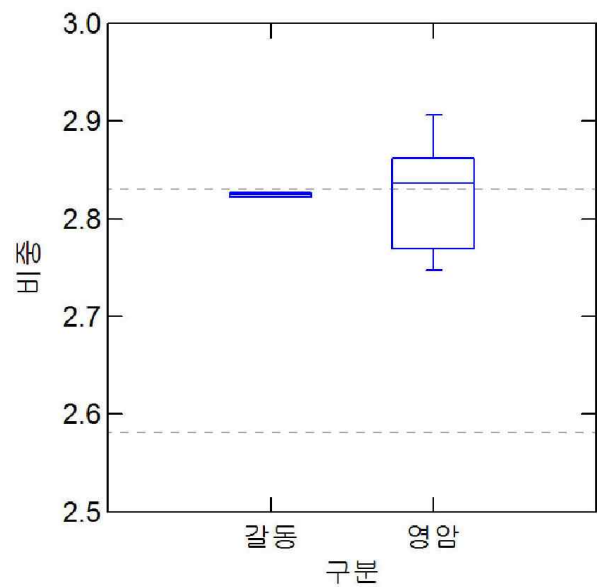


그림 7. 완주 갈동 용범과 전 영암 용범의 비중

19) 조진선·김주호·노형신·김수민, 2014, 「동모 용범의 복원제작 및 주조 실험 -각섬석암제와 활석제 용범의 비교연구-」, 『湖南考古學報』 48, 湖南考古學會.

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용범은 두 짝 모두 비중이 2.82이어서 2.75~2.9를 보이는 전 영암 용범 일괄유물의 비중 값 범위 내에 포함되며²⁰⁾, 2.58~2.83, 또는 2.7~2.8인 활석의 비중 값에도 포함된다(그림 8). 2019년 2월 국립중앙박물관의 분석 결과에서도 활석을 주로하고 녹니석 계열과 각섬석 계열이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용범은 지금까지 고고학계에서 인식해 온 활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²¹⁾.

○ 내용 및 특징

완주 갈동유적은 2003년과 2007년에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여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목관묘 포함) 17기와 구상유구, 수혈유구 등을 조사하였다. 토광묘(목관묘)에서는 세형동검·동모·동촉·동부·동사·정문경의 청동기류, 철부·철검·철사의 철기류, 그리고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과 함께 동검동과 용범 1쌍이 출토되었다.

용범은 1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1호 토광묘는 구릉 남동사면의 하단부에 있는데,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파고 들어가 조영되었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북-남동남(N30°W)으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306cm, 너비 162cm, 남은 깊이 140cm이다.

○ 문헌자료

- 金建洙·韓修英·陳萬江·申元才, 2005, 『完州 葛洞遺蹟』, (財)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 이찬희·김지영, 2005, 「완주 갈동유적 출토 청동기 용범의 재질특성 분석 및 산지추정」, 『完州 葛洞遺蹟』, (財)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 趙鎭先, 2006, 「完州 葛洞 鎔範의 細形銅劍과 銅戈」, 『研究論文集』, (財)湖南文化財研究院.
- 趙鎭先, 2006, 「細形銅劍 鎔範의 製作技術 -주형의 설계 및 새김기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0, 韓國考古學會.
- 趙鎭先, 2015,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전 영암 용범의 석질」, 『崇實大學校 韓國基督教博物館誌』 11,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조진선, 2015, 「완주 갈동 1호 토광묘 출토 동검·동과 용범의 석질 재고」, 『호남고고학보』 50, 湖南考古學會.

20) 趙鎭先, 2015,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전 영암 용범의 석질」, 『崇實大學校 韓國基督教博物館誌』 11,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1) 조진선, 2015, 「완주 갈동 1호 토광묘 출토 동검·동과 용범의 석질 재고」, 『호남고고학보』 50, 湖南考古學會.

○ 기 타

이 용범은 2003년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일대에 있는 완주 갈동 유적 1호 토광묘를 발굴조사 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이 용범은 우리나라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용범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발굴 경위와 출토 유구 및 위치가 명확하다. 이 용범은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귀속되어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 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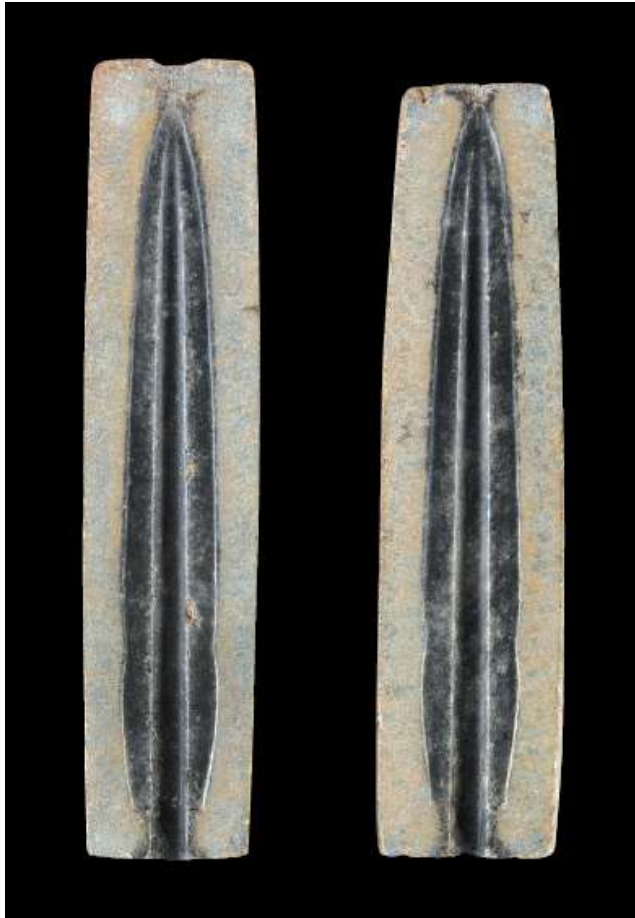
장방형의 두꺼운 석판 2점을 마연하여 한 쌍으로 만든 쌍합범(雙合范) 형식의 거푸집이다. 두 석판을 합치면 세형동검(細形銅劍)을 주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한쪽 석판은 좀 짧고 다른 쪽 석판은 1cm 정도 길이가 길다(도 1). 각 석판의 한쪽 면에는 세형동검의 형태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중 길이가 조금 짧은 석판의 반대쪽 면에는 동과(銅戈)를 주조할 수 있는 형태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도 2, 3). 다만 동과의 주형은 한쪽 석판의 한쪽 면에만 새겨져 있어서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거푸집에 새겨진 세형동검의 형태는 검신의 길이 29cm, 최대 폭 3.7cm 정도의 크기이며, 주물 투입구의 폭은 13.4m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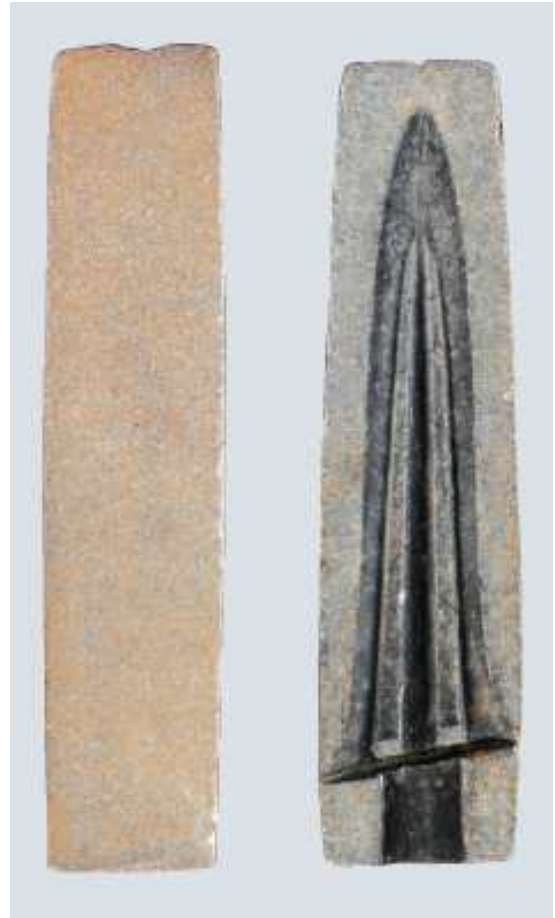
도 1. 석범을 합쳐 놓은 상태. 측면.

○ 조성연대

이 동검동과 제작용 석제 거푸집은 새겨진 세형동검의 형식과 유물이 출토된 완주 갈동 1호 토광묘의 편년을 고려해볼 때, 초기철기시대인 기원전 2세기 경에 제



도 2. 석함 분리 상태 1. 양쪽 모두 안쪽면. 세형동검 주형. 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 3. 석범 분리 상태 2. 양쪽 면 모두 바깥쪽. 한쪽만 동과 주형.

○ 현 상

이 거푸집은 완주 갈동 1호 토광묘의 토광 남단 벽에서 함께 발견되었다. 발견 당

시 한 점은 남단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으며, 다른 한 점은 옆으로 기울어진 채로 놓여 있었다(도 4). 현재의 상태를 보면 거푸집에 새겨진 세형동검과 동과 형태의 음각 부분은 주물을 부었던 흔적으로 인하여 검게 색이 변해있고, 미세한 실금들이 주변에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 볼 때, 이 거푸집은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석제의 재질에 대해서는 활석계인지 각섬석계 인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으나,²²⁾ 활석이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을 받으면 각섬석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22) 이찬희 · 김지영, 2005, 「완주 갈동유적 출토 청동기 용범의 재질특성 분석 및 산지추정」, 『完州 葛洞遺蹟』, 호남문화재연구원 · 익신지방국토관리청 ; 조진선, 2015, 「완주 갈동 1호 토광묘 출토 동검 · 동과 용범의 석질 재고」, 『호남고고학보』 50.

있으며 실제 거푸집으로 활용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도가 높고 열을 받으면 잘 터지는 각섬석보다는 활석제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도 4. 동범동과용범 출토 상태.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完好하고, 실제로 사용되었던 초기철기시대의 청동기 제작용 거푸집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내용 및 특징

이 용범이 발굴된 완주 갈동 1호 토광묘는 2003년 발굴된 유적으로, 토광묘이다. 함께 출토된 유물은 토기편 등이 있으며, 무덤의 규모는 길이 306cm, 너비 162cm, 잔존 깊이가 140cm로서 비교적 대형에 해당한다. 이 용범은 완주 갈동 지역에서 출토된 다른 청동기들이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서, 초기철기시대 호남 지역의 청동기 제작 양상과 금속기 사용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대 청동기 관련 용범의 예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출토 유물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 수집품들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출토 위치와 맥락, 공반 유물이 확실하게 확인된 이 용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2003년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였으며, 보고서의 발간 이후,²³⁾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소장 및 관리하고 있다. 지정조사는 2018년 9월 5일과 2019년 1월 9일 등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서 석질 분석이 이루어졌다.

□

○ 현 상

2점이 1쌍을 이루는 쌍합범으로, 세형동검과 동과의 주형이 새겨져 있음. 세형동검의 주형은 쌍합범의 양 면이 모두 있으나 동과 주형은 한 면만 있음. 동검 용범은 한쪽 면에만 세형동검 주형이 새겨져 있음. 등대와 날이 이어지는 양쪽에는 압질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갔고, 균열 현상이 있음. 전체적으로 마연이 되었고, 측면에 사선의 마연흔이 있음.

윗면에는 폭 2.0cm의 얇은 홈이 패여 있고, 아래면의 주입구 주변으로 1.0cm 범위에 탄착흔 있음. 맞춤선이 아래면에 4.75cm 간격을 두고 주입구 양쪽에 세로로 새겨져 있음. 봉부의 측면에 음각선이 있는데, 동검동과용범의 윗면과 맞추기 위

23) 발굴보고서는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完州 葛洞遺蹟』, 호남문화재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참조.

한 맞춤선으로 추정됨. 세형동검 새김 부분은 탄착흔이 있음. 자루 새김 부위에서 봉부 선단으로 가면서 약간 너비가 넓어짐.



갈동 1호 토광묘 출토 동검동과 용범

동검동과 용범은 한쪽 면에는 동검, 반대쪽 면에는 동과가 새겨져 있음. 戈身 새김부면은 암질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갔고, 균열 현상이 있음. 자루 새김 부분에서 봉부 선단방향으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짐. 전체적으로 마연이 되었고, 측면에는 사선의 마연흔이 있음.

윗면에 맞춤선이 있는데, 동과 새김 쪽이 넓고 깊은 선이 중앙과 우측에 있음. 동검이 새겨진 봉부 끝부분 가운데가 가늘게 파여져 있음. 아랫면에도 중앙과 우측에 음각선이 새겨져 있는데, 우측에 있는 음각선이 동과 제작과 관련한 음각선임. 주입구에는 동검과 동과의 탄착흔이 있음. 동검 탄착흔은 원형에 가깝고, 동과 탄착흔은 장타원형임.

○ 내용 및 특징

동검동과 용범은 쌍함범으로 활석을 마연 가공하여 세형동검과 동과 주형을 새겼음. 1매는 한쪽 면에 세형동검을 새겼고, 다른 1매는 한쪽 면에 세형동검을, 다른 쪽 면에는 동과를 새겼음. 석재 1매의 양면에 동검과 동과 주형을 새겨 필요 시 동검 또는 동과를 주조하였음. 세형동검 또는 동과의 주조 시 상·하의 용범을

맞추기 위해 윗면과 아랫면에 맞춤선을 새겼음. 세형동검의 탄착흔이 동과의 탄착흔보다 더 검게 남아 있어 세형동검을 마지막으로 주조한 후, 세형동검 용범으로 부장하였음.

이 용범에서 생산된 세형동검은 전체 길이 31.0cm, 검신 길이 29.0cm 내외로 봉부가 짧고, 하단부는 역제형을 이룸. 동과는 전체 길이 30.1cm로 대형임.

이 세형동검동과 용범은 초기철기시대 청동무기의 제작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출토지 및 유구와 공반유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초기철기시대의 상대편년과 문화상을 구명할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됨.

○ 문헌자료

財)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2005, 『完州 葛洞遺蹟』

趙鎭先 2006, 「細形銅劍 鎔範의 製作技術 -주형의 설계 및 새김기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0, 韓國考古學會.

조진선 2015, 「완주 갈동 1호 토광묘 출토 동검·동과 용범의 석질 재고」 『호남고고학보』 50, 湖南考古學會.

○ 기 타

완주 갈동유적 동검동과 용범은 2003년도에 발굴조사한 완주 갈동유적 1호묘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된 국가귀속매장문화재임.

16.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 (完州 葛洞 出土 精文鏡 一括)

가. 검토사항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13.8.9)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7.10.31) 관계전문가 조사(18.9.5/19.1.9/19.2.2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完州 葛洞 出土 精文鏡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재지 :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싹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2점(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1점,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1점)
- 규 격 :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 직경 14.5cm, 무게 447g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 직경 9.1cm, 무게 141g
- 재 질 : 청동
- 형 식 : 원판에紐(紐)가 달린 청동거울
- 조성연대 :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약 2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2점은 초기철기시대인 기원전 2세기경에 사용된 청동제 거울이다.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정문경은 60여 점이며, 그 중 전 논산 정문경은 국보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고,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 출토 정문경은 함께 출토된 팔주령, 쌍두령 등과 함께 국보 제1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완주 갈동 5호 토광묘와 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정문경 2점은 전 논산 정문경이나 화순 대곡리 정문경보다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문양이 정치하고 잘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초기철기시대의 늦은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정문경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청동기 제작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2점은 출토지점과 출토정황이 명확할 뿐 아니라 완형에 가깝고 배면에 새겨진 문양도 정치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나라 초기철기시대 청동기 주조기술을 이해하는데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유물은 보물로 지정해서 보존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정 가치 있음)

완주 갈동 출토 두 점의 청동제 동경 2점은 기원전 3-2세기경 초기철기시대의 호남 지역에서 유행했던 정문경 형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서 출토된 보기 드문 고대의 청동제 거울들이다. 이 동경 두 점은 현재 이미 지정된 국보 141호와 국보 143호 등 3점의 정문경들과 같은 형식과 양식의 금속공예품들로서, 국보 141호에 비하면 다소 크기는 작지만, 양식과 주조기법 솜씨가 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나다.

이 두 점의 정문경은 출토지와 맥락이 분명하며, 동경의 보존 상태 및 문양의 양식, 제작기법이 매우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고대 한국 청동기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식적 우수성과 문화사적 중요성 등으로 볼 때, 이 두 점의 정문경은 하루 빨리 보물로 일괄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존 및 관리될 필요가 있다.

○(지정 가치 있음)

완주 갈동유적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산 98-4번지 일원의 해발 40~50m의 얇은 구릉에 토광묘군이 군집되어 있어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한다. 5호 토광묘는 토광묘군이 조성된 구릉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7호묘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5·7호 토광묘 모두 정문경은 동쪽 단벽 가까이의 충전공간의 바닥으로부터 5~15cm

높이에서 경면이 위쪽으로 놓인 상태로 출토하였다. 정문경이 출토한 곳은 피장자의 머리가 놓인 방향에 해당한다. 5·7호 토광묘에서 출토한 정문경은 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배면에 매우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완주 갈동 5·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2점은 초기철기시대인 기원전 2세기에 제작된 청동 거울로 문양이 잘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직한 정제품으로 초기철기시대의 청동기를 대표한다.

완주 갈동 5·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2점은 출토 지역 및 유구와 공반 유물 등 출토 정황이 분명할 뿐 아니라 완형에 가깝고, 배면에 새겨진 문양이 정치하여 우리나라 초기철기시대 청동기 주조기술을 이해하는데 매우 높은 높은 가치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일괄 지정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형 식

다뉴경은 배면에 꼭지(뉴)가 2~3개이고 기하학문이 베풀어져 있는 동경으로 조문경과 정문경으로 구분된다. 조문경은 길림성 중남부를 포함한 요령지역과 한반도에서 확인되며, 정문경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분포하고 있다. 정문경의 형식변천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크게 보면 상반되는 두 줄기로 나뉘어져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전 논산 정문경이나 화순 대곡리 정문경과 같이 가장 완성된 형태의 것을 가장 늦은 시기로 볼 것인지²⁴⁾, 아니면 가장 이른 시기로 볼 것인지²⁵⁾ 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일본 야요이시대의 편년관을 바탕으로 깔고 있어서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의 전개과정과는 합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철기의

24) 甲元眞之, 1990, 「多鈕鏡の再檢討」, 『古文化談叢』 22, 九州古文化研究會.

宮里修, 2008, 「多鈕細文鏡の型式分類と編年」, 『考古學雜誌』 92卷1號, 日本考古學會.

李陽洙, 2010, 「韓半島 三韓·三國時代 銅鏡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清圭, 2010, 「多鈕鏡 型式의 變遷과 分布」, 『韓國上古史學報』 67, 韓國上古史學會.

25) 李健茂, 2003, 「韓國式銅劍文化의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趙鎮先, 2016, 「多鈕精文鏡의 型式變遷과 意味」, 『한국상고사학보』 94, 한국상고사학회.

동반 여부와도 상반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반면에 후자는 한반도 세형동검 문화의 전개과정과 일치할 뿐 아니라 철기의 동반 여부와도 합치한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완주 갈동 5호 토광묘와 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정문경의 형식과 연대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정문경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60여 점, 일본열도에서 12점이 확인되어 도합 70여 점이 출토되었다. 다뉴경의 경면은 비취보는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끈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불록경·평면경·오목경으로 구분된다. 배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하학문이 배풀어져 있다.

정문경에 대한 형식분류는 宇野隆夫의 단위문양분류법²⁶⁾과 甲元眞之의 문양구(수)분류법²⁷⁾이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토된 정문경에서 확인된 단위문양들을 문양구별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²⁸⁾.

정문경의 크기는 직경 8~22cm인데,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8~11cm의 소형, 12~15cm의 중소형, 15.5~18.5cm의 중대형, 19~22cm의 대형으로 구분된다. 정문경의 크기는 배면 문양과도 관련성이 커서 외구가 삼각문a식인 것과 삼각문c식인 것은 크기가 다양하지만 삼각문b식인 것과 삼각문d식인 것은 대부분 소형이다. 그래서 삼각문b식과 삼각문d식은 소형 정문경에 특화된 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조문경은 경관 및 주연부 형태가 다양하지만 정문경은 모두 경관 두께가 2~3mm로 얇고 주연부가 반구연이다. 조문경의 경면은 불록경(I식), 평면경(II식), 오목경(III식)으로 구분되지만 정문경의 경면은 대부분 오목하다. 그래서 배면 문양구성

명칭	외구	중구	내구
삼각문	a		
	b		
	c		
	d		
X자문			
V자문			
방격문			
N자문			
사격자문			
엽맥문			
동심원문			
눈금자문			

그림 1. 다뉴정문경의 문양구별 단위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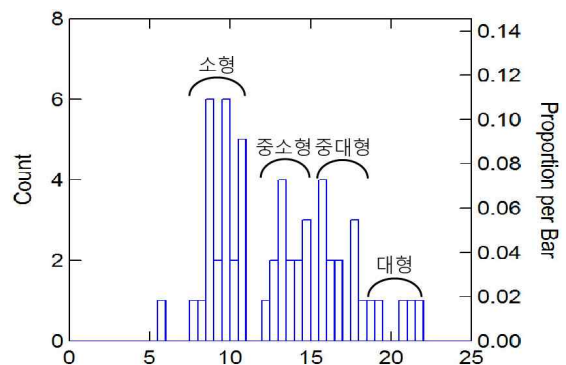


그림 2. 정문경의 크기(대상 55점)

26) 宇野隆夫, 1977, 「多鈕鏡の檢討」, 『史林』 60-1, 京都大學文學部內 史學研究會.

27) 甲元眞之, 1990, 「多鈕鏡の再檢討」, 『古文化談叢』 22, 九州古文化研究會.

28) 趙鎮先, 2016, 「多鈕精文鏡의 型式變遷과 意味」, 『한국상고사학보』 94, 한국상고사학회.

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외구 문양 구성이 정문경 형식분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토대로 정문경의 발전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기원전 3세기 초~3세기 중엽, 2~4단계는 기원전 3세기 후엽~2세기 초, 5단계는 기원전 2세기 초~2세기 말, 6단계는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은 경면이 약간 오목하고, 배면에는 반구형 주연부가 돌아가고 있으며, 크기는 너비 1.5cm, 높이 0.6cm이다. 주연부 안쪽에는 기하학문이 배풀어져 있다. 배면 중앙에서 약간 위쪽으로 치우쳐 2개의 꼭지가 있다. 꼭지의 크기는 길이 1.7cm, 최대너비 0.9cm, 높이 0.5cm이며, 꼭지 중심 간 거리는 3.4cm이다. 크기는 직경 14.6cm, 무게 447g이다.

배면에 배풀어진 기하학문은 외구, 중구, 내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3구식에 해당한다. 외구는 직경 11.6cm, 너비 1.4cm이며, 삼각문c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구는 직경 8.8cm, 너비 3.5cm인데, 삼각문이 N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구는 직경 1.9cm이며, 역시 삼각문이 N자형이 배풀어져 있다.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은 경면이 약간 오목하다. 배면에는 반구형 주연부가 돌아가고 있는데, 크기는 너비 1.0cm, 높이 0.4cm이다. 배면에는 기하학문이 배풀어져 있다. 중앙에서 위쪽으로 약간 치우쳐 2개의 꼭지가 나란히 부착되어 있고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1개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는 3뉴식이다. 아래쪽에 있는 1개의 꼭지는 위쪽에 있는 2개의 꼭지보다 작다. 위쪽에 있는 2개의 꼭지는 길이 1.1cm, 최대너비 0.6cm, 높이 0.3cm이고, 꼭지 중심 간 거리는 2.1cm이다. 아래쪽에 있는 소형 꼭지는 크기가 길이 0.7cm, 너비 0.5cm, 높이 0.3cm이다.

정문경의 크기는 직경 9.1cm, 무게 141g이다.

배면 문양은 외구, 중구, 내구로 구성되어 있는 3구식이다. 외구는 직경 7.0cm, 너비 0.9cm이며 삼각문b식이 배풀어져 있다. 중구는 직경 5.2cm, 너비 1.1cm인데, 바깥쪽에는 삼각문이 X자형으로 배풀어졌고, 안쪽에는 삼각문c식이 배풀어져 있다. 내구는 직경 3.1cm이며, 삼각문이 X자형으로 배풀어져 있다.

따라서 완주 갈동 정문경은 크기가 직경 14.6cm와 직경 9.1cm여서 각각 중소형과 소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작은 것들이다.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은 오목경이고, 배면의 외구에 삼각문c식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IIIc식이다. 이와 유사한 정문경은 횡성 강림리, 완주 신평, 전주 만성동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전주 효자 4지구, 함평 초포리, 당진 소소리, 부여 청송리 유적에서 출토된 정문경들도 동일한 형식으로 생각된다.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은 오목경이고 배면의 외구에 삼각문b식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IIIb식이다. 이와 동일한 문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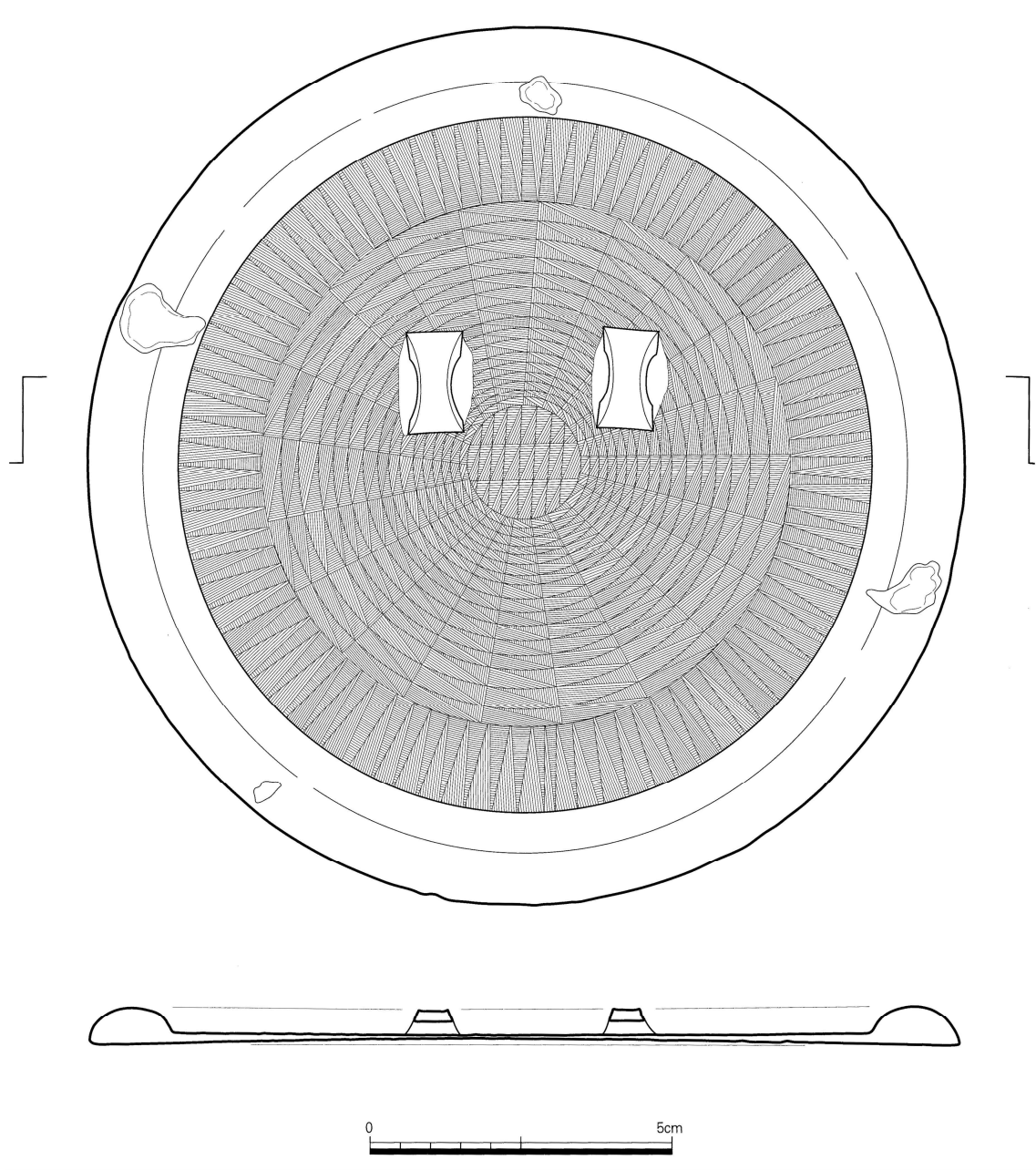


그림 199.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성을 한 정문경은 아직까지 출토되지 않았지만 대동 반천리, 봉산 솔피골, 충주 호암동, 신청 룡산리, 전주 원장동 유적 등에서 동일한 형식의 정문경들이 출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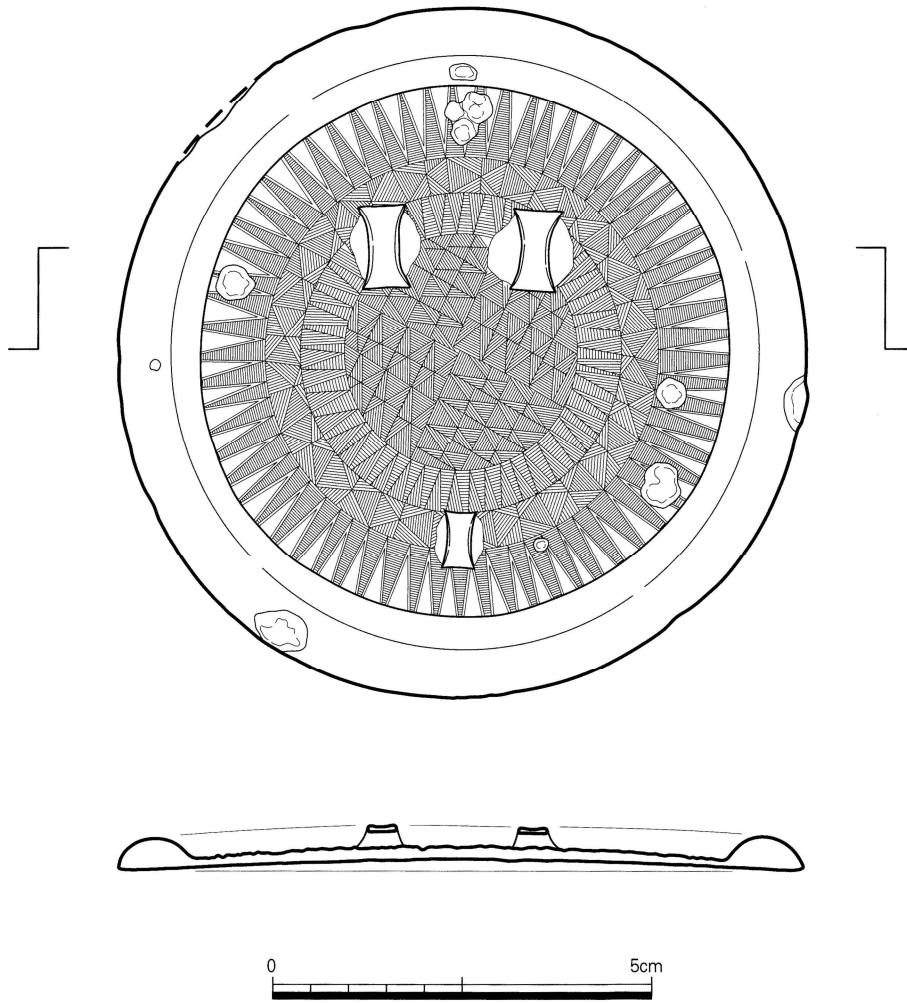


그림 200.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 조성연대

완주 갈동 유적의 토광묘들은 세형동검문화의 발전Ⅱ기부터 쇠퇴기에 주로 조영되었다. 그리고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은 Ⅲc식이고,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은 Ⅲb식인데, 이러한 형식의 정문경은 기원전 2세기경에 유행하였다. 이로보아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2점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완주 갈동 유적에서는 5호 토광묘와 7호 토광묘에서 정문경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5호 토광묘는 조사구간의 가장 남쪽에서 노출되었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

교한다. 유구 어깨선에서 30cm정도 내려갔을 때 피장자의 좌측에 해당하는 장벽 중앙에서 장경호 1점이 노출되었고, 피장자의 머리 쪽에 해당하는 바닥에서 정문경 1점이 경면을 위쪽을 향한 채 출토되었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59cm, 너비 76~82cm, 깊이 42~52cm이다.

7호 토광묘는 유적의 가장 동쪽에서 확인되었다. 무덤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이다. 토광의 경사면 위쪽에 해당하는 북동벽 쪽에서 정문경 1점이 경면이 위로 향한 채 출토되었는데, 꼭지 부분에는 거울을 매는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끈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모죽임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32cm, 너비 67~75cm, 깊이 14~36cm이다.

○ 내용 및 특징

완주 갈동유적은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2003년과 2007년에 발굴조사해서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목관묘 포함)와 구상유구, 수혈유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 철기, 토기류와 함께 동검동과 주형이 새겨진 용범 1쌍이 출토되었다. 5호 토광묘와 7호 토광묘에서는 정문경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 문헌자료

李健茂, 2003, 「韓國式銅劍文化的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李陽洙, 2010, 「韓半島 三韓·三國時代 銅鏡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清圭, 2010, 「多鈕鏡 型式의 變遷과 分布」, 『韓國上古史學報』 67, 韓國上古史學會.

趙鎮先, 2016, 「多鈕精文鏡의 型式變遷과 意味」, 『한국상고사학보』 94, 한국상고사학회.

甲元眞之, 1990, 「多鈕鏡의 再檢討」, 『古文化談叢』 22, 九州古文化研究會.

宮里修, 2008, 「多鈕細文鏡의 型式分類と編年」, 『考古學雜誌』 92卷1號.

宇野隆夫, 1977, 「多鈕鏡의 檢討」, 『史林』 60-1, 京都大學文學部內 史學研究會.

○ 기 타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2점은 2007년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일대에 있는 완주 갈동 5호 토광묘와 7호 토광묘를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이 정문경 2점은 우리나라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정문경 중에서 완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면에 새겨진 문양도 매우 정치하다. 이 정문경 2점은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귀속되어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 형 식

완주 갈동 5호 토광묘와 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청동제 동경(銅鏡) 2점은 모두 한국 고대 청동기시대의 동경(銅鏡) 중에서 거울 뒷면에 꼭지, 즉鈕(鈕)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며,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잔무늬경 형식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울들은 이전에는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 혹은 잔무늬경이라고 알려져 왔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정문경(精文鏡)”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 1.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 동경 앞면.

도 2.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 동경 뒷면.

이중에서 완주 갈동 5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동경은 뒷면 중앙 윗부분에 2개의鈕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 부분부터 바깥쪽으로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면서 크게 3단으로 문양을 배치하였다(도 1, 2). 가장 안쪽의 내구(內區)는 지름 1.9cm 정도의 원형 안에 3열의 수평으로 삼각거치문대를 배치했으며, 중구(中區)는 16조의 동심원을 배치한 후, 방사상으로 구획하여 각 칸마다 횡방향으로 삼각거치문대를 배치하였다. 가장 바깥쪽의 외구(外區)는 1.4cm 폭으로 삼각거치문대를 돌려서 장식하였다. 나란히 배치된鈕는 길이 1.7cm, 최대 폭 0.9cm, 높이 0.5cm의 크기이며, 두鈕의 거리는 2.3cm 정도이다. 삼각거치문대는 정교한 양각선으로 새겨져 있다.



도 3.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동경 앞면.



도 4.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동경 뒷면.

완주 갈동 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동경은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품에 비해 다소 작은 크기이지만, 거치문의 문양은 훨씬 더 정교한 양식을 보여준다(도 3, 4). 또한 이 동경은 뒷면 중앙 윗부분에 뉴가 3개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다뉴세문경과는 다른 형식을 보여준다. 뉴는 중앙 위쪽으로 2개가 나란히 배치되었고, 중앙부에서 한참 떨어진 아래쪽에 단독으로 작은 뉴 하나가 배치되어 있다. 위쪽 뉴의 길이는 1.1cm, 폭 0.3cm, 높이 0.3cm 정도이며, 두 뉴 사이의 거리는 1.5cm 정도이다. 아래쪽의 단독 뉴는 길이 7.9mm, 폭 4.4mm의 크기이다. 위쪽의 뉴와 아래쪽 뉴 사이의 거리는 3cm 정도이다. 문양은 중앙부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크게 4단으로 문양을 배치하였다. 가장 안쪽의 내구(內區)는 지름 3.13cm 크기의 동심원을 4등분한 후, 각 면에 삼각거치문대를 면마다 교차하여 배치하였다. 중구(中區)는 두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 중구 제 1구는 폭 6.1mm의 동심원대를 구획한 후, 그 안에 좁고 긴 이등변 삼각형을 연이어 표현한 삼각거치문대를 방사상으로 배치하였다. 바깥쪽의 중구 제 2구는 폭 5.1mm의 동심원을 구획한 후, 정삼각형에 가까운 삼각거치문대를 돌아가며 비균질적으로 배치하였다. 가장 바깥쪽의 외구(外區)는 8.7mm의 폭으로 동심원을 구획한 후, 방사상으로 긴 이등변 삼각형 비슷한 사다리꼴 모양의 거치문대를 표현하였다. 거치문의 내부 선들은 모두 정교한 양각 선으로 새겨져 있으며, 조각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및 초기철기시대의 정문경은 약 70여점 정도이다. 완주 갈동에서 출토된 두 점의 동경은 모두 경면(鏡面)이 약간 오목한 오목경 형식이며, 크기가 비교적 작은 중소형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완주 갈동 출토품과 비슷한 형식의 거울들은 완주 신평, 전주 만성동, 전주 원장동 등에서 출토되어 대체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어 왔는데, 이와 같이

문양이 정교하고 출토 위치가 분명한 예들은 그 수가 적은 편이다.

○ 조성연대

완주 갈동 유적에서 출토된 두 점의 동경은 기원전 3-2세기경에 유행하던 형식으로, 분묘의 연대 및 형식 등으로 볼 때 제작 시기도 이 즈음이라고 추정된다.

○ 현 상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품은 토광묘 피장자의 머리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경면을 위쪽으로 노출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 이 동경은 4조각으로 분리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도 5), 보존처리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접합되었다. 문양 부분에서는 접합 부분이 그다지 잘 보이지는 않으나, 경면 부분에서는 접합 부분이 비교적 잘 보이는 편이다(도 2). 또한 문양이 있는 뒷면쪽에는 3곳 정도에 비교적 큰 청동 녹이 나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존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며, 문양의 세밀함이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다.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품은 토광묘 북동벽 쪽에서 경면을 위로 한 채로 출토되었다. 발견 당시 뉴 부분에는 거울을 매는 데에 사용했던 끈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발견 당시에는 거울 뒷 부분 여러 곳에 상당히 심한 녹이 슬어 있었고, 아래쪽 구연부에 2곳 정도 결실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6), 지금은 보존처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심한 녹은 제거되었으며 구연부의 결실된 부분도 복원되었다. 보존처리를 했지만, 경면에는 아직도 몇 군데에 제거하기 어려운 청동 녹이 남아 있다(도 4). 그렇지만 녹이 그다지 심한 편은 아니며 전반적인 보존 상태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지금까지 뉴가 여러 개 달린 잔무늬경, 즉 다뉴세문경, 혹은 다뉴정문경이라고 불리는 동경들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발굴조사 및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청동제 동경이 발견되는 고분들은 대부분 초기 철기시대인 기원전 3-2세기경의 토광묘, 혹은 토광목관묘 등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공반 유물로는 철기와 토기 등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까지 절대편년이 어려웠던 고대 청동기 유물들의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번 보물 지정 조사를 진행한 완주 갈동 5호 토광묘와 7호 토광묘 출토 청동제 동경 두 점은 청동을 주조해서 제작한 금속공예품으로서, 한반도 고대의 청동기 주조기법(鑄造技法)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예들 중



도 5.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 동경의 발굴 상태. 출처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완주 갈동유적(II) - 2007년도 노선 변경구간 발굴조사』, 호남문화재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p. 184, 사진 50.



도 6.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동경의 발굴 상태. 출처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완주 갈동유적(II) - 2007년도 노선 변경구간 발굴조사』, 호남문화재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p. 189, 사진 55.

에서는 보기 드물게 출토 위치와 공반 유물, 그리고 유적의 성격이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 고대의 청동제 정문경들이 다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공반 유물과 출토 위치가 자세하게 알려져 있으며, 주조 상태가 우수한 작품의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아마도 함평 초포리, 완주 신평 지구, 전주 만성동 유적 등에서 출토된 몇몇 예가 있는 정도이며, 이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전문적 연구자들의 연구 이외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도 7. 국보 제 141호. 정문경. 송실대학교박물관 소장. 지름 2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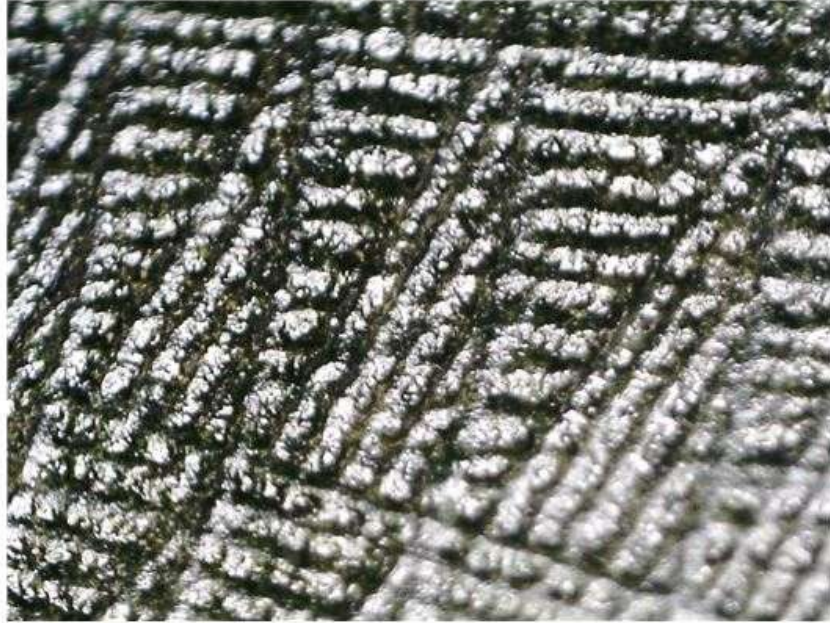


도 8. 국보 제 143호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품 중 동경 1. 전 화순 대곡리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지름 17.8cm.



도 9. 국보 제 143호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품 중 동경 2. 전 화순 대곡리 출토.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지름 14.5cm.

현재 비슷한 계통의 정문경 중에서는 출토지가 불확실한 예가 많은데, 그중에서 국보 및 보물 등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예는 국보 제 141호 전 영암출토 송실대학교 박물관 소장 정문경 1점(도 7)과 국보 제 143호 전 전남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기 일괄품 중 정문경 2점(도 8, 9)이 있다. 이 중에서 국보 제 141호 정문경은 지름 21.2cm로서, 현존하는 정문경 중에서는 가장 크고 정교한 문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보 제 143호 유물 중 정문경은 각각 지름 17.8cm, 14.5cm 등이며 심하게 파손되었던 것을 복원한 것이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이 세 점의 동경은 모두 출토 위치와 제작 시기가 불분명하여,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에 비해 이번 조사된 완주 갈동 출토 동경 두 점은 모두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귀중한 유물들이며, 크기는 다소 작지만 문양의 세밀함이나 양식, 그리고 보존 상태 등이 매우完好하여 상당히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도 10.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 동경의 문양 세부 확대.

지금까지 국보 정문경들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진흙 거푸집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토범(土范)을 사용했는지, 혹은 돌로 만든 석제 거푸집을 사용하는 석범(石范)을 사용했는지, 혹은 밀랍주조기법(蜜蠟鑄造技法)이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번 완주 갈동 출토품들의 경우에는 양각의 삼각 거치문 문양 조각 상태(도 10) 및 뉴 아래 부분의 표면 처리 상태(도 11) 등을 확대경으로 조사한 결과, 진흙을 이용한 토범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한국 고대 청동기의 주조(鑄造) 기법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상과 같이 출토 위치와 맥락, 정교한 제작기법, 뛰어난 문양 양식 등으로 볼 때, 완주 갈동 출토 두 점의 청동제 동경 두 점은 고대 한국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역사적, 기술적, 문화사적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 기 타

이 두 점의 동경은 2007년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였으며, 보고서의 발간 이후,²⁹⁾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는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었다. 현재 완주 갈동 5호분 출토 동경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7호분 출토 동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29) 발굴보고서는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完州 葛洞遺蹟(II) - 2007년도 노선 변경구간 발굴조사』, 호남문화재연구원·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참조.



도 11.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동경의 뉴 부분, 세부 확대.

지정조사는 2018년 9월 5일, 2019년 1월 9일, 2019년 2월 28일 등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동경의 재질에 대해서는 발굴보고서의 분석에 의하여, 갈동 5호 출토 품의 경우에는 구리:주석:납의 합금 비율이 24-25:71-72:4 정도의 3원계 청동 합금으로 확인되었다.³⁰⁾ 갈동 7호분 출토품도 3원계 청동 합금으로, 구리:주석:납의 합금 비율이 14:16:79-81:5 정도이며,³¹⁾ 5호 출토품에 비해 주석의 함량이 다소 높은 점이 특징이다.

□

○ 현 상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은 4개편으로 깨어졌으나 접합되어 완형임. 뒷면(배면)은 깨어져 접합된 면 일부가 떨어져 나갔음. 뒷면의 주연부 5곳이 수화되어 푸른색 청동녹 부착되었음. 앞면 일부도 수화되어 푸른색 청동녹 부착되었음. 앞면은 미끈하고, 제작 당시의 마연 흔과 사용하면서 면을 닦아낸 흔적으로 추정되는 동심원이 관찰됨.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은 주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임. 앞면과 뒷면의 표면이 수화되어 청동녹이 부착되었음. 최초 노출 당시 동경의 뉴 부분에 거울을

30) 위의 책, p. 245.

31) 위의 책, p. 247.

매는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끈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음.

○ 내용 및 특징

5호묘 출토 정문경은 경면이 편평한 二紐式鏡임. 앞면인 鏡面, 뒷면인 鏡背, 鏡緣에 해당하는 周緣部, 끈일 끼우는 역할을 하는 紐 등으로 이루어졌음.

뉴는 배면 중앙에서 약간 윗쪽에 나란히 배치되었고, 평면은 'T'자형이고, 단면은 사다리꼴에 가까움. 뉴의 중심간 거리는 3.4cm. 뉴의 상·하면은 수평으로 처리되었고, 양 측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음. 뉴가 있는 곳은 표면 문양이 지워졌는데, 이는 주물 시 뉴의 구멍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뉴 안쪽에 작은 심을 끼운 후 주물하였음을 나타냄.

뒷면의 문양 구성은 외구·중간구·내구의 三區式임. 외구 내부에 삼각거치문 2개가 짝을 이루며 엇갈리게 수직으로 배치되었는데, 각 8개씩 모두 16개임. 중

간구는 총 21칸으로 구획되었고, 각 칸에는 2개의 거치문이 짝을 이루며 엇갈리게 횡으로 총 32개의 거치문이 배치되었음. 내구는 상·중·하 3단으로 균등하게 수평으로 구획되었음. 각 단은 8개의 수직 구획이 되었고, 내부에 삼각거치문 2개가 위아래로 짝을 이루며 배치되었는데, 각 단의 삼각거치문은 16개임. 주연부는 단면이 반원형임.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과 유사한 크기와 문양 구성을 보이는 사례로는 완주 신평, 당진 소소리, 부여 청송리, 함평 초포리b, 횡성 강림리 출토 정문경 등이 있음.

7호묘 출토 정문경은 직경이 9,1cm로 소형임. 앞면인 경면, 뒷면인 경배, 경연에 해당하는 주연부, 끈일 끼우는 역할을 하는 뉴 등으로 이루어졌음.

앞면은 가운데가 오목한 오목경. 뒷면에는 중심에서 약간 위쪽으로 치우쳐 2개의 뉴가 나란히 부착되었고,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치우쳐 외구와 중간구에 걸쳐 위쪽 뉴의 중간에 해당하는 곳에 1개의 뉴가 부착되어 三紐式임. 위쪽의 뉴가 크고, 아래쪽 뉴는 크기가 작음. 뉴의 단면은 반환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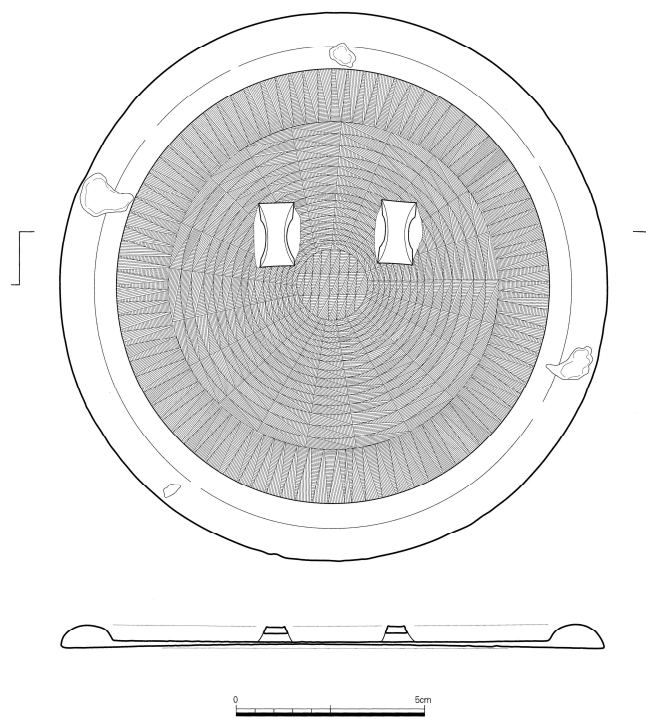


그림 209. 완주 갈동 5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뒷면의 문양구성은 크게 외구·중간구·내구로 구분됨. 외구 내부에 삼각거치문 2개가 짝을 이루어 엇갈리게 맞물려 수직으로 배치되었는데, 각 64개씩, 총 128개의 거치문이 새겨져 있음. 외구 바깥쪽 거치문 안에는 문양이 없고, 안쪽 거치문 내에는 평행집선문이 새겨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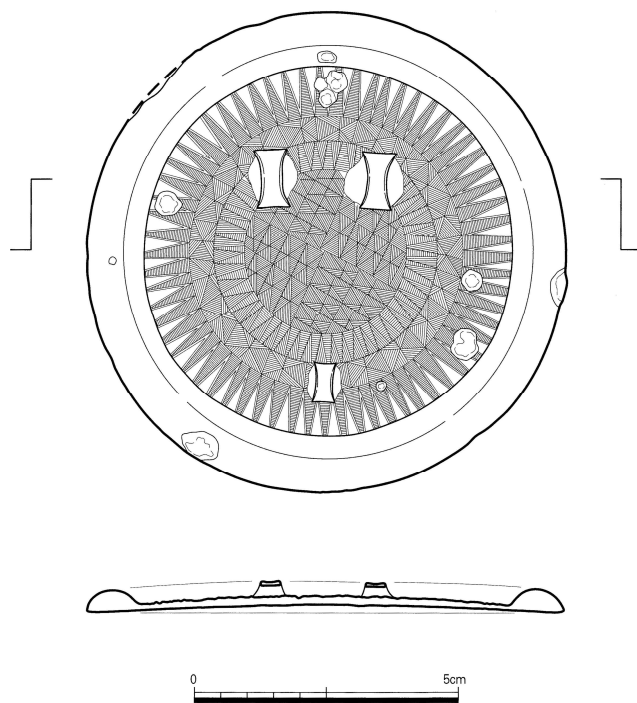


그림 210.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

중간구는 2개의 輪帶가 돌려 있고, 외측 윤대 내부는 총 40개의 방형 구획이 되었고, 각 방형 구획 내부에 3개의 삼각거치문이 교차 새겨졌음. 내측 윤대에는 삼각거치문 2개가 짝을 이루어 엇갈리게 맞물려 수직으로 배치되었는데, 각 44개씩 총 88개가 새겨져 있음. 내구는 4등분으로 엇갈리게 구획하고, 다시 방형구로 구획하고, 방형구 내부에 3개의 삼각거치문을 교차 새겼음. 주연부는 단면이 반원형임.

三紐式 정문경 사례로는 함평 초포리, 장수 남양리 4호, 함흥 이화동, 금야 용산리 제2지점 출토품 등이 있음. 완주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과 동일한 문양 구성을 한 정문경은 현재까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음. 갈동

7호 토광묘 출토 정문경과 같은 형식의 정문경은 대동 반천리, 봉산 솔피골, 충주 호암동, 신청 룡산리, 전주 원장동유적 출토품이 있음.

○ 문헌자료

財)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2009, 『完州 葛洞遺蹟(Ⅱ)』

李陽洙 2010, 「韓半島 三韓·三國時代 銅鏡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清圭 2010, 「多鈕鏡 型式의 變遷과 分布」, 『韓國上古史學報』 67, 韓國上古史學會.

趙鎮先 2016, 「多鈕精文鏡의 型式變遷과 意味」, 『한국상고사학보』 94, 한국상고사학회.

○ 기 타

완주 갈동유적 정문경은 2006~2007년도에 발굴조사한 완주 갈동유적 5호와 7호 토광묘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된 국가귀속매장문화재임

V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명칭변경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9-03-017

17.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을 부의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사유

-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개선의 일환으로, 불교회화분야 명칭 변경을 위한 관계자문회의('18.7.31/ 9.14) 및 소위원회('19.3.1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19.3.14)에서 보고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지정명칭 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면 30일간 변경 예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 붙임 1.
-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목록 ☞ 붙임 2.

다. 향후계획

- 지정명칭 변경 예고('19. 4월 말~5월 초)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19. 6월~)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붙임 1.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부여지침 1부.
2.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목록 1부.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부여지침

□ 기본 원칙

- ①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 ② 부처의 존격(~여래)은 명칭에 표현하며, ‘비로자나’, ‘노사나’ ‘미륵’의 경우 오랜 관행을 감안하여 ‘~불’로 표기한다.

예)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미륵불

- ③ 고려시대 불화는 조선시대 불화와의 혼란을 피하고 차별성을 위해 작품명 앞에 ‘고려’라는 명칭을 넣는다.
- ④ 벽화는 제목에 이어 장르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명칭에 ‘벽화’를 넣는다.
- ⑤ 주존도와 권속의 그림이 주존도와 대등하게 그려져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경우 ‘주존도 및 권속도’로 명명한다.(단, 삼존, 오존, 구존 등은 표기)

예)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영산회도 및 십육나한도

- ⑥ 사찰 이외 원 봉안처를 떠나 있는 불화는 화기의 기록된 “봉안처 + 명(銘)”을 함께 표기하여 명명한다. 예) ‘회암사’ 명 약사여래삼존도
- ⑦ 괘불도의 표기

※ **존명이 명확한 경우에는 존명을 밝히고 불명확한 것은 ‘사찰명+괘불도’로 표기**

- ◆ 향미축지인 등 석가여래의 도상이 명확한 괘불도 중 독존 형식은 ‘석가여래 괘불도’로 표기하고, 군상일 경우 ‘영산회 괘불도’로 표기한다. 다만 도상이 명확하지 않고 존명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괘불도’로 명명한다. 도상과 화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도상을 우선한다.

(예) 공주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도

- ◆ 괘불도의 화기(畫記) 또는 방제(傍題)에 ‘영산회’ 또는 주존명이 기입된 경우 일반화된 명명기준을 따른다. 예) 대영산·영산탱·영산대화→영산회, 미륵존불→미륵불, 미타불·무량수불→아미타여래 등 방제와 화기의 존명이 다르게 표기되었을 경우 방제를 우선한다. (예) **청양 장곡사 미륵불 괘불도**(방제: 미륵존불, 화기 : 영산회괘불탱)

- ⑧ 보살그림은 명칭에 ‘보살’을 넣는다.
- 예)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 ⑨ '석가팔상도'는 '팔상도'로 하고, '감로왕도'는 '감로도'로 한다.
- ⑩ '백의관음도' 및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도'로 통칭한다.
- ⑪ 여러 권속, 복장물 등 종속 관계 유물이 있는 경우 '일괄' 용어를 쓴다.
예)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사자도 등 부속물이 딸린 경우
- ⑫ '괘불함' 또는 '괘'는 '함'으로 명명한다. 예) 고성 운흥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 세부 원칙

▲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관련

- ① 괘불형식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의 경우, 영산재(靈山齋)를 위한 고유의 괘불임을 감안, 기존 '석가여래 설법도'에서 '영산회 괘불도'로 표기
- ② 단독으로 그려진 향미축지인의 괘불도는 '석가여래 괘불도'로 표기하고, '영산회' 등 화기와 관련 기록이 남아 있으면 기록에 따라 명명

▲ 독존(獨尊) 이상의 불보살이 그려진 경우

- ① 독존 : '존명+여래도'로 표기 (예: 아미타여래도)
- ② 삼존(三尊), 오존(五尊), 구존(九尊)
 - ☞ 여래와 보살이 중심인 경우 : '존명+삼존도' / '존명+오존도' / '존명+구존도'
 - ☞ 그밖에 여러 권속으로 구성된 경우 : ~회도
- ③ 주존불을 포함한 여러 부처를 그린 회도(會圖)의 경우, 주존불의 존명을 따라 '~회도'로 표기 (예: 석가여래회도/ 비로자나불회도)
- ④ 주존불의 협시처럼 주존 보다 작게 여러 부처들이 분신불처럼 삼존, 오존 등을 구성할 경우 주존불의 존명을 따서 표기
(예: 비로자나불오불회 괘불도 → 비로자나불 괘불도)
- ⑤ 삼신불(三身佛)은 그대로 표기, 삼세불(三世佛)은 '~삼불회도(三佛會圖)'로 표기
(예: 비로자나불삼신불회도/ 석가여래삼불회도)

▲ 기 타

- ① 같은 사찰 내 동종 불화가 있을 경우 전각명 표기
(예: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 벽화)
- ② 전적을 제외하고 숫자는 한글로 표기 (예: 십육나한도/ 오백나한도)
- ③ 존명/지명/봉안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명칭에서 해당부분을 제외할 수 있음
예: 청량산 (존명) 괘불도 → 청량산 괘불도

[붙임 2]

불교회화 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목록

□ 벽화(8건)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1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영주 부석사 조사당 고려 벽화	*지명 표기 *시대 표기
2	국보	제3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변동 없음	
3	보물	제1315호	무위사 극락전 내벽사면벽화	강진 무위사 극락전 내벽사면벽화	*지명표기
4	보물	제1711호	양산 통도사 영산전 벽화	변동 없음	
5	보물	제1757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변동 없음	
5	보물	제1817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및 달마대사 벽화	“·”→“및”
6	보물	제1861호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 및 달마대사 벽화	“·”→“및”
8	보물	제1862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변동 없음	

□ 괘불(55건)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1	국보	제296호	찰장사 오불회 괘불탱	안성 찰장사비로자니불 괘불도	*지명및도상명의명확화 *주존격중심으로 정비
2	국보	제297호	안심사 영신회 괘불탱	창주 안심사 영신회 괘불도	*지명
3	국보	제298호	갑사 삼신불 괘불탱	공주 갑사 비로자니불 삼신괘불도	*지명 및 도상명의명확화
4	국보	제299호	신원사 노사니불 괘불탱	공주 신원사 노사니불 괘불도	*지명표기 *화가대영신회탱
5	국보	제300호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	창양 장곡사 미륵불 괘불도	*지명표기 *방제 미륵존불 화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기 영산대회과불탱
6	국보	제301호	회암사 영산회 과불탱	구례 회암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표기
7	국보	제302호	창곡사 영산회과불탱	진주 창곡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표기
8	보물	제1210호	창량산과불탱	'창량산명 과불도	*몽인처 명확하지 않음
9	보물	제1256호	찰장사 삼불회 과불탱	안성 찰장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 및 도상명의 명확화
10	보물	제1257호	청룡사 영산회 과불탱	안성 청룡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표기
11	보물	제1258호	보살사 영산회 과불탱	창주 보살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표기
12	보물	제1259호	법주사과불탱	보은 법주사 과불도	*지명표기
13	보물	제1260호	마곡사 석가모니불 과불탱	공주 마곡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표기 *방재 석가모니불
14	보물	제1261호	광덕사 노사니불 과불탱	찬안 광덕사 노사니불 과불도	*지명표기
15	보물	제1262호	용봉사 영산회 과불탱	홍성 용봉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표기
16	보물	제1263호	수덕사 노사니불 과불탱	예산 수덕사 노사니불 과불도	*지명표기 *방재 노사니불 *화가 영산과불탱
17	보물	제1264호	개심사 영산회 과불탱	서산 개심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표기 *화가 대영산과불탱
18	보물	제1265호	무량사 미륵불 과불탱	부여 무량사 미륵불 과불도	*지명표기 *화가 미륵과불탱
19	보물	제1266호	금당사 과불탱	진안 금당사 과불도	*지명표기
20	보물	제1267호	안곡사 영산회 과불탱	무주 안곡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표기 *화가 영산과불
21	보물	제1268호	내소사 영산회 과불탱	부안 내소사 영산회 과불도	*지명표기
22	보물	제1269호	개암사 영산회 과불탱 및 초본	부안 개암사 영산회 과불도 및 초본	*지명표기 *화가 영산과불탱
23	보물	제1270호	은혜사 과불탱	영천 은혜사 과불도	*지명표기
24	보물	제1271호	수도사 노사니불 과불탱	영천 수도사 노사니불 과불도	*지명표기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25	보물	제1278호	북장사 영산회 괘불탱	상주 북장사 영산회 괘불도	*지명표기 *화가 영산괘불일회
26	보물	제1279호	죽림사 세존괘불탱	나주 죽림사 석가여래 괘불도	*지명 및 도상명의 명확화 *화가 세존탱
27	보물	제1316호	율곡사 괘불탱	산청 율곡사 괘불도	*지명표기
28	보물	제1317호	운흥사 괘불탱 및 케	고성 운흥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지명 및 도상명의 명확화
29	보물	제1331호	흥국사 노사나불괘불탱	여수 흥국사 노사나불 괘불도	*용어통일
30	보물	제1339호	오덕사 괘불탱	부여 오덕사 석가여래 괘불도	*지명 및 도상의 명확화
31	보물	제1340호	천은사 괘불탱	구례 천은사 석가여래 괘불도	*지명 및 도상의 명확화 *화가 대영산교주 (독존)
32	보물	제1341호	도림사 괘불탱	곡성 도림사 괘불도	*항미축지인의 삼존 형식
33	보물	제1342호	미항사 괘불탱	해남 미항사 석가여래 괘불도	*단독 여래입상의 항미축지인
34	보물	제1343호	다보사 괘불탱	나주 다보사 영산회 괘불도	*지명표기
35	보물	제1344호	금탑사 괘불탱	고흥 금탑사 석가여래삼불 괘불도	*지명표기 및 도상 의 명확화
36	보물	제1345호	만연사 괘불탱	화산 만연사 영산회 괘불도	*지명표기 및 도상 의 명확화
37	보물	제1350호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탱	양산 통도사 괘불도	*지명표기 *화가 도상명 없음
38	보물	제1351호	통도사 괘불탱	양산 통도사 괘불도	*지명표기
39	보물	제1374호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	상주 용흥사 석가여래삼불 괘불도	*지명표기 및 도상 의 명확화
40	보물	제1379호	축서사 괘불탱	봉화 축서사 석가여래 괘불도	*지명 및 도상의 명 확화(항미축지인)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41	보물	제1419호	선암사 석기모니불 괘불탱 및 부속유물일괄	순천 선암사 석기여래 괘불도 및 복장유물	*지명표기 및 복장 유물이라는 보편적 용어 적용 *화가:영산교주석가 모니불
42	보물	제1432호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	청도 적천사 괘불도 및 지주	*지명표기
43	보물	제1445호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도	*지명표기 *화가:영산회괘불일 부
44	보물	제1446호	남해 용문사 괘불탱	남해 용문사 영산회 괘불도	*지명 및 도상의 명 확화
45	보물	제1551호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도	*용어통일
46	보물	제1552호	해남 대흥사 영산회괘불탱	해남 대흥사 영산회 괘불도	*용어통일 *화가영산괘불탱
47	보물	제1562호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영주 부석사 영산회 괘불도	*도상의 정확화
48	보물	제1608호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탱	성주 선석사 영산회 괘불도	*용어통일 *화가영산회도일부
49	보물	제1609호	포항 보경사 괘불탱	포항 보경사 괘불도	*용어통일
50	보물	제1640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탱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	*용어통일
51	보물	제1692호	통영 안정사 영산회괘불도	통영 안정사 영산회 괘불도	*띄어쓰기
52	보물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괘불도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불 삼신 괘불도	*용어통일
53	보물	제2005호	군위 법주사 괘불도	변동 없음	
54	보물	제2006호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 불 괘불도	변동 없음	
55	보물	제2007호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변동 없음	

□ 일반불화(72건)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1	국보	제218호	아미타삼존도	고려 아미타여래삼존도	*시대 및 존격 표기
2	국보	제314호	순천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	순천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	
3	보물	제578호	홍국사 대웅전 후불탱	여수 홍국사 대웅전 석가여래회도	*지명 및 도상 명의 명확화 *화기 : 영산회
4	보물	제593호	이상좌불화첩	이상좌 불화첩	*띄어쓰기
5	보물	제670호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 탕화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	*지명 및 도상 명의 명확화
6	보물	제784호	지장도	고려 지장보살도	*시대 및 존격 표기
7	보물	제924호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 후불탱화	구례 천은사 아미타 여래회도	*지명 표기 *개선명칭 표기
8	보물	제925호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하동 쌍계사 석가여래 회도	*지명 표기 *화기 : 영산회
9	보물	제926호	수월관음보살도	고려 관음보살도	*시대 및 도상 개념 제외
10	보물	제1041호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양산 통도사 팔상도	*지명표기
11	보물	제1042호	통도사대광명전삼신불도	양산 통도사 비로나자 삼신불회도	*지명 및 도상 명의 명확화 *전각명 삭제
12	보물	제1043호	순천 송광사 십육조 사진영	순천 송광사 십육조사 진영	*띄어쓰기
13	보물	제1044호	순천 선암사 대각국사 의천 진영	순천 선암사 의천 진영	*존칭 삭제
14	보물	제1048호	지장시왕도	고려 지장시왕도	*시대 표기
15	보물	제1204호	의겸 등 필 수월관음도	관음보살도	*작자 제외 및 도상의 보편적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개념적용
16	보물	제1214호	과계사영산회상도	대구 과계사 석가여래회도	*지명 표기 *화기: 영산탱
17	보물	제1238호	아미타여래도	고려 아미타여래도	*시대 표기
18	보물	제1239호	감로탱화	감로도	*용어통일
19	보물	제1272호	불영사 영산회상도	울진 불영사 석가여래회도	*지명표기 *화기 영산탱
20	보물	제1273호	해인사 영산회상도	합천 해인사 석가여래회도	*지명표기 *화기 영산회도
21	보물	제1286호	수월관음도	고려 관음보살도	*시대 표기
22	보물	제1287호	지장보살삼존도	지장보살삼존도	*여말선초
23	보물	제1302호	청룡사 감로탱	안성 청룡사 감로도	*지명표기
24	보물	제1314호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도	강진 무위사 극락전 관음보살벽화	*지명표기 *장르의 명확화
25	보물	제1326호	함창 상원사 사불회탱	함창 '상원사명 사불회도	*용어통일 *중앙박물관소장
26	보물	제1330호	예천 용문사 팔상탱	예천 용문사 팔상도	*지명 및 도상 명의 명확화
27	보물	제1332호	홍국사 수월관음도	여수 홍국사 관음보살도	*지명표기 및 도상의 보편적 개념적용
28	보물	제1333호	홍국사 십육나한도	여수 홍국사 십육나한도	*지명표기
29	보물	제1352호	통도사 화엄탱	양산 통도사 화엄경 변상도	*지명 및 순천 송광사 지정예를 따라 명칭 부여
30	보물	제1353호	통도사 영산회상탱	양산 통도사 석가 여래회도	*지명표기
31	보물	제1363호	화엄사 대웅전 삼신 불탱	구례 화엄사 비로자나 삼신불회도	*지명표기 및 도상의 명확화
32	보물	제1364호	쌍계사 대웅전 삼세	하동 쌍계사 석가여	*지명표기 및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불탱	래삼불회도	도상의 명확화
33	보물	제1365호	쌍계사팔상전팔상탱	하동 쌍계사 팔상전 팔상도	* 지명표기 및 도상의 명확화
34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 후불탱·십육나한탱	순천 송광사 응진당 석가여래회도 및 십육나한도	*지명표기 및 도상명의 명확화 *화기:영산탱
35	보물	제1368호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팔상탱	순천 송광사 영산전 석가여래회도 및 팔상도	*지명표기 및 도상의 명확화
36	보물	제1397호	영국사 영산회후불탱	영동 영국사 석가여래회도	*지명표기 *화기:영산일부
37	보물	제1426호	수월관음도	고려 관음보살도	*시대 표기
38	보물	제1472호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	양산 통도사 아미타여래회도	*지명표기
39	보물	제1506호	순천 선암사 선각국사도선 진영	순천 선암사 도선 진영	* 타 분야 명칭 기준을 따라 존호 생략
40	보물	제1522호	영산회상도	석가여래회도	*용어통일 *화기:영산회
41	보물	제1553호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	순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도	*용어통일
42	보물	제1554호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순천 선암사 삼십삼조사도	*숫자는 한글로
43	보물	제1638호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구미 수다사 석가여래회도	*용어통일
44	보물	제1642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괘불도	변동 없음	*화기:영산회일부
45	보물	제1651호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불도 및 복장유물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불회도 및 복장유물	*용어통일
46	보물	제1695호	하동 쌍계사 괘불도	변동 없음	
47	보물	제1731호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	함양 법인사 감로도	*용어통일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48	보물	제1732호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창원 성주사 감로도	*용어통일
49	보물	제1772호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변동 없음	
50	보물	제1773호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	변동 없음	
51	보물	제1797호	경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	경주 불국사 석가여래회도 및 사천왕 벽화	*용어통일 *화기: 영산회도탱
52	보물	제1799호	합천 해인사 지장시왕도	변동 없음	
53	보물	제1800호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변동 없음	
54	보물	제1816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변동 없음	
55	보물	제1854호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회도	
56	보물	제1855호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변동 없음	
57	보물	제1856호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변동 없음	
58	보물	제1857호	영천 은혜사 염불왕생첩경도	변동 없음	
59	보물	제1882-1호	고려 십육나한도 (제7 가리가존자)	변동 없음	
60	보물	제1882-2호	고려 십육나한도 (제15 아벌다존자)	변동 없음	
61	보물	제1883호	고려 오백나한도	변동 없음	
62	보물	제1887호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변동 없음	

순번	종목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명칭변경(안)	비고
			담무갈보살 예배도		
63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변동 없음	
64	보물	제1903호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고려 관음보살도	*보편적인 도상명 적용
65	보물	제1933호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변동 없음	
66	보물	제1934호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회도	
67	보물	제1956호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청도 용천사 석가여래회도	*용어통일 *화기:영산회
68	보물	제1957호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청도 대비사 석가여래회도	*용어통일 *화기:영산회
69	보물	제1958호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용어통일
70	보물	제1990호	대곡사명 감로왕도	‘대곡사’명 감로도	*용어통일, 따옴표
71	보물	제1994호	지장시왕도	변동 없음	
72	보물	제2012호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변동 없음	